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21-14

# 호계동

호계동은 안양시의 남쪽 관문으로, 주거·상업·공업이 혼재한 복합 생활권을 이룬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하며, 호계사거리와 범계역 일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와 기존 주거지가 공존하고 공장·물류시설도 자리한 다기능 지역이다.



제16권  
호계동



City Street Scene

##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첨삭을 하였다.

##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contents

---

### 1 호계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006

제1장 호계동의 지리와 생활 터전 / 008

제2장 호계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 048

### 2 호계동의 마을과 생활문화 / 080

제1장 호계동의 자연마을 / 082

제2장 마을을 잇는 호계동의 의례와 놀이 / 100

제3장 호계동에 등장한 도시 중산층의 주거, 경향맨션아파트 / 118

제4장 금성마을에서 어바인퍼스트까지, 호계1동 주거의 변화 / 140

### 3 호계동 공업지역의 형성과 변화 / 164

제1장 굴뚝산업에서 IT까지, 호계동 공업지역의 변천 / 166

제2장 산업용품 유통의 허브, 안양국제유통단지 / 188

제3장 제조의 시대에서 유통의 시대로, 안양가구단지의 변화 / 214

---

## 4 변화하는 호계동 주거환경 / 238

제1장 군포장의 역사를 이어받은 구군포 이야기 / 240

제2장 호랭이가 맞이하는 안양호계종합시장 / 260

제3장 외곽의 교도소에서 도심의 쟁점으로 : 안양교도소의 변화와 이전 운동 / 286

## 5 배우고 실천해온 호계동의 공동체 / 310

제1장 안양 남부 지역 교육의 산실, 안양남초등학교 / 312

제2장 호계동의 사회단체 / 340

제3장 군포공소에서 성장한 호계동성당 / 354

# 01

## 호계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제1장 호계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제2장 호계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 THE FUTURE OF STEEL

As the world's population grows, the demand for steel will continue to rise. In the United States, steel is used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from infrastructure to consumer goods. The steel industry is a major employer and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the economy.

However, the steel industry is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One of the most pressing is the ne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steel-making process is highly energy-intensive and a major source of carbon dioxide. The industry is investing in new technologies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emissions.

Another challenge is the need to diversify the industry's product mix. As the economy evolves, the demand for steel is changing. The industry is exploring new applications and markets to ensure its long-term viability.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steel industry remains a vital part of the global economy. With continued innovation and investment, the industry is well-positioned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steel in the years ahead.

The steel industry is a complex and dynamic sector. It is constantly evolving and adapting to the changing needs of the world. The future of steel is bright, and the industry is committed to meeting the challenges ahead.

As the world's population grows, the demand for steel will continue to rise. In the United States, steel is used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from infrastructure to consumer goods. The steel industry is a major employer and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the economy.

However, the steel industry is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One of the most pressing is the ne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steel-making process is highly energy-intensive and a major source of carbon dioxide. The industry is investing in new technologies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emissions.

Another challenge is the need to diversify the industry's product mix. As the economy evolves, the demand for steel is changing. The industry is exploring new applications and markets to ensure its long-term viability.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steel industry remains a vital part of the global economy. With continued innovation and investment, the industry is well-positioned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steel in the years ahead.

The steel industry is a complex and dynamic sector. It is constantly evolving and adapting to the changing needs of the world. The future of steel is bright, and the industry is committed to meeting the challenges ahead.

As the world's population grows, the demand for steel will continue to rise. In the United States, steel is used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from infrastructure to consumer goods. The steel industry is a major employer and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the economy.

However, the steel industry is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One of the most pressing is the ne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steel-making process is highly energy-intensive and a major source of carbon dioxide. The industry is investing in new technologies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emissions.

Another challenge is the need to diversify the industry's product mix. As the economy evolves, the demand for steel is changing. The industry is exploring new applications and markets to ensure its long-term viability.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steel industry remains a vital part of the global economy. With continued innovation and investment, the industry is well-positioned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steel in the years ahead.

The steel industry is a complex and dynamic sector. It is constantly evolving and adapting to the changing needs of the world. The future of steel is bright, and the industry is committed to meeting the challenges ahead.

## 제1장

# 호계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 1. 호계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형성

### 1) 호계동의 지리적 특성과 시가지 형성

호계동은 안양시의 동남단에 위치한 법정동으로, 의왕시 및 군포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호계동에는 안양천을 접한 호계1동부터 호계3동까지와, 평촌신도시에 인접한 범계동·신촌동·갈산동까지 총 6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다. 이 지역은 남북방향의 길이가 동서방향보다 길며, 서쪽에는 호계1·2·3동이 남북으로 연속해 자리하고, 동쪽에는 범계동·신촌동·갈산동이 위치하고 있다.

호계동의 동쪽은 법정동 평촌동과 의왕시 내손동에 맞닿아 있으며, 의왕시 지역의 모락산 줄기와 접하고 있다. 서쪽은 안양천을 경계로 안양동과 마주하고, 남쪽은 군포시 금정동 및 당정동과 접한다. 북쪽은 법정동 비산동과 경계를 이룬다. 안양천과 국도 1호선 사이에 조성된 시가지는 비교적 오래전에 형성된 반면, 국도 1호선 동쪽에 위치한 시가지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다. 2000년대 이후 국도 1호선 주변의 노후 시가지 일부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재개발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

특히 호계동 북쪽,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안양동과 마주한 지역은 안양의 공업화 과정에서 일찍이 공업지대로 조성된 곳이다. 안양시의 구도심 안양동과 인접한 호계동은 공업단지의 입지와 함께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달하였다. 안양천과 국도 1호선 사이 지역은 개발 역사가 오래된 반면, 국도 1호선 동쪽 지역은 1990년대 평촌신도시 개발과 2010년대 후반 이후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가 주를 이룬다. 이 지역은 안양천을 따라 형성된 평지 위에 조성되



안양시의 동남단에 자리한 호계동

였으며, 행정구역 내에는 험준한 산지가 없고 구릉성 지형이 일부 존재할 뿐이다.

호계동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남북방향의 국도 1호선 경수대로이다. 국도 1호선은 본래 안양동을 경유하였으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안양천 동쪽을 따라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다. 동서방향으로는 국도 47호선 흥안대교가 남쪽을, 신기대교가 중앙부를 통과하며 주요 간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도 1호선과 47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호계사거리이며, 이곳에서는 국도 1호선이 지하차도를 통과한다.

이외에도 귀인로와 시민대교가 동서방향 도로로 기능하며, 엘에스로·평촌대로·동안로 등의 도로가 남북방향으로 관통한다. 이들 도로망은 호계동 내외를 연결하는 지역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로 이어져 있으며, 지역 내 접근성을 높여 준다.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의 범계역 범계동, 인접 지역인 안양동의 명학역, 군포시의 금정역이 호계동과 가까운 주요 철도역이다. 또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평촌나들목(IC)이 위치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여 준다.



6인구

평촌중앙공원

평촌동

범계동

호계2동

호계체육관

신촌동

호계5동

갈산동

100

호계1동

호계동의 행정구역

호계3동

공평동





## 2) 모락산에서 흐른 삶의 터전

안양천 동쪽 지역은 예로부터 겨울철 추위로 인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으며,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한편, 호계근린공원이 위치한 산지는 해발 고도 100m를 조금 넘는 구릉지로, 주변 산지와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지형이다. 이 구릉지는 수리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말단처럼 보이기도 하나, 실제로는 모락산 줄기가 서북쪽으로 흘러내린 것이다. 호계동 안양천을 향해 자리한 이 구릉성 산지의 서쪽은 경사가 심한 반면, 동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구릉지에 형성된 마을들은 모두 산지의 동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모락산의 서사면에 해당하는 의왕시 내손동과 갈미마을에서는 다수의 고인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청동기시대 이후 모락산의 서북 경사면에 조성된 농경지를 기반으로 한 집단 거주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sup>1</sup> 호계동은 안양천의 상류 지역에 해당하며, 모락산 자락에 형성된 농경지를 바탕으로 정착하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모락산 정상부에 축조된 모락산성은, 이 지역이 예로부터 남북방향의 교통로 상에 위치한 요충지였음을 보여준다. 호계동은 안양천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동북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통로, 남쪽으로 향하는 교통로가 교차하는 교통 결절점이었다. 이처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빈번했던 호계동은 내륙과 서해를 연결하는 길목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모락산과 모락산성은 호계동의 지리적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모락산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형성한 구릉지 북쪽에는 안말[내촌, 內村]이 있었고, 안말 남쪽으로는 셋터말[신기, 新基]이, 그 동쪽으로는 신말[신촌, 新村]이 위치하였다. ‘안말’은 숲이 우거진 산사면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안말과 셋터말 사이에는 ‘방죽말[방축동, 防築洞]’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신말과 셋터말은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며 형성되었고, 그 사이를 흐르는 소하천은 모락산에서 발원하여 달안이들로 흘러들었다. 안말과 셋터말은 동일한 산의 말단부에 자리하였으며, 신말은 귀인마을과 같은 산자락에 형성되었다. 귀인마을은 현재 평촌동에 속한 귀인동으로 편제되었다. 한편, 모락산이 달안이들의 평지와 맞닿은 지점에는 갈미마을이 위치하였고, 그 남쪽에는 당살미마을이 자리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수원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가 호계동 남단에서 분기되었으며, 안양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는 훗날 국도 1호선으로 지정된 노선의 전신에 해당한다. 한편, 호계동에서 동북쪽으로 분기하여 모락산 자락을 따라 인덕원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1960년대 호계방죽 일대의 마을과 농경지 (1964년)  
 호계동 토박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방죽은 이듬해 모내기 위해 물을 가둬두는 방죽논이었다고 한다.

현재의 국도 47호선과 일부 구간이 겹친다. 인덕원 방면으로 향하던 이 도로를 따라 호계동에 속한 갈미마을, 평촌동에 속한 민백이·별말 등의 노변취락이 성장하였다.

방죽말의 지명유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호계방죽의 정확한 축조 시기는 전해지지 않으나, 『여지도서(輿地圖書)』 「과천현」의 제언 항목에 “호계리경자제언(虎溪里競字堤堰)”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둘레는 640척, 깊이는 3척”이라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방죽을 ‘범계 방죽’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방죽의 수원은 모락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였으며, 소하천의 흐름을 막아 독을 쌓아 조성된 구조였다. 방죽 인근에 형성된 마을은 ‘방죽말(방축동)’이라 불렸고, 이 마을은 전주 이씨가 약 1,600년경부터 거주한 집성촌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셋터말은 방죽말과 안말에서 분가한 이들이 정착한 곳이다.<sup>2</sup> 이 방죽은 안양 시내를 관통하던 국도 1호선의 우회도로가 방죽말 동쪽에 개설되고, 해당 지역이 안양6지구 구획정리사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1970년대 후반 사라지게 되었다.

### 3) 자연에서 도시로 이어진 안양천 변화의 흐름

호계동은 안양천 동쪽에 위치하며, 군포시와 안양시의 경계 지점에 있어 안양동과 연결된다. 안양천은 의왕시 지지대고개 북사면에서 발원하여, 호계동 구간에서는 모락산에서 흘러내린 지류와 합류하고, 쌍개울에서 학의천과 만난다. 이 구간에서는 당정천과 산본천이 안양천에 합류하는데, 당정천은 군포시 당동에서 발원하여 군포공단을 통과한 후 금호교 남쪽 조일공원 근처에서 합류하고, 산본천은 수리산 남단에서 발원하여 산본신도시를 거쳐 호계교 부근에서 안양천과 만난다.

안양천은 호계동에서 안양동에 이르는 구간까지는 지방하천으로 분류되며, 안양동에서 유로(流路)가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부선 철교 아래 안양교 부근에서부터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안양천은 현재 안양시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불리지만, 과거에는 ‘군포천(軍浦川)’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상류 지역인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에서는 ‘사근천(沙斤川, 사그네)’이라 불렸으며, 하류 지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대에서는 ‘대천(大川)’, 양천구·영등포구 일대에서는 ‘오목내’로 불리는 등 다양한 명칭을 지녔다. 안양 지역에서는 ‘호계’ 또는 ‘범계’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호계동의 지명유래와도 관련된다.

본래 안양천은 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예술공원 계곡을 지나는 삼성천을 가리켰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하천 명칭 정비 과정에서, 안양시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하천이 ‘안양천’으로 명명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안양천이다. 또한 안양천은 조선시대 정조가 현릉원에 참배하기 위해 남행하던 행차, 즉 화성 행행(行幸) 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3</sup> 이때의 주요 도보 경로에는 안양천을 횡단하는 만안교가 포함되며, 이 구간은 지지대고개까지 연결되었다.

안양천 상류는 침식 작용이 활발하여 협곡 형태의 좁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지만, 호계동 구간에 이르러 하천의 동·서쪽으로 넓은 충적지가 발달한다. 이 충적지는 안양천의 반복적인 범람으로 형성된 지형으로, 오래전부터 농경 활동을 가능케 하여 정착 생활의 기반이 되었다. 호계동 주민들은 해발 고도가 낮고 완만한 동사면에 마을을 형성하였고, 마을 앞쪽의 넓은 들을 농경지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농경지는 이들에게 ‘문전옥답(門前沃畝)’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생활 터전이었다.

그러나 이들 충적지는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줄 자연 지형이 부족하였고, 지하 수위가 낮아 식수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의 위험이 컸다.<sup>4</sup> 이에 따라 초기 호계동의 마을들은 안양천과 접한 서사면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동사면의 구릉지에 자리하였다. 특히 안양천 동쪽 지역은 안양지방의 곡창지대로 알려진 달안인들이 있던 곳이다. 달안이들은 안양천과 학의천으로 둘러싸인 평지로서, 구릉이나 야산이 없는 평탄한 지형이었다. 이 지역은 학의천 남쪽에서 호계동까지 이어지며, 호계동의 안말·신말·샛터말 등의 전통 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이용하던 생활 터전이었다.

과거 안양천은 현재보다 유로가 훨씬 구불구불한 형태를 보였다. 1960년대 말부터 안양의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시가지 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안양천의 유로가 정비되어 물길이 지금처럼 반듯하게 조정되었다. 1977년 7월, 안양천 일대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안양시는 1978년 「안양천 수계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제방이 축조되었고, 하천 주변에는 기계·전기·전자 산업 관련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들 제조업체는 오늘날까지 안양천 동쪽 지역에 남아 있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 안양천은 오염도가 심각한 하천으로 전락하여 한강의 주요 지류 중에서도 수질 오염도가 가장 높은 하천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992년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서 수질이 점차 개선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었다. 오늘날 안양천은 안양 시민의 주요한 생활 기반이자 생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하천수는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양천 둔치가 산책로·운동 공간·수변공원 등으로 재정비되었으며, 호계동 공업지역 구간에는 조일공원과 정원공원이 조성되었다. 안양천 호계동 구간에는 구군포교·군포교·호금교·금호교·보령교·호계교·동양교·호계대교·명학대교·호안교·전파교·서로교 등의 교량이 있다. 이들 교량을 통해 호계동은 군포시와 안양동 시가지 등 주변 지역과 긴밀히 연결된다.

#### 4) 안양천 변에 형성된 군포장

하천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안양천을 따라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하천 변에 교통로가 발달하였고, 동시에 물자의 이동도 이루어졌다. 호계동의 남서쪽 안양천 변에는 조선시대에 ‘군포장(軍浦場)’이라는 장시(場市)가 개설되었다. 안양의 남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한 호계동은 오래전부터 삼남 지방의 물자가 통





1960년대 후반 호계1동 일대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안양천과 구릉지 사이 평야에 당시 국도 1호선이 지나고, 도로변에 금성전선·락희화학·금성통신·조일제지 등의 공장이 들어섰다. 오른쪽 안양천과 도로 사이 마을이 구장터 또는 구군포이다. 호계동의 자연마을은 주로 구릉지 동사면인 현재 호계2동 지역에 형성되었다.

과하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안양 북쪽의 과천·서울 등지의 물자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길목이기도 하였다. 또한 호계동은 서해안과 내륙을 왕래하던 교통로가 통과한 곳으로, 동서방향은 물론 남북방향의 교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호계동에는 조선시대에 장시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군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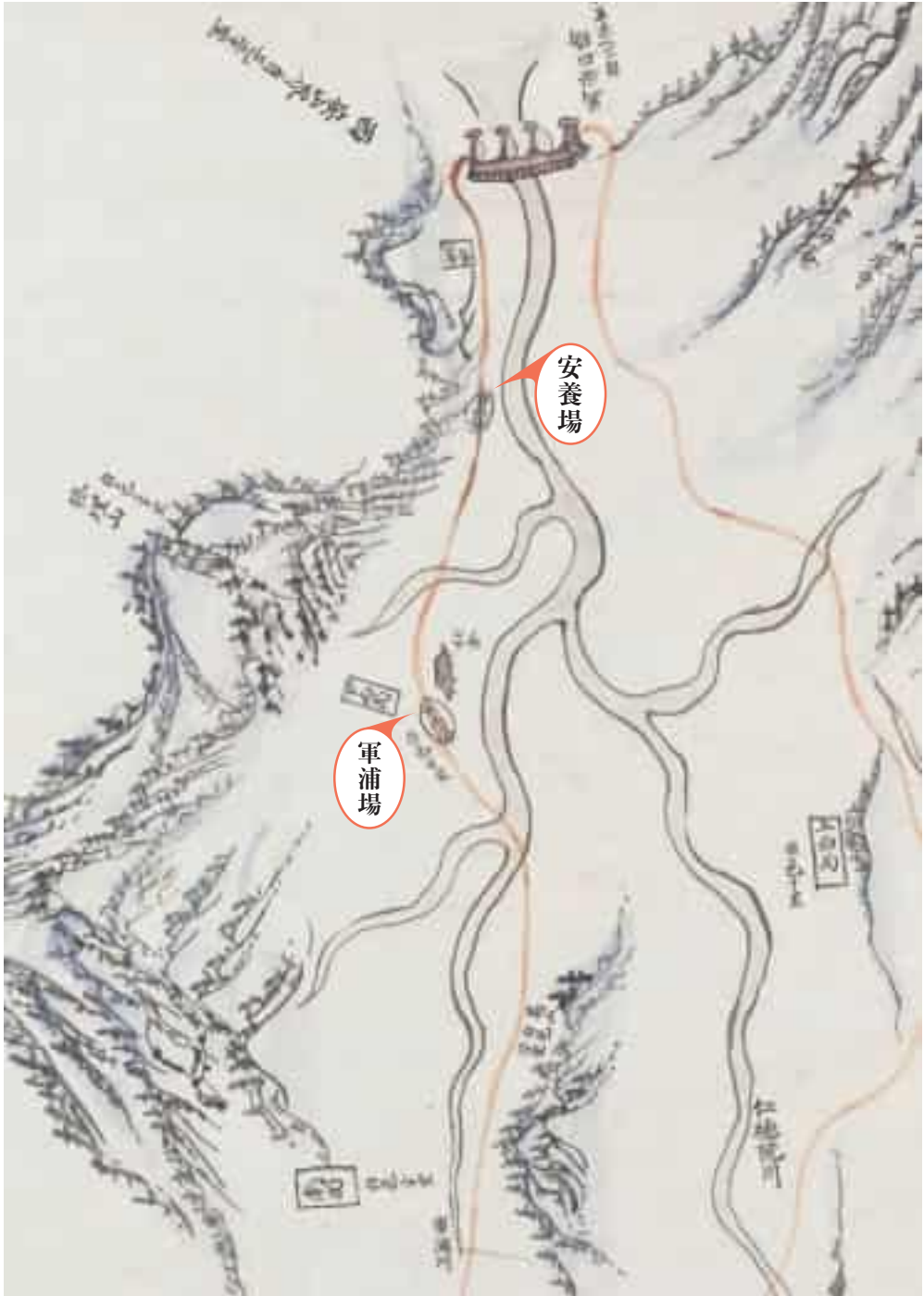
군포장은 이름만으로 군포시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본래 군포장이 형성되었던 장소는 호계동의 안양천 변이다. 군포장이 있던 장소는 안양국제유통단지의 남단에 위치한 유통단지사거리에서 안양천 변에 이르는 구간이다.

군포장이 처음 개설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매월 3일과 8일에 장이 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장이 열리는 날짜는 1905년에는 1·6일, 1923년에는 5·10일로 변화하였다. 호계동은 한양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도로 구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건설한 이후 군포장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1796년에는 군포장을 지금의 안양동 일대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안양동에 별도의 안양장을 개설하면서 군포장은 기존의 위치에 존치되었다.

군포장은 19세기 무렵 안양천(당시 군포천) 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군포천장(軍浦川場)’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군포장은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당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문을 모아 엮은 『공문편안(公文編案)』 제84책에 따르면, 군포장은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곡물·짚·달걀 등을 지참하여 미곡 상인들과 거래하였고, 포목이나 어물이 거래되기도 하였으나, 장시의 규모로는 소장(小場)에 해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군포장의 규모가 축소된 배경에는 수원화성 북문에 개설된 ‘북문밖장’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군포장과 북문밖장은 직선거리로 약 10km, 군포장과 안양장은 약 4km 거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군포장의 장세가 자연스럽게 위축되었다.

군포장에서 거래된 품목으로는 담배, 소금, 광목을 비롯하여 쌀·콩·조·보리쌀 등의 농산물이 있었다. 안양은 사방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결절점에 위치한 관계로, 군포장에는 군포·의왕·과천은 물론 용인과 남양(화성) 등지의 상인들이 모여 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군포장에서는 씨름과 줄다리기 대회 등 민속놀이도 개최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05년, 군포장 맞은편에 안양천(일명 맑은내)을 사이에 두고 설치된 철도역의 명칭이 ‘군포장역’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군포장은 1919년 3월 31일, 안양과 주변 지역에서 모인 2,000여 명의 주민이 만세시위를 벌인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군포시의 군포역 광장에는 ‘군포항일독립만세운동



19세기 지도에 표시된 군포장과 안양장(1872년)



안양천 동쪽에 자리했던 군포장(1918년)

기념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탑의 뒷면에는 호계동에 자리한 군포장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음이 명기되어 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당시 안양천이 범람하면서 군포장 일대가 휩쓸리면서 군포장은 폐쇄되었다. 대신에 일부 기능은 안양 역전으로 이전되어 '안양시장'으로, 일부 기능은 당시 시흥군 남면 당리에 위치한 경부선 철도의 군포장역 앞으로 이전되어 '군포시장'으로 발전하였다. 군포시장은 군포장의 명칭을 계승한 셈이다. 호계동의 군포장 터는 '구군포' 또는 '구장터'로 불리게 되었으며, 군포장역은 1938년 경부선 철도가 복선화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군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군포장 일대는 광복 직전까지만 해도 인가가 많지 않은 한적한 마을이었으나, 1963년에 안양교도소가 설치되고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변화한 시가지로 변모하였다. 이후 경수산업도로가 개설되면서 더욱 빠르게 도시지역으로 발전하였다. 2014년에 도로명주소가 채택되기 전까지 이 일대의 도로명은 '구군포길'이었고, 여기서 분기한 소로(小路)는 구장터1로·구장터2로·구장터3로 등으로 불렸다.

유통단지사거리는 '구군포사거리'로 불렸다. 이 일대를 지나는 대로는 대기업의 명칭

을 탄 ‘엘에스로’가 채택되어 사용되며, 골목길 역시 대로 이름에서 파생된 도로명을 지니고 있다. 군포교와 구군포교라는 교량을 통해 옛 군포장의 흔적을 일부 확인할 수 있으나, 호계동에 군포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점차 사라져 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2. 호계동의 행정구역 변천과 지명유래

### 1) 행정구역의 변천과 행정동 구성

『호구총수』에 따르면, 호계동은 1789년 과천현 하서면(下西面) 호계리와 도양리(道陽里)로 나뉘어 있었다.<sup>6</sup> 이들 마을은 1895년 과천군 하서면 호계리와 도양리가 되었으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천군이 시흥군으로 편제되면서 시흥군 서이면(西二面) 호계리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다. 호계리는 서이면의 면사무소 소재지였으며, 호계리에 편입된 자연마을로는 안말·셋터·도양 등이 있었다. 현재 법정동 호계동에 속하는 행정동 신촌동과 갈산동은 당시 각각 신말[新村]과 갈미[葛山]로 불렸으며, 이들 마을은 법정동 평촌동에 해당하는 이동리(二洞里)로 편제되었다. 1941년에는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가 되었다.

1949년에는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로 편제되었고, 1973년 7월 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호계리는 호계동이 되었다. 호계동은 안양시 승격 당시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였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1983년 10월 행정동 호계1동과 호계2동으로 분동되었다. 1985년 11월에는 호계1동이 호계1동과 호계3동으로 분동되었다. 평촌신도시 개발 이후인 1992년 5월에는 호계2동에서 범계동이 분동되었으며, 1993년 2월에는 범계동에서 신촌동이, 같은 해 5월에는 호계1동에서 갈산동이 각각 분동되었다. 이로써 호계동에는 모두 6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었다. 안양천의 동쪽에 위치한 호계동은 1992년 10월 1일 안양시의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호계동에 설치된 6개의 행정동 가운데 법정동 지명에서 파생된 호계1·2·3동은 시가지 개발의 역사가 다른 행정동에 비해 비교적 오래된 지역이다. 이는 안양동에서 시작된 안양시의 도시화 및 공업화가 경부선 철도 및 옛 국도 1호선의 노선을 따라 남쪽으로 확



호계동사무소(197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산하면서, 안양천에 인접한 지역에 1970년대부터 공장이 입지하고 주택단지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은 평촌신도시 개발 이후인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에 따라 안양천 변에 자리한 호계1·2·3동의 시가지에는 아직도 제조업체가 다수 존재하나, 과거 달안이들 및 농경지로 활용되던 호계동 동쪽 지역은 대부분 신시가지로 변화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호계1·2·3동의 일부 구역은 노후 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공동주택단지로 재탄생하였다.

신시가지로 구성된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의 행정 경계는 대체로 반듯한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구분하기 쉬운 편이다. 반면 호계1·2·3동의 행정 경계는 오래전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경계를 식별하기 어려운 구역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안양시 남단에서 의왕시 오전동과 접경을 이루는 호계3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호계3동은 안양천이 경계를 형성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동남쪽에서 의왕시 오전동과 마주하며, 서쪽으로는 군포시 당정동과 접경한다. 군포시 당정동과는 국도 1호



김산동사무소 개소식(199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선 경수대로로 명확히 구분되지만, 오전동과는 반듯하지 않은 소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구획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 2) 지명의 유래

호계동의 ‘호계’는 주민들이 사용하던 명칭 ‘범계’를 한자화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한자화한 호계(虎溪)가 단독으로 사용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조선지형도』 「군포장」 도엽에는 호계리와 함께 ‘범계(ボムゲ)’로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다. 본래 호계는 ‘범내’에 대한 한자 표기이며, 범내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범계로 변형된 것으로 알려진다.<sup>7</sup> 범내에 대해서는 마을 일대에 범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지명이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sup>8</sup> ‘범은 내’가 ‘벗내’ 또는 ‘범내’로 변화했으며, 이후 한자화한 호계가 사용되었다는 견해도 있다.<sup>9</sup>

호계동에서 분동하여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인 ‘범계’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호계동

의 옛 지명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범계동이 설치된 시기는 1992년 5월인데, 범계라는 이름은 1991년에 범계초등학교·범계중학교의 학교명으로 이미 확정되었다. 이들 학교는 범계동 설치 이전인 1992년 3월에 개교하였다. 즉, 새롭게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범계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범계는 순우리말 ‘범’과 한자 ‘계(溪)’가 합성된 명칭이어서 범계동의 한자 지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93년 1월 15일 개통한 수도권 전철 4호선 범계역의 한자 표기는 ‘범계(凡溪)’로 정해졌다.

신촌동 지명은 호계동에 있던 자연마을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모락산 줄기가 달안기들과 만나는 지점에 있던 마을 가운데 하나가 신말이었으며, 이를 한자화해서 신촌(新村)이 되었다. 마을 형성 시기가 다른 마을에 비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새로 생겨난 마을이라는 데에서 신말이 되었다고 한다.<sup>10</sup> 19세기 말의 『구한말지형도』에는 신촌의 한자 지명과 일본어 ‘신촌(シンチョン)’이 병기되어 있지만, 20세기 초의 『조선지형도』에는 신촌의 한자 지명과 일본어 ‘신말(シンマル)’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신촌과 신말 지명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신말은 본래 호계리와 마주하는 구릉지에 자리 잡았기에, 평촌동 소속이 되었다가 호계동의 관할로 편입되었다.

갈산동은 흥안대로 건너편의 의왕시 내손동과 마주하는 지역인데, 내손동에도 동일한 지명이 존재한다. 내손동에서는 갈산의 순우리말인 ‘갈뫼’ 혹은 ‘갈미’가 붙은 갈뫼초등학교와 갈뫼중학교, 갈미공원에서 확인된다. 인접한 두 도시에 동일한 지명이 공존하는 이유는 갈산마을의 형성과 확장 과정의 특수성 때문이다. 본래 갈산마을은 마을 규모가 커지면서 범위가 확대되었고, 1936년 개설된 서울과 남양을 잇는 도로가 마을을 관통함에 따라 도로의 동쪽은 시흥군 의왕면 내손리(지금의 의왕시 내손동)에 편제되었고, 서쪽은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지금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로 편제되었다. 이후 안양시와 의왕시가 성립하면서 두 도시 모두 갈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갈산은 순우리말 이름인 갈미를 한자화한 것으로, 『구한말지형도』는 물론 『조선지형도』에서 모두 일본어 갈미(カルミ)가 병기되어 있다. 갈미는 수원과 서울을 잇는 교통로의 분기점, 즉 ‘갈라지는 곳’을 뜻한다는 견해도 있고,<sup>11</sup> 갈미의 ‘미’는 산을 의미하는 ‘뫼’의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1700년대 전반기에 제작된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에는 ‘갈산주막(葛山酒幕)’이 표기되어 있다. 갈산주막은 동작나루에서 삼남 지방으로 연결되는 삼남대로에 자리한 중요한 주막 가운데 하나였다.



호계동 경수대로 지하보도 벽면에 조성한 모자이크 벽화.  
호랑이, 덕고개, 우물제, 모락산 등 호계동과 관련 있는 소재들이 표현되어 있다.

### 3. 안양천 변의 농촌 지역에서 복합기능을 지닌 시가지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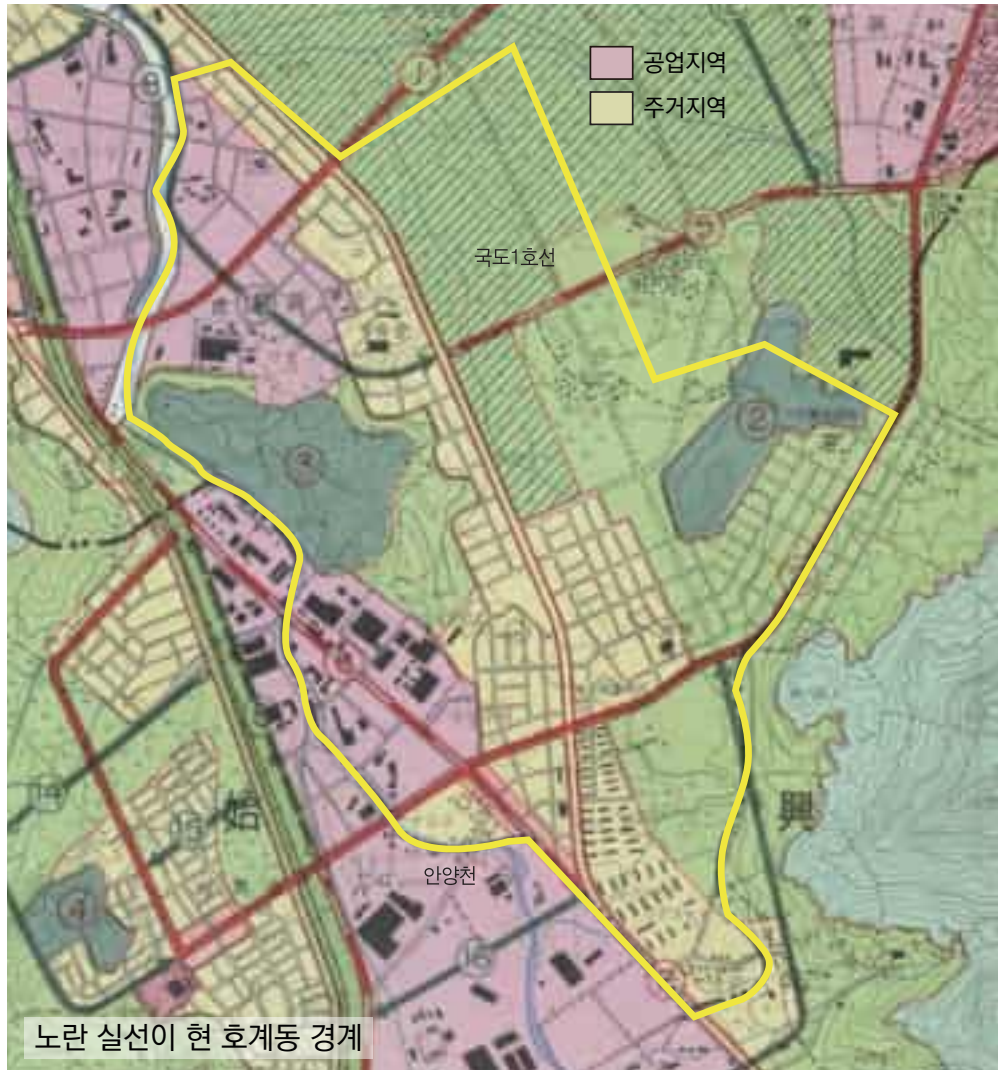
#### 1) 제조업 입지와 함께 시작된 도시화

호계동의 도시화는 1960년대 제조업체가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30년대부터 공업화가 진행된 안양동과 마주하는 호계동은 대한민국의 공업화가 본격화한 1960년대부터 제조업체의 입지가 시작된 곳이다. 1962년 설립된 한국케이블공업이 그해 10월 공장 기공식을 거행한 것이 호계동 공업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지금의 LS전선이다. 1963년 3월에는 한일나이론 안양공장의 기공식이 호계동에서 있었다. 한일나이론은 1970년 동양나이론(효성의 전신)에 인수합병되어 지금도 호계2동에 효성 안양공장으로 가동되고 있다.

호계동의 공업화는 주변의 농경지를 점차 공업지대로 변화시켰다. 효성 안양공장이 자리한 곳에 들어선 한국나이론이 안말 서쪽에서부터 안양의 중심지로 연계되는 지역의 공업화를 이끌었다면, 한국케이블공업은 구 장터 일대의 공업화를 선도하였다.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호계동의 공업화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안양천을 따라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구 장터 근처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락희화학(樂喜化學)과 금성통신 등의 제조업체가 자리하였고,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전파교 동쪽에는 또 다른 제조업체들이 자리 잡았다. 안양의 공업화가 촉진되면서, 호계동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입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호계동은 안양시의 새로운 공업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공업지역으로의 성장은 공장 주변 지역의 택지개발을 촉진하였다. 자연스럽게 주거지 개발도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시 승격 이후 안양시 도시계획에서는 군포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서부터 학의천과 합류하는 쌍개울 일대까지의 안양천 변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호계동을 통과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그 남쪽은 옛 국도 1호선의 양쪽 구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도 1호선 구간에서 안양천 변에 이르는 구역은 모두 공업지역이 되었다. 방죽말 북쪽은 안양천 동쪽의 국도 1호선 우회 구간에서 다소 이격된 구역까지 모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공업지역의 동쪽 구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호계동은 서편에 공업지역이 밀집해 있고, 동편에는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선 도시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제조업체의 입지와는 별개로, 1963년 9월에 호계3동 458번지 일대에 구치소와 함께



많은 공업지역을 포함한 호계동의 용도지역(1983년)

안양교도소가 들어섰다. 안양교도소는 서울에 있던 마포교도소가 수용력이 한계치에 다다른 동시에 마포 시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서울 외곽인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교도소 자리는 군포장이 있던 구장터 동쪽의 모락산 서사면이어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구장터 일대에 아파트와 주택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가지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안양교도소는 주택가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안양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등장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호계동은 계속해서 제조업체가 들어서면서 주거지로서의 성격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안양동이나 석수동처럼 대단위 주거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과 달리, 호계동은 기존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취락이 자연스럽게 주거지를 형성함에 따라 시가화(市街化) 구역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오래전부터 이용되었던 농경지 역시 새롭게 개설된 도로망에 의해 용도가 바뀐 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경지로 유지되었다. 신촌동과 갈산동은 안양의 중심 시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다가 제조업의 입지도 활발하지 않았던 만큼, 전형적인 농촌의 성격을 유지하였다. 평촌동에서는 1970년대에 본격적인 공업입지가 시작되었고, 시가지가 서쪽 호계동 방향으로 확산하였지만, 그 영향력이 호계동까지는 파급되지 못하였다.

호계동에 택지개발이 계획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1970년대 후반이다. 경향건설, 한국 도시개발 등의 건설업체가 호계동에 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하였다.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 서울에 주택 매매가 어려운 사람들이 전철 교통이 편리한 안양에 내 집 마

동양나이론을 비롯한 제조업체의 배후 주거지가 된 호계2동 호계초등학교 일대(1980년대, 이정범 제공)



련의 꿈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호계동을 비롯해 석수동과 비산동 등지에 아파트 단지와 연립주택이 많이 건설되었다. 1980년대 초반 호계3동 지역에 주공아파트 1,000여 가구를 비롯하여 경향아파트와 삼영아파트 등이 건설되어 1982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부분 입주를 마쳤다. 이들 아파트는 호계동 구장터에서 멀지 않은 유흥김벌리 맞은편에 주로 건설되었으며, 이후 건축 연대가 오래된 공동주택은 2000년대 초반 재건축을 거쳐 신규 고층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였다. 경부선 전철을 이용한 서울로의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제조업체의 입지에 따라 일자리가 풍부해지면서 호계동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택지 개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호계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의 서쪽에 대단위의 시가지 구역이 조성되었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상업시설의 입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2) 평촌신도시 개발과 호계동의 도시화

호계동은 1980년대 말까지 국도 1호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시가지가 발달한 도시적 성격이 강했고, 동쪽은 달안이들과 이어져 농촌 지역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달안이들의 남쪽은 자연마을이 그대로 유지된 채, 모락산에서 뺀 구릉지 사이로 농경지가 펼쳐져 있었다. 호계동에 변화를 불러온 것은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부터이다. 1980년대에 들어 서울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함께 주택 부족이 심각한 도시문제로 떠올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1988년 서울 주변의 경기도 지역에 5개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달안이들을 포함하는 평촌신도시였다.

평촌신도시는 1988년 호계동·비산동·관양동·평촌동 일대에 걸쳐 있던 학의천 남쪽 농경지에 대단위의 시가지를 개발하는 계획에 의해 조성된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이다. 국토 전체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자리는, 서울 도심에서 반경 25km 이내에 위치하여 서울·수원 등지와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었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발 농경지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1980년대 초반에 이미 택지개발 대상지로 주목받았던 지역이기도 하였다.

평촌신도시는 안양시의 구도심과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도시 내에서 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 시가지 개발의



1990년대 초반 호계동 전경(이정범 제공) 사진 오른쪽이 평촌신도시

역사가 오래된 기성 시가지인 안양동·박달동·석수동 등지와 연계됨으로써, 안양천 서쪽에 집중해 있던 도시의 무게중심을 안양천 동쪽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도시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평촌신도시의 개발계획은 일부 수정되어 인구 16만 8,7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4만 2,182가구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sup>16</sup> 신도시에는 기성 시가지에 자리한 시청과 경찰서 등 안양의 주요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28개의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성 시가지로부터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sup>17</sup> 호계동에 포함되는 평촌신도시는 행정동 범계동·신촌동·갈산동이며, 이들 행정동의 시가지는 경수대로의 동쪽과 신기대로의 북쪽에 주로 자리한다.

서울 사당역까지만 운행하던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은 평촌신도시를 거쳐 지하철 1호선 금정역과 연결함으로써 교통 문제 해결을 도모하였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은 안양시를 통과하여 시흥시까지 연장되었으며, 범계동에는 범계역이 설치되었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이 1호선과 교차하는 금정역은 호계동에서 안양천을 건너면 바로 도달할 수 있어서, 호계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최적의 지하철역이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법계역(200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호계동은 상대적으로 노후 시가지가 많은 지역이었다. 안양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호계1동 덕현지구(2,886세대, 2023년 입주), 호계1동 호원초등학교 주변 지구(4,154세대, 2024년 입주), 호계2동 용창아파트 주변 지구(2,417세대, 2024년 입주), 호계2동 호계온천 주변 지구(1,011세대, 2025년 입주 예정) 등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3년에 준공한 호계3동의 호계현대홈타운아파트와 호계e편한세상아파트는 경향아파트와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고층아파트 단지이다. 이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곳은 호계1동 981번지 일대의 호계주공아파트(평촌더샵 아이파크아파트), 호계3동 651-1번지 일대의 삼신6차아파트(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아파트), 호계2동 891-6번지 일대의 성광·호계·신라주택(평촌대성유니드아파트), 호계3동 851-27번지 일대의 남강주택(평촌신원의아침도시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이 고층의 아파트 단지로 재구성되면서 호계동의 신시가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3) 대지와 공장용지가 많은 시가지

2020년 기준 호계동의 면적은 5.20km<sup>2</sup>로 안양의 7개 법정동 가운데 평촌동에 이어 두 번째로 좁으며, 안양시(58.47km<sup>2</sup>)의 8.9%를 차지한다. 6개의 행정동별 면적은 호계2동(1.41km<sup>2</sup>)이 가장 넓고, 호계1동(1.05km<sup>2</sup>)·호계3동(0.75km<sup>2</sup>)·갈산동(0.69km<sup>2</sup>)·신촌동(0.66km<sup>2</sup>)·범계동(0.64km<sup>2</sup>) 순이다. 평촌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된 행정동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다.

1973년 안양시 승격 당시 호계동의 면적은 지금보다 훨씬 좁은 3.62km<sup>2</sup>로, 안양시 면적(58.16km<sup>2</sup>)의 6.2%를 차지하였다. 호계동의 면적은 안양시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 경계 조정을 통해 시 승격 이후 확장되었다. 동 전체의 면적은 1980년 3.85km<sup>2</sup>, 1990년 3.76km<sup>2</sup>로 시 승격 당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평촌신도시 개발 직후인 1993년(4.71km<sup>2</sup>)과 1994년(4.98km<sup>2</sup>)에 확장 폭이 커졌으며, 1995년 5.20km<sup>2</sup>로 다시 한번 확대된 이후 큰 변함 없이 이어지고 있다. 1994년 12월 22일 호계동의 일부가 인접한 군포시로 편입되었지만, 같은 해 12월 26일 평촌동의 일부가 호계동에 편입됨에 따라 1995년에 전체 면적이 확장되었다.

〈표 1〉 호계동의 주요 지목 구성 변화

(단위: m<sup>2</sup>)

연도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1997년	5,200,689	88,558	80,943	479,567	2,407,798	408,568	195,720	1,032,985
2000년	5,207,968	81,873	64,271	470,182	2,399,131	465,710	195,951	1,033,476
2005년	5,207,960	73,138	55,634	403,148	2,483,735	424,086	208,358	1,041,110
2010년	5,207,960	69,107	51,687	402,101	2,467,399	409,833	208,628	1,058,790
2015년	5,207,960	62,561	44,673	386,799	2,453,525	394,446	209,585	1,072,260
2020년	5,207,332	61,908	43,020	381,526	2,448,802	380,830	209,585	1,084,254

자료: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각 해당 연도.

법정동별 지목(地目)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1997년 이후 2020년에 이르기까지, 호계동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목은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이용되는 ‘대지’이다. 호계동은 안양시 승격 당시에 시가지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이어서 농경지와 임야가 풍부한 곳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 부분의 농촌적 요소가 도시화 되었다.

이에 따라 농경지와 임야 면적은 점점 감소하였지만, 대지 면적은 꾸준한 증가세를



호계1동 LS전선(200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나타내었다.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를 기록하였다. 농촌적 토지 이용에 해당하는 전과 답의 면적도 아주 미미한 지역이다. 전과 답을 합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3%를 기록하였지만, 2020년에는 2%로 감소하였다. 임야의 비중 역시 1997년 9.2%에서 7.3%로 줄어들었다.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이후 많이 증가하였다. 농지로 이용되었던 국도 1호선의 동쪽이 신시가지로 조성되면서 전과 답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그 자리에 대단위의 주택과 상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호계동에서 실제 농경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답을 찾기는 극히 어렵고, 지목이 전 또는 답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주택·공장·사무실 등의 건물이 들어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양천에 접한 구역을 제외하면, 호계동의 대부분 지역은 대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다.

대지가 많지 않은 안양천 변은 대체로 공장 입지 장소이다. 공장용지의 면적은 안양시에서 관양동 다음으로 넓으며, 안양시 전체 공장용지의 27.6%가 호계동에 분포한다. 공장용지는 호계2동에서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안양동의 공장용지와 연결되는 형태로 지정되어 있고, 호계3동에서는 안양천 변의 동측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안양동과 마주하는 공장용지에는 효성 안양공장을 비롯하여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어



전파교와 명학대교 사이 안양천 변의 호계2동 공업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입지가 탁월하지만, 호계3동의 안양천 변에는 중소형 제조업체의 수가 많지 않아 두 지역의 제조업 입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호계동에는 안양국제유통단지(안양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 유통단지는 금성통신이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1992년에 서울경기산업중기부품상연합회가 매입하여 조성한 것으로, 수도권 최대의 산업용품 전문 유통단지이다. 11만 6,848㎡의 부지에 지하 2층 및 지상 7층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산업기자재를 취급하는 공구상가와 아파트형 공장(디오밸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3월에 정식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곳에는 6만여 가지의 공구와 산업용품을 취급하는 3,930여 업체와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다.<sup>19</sup>

현재 호계동에서 향후 도시개발이 가능한 개발 가능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구릉지와 안양교도소가 자리한 지역이다.<sup>20</sup> 그러나 안양터널이 설치된 안양천 동쪽의 구릉지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녹지 공간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안양교도소는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있는 대상이지만,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안양교도소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그 부지는 신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언제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호계동은 당분간 개발사업을 통해 지목이 변경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보인다.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목 변경은 뚜렷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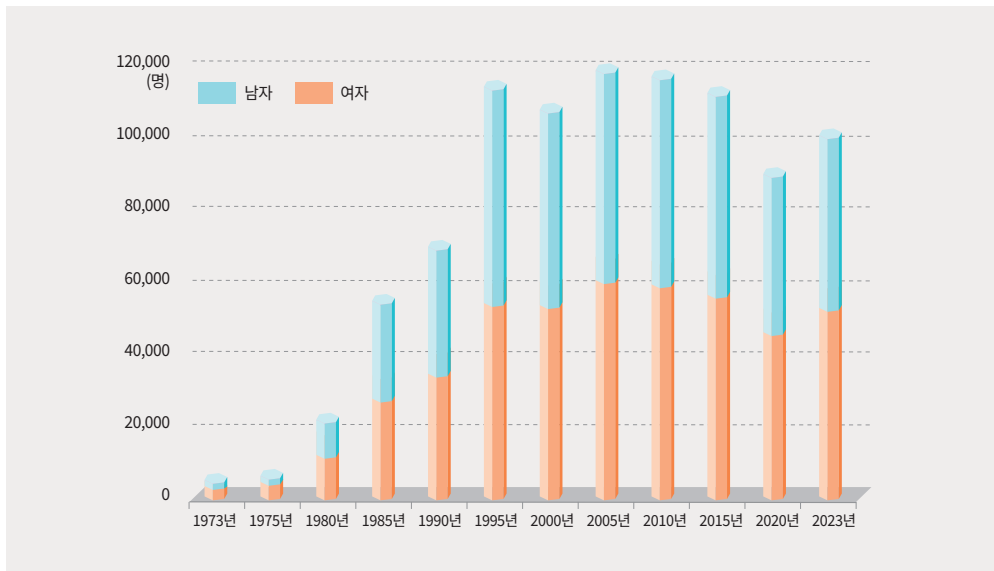
## 4. 호계동의 인구와 경제활동

### 1) 택지개발 및 평촌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변화

호계동의 인구 규모는, 안양시 승격 이후인 1973년부터 증가하여 1995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2002년을 저점으로 다시 한번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인구 규모는 증가와 감소가 두 차례 되풀이된 후 다시 증가하여, 인구가 많았던 200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 들어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인 취락 입지가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호계사거리 주변부에 시가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주택이 들어선 것이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1990년대의 평촌신도시 개발도 인구 증가의 대표적인 요인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호계사거리 서쪽 구역 호원초등학교 주변 지구와 호계사거리 동쪽 구역 덕현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서, 2020년 이후 호계동의 인구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안양시 승격 당시인 1973년 4,997명(남자 2,496명, 여자 2,501명)이었던 호계동의



호계동의 인구 규모

자료 :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각 해당 연도(국가통계포털 제공).

인구는 1978년(1만 33명)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고, 2년 뒤인 1980년(2만 1,992명)에는 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1985년(5만 5,334명)에는 5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시 승격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인구 증가 현상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1992년에 3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평촌신도시는 호계동의 농경지와 일부 자연마을을 포함하면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인구가 좀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신도시 개발 이후 국도 1호선 동측에 조성된 신시가지로 인해 호계동 인구 규모는 더욱 빠르게 늘어났다. 1990년 6만 9,564명이었던 인구는 평촌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후인 1993년 10만 3,259명으로 증가하였고, 1994년(11만 530명)에는 처음으로 11만 명을 넘었다. 이후 1995년에는 11만 4,742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당시 인구는 평촌신도시에 설치된 행정동보다 기성 시가지의 성격이 강했던 호계 1·2·3동에 더 많이 분포하였다. 1995년 기준 평촌신도시에 설치되었던 3개 행정동의 인구는 전체 4만 5,163명이었고, 호계 1·2·3동의 인구는 전체 6만 3,579명이었다.

〈표 2〉 호계동의 행정동별 인구 (2023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세대, 명)

구분	세대	인구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행정동	호계1동	8,164	21,354	10,746	10,608	2.60
	호계2동	7,469	18,942	9,302	9,640	2.52
	호계3동	8,948	23,289	11,600	11,689	2.59
	범계동	5,838	15,410	7,451	7,959	2.63
	신촌동	4,448	12,421	6,060	6,361	2.78
	갈산동	3,836	10,572	5,152	5,420	2.74
	호계동	38,703	101,988	50,311	51,677	2.64

자료 :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1996년부터는 호계동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에는 10만 7,541명이었다가 2002년에는 10만 5,211명으로 저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11만 9,91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구 증가는 호계3동 남단의 주택 재개발의 일환으로 2003년에 건설된 호계현대홈타운2차아파트와 호계e편한세상아파트의 영향이 크다. 이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로, 전체 3,729세대가 입주하였다. 2008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 인구 규모는 2017년 9만 7,739명으로 10만 명 선이 붕괴되었으며, 2020년에는



호계2동 주민자치위원회(호계2동행정복지센터 제공)

9만 692명으로 다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까지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인구는 10만 1,988명을 기록하였다.

호계동 인구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평촌신도시 개발이지만, 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택지개발 사업도 인구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0년대 이후의 인구 규모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의 영향이다.

호계동 인구 규모가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4.5%에 불과하였지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1985년에는 15.3%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19.3%까지 상승하였다. 인구 비중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 등락이 있었고, 2023년 12월 말 기준 안양시 인구의 18.5%를 차지하였다. 안양시 승격 당시와 비교하면, 호계동에서는 매우 큰 폭의 인구 증가가 있었으며, 이는 안양시 전체 인구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행정동별 인구는 주택 재개발 사업과 함께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호계3동의 인구가 2만 3,289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호계1동(2만 1,354명), 호계2동(1만 8,942명), 범계동(1만 5,410명), 신촌동(1만 2,421명), 갈산동(1만 572명) 순이다. 갈산동은 공원이 넓게 조성되어 있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하며, 다수의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어서 다른 행정동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크지 않다. 호계1동과 2동은 재개발 사업 지구의 공사가 완료되면 인구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에는 호계2동의 인구가 2만 5,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호계1동이 2만 709명으로 뒤를 따랐다. 그러나 2023년에는 호계3동의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뒤를

호계2동이 따르는 패턴으로 인구 분포가 변화하였다. 평촌신도시에 포함되는 지역의 2000년 인구는 범계동(1만 8,681명), 신촌동(1만 5,880명), 갈산동(1만 2,852명)이었지만, 이들 3개 행정동의 인구는 2023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나타내었다. 호계3동의 인구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다.

가구당 인구는 1973년에 4.77명으로 당시 안양시 평균 4.95명보다 조금 낮았다. 이후 1975년에 5.01명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뒤로는 계속 줄어들어 1983년(3.98명)에 4명 아래로 감소하였고, 2006년(2.94명)에는 3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2006년 당시 호계1동이 2.6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신촌동과 갈산동, 그리고 호계3동 등지는 3명을 넘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가구당 인구는 2.64명을 기록하여 안양시 평균(2.39명)과 동안구 평균(2.50명)보다 높다. 행정동별 가구당 인구는 신촌동(2.78명)이 가장 많았고, 호계2동(2.52명)이 가장 적었지만, 행정동 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 2) 40대와 50대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시가지

1973년 안양시 승격 당시 호계동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자(2,496명)와 여자(2,501명)의 인구 규모가 서로 비슷했지만, 1975년에는 여자(3,642명)가 남자(3,121명)보다 월등하게 많아지면서 여초현상이 뚜렷해졌다. 짧은 기간에 여자가 급격하게 많아진 이유는 호계동에 자리 잡은 제조업체의 영향이다. 제조업체가 남성 노동력에 비해 여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었기 때문이다. 남녀 간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은 이후 조금씩 완화되었지만, 1995년(남자 60,581명, 여자 54,161명)에는 남자가 여자를 크게 웃도는 남초현상이 두드러지기도 하였다. 남녀 간 인구 구성을 보여주는 성비는, 1973년 99.8이었다가 1975년 85.7로 감소하였고, 1995년에는 111.9로 증가하는 등 남녀 간 인구 구성의 널뛰기 현상이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나긴 했지만, 격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호계동은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많은 지역이며, 2023년 12월 말(남자 50,311명, 여자 51,677명)의 성비는 97.4를 기록하였다.

인구가 4,997명에 불과했던 1973년에는 1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남자가 조금 많았지만, 20~24세는 여자(294명)가 남자(167명)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반대로 30~39세는 남자(524명)가 여자(363명)보다 많아, 연령층에 따라 성별 인구 구성이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에는 1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

지만, 20~44세는 여자가 많았고, 44~59세의 장년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구성을 보였다. 2022년에는 3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남자가 많았지만,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많아 고령층으로 갈수록 여초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호계동은 고령 인구의 증가와 젊은 연령층의 감소로 인해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령화가 심한 단계는 아니다. 1973년 35.6%를 기록했던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000년 22.9%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13.0%를 기록하였다. 안양동의 2022년 유소년 인구 비율이 9.0%임을 고려하면, 호계동은 상대적으로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와 반대로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9.8%를 기록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지만,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2000년에는 4.7%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12.9%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 인구 비율(18.0%)은 물론 경기도(14.7%) 또는 안양시(16.4%)의 노인 인구 비율보다 크게 낮았다. 호계동은 안양 시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표 3〉 호계동의 연령층별 인구 구성 변화

(단위 : 명, %)

연령층	성별	1973년		2000년		2022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유소년 (0-14세)	남자	920	18.4	12,890	12.0	6,567	6.6
	여자	858	17.2	11,684	10.9	6,333	6.4
	계	1,778	35.6	24,574	22.9	12,900	13.0
청장년 (15-64세)	남자	1,542	30.9	38,861	36.3	36,620	36.8
	여자	1,187	23.8	38,632	36.1	37,238	37.4
	계	2,729	54.6	77,493	72.3	73,858	74.2
노년 (65세 이상)	남자	34	0.7	1,801	1.7	5,970	6.0
	여자	456	9.1	3,270	3.1	6,849	6.9
	계	490	9.8	5,071	4.7	12,819	12.9
전체	남자	2,496	49.9	53,552	50.0	49,157	49.4
	여자	2,501	50.1	53,586	50.0	50,420	50.6
	계	4,997	100.0	107,138	100.0	99,577	100.0

자료 :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각 해당 연도,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비고 : 비율은 연도별 총인구에 대한 것임.

1973년에는 10대 미만(25.9%)의 인구와 10대(20.6%)의 인구가 월등하게 많았지

만, 2000년에는 30대(19.3%)와 40대(18.6%)의 인구가 가장 많았다. 2022년에는 50대(17.1%)와 40대(16.1%)의 인구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계동의 주류를 이루는 인구 집단의 연령대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30대와 40대 연령층의 비중이 크게 형성된 것은 신도시 개발과 관련이 있고, 2022년의 40대와 50대의 비중 증가는 주민의 자연적 연령 상승에 기인한다. 1970~1980년대에는 연령층별 인구 구성에서 비중이 탁월한 연령층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연령층별 인구 비중의 편차가 감소한 가운데 40대와 50대의 비중이 다소 크게 형성된 정도이다. 2022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은 지역 차가 존재하는데, 갈산동이 15.8%로 가장 높았고, 호계2동에서도 14.6%를 기록하였다. 갈산동과 호계2동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셈이다. 2021년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진행된 호계1동의 노인 인구 비율은 8.7%에 불과하였다. 호계1동은 30대와 40대가 주요 연령집단이지만, 호계2동은 50대와 60대가 주요 인구 집단이고 갈산동은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연령층이 주요 인구 집단을 형성하였다.



호계동의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1973년의 인구 피라미드는 완전한 삼각형의 모양이 다소 왜곡된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연령이 상승할수록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패턴에서 20대와 30대 연령층의 인구 규모가 큰 이유는 전입 인구에 의한 인구 증가를 의미한다. 호계동에 제조업이 자

리 잡음에 따라 젊은 노동력의 유입이 많았는데, 여성과 남성 간 전입 인구의 연령층이 다소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당시 남자는 25~34세 층에서 전입 인구가 많았고 여자는 15~29세의 전입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연령층이 상승함에 따라 인구 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이들 연령층에서는 인구 규모가 크게 형성된 것이다.

2000년의 인구 구성은 전입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의 인구 구성 특징을 잘 반영하는 동시에 19세 이하에서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인구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모양을 보였다.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외부 지역에서 전입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30~44세 연령층의 규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큰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도시 지역에서는 대체로 중간 연령층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로부터 연령이 낮아지거나 높아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방추형의 모습을 보이면서, 인구의 주요 집단을 구성하는 연령층이 높아지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호계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동에 따라서는 각기 다른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났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호계동 전체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도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다만, 신규 개발지에 주민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규모의 증가와 함께 젊은 연령층의 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2022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2000년과 비교하면 주요 집단의 연령층 상승, 45~64세 연령층의 증가, 19세 이하 연령층의 감소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행정동별 평균연령은 호계1동 39.0세, 호계2동 42.0세, 호계3동 42.3세, 범계동 39.8세, 신촌동 40.9세, 갈산동 41.9세로, 안양시 전체의 평균연령(42.3세) 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연령을 통해 보면, 최근 아파트 건축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호계1동이 가장 젊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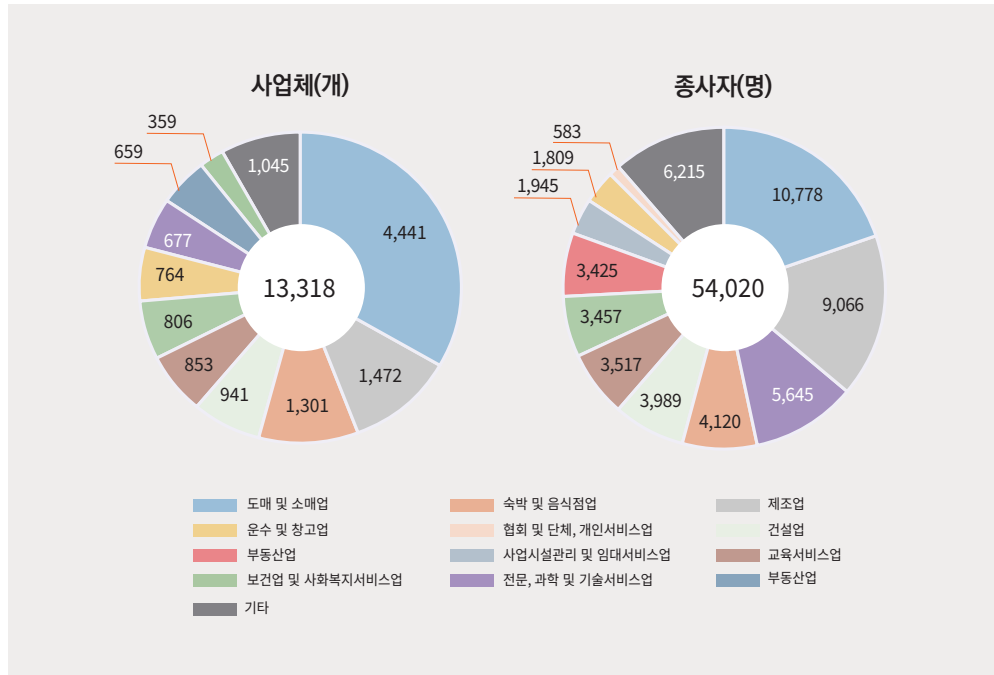
###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경제활동

호계동에 자리 잡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규모는 안양시의 다른 법정동에 비해 많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안양시에는 모두 6만 3,452개의 사업체에 27만 2,06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호계동에 자리 잡은 사업체는 도시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1만 3,318개이고, 종사자수는 도시 전체의 19.9%인 5만 4,020명이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4.1명으로 안양시 평균(4.3명)보다 적은 수치이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제조업체가 밀집한 호계2동(4.8명)과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범계동(4.5명)에 많고, 갈산동(2.8명)과 신촌동(3.0명)에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도시 외곽부에 자리한 갈산동과 주거단지 중심으로 구성된 신촌동에 소형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기준, 호계동에는 7,398개의 사업체에 3만 6,14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당시 안양시에서 차지한 비중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각각 22.4%와 23%였다. 호계동은 2021년 들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도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는 호계동의 경제활동 입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안양시 전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업체의 입지가 그리 활발했던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사업체 입지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 지역은 호계1동이었다. 호계1동에 자리 잡은 사업체수는 2000년 1,837개에서 2021년 5,091개로 증가하였다. 호계1동의 경제활동 증가는 2000년 7월 본격적으로 입점이 시작된 안양국제유통단지의 입지에 기인한다.



2021년 호계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상위 10개 업종

호계동의 경제활동 가운데 산업 대분류 방식을 적용해 보면, 안양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이 일부 확인된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34.5%), 제조업(28.5%), 도매 및 소매업(24.9%), 교육서비스업(24.1%), 건설업(23.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7%) 등이 도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43.2%), 제조업(25.6%), 도매 및 소매업(24.0%), 숙박 및 음식점업(20.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8.9%), 교육서비스업(18.6%), 부동산업(18.0%) 등의 업종이 도시 내 비중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 2021년 기준, 호계동에 가장 많이 입지한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이며, 이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이다. 종사자수의 분포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월등하게 많으며, 그 뒤로는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으로 많다.<sup>31</sup>

호계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은 호계1동에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은 범계동에서 입지가 탁월하며, 교육서비스업은 신촌동에 현저하게 많다. 신촌동과 평촌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귀인동 역시 교육서비스업의 입지가 매우 탁월한 지역인데, 이들 두 지역이 만나는 지점의 교차로 이름은 두 지역의 사업체 입지 성격을 반영하듯, '학원가사거리'이다.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호계1동으로, 이곳에는 5,091개의 사업체에 2만 745명의 종사자가 분포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범계동에 2,702개의 사업체와 1만 2,243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호계2동에는 2,168개의 사업체와 1만 350명의 종사자가 있다. 주거지역의 성격이 강한 갈산동에는 가장 적은 714개의 사업체에 2,011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인접한 신촌동에는 1,109개의 사업체에 3,358명의 종사자가 있다. 특히 신촌동은 전체 사업체의 28.5%에 달하는 316개가 교육서비스업체이며, 이들 교육서비스업에는 신촌동 전체 종사자의 47.6%인 1,597명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교육서비스업이 매우 특화된 곳이다.

## 5. 기성 시가지의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안양천 동편의 농경지를 중심으로 생계 활동을 이어온 사람들이 형성한 자연마을에서 발전한 호계동은,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공업화, 1970년대 이후의 시가지 개발 및 택지 조성, 1990년대 초 평촌신도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 공간이 변화해 왔



호계동 호원지구·덕현지구 재개발 사업(201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다. 시가지 발달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호계동 시가지는 개발 역사가 오래된 구역과 신시가지가 공존하는 동시에, 제조업 중심의 시가지와 주거 중심의 시가지가 공존한다.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안양에서는 안양천을 중심으로 공업단지가 형성되었으며, 안양천 동편의 공업지대는 지금의 호계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다. 안양으로 드나드는 길목 역할을 하는 호계동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장시가 있던 곳이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에는 장시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된 지역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호계동에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호계동의 장소성을 강화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역사 기록의 보존과 발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발의 논리에 의해 과거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호계동을 현대 도시의 체질에 맞도록 개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거의 사실에 대한 보존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안양시에 건설된 신도시 이름이 ‘평촌’이지만, 지금은 평촌이라는 명칭이 신도시 외

의 구역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호계동에서는 안양천 변에 접한 구역에 건축 중인 아파트의 명칭에 ‘평촌’이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신규 아파트에도 ‘평촌’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호계동에 신규 공동주택 단지가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노후주택도 많이 남아 있다. 노후주택이 불량한 주거 여건을 연상시킨다면, ‘평촌’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신규 아파트는 생활환경이 양호한 주택이 가지는 유·무형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 같은 경우, 호계동에서는 노후 주거지역과 신규 아파트 단지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경관상의 차이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와 그에 따른 도시 공간의 분리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요컨대, 호계동에서 전개되는 노후 시가지에 대한 재구조화는 호계동의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호계동은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제조업 공간, 주거 공간, 상업·업무 공간, 녹지 공간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시가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註

1. 하문식·백종오·김병희, 『백제 한성기 모락산성에 관한 연구』, 『선사와 고대』 제18권, 2003, 167~168쪽.
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522-523쪽.
3.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지명사전』, 푸른길, 2011, 62-64쪽.
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1권 역사와 전통의 안양』, 2008, 104쪽.
5. 군포시사편찬위원회, 『군포시사 1; 수리산 품에 안긴 터전』, 2010, 221~223쪽.
6. 호계1동과 호계3동은 도양리에 속했고, 호계2동과 범계동은 호계리에 속하였다.
7.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푸른길, 2008, 243쪽.
8. 범계동 소재의 범계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제시된 학교명의 유래에는 ‘학교가 위치한 곳은 옛날에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어서 관악산에 살던 범이 물을 마시러 이곳까지 다녔다는 데에서 범계로 불렸다’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범계동과 호계동에는 소하천이라 불리는 냇가는 있었으나, 계곡은 존재하지 않았다.
9.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330쪽.
10.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푸른길, 2008, 242쪽.
11. 이승연, 『안양지명유래집』, 새안양회, 2012, 145쪽.
1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4권 살기좋은 환경도시 안양』, 2008, 10~12쪽.
13. 안양상공회의소, 『평촌-산본 신도시 건설과 안양권 발전』, 경인문화인쇄사, 1991, 52쪽.
14. 안양국제유통단지(<https://www.ay2022.co.kr/>).
15. 안양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123쪽.
16.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규모를 나타낸 그림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표기된 업종의 정확한 명칭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다.

## 제2장

# 호계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

박흥규 수원도시재단 차장



## 1. 호계동 인구 및 사업체 현황

호계동은 안양시 동안구 남동부에 자리한 지역으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주거 및 상업 중심지이다. 이곳은 4호선 범계역과 1호선 금정역이 인근에 있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도 인접하여 전반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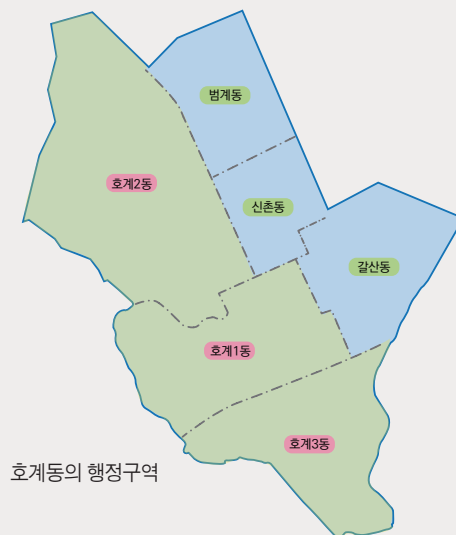
범계역을 중심으로 여러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상권이 크게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호계동에 마련된 자유공원과 평촌아트홀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호계동 서쪽方面에는 일반 공업지역이 밀집해 있어 이곳 사람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기 대기업 공장이 다수 입지하면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가 공존하는 복합 도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교육·상업·산업·공원의 조화로 호계동은 주거와 경제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계동(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은 2023년 기준 101,484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양시 전체 인구의 약 18.6%, 동안구의 약 32.3%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2015년 111,451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계동(법정동)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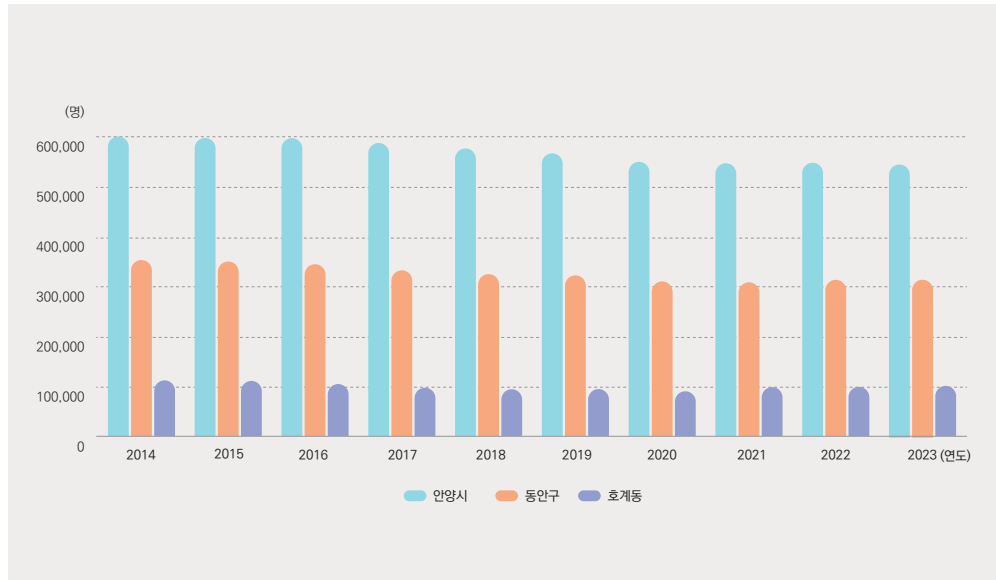
호계동의 행정구역

〈표 1〉 2014~2023년 안양시·동안구·호계동의 인구

(단위 : 명)

구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합계
2014	600,809	353,494	16,985	27,533	25,331	16,470	14,296	11,925	112,540
2015	597,789	350,519	16,198	27,176	25,503	16,455	14,186	11,933	111,451
2016	597,414	345,061	11,852	25,913	25,429	16,288	13,868	11,811	105,161
2017	587,764	332,787	5,973	25,536	24,197	16,156	13,971	11,906	97,739
2018	576,831	325,319	5,000	25,238	23,106	16,018	13,749	11,626	94,737
2019	567,044	322,809	8,108	24,208	22,262	15,807	13,403	11,309	95,097
2020	550,027	310,614	8,240	20,383	22,043	15,501	13,287	11,238	90,692
2021	547,178	308,867	18,050	19,722	21,982	15,593	12,786	10,921	99,054
2022	548,228	313,834	18,221	19,227	23,300	15,488	12,589	10,752	99,577
2023	544,660	313,996	21,250	18,847	23,160	15,326	12,386	10,515	101,484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통계」(<https://jumin.mo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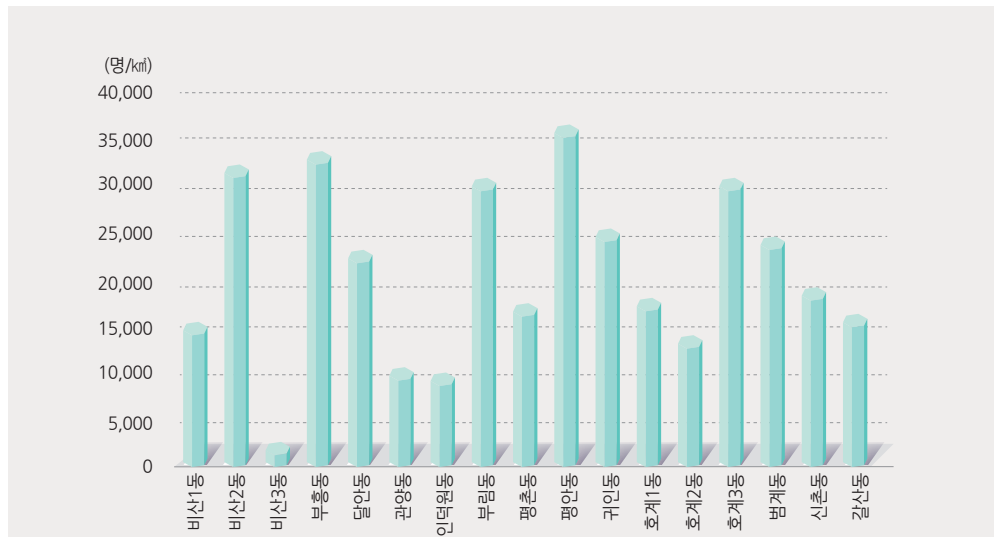
2014~2023년 안양시·동안구·호계동의 인구 변동

〈표 2〉 2023년 안양시·동안구·호계동의 인구밀도

(단위 : 명/km<sup>2</sup>)

구분	인구밀도	구분	인구밀도
안양시	9,421	관양동	10,643
동안구	14,385	인덕원동	10,386
전체	20,507	부림동	30,334
호계1동	20,337	평촌동	17,174
호계2동	13,434	평안동	35,934
호계3동	31,052	귀인동	25,678
범계동	24,078	비산1동	15,873
신촌동	18,820	비산2동	31,691
갈산동	15,322	비산3동	2,066
		부흥동	33,086
		달안동	22,786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2024.



2023년 동안구의 동별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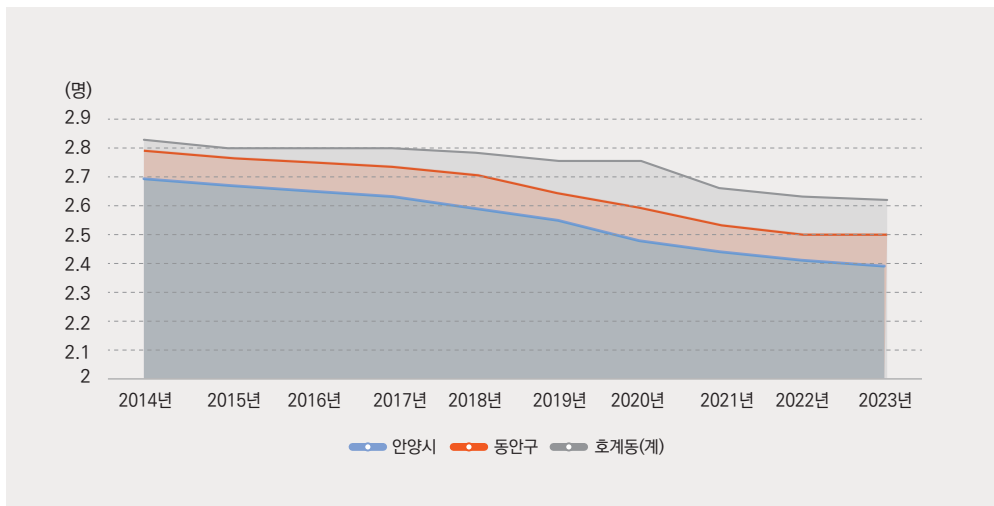
호계동 전체 인구밀도는 20,507명/km<sup>2</sup>로, 호계1동 20,337명/km<sup>2</sup>, 호계2동 13,434명/km<sup>2</sup>, 호계3동 31,052명/km<sup>2</sup>, 범계동 24,078명/km<sup>2</sup>, 신촌동 18,820명/km<sup>2</sup>, 갈산동 15,322명/km<sup>2</sup>이다. 호계동의 인구밀도는 안양시 전체 인구밀도 대비 217.7%, 동안구 전체 인구밀도 대비 142.6%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3〉 2014~2023년 안양시·동안구·호계동의 세대당 인구수

(단위 : 명)

구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합계
2014	2.69	2.80	2.35	2.83	2.86	2.96	3.15	2.99	2.86
2015	2.67	2.78	2.31	2.80	2.84	2.96	3.13	3.00	2.84
2016	2.65	2.76	2.27	2.76	2.82	2.95	3.09	2.98	2.81
2017	2.63	2.74	2.06	2.73	2.80	2.94	3.08	2.96	2.76
2018	2.59	2.71	2.14	2.69	2.78	2.92	3.03	2.93	2.75
2019	2.55	2.65	2.49	2.63	2.75	2.89	2.98	2.91	2.78
2020	2.49	2.60	2.53	2.66	2.71	2.84	2.91	2.84	2.75
2021	2.44	2.54	2.58	2.57'	2.63	2.69	2.84	2.78	2.68
2022	2.41	2.51	2.58	2.54	2.60	2.66	2.81	2.76	2.66
2023	2.39	2.50	2.60	2.52	2.59	2.63	2.78	2.74	2.64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통계」(<https://jumin.mois.go.kr/>).



2014~2023년 안양시·동안구·호계동의 세대당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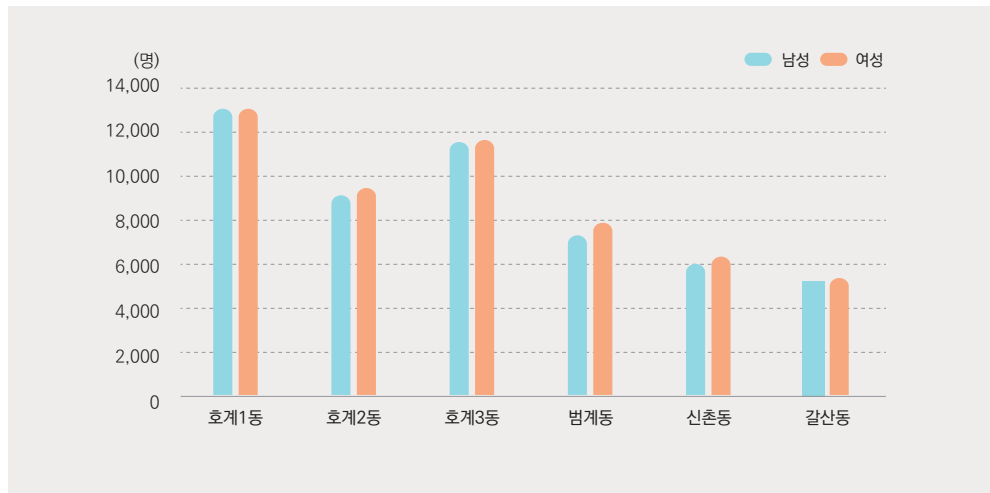
2023년 호계동의 세대당 인구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는 2.39명, 동안구는 2.5명, 호계동은 2.62명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안양시는 전반적으로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호계동은 안양시와 동안구보다 그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4〉 호계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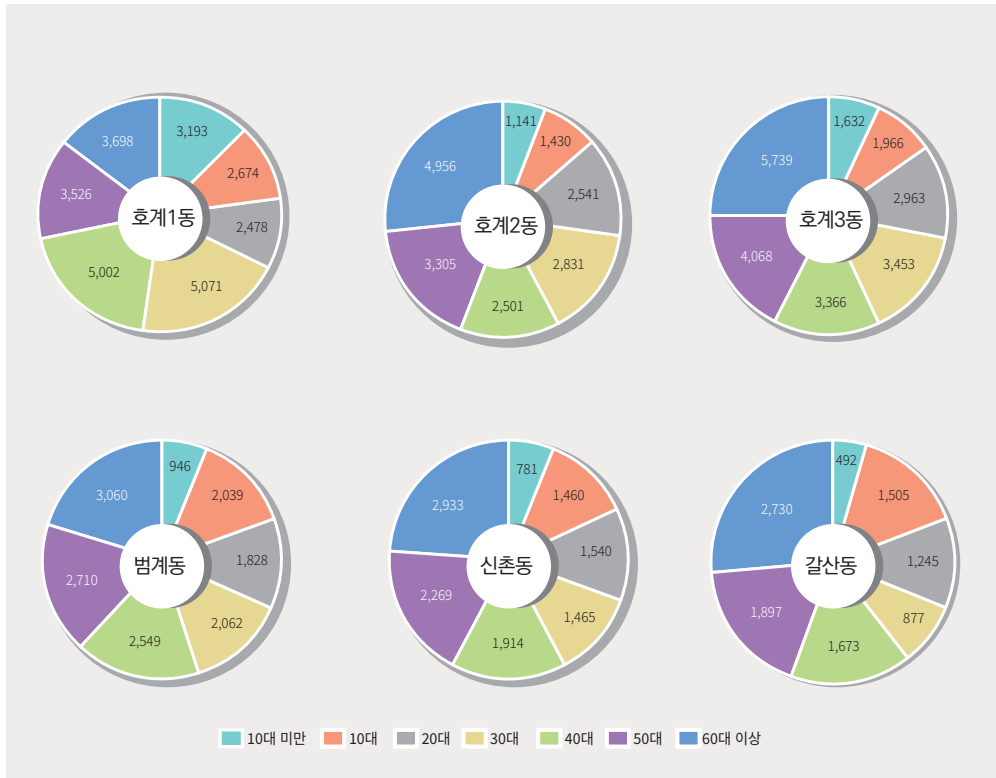
구분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합계	비율	
계	25,642	18,705	23,187	15,194	12,362	10,419	105,509	100.0	
성별	남성	12,846	9,142	11,569	7,308	6,052	5,087	52,004	49.3
	여성	12,796	9,563	11,618	7,886	6,310	5,332	53,505	50.7
연령별	10대 미만	3,193	1,141	1,632	946	781	492	8,185	7.8
	10대	2,674	1,430	1,966	2,039	1,460	1,505	11,074	10.5
	20대	2,478	2,541	2,963	1,828	1,540	1,245	12,595	11.9
	30대	5,071	2,831	3,453	2,062	1,465	877	15,759	14.9
	40대	5,002	2,501	3,366	2,549	1,914	1,673	17,005	16.1
	50대	3,526	3,305	4,068	2,710	2,269	1,897	17,775	16.8
	60대 이상	3,698	4,956	5,739	3,060	2,933	2,730	23,116	21.9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주거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2024년 1월 기준)」를 활용한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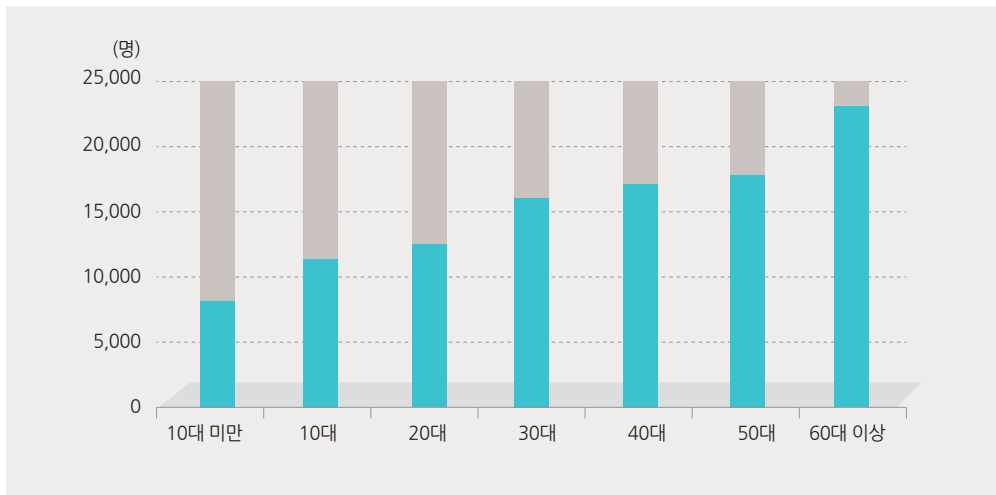


호계동의 행정동별 남녀 인구(2024년 1월 기준)

호계동 주거인구는 총 10만 5,509명이다. 남성 5만 2,004명, 여성 5만 3,505명으로, 남녀 성비가 비슷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 인구가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50대는 14.9%, 16.1%, 16.8%로 비교적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계동의 연령별 인구 분포(2024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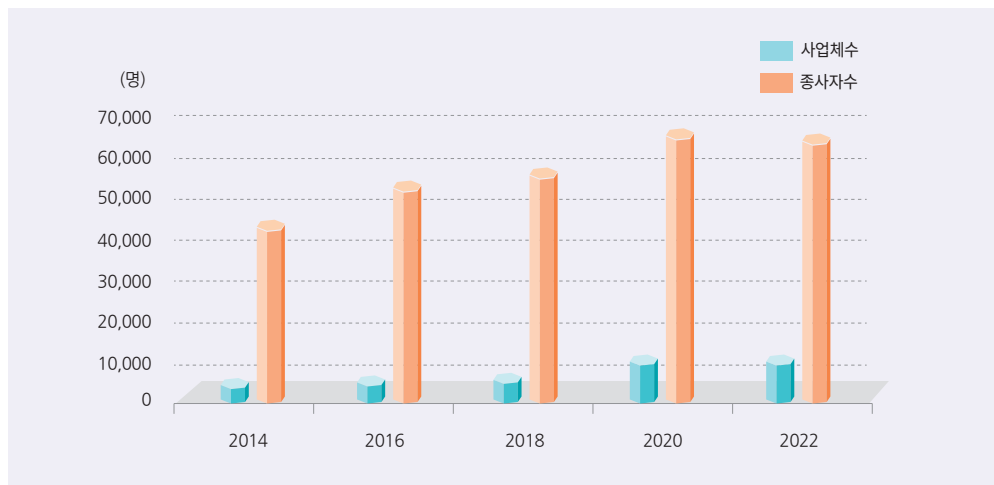
호계동 전체 연령별 인구 분포

〈표 5〉 2014~2022년 안양시·동안구·호계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합계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2014	사업체수	44,505	26,789	11,148	3,990	2,389	1,168	2,407	762	432
	종사자수	235,143	151,132	53,779	18,484	12,245	4,340	13,693	3,128	1,889
2016	사업체수	44,767	27,384	10,914	3,849	2,300	1,193	2,346	777	449
	종사자수	246,711	161,360	54,363	19,569	11,289	4,493	14,234	2,788	1,990
2018	사업체수	44,824	27,046	10,088	3,192	2,244	1,150	2,318	753	431
	종사자수	255,402	166,236	50,796	16,465	11,417	4,388	13,778	2,999	1,749
2020	사업체수	63,348	40,652	13,701	4,902	2,778	1,524	2,747	1,058	692
	종사자수	267,279	181,419	50,198	19,657	10,946	4,997	11,496	1,058	2,044
2022	사업체수	65,722	40,830	13,663	5,234	2,233	1,671	2,730	1,093	702
	종사자수	276,105	181,863	53,991	20,429	10,360	5,427	12,760	3,189	1,826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해당연도.



2014~2022년 호계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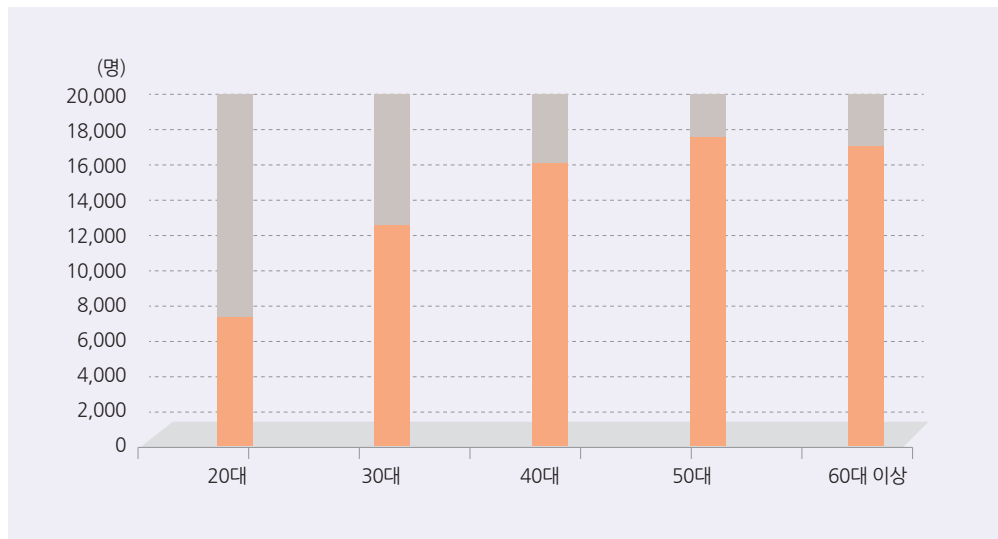
2022년 현재 호계동에는 안양시 전체 사업체의 약 20.8%인 13,663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호계동 사업체 종사자수는 5만 3,991명으로, 1개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약 4명으로 확인된다. 이는 안양시와 동안구보다 낮은 수치이다. 즉 호계동에 소재한 사업체의 규모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호계동의 성별·연령별 직장인구 분포

(단위: 명, %)

구분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합계	비율	
전체	25,610	15,117	6,405	16,022	4,719	3,393	71,266	100.0	
성별	남성	16,293	8,730	2,604	4,687	1,865	35,619	50.0	
	여성	9,317	6,387	3,801	11,335	2,854	35,647	50.0	
연령별	20대	2,646	1,569	361	2,178	471	228	7,453	10.5
	30대	5,064	2,719	800	2,827	826	325	12,561	17.6
	40대	6,386	3,324	1,188	3,418	1,145	603	16,064	22.5
	50대	6,448	3,664	1,713	4,013	1,105	879	17,822	25.0
	60대 이상	5,066	3,841	2,343	3,586	1,172	1,358	17,366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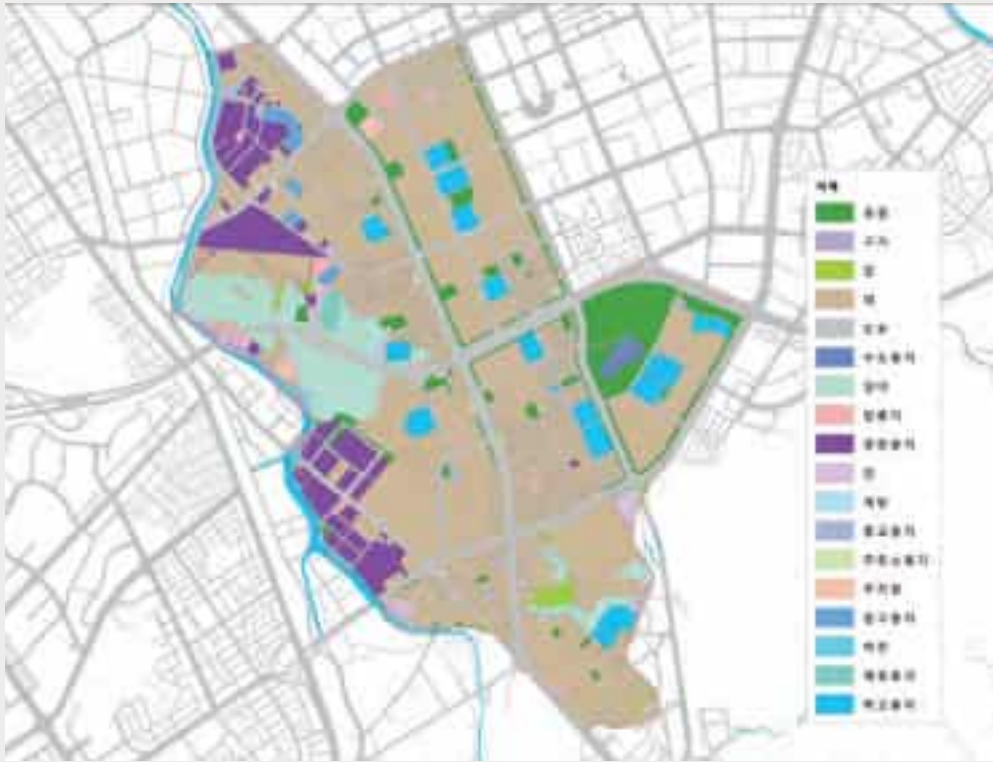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직장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2024년 1월 기준)」를 활용한 추정치).



호계동의 연령별 직장인구 분포

호계동의 직장인구는 총 71,266명이다. 이들 중 남성은 35,619명, 여성은 35,647명으로, 성비 구성이 고르게 나타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2.5%, 50대가 25%로, 40~50대 직장인이 전체 직장인구의 약 47.5%를 차지하고 있다.

## 2. 호계동의 토지이용



호계동의 지목

〈표 7〉 호계동의 지목별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공원	34.56	6.6	주유소 용지	1.07	0.2
도로	108.77	20.8	공장 용지	38.11	7.3
주차장	2.13	0.4	잡종지	4.44	0.9
대지	245.67	47.0	하천	6.68	1.3
구거	3.30	0.6	창고 용지	3.57	0.7
전	5.77	1.1	체육 용지	1.57	0.3
답	3.87	0.7	수도 용지	2.18	0.4
학교 용지	20.96	4.0	제방	0.05	0.1
종교 용지	1.94	0.4	합계	521.81	100.0
임야	37.17	7.1			

자료 : 「연속지적도형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학교 용지(범계초등학교)



대지(평촌대로 179번길 3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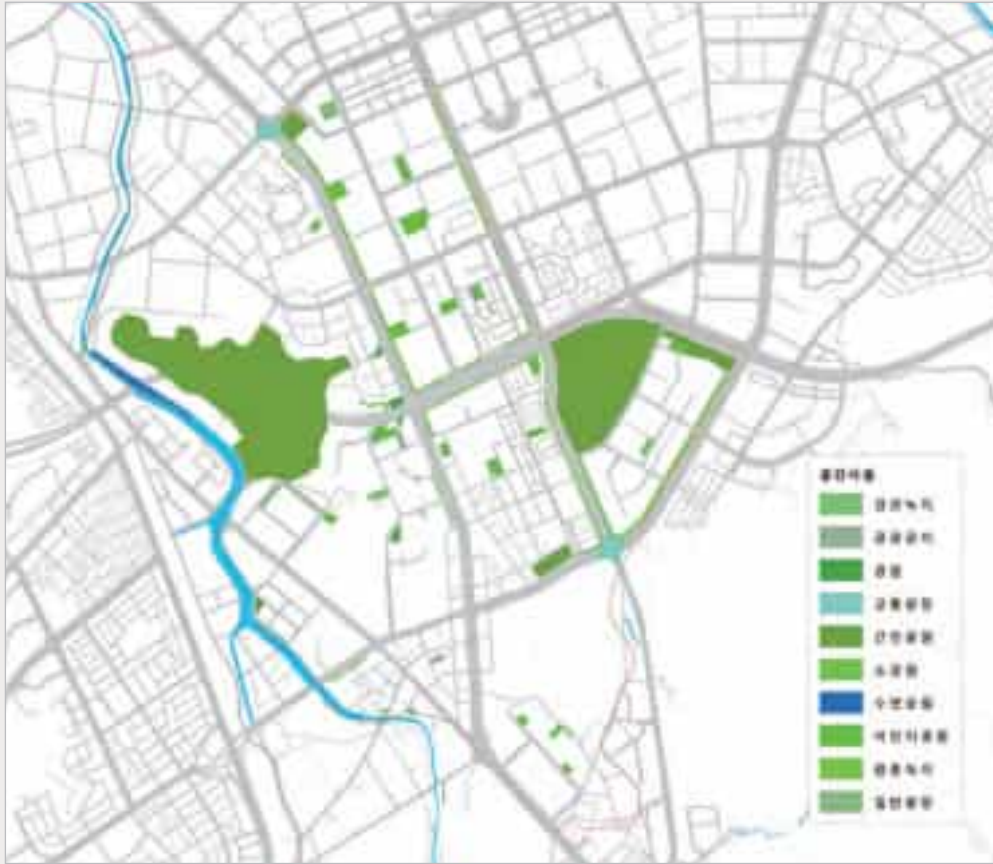


공장 용지(던킨도너츠 안양공장)



임야(호계동 2314-3 일원)

호계동의 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체 521.81ha 가운데 대지(47.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도로(20.8%)와 임야(7.1%)가 그 뒤를 잇는다. 공원(6.6%)은 주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며, 공장 용지(7.3%)는 남서부에 위치하며 산업 거점 역할을 한다. 학교 용지(4.0%)는 교육 기반을 형성하고, 하천(1.3%)은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호계동의 공간시설

〈표 8〉 호계동의 공간시설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합계	74.83	100.0	일반광장	0.74	1.0
			완충녹지	7.26	9.7
어린이공원	6.08	8.1	수변공원	1.05	1.4
공원	0.88	1.2	근린공원	55.06	73.6
경관녹지	0.09	0.1	교통광장	1.98	2.6
공공녹지	1.56	2.1	소공원	0.12	0.2

자료 : 「국도계획/공간시설」,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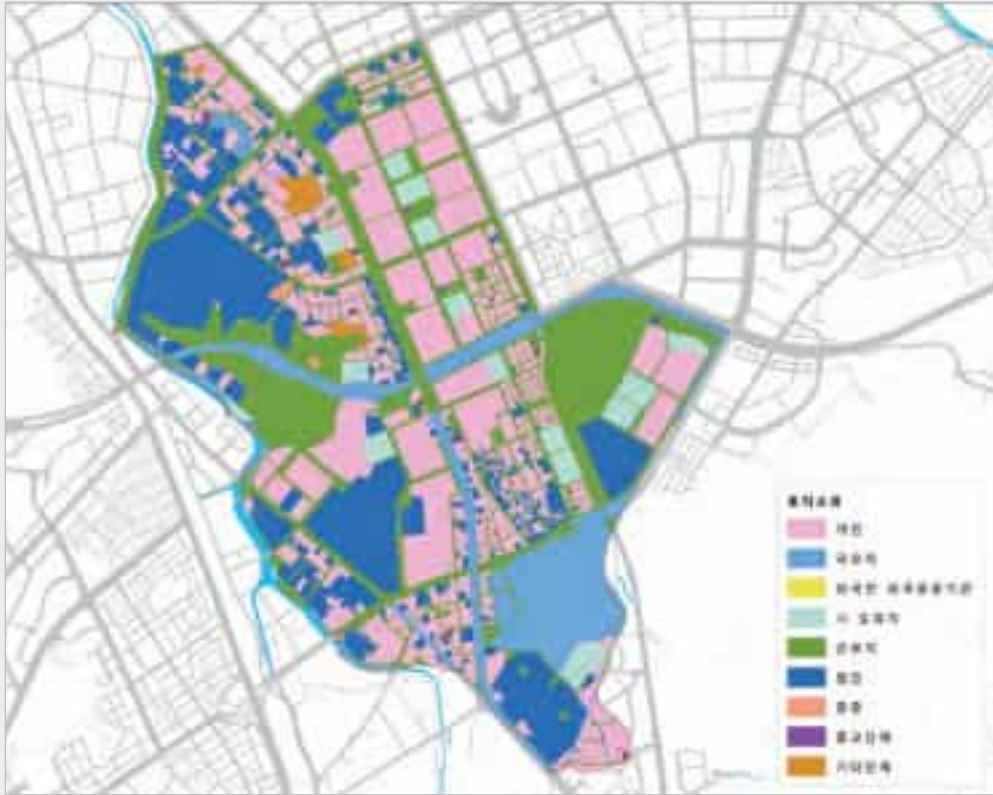
자유공원  
어린이교통공원



근린공원



호계동의 공간시설(광장, 공원녹지 등 시설)은 총 74.83ha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린공원이 55.06ha(7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공원은 6.08ha(8.1%)로 주거지역 인근에 배치되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다. 공공공지(1.56ha, 2.1%)와 교통광장(1.98ha, 2.6%)은 주요도로와 연결되어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며, 수변공원(1.05ha, 1.4%)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간시설은 호계동의 생활 편의성과 자연 친화적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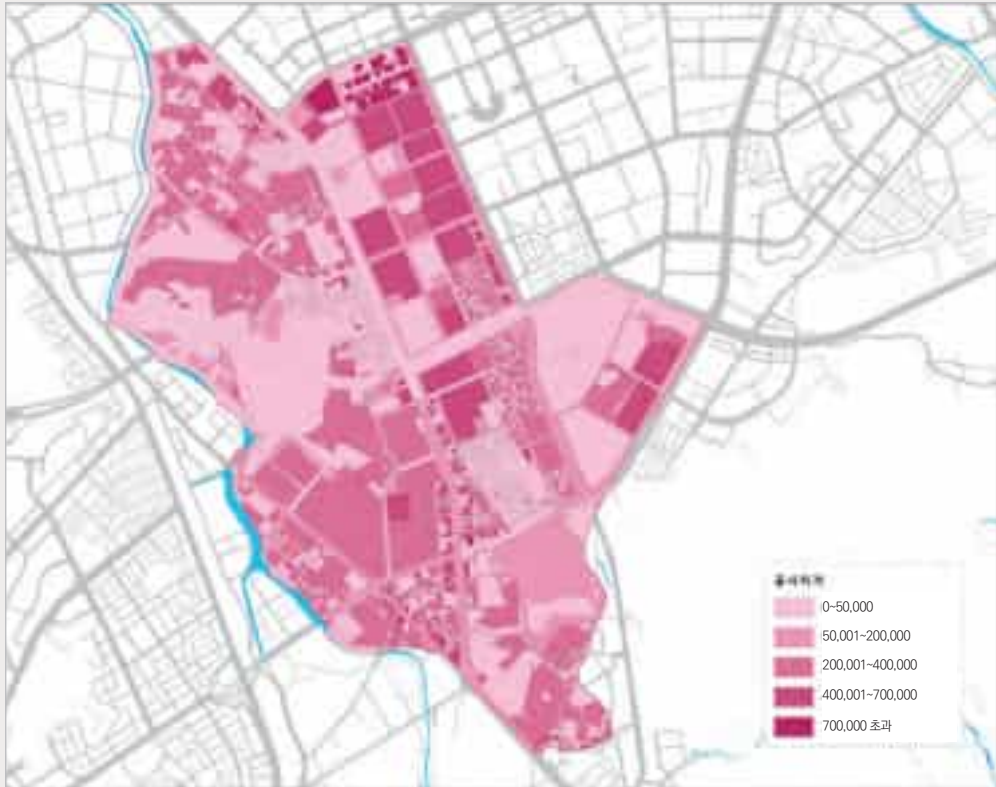
호계동의 토지소유

〈표 9〉 호계동의 토지소유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개인	164.66	31.6	법인	115.85	22.2
국유지	62.57	12.0	종중	1.05	0.2
외국인·외국 공공기관	0.01	0.0	종교단체	1.48	0.3
시·도유지	21.46	4.1	기타단체	4.62	0.9
군유지	150.12	28.8	합계	521.83	100

자료 : 안양시청, 「토지 소유구분 자료」, 2024년 10월.

호계동의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개인 소유가 전체의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 외 군유지가 28.8%, 법인 소유가 22.2%, 국유지가 12.0%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단체 0.3%, 기타단체 0.9%로 단체 소유 토지가 전체의 1.2%를 차지하며, 종중 소유는 0.2%로 나타났다.



호계동의 공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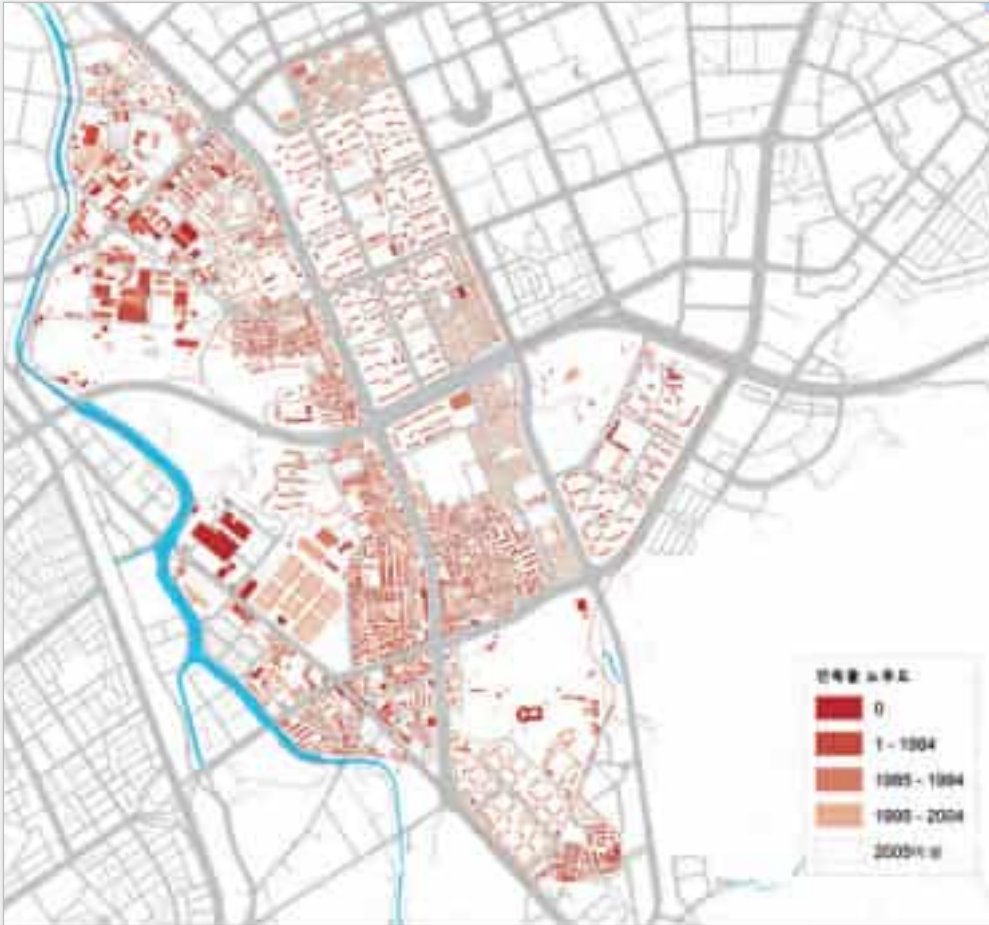
〈표 10〉 호계동의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면적(ha)	비율(%)	개별 공시지가	면적(ha)	비율(%)
0~50,000원	171.25	32.8	400,001~700,000원	6.14	1.2
50,001~200,000원	29.72	5.7	700,000원 초과	290.58	55.7
200,001~400,000원	24.19	4.6	합계	521.88	100.0

자료 : 「개별 공시지가정보」, 2024년 7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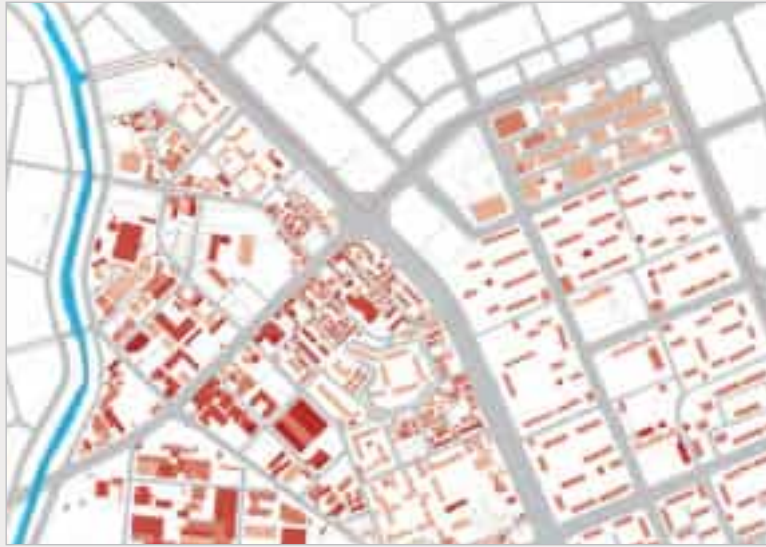
호계동의 개별 공시지가는 1㎡당 7만 원 초과 구역이 55.7%(290.58ha)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기사거리 인근 아파트단지에 집중되어 있다. 0원~5만 원 구간은 32.8%(171.25ha)로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에 주로 분포한다. 이 외 5만~20만 원 구간은 5.7%(29.72ha), 20만~40만 원 구간은 4.6%(24.19ha), 40만~70만 원 구간은 1.2%(6.14ha)로, 전반적으로 양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 3. 호계동의 건축물



호계동의 건축물 노후도

호계동의 건축물 노후도 현황을 보면, 사용 승인일이 1985년에서 1994년 사이인 건축물이 1,326동(3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984년 이전에 승인된 건축물은 1,055동(26.2%)으로, 두 시기를 합치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약 59.2%를 차지한다. 사용 승인일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391동(9.7%)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이후에 사용 승인된 20년 미만의 건축물은 244동(6.1%)으로,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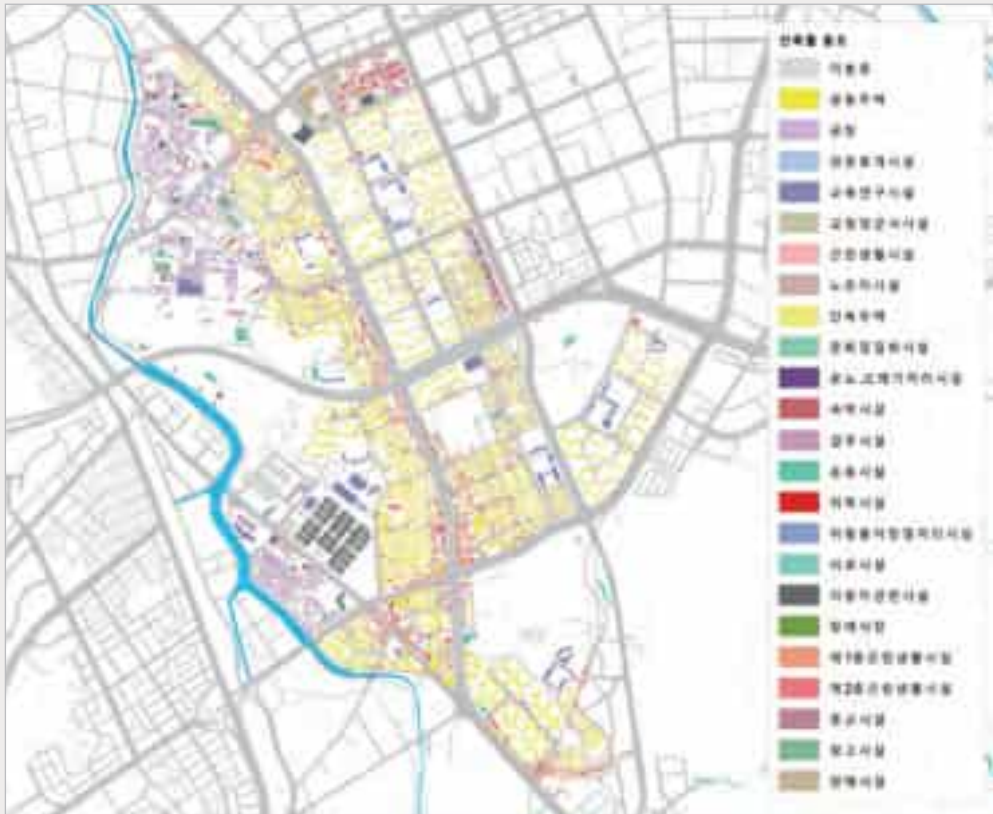
범계역(상)과 호계3동(하) 일대의 건축물 노후도

〈표 11〉 호계동의 건축물 노후도

사용 승인일	동수(동)	비율(%)	사용 승인일	동수(동)	비율(%)
-	391	9.7	1995~2004년	1,008	25.1
1~1984년	1,005	26.2	2005년 이후	244	6.1
1985~1994년	1,326	33.0	합계	4,024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 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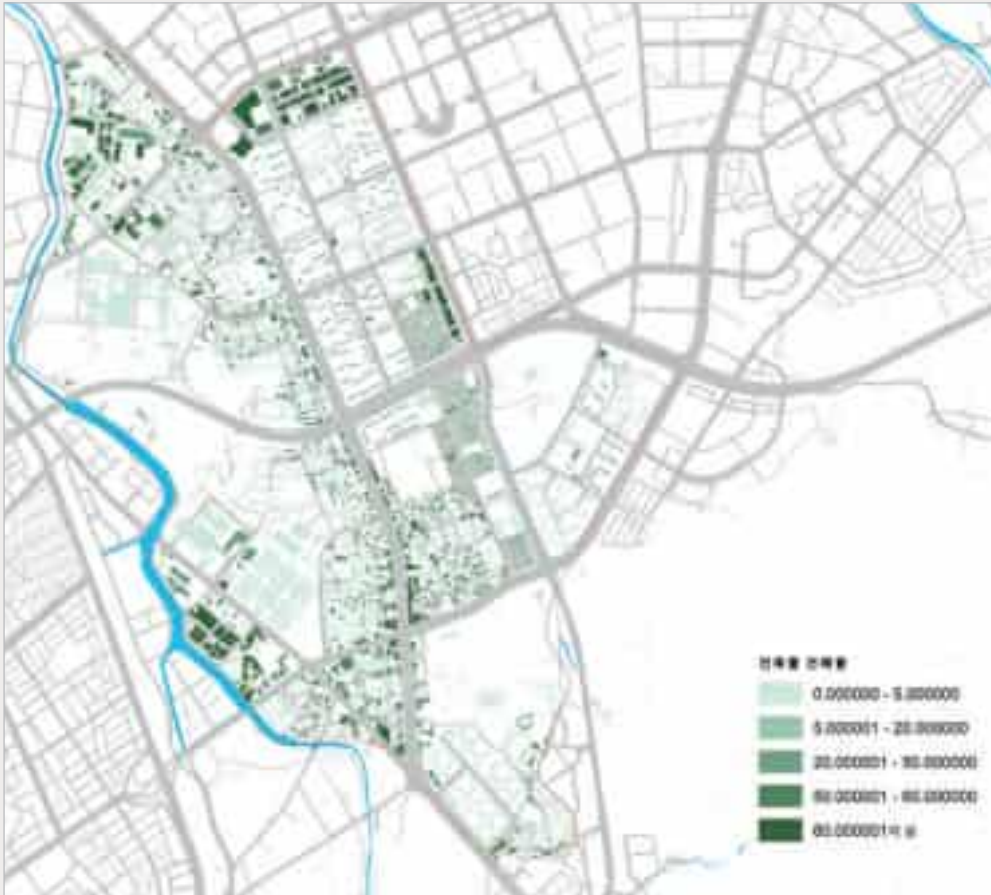


호계동의 건축물 용도

호계동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을 보면, 경수대로를 중심축으로 남북으로 길게 주거시설과 근린생활 시설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서쪽 지역으로는 공장과 창고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산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쪽 지역에는 범계역을 중심으로 중심 상업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호계동은 자연·주거·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범계역(상)과 호계3동(하) 일대의 건축물 용도



호계동의 건축물 건폐율

호계동의 건축물 건폐율 현황을 살펴보면, 20~50%의 건축물이 617동(37.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60% 이상의 고밀도 건축물은 207동(12.6%)으로 중간 비율을 보인다. 특히, 건폐율이 높은 건축물은 주요 상업 및 공업지역 중심으로 나타난다.

〈표 12〉 호계동의 건축물 건폐율



범계역(상)과 호계3동(하) 일대의 건축물 건폐율

건폐율	동수(동)	비율(%)	건폐율	동수(동)	비율(%)
0~5%	47	2.9	50~60%	616	37.5
5~20%	156	9.5	60% 이상	207	12.6
20~50%	617	37.6	합계	1,643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 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호계동의 건축물 용적률

호계동의 건축물 용적률 현황을 살펴보면, 100~200% 용적률을 가진 건축물이 846동(51.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주거 및 일반상업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용적률 200% 이상의 고밀도 건축물은 517동(31.5%)으로 상업 중심지와 주요 교통요지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50~100% 용적률의 건축물은 146동(8.9%), 0~50% 용적률의 건축물은 134동(8.2%)으로 저밀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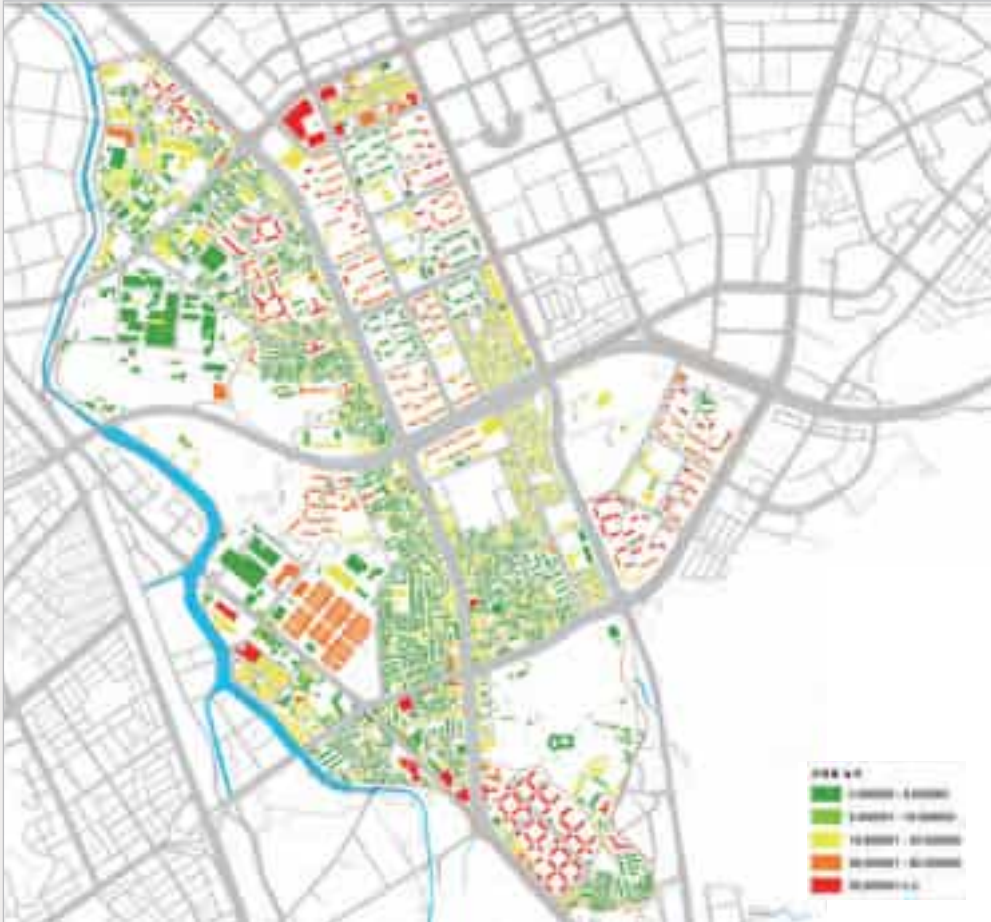
범계역(상)과 호계3동(하) 일대의 건축물 용적률

〈표 13〉 호계동의 건축물 용적률

용적률	동수(동)	비율(%)	용적률	동수(동)	비율(%)
0~50%	134	8.2	200% 이상	517	31.5
50~100%	146	8.9	계	1,643	100.0
100~200%	846	51.5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원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 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호계동의 건축물 높이 현황

호계동의 건축물 높이를 살펴보면, 10~30m 높이의 건축물이 956동(5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건물은 주로 중층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확인된다. 5~10m 높이의 건축물은 445동(24.8%)으로 저층 주거지와 소규모 상업시설에 주로 분포한다. 30m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264동(14.8%)으로 아파트단지 및 범계역 주변 상업시설 중심으로 나타난다.



범계역(상)과 호계3동(하) 일대의 건축물 높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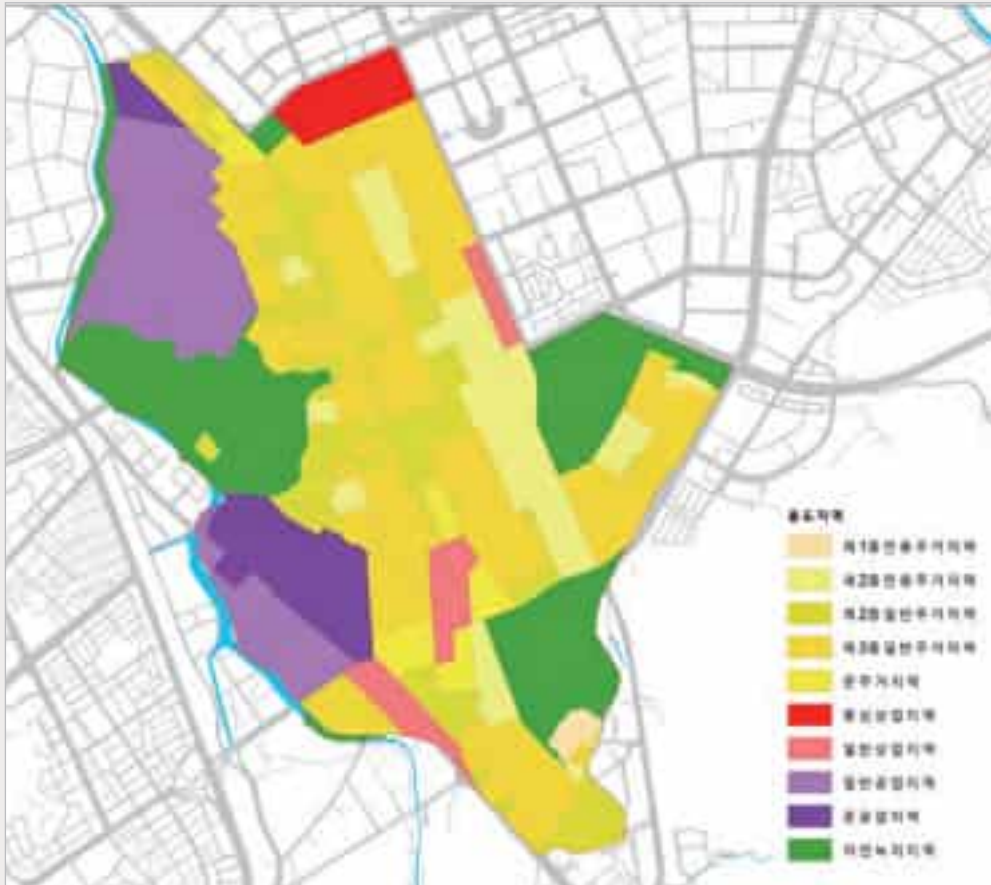
〈표 14〉 호계동 건축물 높이

높이	동수(동)	비율(%)	높이	동수(동)	비율(%)
0~5m	129	7.2	30~50m	132	7.4
5~10m	445	24.8	50m 이상	132	7.4
10~30m	956	53.3	합계	1,794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 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 4. 호계동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구상



호계동의 용도지역

〈표 15〉 호계동 용도지역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합 계	520.72	100.0	일반 상업 지역	18.55	3.6
제1종 일반 주거지역	51.74	9.9	중심 상업 지역	13.06	2.5
제2종 일반 주거지역	59.03	11.3	일반 공업 지역	67.51	13.0
제3종 일반 주거지역	157.75	30.3	준 공업 지역	30.98	5.9
제1종 전용 주거지역	2.68	0.5	자연 녹지 지역	103.30	19.7
준 주거 지역	16.06	3.1	도시 지역	0.05	0.1

자료 : 「용도지역지구(국토계획/도시지역)」,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중심상업지역(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준공업지역(안양국제유통단지 공구상가)



자연녹지지역(자유공원)



제1종전용주거지역  
(갈산로44번길 53-6 일원)

호계동의 용도지역은 총 520.72ha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157.75ha(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59.03ha(11.3%)로 주거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은 103.30ha(19.7%)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일반 공업지역은 67.51ha(13.0%)로 산업 중심지 역할을 하며, 일반 상업지역은 18.55ha(3.6%)로 상업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계동은 평촌·호계 생활권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평촌신도시 일부와 안양

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 등이 함께 입지한 주거·공업 복합지역이다. 상위계획상으로는 생활권의 남부에 해당하며, 주거 환경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유형별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공업지역인 호계동 일대는 창조 지식산업 및 ICT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클러스터로 육성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의왕시와 군포시와 연결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방향도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호계동 일대는 공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 발전 방향이 수립되어 있다.

〈표 16〉 상위계획에서의 호계동 개발구상

분류	현황
2030 안양도시 기본계획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촌·호계 생활권 개발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거환경 노후화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시행방안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순차적 추진</li> <li>- 공동주택 유형별 관리 방향 제시</li> <li>-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li> </ul> </li> <li>② 상업지역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전략 제시</li> <li>· 법계-평촌역 : 중심 상업 기능 강화, 문화콘텐츠 연계, 금융·법률 지원서비스산업 육성</li> <li>· 학원가 일원 : 청소년 문화여가 기능 강화, 먹거리 특성화</li> <li>- 교도소 이전적지 복합기능 도입 및 역세권 상업 확충 (지식, 첨단산업+문화휴식여가 기능+주거)</li> </ul> </li> <li>③ 농수산물 도매시장 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개통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필요</li> <li>-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한 복합 기능 도입</li> <li>· 상업, 지식산업, 업무, 문화 등</li> </ul> </li> <li>④ 노후 공업지역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지식산업 및 ICT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식기반클러스터 육성</li> <li>-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연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성장·정비 동력 확보</li> </ul> </li> </ul> </li> </ul>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계중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기능 : 주거 + 공업</li> <li>- 안양교도소 이전 적지 및 인근의 기존 시가지의 종합적 정비계획 수립</li> <li>- 의왕시, 군포시와 연결한 지역을 감안한 용도 배분 및 관리</li> <li>- 의왕시, 군포시와의 상생을 통한 상업,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되 안양시의 독자성 유지</li> </ul> </li> </ul>
안양시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안생활경관권역 : 문화·예술 요소 인지도 확보를 통한 도시 이미지 형성</li> </ul> </li> <li>• 경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도로경관축: 주요 생활형 도로의 경관관리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경관 조성</li> </ul> </li> </ul>



2030 안양 도시기본계획(2017)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

**경관권역(4)**

**안양시 경관특성과 핵심구역, 상위 및 관련계획 반영**

- 북부자연경관권역 : 생태환경 보호 및 산림과 조화로운 녹색 시가지 경관 창출
- 서부자연경관권역 : 수리산의 생태자연환경과 어울리는산림휴양경관 창출
- मान생활경관권역 : 중심지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 동안생활경관권역 : 쾌적성, 편리성, 여가문화 이미지 형성



**경관축(10)**

**주요간선도로 및 녹지 수변축을 대상으로 설정**

- 녹지경관축 : 주요 산지의 산림, 녹지경관 보전
- 수변경관축 : 하천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 도로경관축 : 경관위해요소 관리, 녹지네트워크 구축
- 철도경관축 : 녹지대 경관 형성 및 방음벽 등 시설물 경관 개선

**경관거점(34)**

**질적인 경관요소를 형성하고 있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

- 관문경관거점 :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인지성 강화
- 녹지경관거점 : 녹지거점 배후 자연경관 보전
- 예술여가경과거점 : 커뮤니티 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 역사문화경관거점 : 상징성 및 인지성 강화

안양시 경관계획

## 02

# 호계동의 마을과 생활문화

제1장 호계동의 자연마을

제2장 마을을 잇는 호계동의 의례와 놀이

제3장 호계동에 등장한 도시 중산층의 주거, 경향맨션아파트

제4장 금성마을에서 어바인퍼스트까지, 호계1동 주거의 변화



## 제1장

# 호계동의 자연마을

---

이동아 그려보다 대표



## 1. 호계동의 유래와 행정 변천

‘호계(虎溪)’는 ‘범 호(虎)’와 ‘시내 계(溪)’를 합쳐 만든 이름으로, 예로부터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을 지닌 지역이다. 자연마을 안말·방죽말·삿터말 일대에는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다고 전해지며, 마을 근처 모락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개울에서 물을 마시며 쉬는 모습을 주민들이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이러한 유래에서 ‘범계’라는 지명이 생겨났는데,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고유 지명을 모두 한자화하면서 현재의 ‘호계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호계동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은 변천을 거쳤다. 고구려 시대에는 울목군(栗木郡), 신라 시대에는 울진군(栗津郡), 고려 시대에는 과주군(果州郡), 조선 시대에는 과천현(果川縣)과 금과현(衿果縣)에 속하였다. 조선 고종 때에는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道陽里)로 불리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로 개편되었다. 이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호계리,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호계리로 개칭되었고,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로 전환되며, 호계동이 되었다.

이후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에 따라 호계동은 호계1동·호계2동·호계3동으로 분동하였고,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 출장소 소속이 되었다.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161호에 따라 호계2동은 호계2동과 범계동으로 분동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로 편제되었다.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에 따라 범계동은 범계동과 신촌동으로, 같은 해 5월 20일 시 조례 제1285호에 따라 호계1동은 호계1동과 갈산동으로 각각 분동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1)</sup>



호계사거리에 설치된 호랑이 조형물

현재 호계동은 법정동으로서 호계동 안에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등 총 6개의 행정동이 편성되어 있다. 각 행정동은 현재의 행정명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자연마을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 당시 불리던 자연마을 명칭은 다음과 같이 행정동으로 구분된다.

〈표1〉 호계동의 행정동과 주요 자연마을

행정동	주요 자연마을	비고
호계1동	덕고개(덕현), 금성마을	
호계2동	방죽말, 셋터말(신기촌), 안말	호계서원(창강서원) 터 있음
호계3동	구군포(구장터), 포도원	조선시대 군포장 소재지
범계동	-	
신촌동	신말	호계동에서 분동
갈산동	갈미, 당살미, 뒷말	

한편, 2016년 6월 28일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안양시의 관문인 호계사거리에 호계동의 상징인 호랑이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조형물 설치 당시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 호랑이 조형물은 화강석으로 제작되었으며, 좌

대 위 바닥에 앉은 형태와 반쯤 앉은 형태의 두 마리 호랑이로 구성되어 있다. 조형물의 크기는 1.8m×0.72m×0.9m, 1.56m×0.72m×1.14m로 제작되었다. 이 조형물은 호계1동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상징하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상징물이 되었다.

## 2. 호계1동의 자연마을

### 1) 덕고개[德峴]

덕고개는 호계사거리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호계사거리에서 과천 방향으로 약 400m 지점 일대가 예전에 큰 고개였다는 데서 ‘덕고개’라는 지명이 유래하였다. 현재 덕고개라는 명칭은 호계동에 있는 평촌대로와 흥안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인 ‘덕고개사거리’로 남아 있다. 덕고개는 과거 당살미, 갈미, 인덕원 등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균포장을 보기 위해 왕래하던 길목이었다. 1936년 3월 서울-과천-남양 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고개의 높이를 낮추었다.

이 마을에는 나주 오씨, 경주 김씨, 남평 문씨, 함흥 노씨 등이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마을은 지리적으로 동쪽 지역을 ‘웃말’, 현재 호계시장 주변인 서북쪽 지역을 ‘아랫말’, 현 호계사거리 일대인 서쪽 지역을 ‘건너말’이라고 구분하였다. 덕고개는 풍수지리상 배형국이라 하여, 마을에 우물을 여러 개 파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하나의 우물만 파서 식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풍파를 막기 위해 호계시장 북쪽 100m 지점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였고, 이곳을 ‘수풀 아래’라고 불렀다.

마을에는 ‘대동우물’이라 불리는 공동 우물이 있었다. 주민들은 매년 음력 7월 2일, 이 우물 앞에 소머리를 놓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우물고사를 지냈다. 그러나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수원(水原)이 끊기고, 우물터가 타인에게 매도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면서 1988년부터 우물고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호계1동 주민들의 주최로 우물고사를 다시 지내고 있다. 현재는 호계1동 다목적 복지회관 앞에서 주민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고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동우물은 개인 우물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던 식수원이었다. 물이 많아, 청소를 위해 우물의 물을 모두 퍼내도 말릴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호계동 토박이가 그린 1951년 덕고개 마을 지도(안양시청 제공)  
 '수풀 아래'·'아랫말'·'건너말' 등의 자연마을과 대동우물로 짐작되는 '정자우물' 등이 확인된다. 마을 중앙의 우물은 나중에 생긴 것으로 우물 근처에서 마을 여자들이 널을 뛰었다고 한다.

1963년에는 서울 마포에 있던 마포교도소가 호계동으로 이전하면서 '안양교도소'로 개칭되었다. 안양교도소는 덕고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교도소를 대상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교도소에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식재료를 생산하여 납품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나오는 폐수와 수용자들로 인해 마을 분위기는 다소 위축되었으며,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도 강해졌다. 그 결과, 외지인이 덕고개에 들어와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덕고개에는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덕고개 본토 모임' 혹은 '덕고개본회'라 불리는 모임이 존재한다. 이 모임은 6·25전쟁 이후 결성되었으며, 각 가정에서 1명씩 대표로 가입하여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덕고개본회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달 1회 정기 모임을 하고, 이후에는 격월(짝수 달)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회원들은 모임을 통해 서로 안부를 묻고, 친목을 다지며, 1년에 한 번은 부부 동반 야유회를 떠난다. 야유회를 갈 때는 관광버스를 대여하여 외지로 이동한다.<sup>2</sup>



1970년대 후반 호계동 지형도의 호계1동 부분(1979년)

## 2) 금성마을[金星村]

금성마을은 전통적인 자연마을이 아니고, 1970년대 초반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이 지역은 해방 이전까지 고구마·콩·감자 등을 심는 밭이거나, 일본인이 소나무·잣나무 등 묘목을 가꾸던 곳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 부산에 있던 금성사 통신사업부가 금성통신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호계동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이전하면서 회사를 따라 올라온 사원들을 위한 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이 지역은 덕고개 남평 문씨 종중산 일대에 해당하는데, 회사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택지를 조성한 후에 사원들에게 분양하였다고 한다. 금성통신 사원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금성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택지를 분양받은 사원은 자비로 집을 지었는데, 대부분 방·거실·부엌·화장실 등 각 공간이 분리된 양옥 형태의 주택이었다.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인근 셋터말이나 덕고개에 거주하였다고 한다.<sup>3</sup>

### 3. 호계2동의 자연마을

#### 1) 방죽말[房築洞]

방죽말은 안말과 샛터말 사이에 위치한, 1917년 7월까지 시흥군 서이면 관아가 있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물을 막기 위하여 쌓은 방죽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현재 경수대로 방축사거리의 서쪽 지역에 해당한다.

마을 주변에 있었던 방죽이 언제 조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숙종 때인 1699년에 발간된 『과천현신수읍지』 「제언조」에는 ‘虎界堤堰在縣西南間十八里(호계제언재현서남간십팔리)’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방죽의 이름은 ‘호계’이며, 위치는 과천현 치소 서남쪽 18리 지점에 있었다. 따라서 방죽은 숙종 이전, 최소한 조선 중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방죽의 명칭은 변천을 거쳤다. 광무 3년(1899)에 발간된 『과천읍지』 「제언조」에는 ‘虎溪里競子堤堰一庫在縣西南間十八里(호계리경자제언일고재현서남간십팔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방죽의 이름이 호계리의 ‘경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후 일제 강점기부터는 ‘범계방죽’으로 불렸으며, 1974년 안양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주택지로 변모하면서 현재는 사라졌다.<sup>4</sup>

방죽말에 있던 저수지는 1년 내내 물을 가둬놓는 형태가 아니라, 겨울에 방죽을 막아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이듬해 모내기 철에 독을 터서 눈에 물을 흘려보낸 후 농사를 짓는 방죽 논이었다. 겨울에 저수지 물이 얼면,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방죽말은 전주 이씨 영산군파의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조선 성종의 13번째 왕자 영산군의 4세손인 의령군이 1600년경에 입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 이씨 영산군파 호계종친회는 매년 3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종친회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종친회 소유의 건물 임대료로 충당한다.

또한, 방죽말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초 길일을 택해 방죽 앞에 있던 수령 300년 된 향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군웅제를 지내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해당 향나무가 고사한 이후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



1970년대 방죽말(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 2) 셋터말[新其洞]

셋터말은 조선 말기에 한양 조씨가 새로 터를 잡고 거주하기 시작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원래 방죽말 안말에 살던 주민들이 분가하여 새로 터를 잡으면서 형성된 마을로, '신기촌'이라고도 불렸다. 셋터말은 방죽말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마을 내에서는 서쪽 지역을 뜻하는 '웃말'과 동쪽 지역을 뜻하는 '아랫말'로 나뉜다. 이 마을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된 안양6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택지로 조성되었으며, 이후 미주아파트와 강남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화되었다.<sup>5</sup> 현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의 서쪽 지역에 해당한다.

셋터말에는 정씨, 박씨, 조씨 성을 가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였다. 특히 밀양 박씨는 효영종친회를 조직하여 매년 종친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종친회는 매년 쌀 한 말을 걷어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장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종친회가 소유한 토지가 개발되면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토지 매매 등으로 종친회 기금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 3) 안말[內村]

안말은 방죽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숲 안에 자리 잡은 마을, 또는 숲이 우거진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안말'이라 불리게 되었다. 골짜기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안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존재한다. 안말에는 조선 세종의 8번째 왕자인 영웅대군 후손들이 입향한 이후, 함평 이씨와 경주 최씨가 세거하였다. 함평 이씨가 이곳에 정착한 시기는 약 1777년경으로, 정착한 선조는 23세손 이유민(李儒珉)으로 전해진다. 이후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시행된 안양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마을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현재 호계2동다목적복지회관 일대에 해당한다.

안말에는 '황사지' 또는 '황새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는 황새처럼 생긴 연못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황새지에는 후일 전파연구소가 들어섰으며, 해당 마을에는 박씨 성을 가진 형제 두 가구만 거주하고 있어 안말과 하나의 마을로 인식되었다.

안말에는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던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우물 옆에있던 이 나무는 몇백 년 전 어느 노인이 피약벌에서 일하던 며느리를 위해 그늘을 마련해주고자



1974년 호계2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경수대로 왼쪽으로, 위쪽부터 안말, 방죽말, 셋터말이 자리잡고 있으며, 안말 왼쪽의 정돈된 주거지는 당시 동양나이론 시택촌이다. 시택촌에는 현재 호계호성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십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느티나무는 성인 남성 3명이 팔로 안아야 할 만큼 크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령이 300~4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로 건설로 인해 나무는 훼손되었고, 이를 살리기 위해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사를 놓은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졌으나 결국 고사하였다.

주민들에게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고사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베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결국 나무는 베어졌고, 베어진 나무는 한 공예가의 손에 들어가 작품으로 재탄생하였다. 느티나무가 있던 자리는 현재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이 근처이다.

나무가 베어진 뒤 느티나무 제사는 한동안 중단된 듯 보였으나, 마을 주민들은 안말 어린이공원에 있는 다른 느티나무를 새로운 신목으로 정하고 제사를 복원하였다. 현재 느티나무 제사는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지내고 있다. 느티나무 옆에는 연자방아 윷돌 하나가 놓여 있는데, 오래전에는 연자방아 밑돌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물에서 빨래할 때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sup>6</sup>

안말에는 ‘내촌애향회’라는 토박이들의 친목 모임이 있다. 마을이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흩어져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자, 이 모임이 조직되었다. 회원 수는 약 50명이며, 부부 동반으로 모임 경우 100명 정도가 참여한다. 이 모임은 아버지 세대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두 달에 한 번 모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이 내촌애향회가 느티나무 제사를 복원하여 주관하고 있다.

## 4. 호계3동의 자연마을

### 1) 구군포(舊軍浦)

구군포는 ‘구장터’라고도 불리는 마을로, 안양시 남단에 위치한다. ‘구군포’라는 지명은 1925년 군포장이 폐쇄된 이후 생겨난 명칭이다. 군포장은 군포천(현 안양천) 변에서 개시한다고 하여 ‘군포천장’이라 불렸다. 장터는 평촌두산위브리버뷰아파트 자리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장터 주변으로 현재의 엘에스로와 안양천 사이에 마을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군포장은 오일장이었으며, 담배를 비롯하여 소금·광목·쌀·콩·조·보리쌀 등 다양한 농



1974년 구군포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마을 가운데 공터가 군포장터라고 전해온다.

산물이 거래되었다. 당시 군포장은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인근 지역뿐 아니라, 용인·남양·판교 등 먼 지역의 상인들까지 몰려들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군포장은 폐쇄되었고, 군포역과 안양역 근처에 각각 군포시장과 안양시장이 개설되었다.

지리적으로 구군포는 동쪽으로 덕고개, 서쪽으로 군포시 금정동 점말, 남쪽으로 의왕시 오전동, 북쪽으로 샛터말과 접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김해 김씨가 처음으로 정착한 이후, 수성 최씨와 전주 이씨 등이 대대로 살아온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구군포는 ‘웃말’과 ‘아랫말’로 나뉘는데, 웃말은 엘에스로와 경수대로 사이의 동쪽 지역을, 아랫말은 엘에스로와 안양천 사이의 서쪽 지역을 가리킨다.

한편, 구군포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2일에 군웅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군웅제는 호계파출소 북쪽 약 100미터 지점에 있는 군웅산에서 지내다가, 1960년대 후반 해당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제단 위치가 파출소 북쪽 50m 지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제단 터가 박모 씨 소유로 바뀐 이후인 1980년대 초부터는 군웅제를 더 이상 지내지 않고 있다.<sup>7</sup>

## 2) 포도원

포도원은 의왕시 오전동 성나자로원마을과 접하고 있는 마을로, 현재 안양가구단지 일대에 해당한다. 이 마을은 1950년대에 경향포도협동조합의 창립자인 황인웅이 처음으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그의 주도로 마을 주변에 포도단지가 조성되었으며, 마을 이름도 이로 인해 ‘포도원’이라 불리게 되었다.

1980년대에 택지로 개발되기 전까지 안양 지역의 포도밭은 약 27만 평에 달하는 규모로, 한때 경기도 남부의 대표적인 포도 생산지로 꼽히기도 하였다. 특히 포도원은 포도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주변이 도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포도 재배는 줄어들고, 포도 산업은 쇠퇴하였다. 결국 포도원은 택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과거의 포도 재배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 주거지로 바뀌었다.<sup>8</sup>

## 5. 평촌신도시의 호계동 마을

### 1) 범계동

범계동은 1992년에 호계2동에서 분동하면서 새롭게 행정동으로 설치된 지역으로, 본래 자연마을은 존재하지 않았다. 범계동이라는 동명은 이 지역에 속한 방죽말, 안말, 셋터말 등 세 마을을 통칭하여 부르는 지명에서 비롯되었다.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인근의 산에서 호랑이가 물을 마시러 호계동 지역의 실개천으로 내려왔다가 저녁에 산으로 올라가곤 했다고 한다. 냇가 주변에 호랑이가 많았다는 설화에 기반하여 ‘범계’라는 마을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이 한자화하면서 ‘호계’라는 지명이 된 것이다. 범계동은 호계2동에서 분동할 당시 이러한 지명적 배경을 바탕으로 명명된 행정구역이다.<sup>9</sup>

### 2) 신촌동

신촌동은 ‘신말’이라 불리던 자연마을 명칭에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1993년에 범계동에서 분동하여 새롭게 설치된 행정동이다. 신촌동이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인 약



포도원 마을의 현재 모습

1720년경 풍양 조씨가 입향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풍양 조씨는 집성촌을 이루었고,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신말’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후 이 지명을 중심으로 마을이 확장되며 신촌동이라는 동명이 정착되었다.

풍양 조씨는 안양 지역에 창강서원(滄江書院)을 세우기도 하였다. 창강서원은 ‘호계서원’이라고도 한다. 이 서원은 1716년에 창강 조속(趙涑, 1595~1668)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졌다. 그러나 고종 7년(1870) 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철거되었고, 현재는 서원이 있었던 터에 일부 주춧돌만 남아 있다. 위치는 현재 안양장례식장 뒤편이다.

신촌동에는 수령 2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으며, 이 나무는 마을 수호목으로 여겨져 고사를 지내고 있다. 느티나무 고사는 음력 3월 3일에 지내다가, 2011년부터는 음력 10월 3일로 변경되었고, 2023년부터는 음력 1월 15일 전후로 지내고 있다.

이 고사는 과거에는 신우회(신촌동 일대 주민들의 친목 모임)·상우회(평촌 먹거리촌 상인 친목 모임)·신촌경로당 회원들이 함께 지냈으나, 최근에는 신촌경로당과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sup>10</sup>



창강서원 터에 남은 주춧돌 (『안양저널』, 1991년 11월 20일)



1980년대 신촌동 느티나무(최병렬 제공)



신촌동 느티나무의 현재 모습

### 3) 갈산동

갈산동은 1993년 호계1동에서 분동하여 신설된 행정동이다. 이 지역의 본래 지명은 호계1동의 자연마을 중 하나인 '덕고개(덕현)'를 따랐으나 여론을 수렴하여 '갈산동'으로 개칭되었다. '갈산'이라는 이름은 이 일대가 정조의 화성 능행 시 서울과 수원을 왕래 하던 주요 교통 분기점에 해당하는 지점이었던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갈라진다'는



1980년대의 갈산동(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뜻의 동사 ‘갈라지다’에서 첫 음절인 ‘갈’을 따서 ‘갈미’라 불렸고,<sup>11</sup>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자 표기로 ‘갈산(葛山)’이 정착되었다. 갈산동은 과거 갈미(葛山), 당살미(堂山尾), 뒷말(後村)과 같은 세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마을은 소규모 농촌 공동체의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이후 도시 개발과 함께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되었다.

### (1) 갈미

갈미는 현재 갈산동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당살미의 동쪽에 위치하며 의왕시 내손동 갈미와 접하고 있다. 갈미의 지명 유래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첫 번째는 길이 갈라진다는 의미에서 ‘갈라진다’의 첫음절 ‘갈’을 따서 명명되었다는 설이고, 두 번째는 ‘갈미산’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다. 후자는 ‘미’가 경기도 방언에서 ‘뫼(산)’를 의미한다는 점을 들어, ‘갈산’이 ‘뫼이 많은 산’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갈미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수원 화산으로 참배하러 가는 능행길의 주요 분기점으로,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수원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갈미는 1936년 3월, 서울-과천-남양을 잇는 도로 개설로 인해 동쪽 지역은 의왕면 내손리(현 내손동) 갈미, 서쪽 지역은 서이면 이동리(현 안양시 평촌동) 갈미로 나뉘게 되었다.

갈미에 처음 정착한 성씨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 씨와 전주 이씨(임영대 군파) 등의 성씨가 정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마을에는 “갈미봉에 비 들어온다. 명석 뿔뿔 말어 세워라.”는 속담이 전해지는데, 이는 모락산의 연봉인 갈미봉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속설에서 유래한 말이다. 갈미는 조선시대 주막이 위치했던 곳이기도 하다. 갈미주막은 서울·과천·수원 등지를 오가는 사람들이 쉬어 가던 장소로, 갈미가 교통의 분기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정조 14년(1790)에 편찬된 『원행정례(園幸定例)』에는 갈미주막의 위치가 인덕원천교에서 4리 떨어진 지점에 해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갈미주막 터는 의왕내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사라졌는데, 현재 흥안대로 의왕내손주공아파트 앞 육교 근처로 추정된다.

갈미는 1990년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라 폐동되었고, 주거지로 전환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당살미, 뒷말 주민들과 함께 음력 10월 초 길일을 택해 의왕시 내손동 모락산 중턱에서 산신제를 지내기도 했다.

## (2) 당살미

당살미는 갈미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당살미는 갈미와 한 마을로 여겼다. 당살미와 갈미 주민들은 모락산 중턱에 당집을 짓고 매년 음력 10월 초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냈다. 당살미라는 지명은 당을 모신 모락산의 산세가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다 이곳에서 끝을 맺었다 하여 ‘당산의 꼬리’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당살미는 죽산 안씨의 세거지로, 10가구가 채 안 되는 규모였으나, 1980년대 중반에 대안중학교와 대안여자중학교가 개교하였다. 이후 평촌신도시 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폐동되었다. 현재 평촌자유공원 옆에 해당한다.

## (3) 뒷말

뒷말은 현재의 안양남초등학교 동북쪽에 위치하였던 자연마을이다. 원래 갈미에 속했던 마을로, 죽산 안씨의 세거지였다. 마을 명칭은 갈미주막 뒤편에 자리 잡았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인근의 당살미·갈미 마을 주민과 함께 산신제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다. 1990년대 초에 평촌신도시 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폐동되었다.<sup>12</sup>

## 참고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경기도편』, 199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안양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안양집성촌 자료집』, 2005.  
안양문화원, 『안양의 옛사진』, 200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새안양회, 『안양시 지명유래집』, 2012.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호계1동행정복지센터(<https://www.anyang.go.kr/>).

## 註

1. 새안양회, 『안양시 지명유래집』, 2012, 120~122쪽.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https://www.anyang.go.kr/>).
2. 새안양회, 앞의 책, 160~161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336~337쪽.
3. 새안양회, 앞의 책, 153~154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60쪽.
4. 새안양회, 앞의 책, 169~170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0쪽.  
안양문화원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안양집성촌 자료집』, 2005, 105쪽.
5. 새안양회, 앞의 책, 180~181쪽.
6. 새안양회, 앞의 책, 188~189쪽.  
안양문화원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앞의 책, 165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51쪽.
7. 새안양회, 앞의 책, 150~152쪽.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경기도편』, 1995, 244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65~366쪽.
8. 새안양회, 앞의 책, 202~203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3~374쪽.
9. 새안양회, 앞의 책, 140쪽.
10. 새안양회, 앞의 책, 143쪽.  
안양문화원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앞의 책, 199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37쪽.
11. 새안양회, 앞의 책, 145쪽.
12. 새안양회, 앞의 책, 164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47쪽.

## 제2장

# 마을을 잇는 호계동의 의례와 놀이

---

이동아 그려보다 대표



## 1. 호계동의 마을신앙

### 1) 방죽말 당제

방죽말 당제는 ‘골매이 제사’, 혹은 ‘도당제사’라고도 불렸는데, ‘골매’이라는 말은 ‘고을막’에서 유래한 것이고, ‘도당’은 경기도 일대에서 행해지던 도당굿을 의미한다. 방죽말 당제는 마을에 있는 향나무 앞에서 지냈다. 향나무 앞에는 직경 약 50m 정도의 연못이 있었다. 향나무를 신체(身體)로 삼아 제사를 올렸으나, 제의가 중단되기 몇 해 전에 자연 고사하였다. 현재 당나무가 있던 자리는 주택으로 변하였다.

‘당 우물’이라 불리는 것은 없었지만, 마을 건너편 안동네 기슭에 옷우물이 있었다. 그 우물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찬물이 솟아났다. 옷우물과 관련하여 옷이 오른 사람이 이 물로 몸을 씻으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와 같은 속설로 인해 옷우물은 방죽말 인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여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이 우물은 당제를 지낼 때 제관들이 몸을 씻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sup>1</sup>

방죽말 당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나 초이튿날에 지냈다. 1일과 2일 중 하루를 골려 제의를 올렸다. 당제를 준비하기 위해 제관 1명과 축관 2명을 선출하였으며, 제관은 음력 9월 25일경 동네 회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제관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따지고, 집안에 부정이 없는 사람 중에서 뽑았다. 가족 중에 생리 중이거나 초상집을 다녀온 사람이 있는 경우 부정하다고 여겨 제관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선출된 날부터 부정한 곳을 피하고, 옷우물에서 매일 몸을 씻었다. 목욕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 전날까지 매일 계속되었다.

당제에 올리는 제물로는 삼색실과 떡·산자·3탕·포·적 등이 있었으며, 이때 소나 돼지를 잡지는 않았다. 다만 아주 오래전에는 소를 잡아 동네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소를 제물로 바친 뒤, 제의가 끝난 후 그 고기로 마을 잔치를 벌인 것으로 여겨진다. 제물은 제관들이 안양시장에 가서 직접 준비하였으며, 제물 준비에 든 비용은 총액을 계산한 뒤 마을 사람들에게 각출하였다.

방죽말은 윗말과 아랫말로 나뉘어 있었는데, 당제는 윗말에서 단독으로 지냈다. 세시행사는 두 마을이 함께 했지만, 당제만큼은 윗말이 주관하였다. 당제 날이 되면 아침 일찍 당나무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무 앞에 작은 집 모양의 차일(遮日)을 쳤다. 그 안에 제물을 차려 놓고, 어두워질 무렵 제관들이 나무 앞으로 나아가 술을 올리고 재배(再拜)하였다. 이어서 축관이 축문을 읽고, 제관은 마을 주민들의 개인 소지를 올린 뒤, 각 가정의 안녕을 빌어주었다.

당제는 부정이 없는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었다. 다만, 제관이 아닌 사람은 금줄을 넘을 수 없으며, 금줄 밖에서 참관해야 했다. 여성도 부정이 없고 몸을 깨끗이 한 경우 참석이 가능하였다. 제관들이 제의를 지내는 동안, 제당에 가지 않은 주민들은 동네 사랑방에 모여 제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제관이 제사를 마친 뒤 제물을 들고 사랑방으로 돌아오면, 함께 음복하며 제의를 마무리하였다.

방죽말 당제는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나, 마을 제당 한가운데로 도로가 생기면서 향나무는 불도저에 의해 밀리고, 방죽도 메워졌다. 이후 당제는 자연스럽게 단절되었다.

## 2) 덕고개 우물제

덕고개는 마을의 풍수지리를 보면, 배 형국을 이루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우물을 여러 개 파면 배가 가라앉듯 마을도 가라앉는다고 여겼다. 그래서 하나의 우물을 파서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이 우물을 ‘정자우물’이라 부르며 위하고 보호해 왔다.

덕고개 사람들은 주요 식수원이자 신성하게 여겨지던 정자우물의 영험함과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7월 2일 우물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덕고개 주변이 개발되면서 수원이 끊기고, 우물터에 건물이 들어서서 등 주변 환경이 변해 우물이 소실되었고, 자연스럽게 우물제도 중단되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우물의 흔적과 그 유래를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1999년 안양시의 지원으로 호계1동 복지회관 부지 안에 ‘덕고개정제비’를 세웠다. 2009년부터는 지



1973년 덕고개 우물제를 지낸 정자우물(안양시청 제공)



2009년 덕고개 우물제(안양시청 제공)



1999년에 세운 덕고개 정제비

역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전통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호계1동 복지회관 앞에서 우물제를 다시 지내고 있다. 복원된 우물제의 제물은 소머리, 시루떡, 수박, 송편, 포도, 배, 사과, 꽃감, 밤, 대추, 막걸리 등이다.

1967년 당시 문교부 소속 문화재관리국에서 시행한 ‘전국 부락제당 조사 질문지’를 1995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모아 편집·발간한 『한국의 마을 제당』에는 덕고개의 우물제가 수록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물제를 지내는 제당의 이름은 ‘7월 정제’이며, 제의 날짜는 음력 7월 1일 낮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당의 위치는 마을 풍수지리에 맞춰 마을 중앙으로 되어 있다. 제의 목적은 마을의 번영과 마을 사람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데 있다. 우물제의 제관은 ‘제관’ 또는 ‘샌님’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제관은 일정 나이 이상의 깨끗한 남성을 마을 회의를 통해 지

명하여 선출하였다. 제관 1명, 봉죽인 1명을 선출하였으나, 봉죽인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임무는 알기 어렵다. 우물제를 지내기 전에는 깨끗하게 목욕한 후 물을 떠 놓고 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제의 절차는 ‘술을 붓고 절하기’로 되어 있다. 이때 제물로는 술, 과일, 흰떡, 큰 황소 1마리 등이 차려졌다.<sup>2</sup>

### 3) 안말 느티나무제

안말 느티나무제는 호계2동 안말 주민들이 지내는 마을 제사이다.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던 느티나무는 수령 약 250년 된 나무로, 안말의 수호신이자 정자나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마을에 산업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느티나무는 도로변에 놓이게 되었고, 이후 지나는 차량으로 인해 점차 고사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고사한 느티나무를 바로 없애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였다. 그러던 중 1996년 8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느티나무는 절단되어 김수선 공예 작가에게 넘어갔다. 이 작가는 고사한 느티나무를 활용하여 32점의 목공예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마을 주민들은 고사한 느티나무를 대신하여, 현재는 안말 어린이공원(호계동 918-28)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 전후로 느티나무제를 지내고 있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안말 출향민은 이 시기에 맞춰 고향을 찾아 제사에 참여한다. 제물은 일반



1960년대 안말 느티나무(안양문화원, 『안양의 옛사진』, 2006)  
기와집 뒤편에 있는,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안말 느티나무이다.



1973년 안말 느티나무(안양문화원, 『안양의 옛사진』, 2006)



1970년대 안말 느티나무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990년 안말 느티나무(안양문화원, 『안양의 옛사진』, 2006)

## 호계동 느티나무 고사 직전에 달해

건설회사측 부주의로 뿌리 갈려 나가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 있어야

호계동에 위치한 2억2000만 원의 느티나무가 고사 직전에 처할 우려에 도달해 이 마을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호계2동 내촌마을 앞 호계로에 버금드리 서 있는 이 느티나무가 겨울 상풍 또는 지난 5월22일, 상풍인물 스독 호크라인 기사가 호크로인물 하연서 호크라인을 일으켜 뿌리의 상당부분이 갈려 나간 것이다.

이제 상풍을 막을 주민들은 축교의 일당에서 연계를 위해 호계로지하의 지반을 호강했으나, 하연서 절단된 부분을 고치지 않았다. 시차에서야 나무뿌리를 관계자들에게 내보내게 해 호강조치를 하였다. 했다.

이제 이 느티나무는 한국나무문화재단에서 뿌리정수축전제 및 절당제를 투입, 위험수위는 낮췄으나, 이는 뿌리가 다량으로 갈려나간 데다가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중요한 관공의 거지할 할 수 없게 돼 시 차부와 이당부의 호강서 계획 강제다.

한국나무문화재단 장관호원장은 "현재 나무갈려 떨어져 가는 것으로 봐서, 폭설 가 등성이 위험하긴 하지만, 절당제로 나무뿌리 위험하다. 주민들을 설득시켜, 절당부회 가 저를 다,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동안 원래의 나무 나무가 있어도, 없어지게 넣는다"고 주장, 대안부회 가 저지기를 한국리 반대하는 입장이다.

내촌마을 이종민 재향회 회장은 "이 느티나무는 많은 주민의 정취와 함께 내촌 마을 호강 때대로부터 가랑을 받아왔고, 내촌마을을 지키는 거점"이라고 말했다. 또 마을 주민들에 의뢰해 "늘-늘사전에 내촌마을에 고향이 남아있는데, 이 느티 나무가 어릴 적부터 마을 생활을 지켜



주민들은 이 느티나무를 시 차당부를 지장나무를 화성하고 있다.

왔다"는 것이다. 하연서 내촌마을-주민들은 느티나무가 호계동 주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안락에서도 시간을 정수한 나무가 있는 상태라고, 시 차부에서 이를 막아 호강하고 이 거점들로 이 갈려 나가게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나무의 본래의 건강으로 되돌리 손다면 그정면으로도 가 하연서 최모지한, 현재 당해모의 나무도 느티나무의 정체를 계속할 수, 잃어 버릴까 주민들의 사정인 해주고 있다. ●

안말 느티나무 관련 기사(“안양저널”, 1992년 6월 17일)



공예가 김수선에 의해 재탄생한 안말 느티나무(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06년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안양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고목나무 생활전'이 개최되었다.



적인 제사 음식들로 준비하며, 제의 비용은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마련한다. 제관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술을 올리고 절을 하며 제의를 진행한다. 제의가 끝나면,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정을 나누며 하루를 보낸다.

#### 4) 신촌동 느티나무제

신촌동 느티나무제는 신말 주민들이 지내는 마을 제사이다. 현재 느티나무는 신촌동 1067-6 경관녹지에 있으며, 수령은 약 200년으로 추정된다. 이 나무는 원래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화재로 인해 고사하였고, 이후 고사한 나무에서 돌아난 순이 자라 지금의 나무가 되었다. 이 느티나무는 2023년 2월,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2023-2호로 지정되었다. 나무의 높이는 18.5m, 가슴 높이 둘레는 285cm이다.

신촌동 느티나무제는 제의 날짜가 두 차례 변경되어, 총 세 개의 날짜가 전해진다. 처음에는 신말 토박이들이 매년 음력 3월 3일에 제를 지냈으나, 원주민들이 떠나며 제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 신촌동에 평촌 먹거리촌이 들어서면서 제의가 복원되었고, 그때부터는 매년 음력 10월 3일에 제를 지냈다. 2023년부터는 매년 초에 제의를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음력 정월 대보름 전후로 날짜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정월 대보름에 제를 지내보니 날씨가 너무 추워, 다시 음력 3월 3일경 따뜻한 시기로 날짜를 옮기려는 논의가 있다.

1990년대 복원 당시에는 신우회(신촌동 주민 친목 모임), 상우회(평촌 먹거리촌 상인 친목 모임), 신촌경로당 회원들이 함께 제를 지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신촌경로당과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제를 지내고 있다. 2024년부터는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의를 주관하고 있으며, 제물 조리는 신촌경로당에서 담당하고 있다. 느티나무제에 올리는 제물로는 돼지머리, 북어, 삼색실과, 떡, 시루떡, 삼색나물, 막걸리, 쌀 등이 있다. 이중 생쌀을 제물로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제사 비용은 신촌경로당 회원과 신말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다. 기부 금액은 1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며, 제물은 안양농수산물시장에서 마련한다. 제관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며, 신촌경로당 회원들이 제물을 함께 준비하고, 제일이 되면 함께 느티나무 앞으로 올라가 술을 올리고 절을 하며 제를 지낸다. 제의 과정에서는 축문을 읽거나 소지를 올리는 절차는 없다. 제의가 끝나면 제물을 신촌경로당으로 옮겨와 신말 주민과 경로당 회원들이 함께 음복하며 하루를 즐긴다.

## 5) 구군포 군웅제

구군포 군웅제는 앞서 언급한 『한국의 마을 제당』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마을 이름이 ‘군포마을’로 기재되어 있다. 당의 이름은 ‘군웅제’이며, 제일은 매년 음력 10월 1일 오후 5시경이었다. 당의 위치는 군포마을 동북쪽 언덕 위 약 150m 지점이다. 당집 형태는 건평 1평 내외의 초가집으로, 대지 면적은 약 200평이며, 당집 내부는 비어 있는 상태로 기록되어 있다. 제의의 목적은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제관은 ‘연명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한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제관은 깨끗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선출하였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깨끗한 물로 3일간 목욕하고,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려야 했다. 제사는 마을 주민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술을 붓고 절하는 방식으로 제의가 이루어졌다. 제물로는 술·고기·과일·흰떡 등이 올려졌으며, 고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sup>3</sup>

## 2. 호계동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 1) 정월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척사대회는 ‘던질 척(拓)’과 ‘옷 사(裒)’를 합친 말로,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인 옷놀이 대회를 의미한다. 이 행사는 주로 정월 대보름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옷놀이를 즐기며 친목과 단합을 도모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마을 공터나 실내에서 열렸다. 이러한 척사대회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지역사회의 화합과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 대회는 현재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갈산동, 신촌동 등 호계동의 모든 동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날 열리는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척사대회는 동 별로 ‘정월 대보름 동민 화합 옷놀이’, ‘○○동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동 옷놀이 한마당 행사’, ‘정월 대보름맞이 ○○동민 척사대회’, ‘정월 대보름맞이 ○○동민 옷놀이대회’, ‘대보름맞이 옷놀이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최된다.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며,



호계1동 정월 대보름 옷놀이 한마당(201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대진표를 만들어 결승까지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행정동에 소속된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등의 단체에서 주관한다. 척사대회 개최를 위해 이들 단체는 수시로 회의를 열며, 회의 결과에 따라 대회 상품과 진행 방식을 결정한다. 대회 장소는 행정동 복지센터 인근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혹은 행정복지센터 강당 등 옷을 던지고 즐기기에 좋은 넓은 공간이 선택된다. 참가자는 개인당 1~2장씩 배부되는 참가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추가 참여를 원할 경우 별도로 표를 구입하여 참가할 수 있다. 대회 당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공지된 장소에 모인다.

척사대회는 풍물패의 지신밟기로 시작을 알린다. 지신밟기는 마을 전체를 돌며 진행되거나, 대회 현장에서 식전 공연으로 펼쳐지기도 한다. 풍물패들의 공연이 끝나면 지정된 장소에 여러 개의 옷판과 명석이 깔리고, 이후 단체전 또는 개인전으로 옷놀이가 진행된다. 경기에서 이긴 단체나 개인에게는 상품이 수여된다. 농사가 주 생업이던 시절에는 우승자에게 농기구가 상품으로 제공되었으나, 생업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는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을 상품으로 수여하고 있다. 대회가 끝나면 모두 함께 모여 마을 잔치를 벌이며 행사를 마무리한다.<sup>4</sup>

## 2) 단오제<sup>5</sup>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에 지내는 명절이다. 다른 말로는 수릿날·중오절(重午節)·천중절(天中節)·단양(端陽) 등으로도 불린다. 단오의 ‘단(端)’은 첫 번째를, ‘오(午)’는 다섯 번째를 의미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뜻한다. 단오는 여름 더위가 본격화되기 전 초여름에 지내는 명절로 모내기를 끝낸 뒤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단오에는 액운을 물리치고 더위를 막는 신앙적인 풍습이 많다.

안양문화원은 1979년 ‘단오제’를 시작으로 매년 단오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양 단오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1회 단오제는 안양유원지 그네장에서 여성들의 그네뛰기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동 대표로 추천받은 여성들이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농악대가 흥을 돋우었다. 1989년 제10회 단오제부터는 안양공설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행사 규모도 커졌다.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갈산동, 신촌동 등 안양 시민들이 행정동 단위로 참가하여 함께 민속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그네뛰기·씨름·제기차기·줄다리기 등이 있으며, 각 종목은 행정동별로 승패를 겨루었다. 2012년 제31회 안양 단오제부터 안양천 둔치로 장소를 변경하고 단오 행사 체험 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였다.<sup>6</sup>

한자어로 ‘추천(鞦韆)’이라고도 불리는 그네뛰기는 여성들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다. 그네는 큰 나뭇가지나 두 기둥 위에 가로대를 걸고, 그 아래에 줄을 늘인 후 발판을 매달아 만든다. 그네에 한 사람이 타면 ‘외그네’, 두 사람이 함께 타면 ‘쌍그네’라고 한다. 단오나 백중 무렵에 그네타기 대회를 여는 마을도 있었으며, 안양 단오제에서도 여성들이 행정동별로 참여하여 그네가 날아간 거리로 승부를 가렸다.



1			
2	3	4	

1. 제22회 안양 단오제(200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 제22회 안양 단오제 그네뛰기(200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3. 제22회 안양 단오제 줄다리기(200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4. 제22회 안양 단오제 씨름(200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씨름은 남성들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한자어로는 ‘각저(角抵)’·‘각력(角力)’·‘각희(角戲)’·‘상박(相撲)’ 등으로도 불린다. 두 사람이 살바를 잡고 힘과 기술로 상대를 넘어 뜨리는 방식이며, 명절마다 남성은 남성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팀을 나눠 진행하였다. 씨름에는 살바의 위치에 따라 왼씨름·오른씨름·띠씨름으로 구분한다. 주요 기술로는 안다리걸기, 외궁둥이, 들배지기, 무릎치기 등이 있다.

제기차기는 원래 남자아이들의 놀이였지만, 안양 단오제에서는 성인 남성들도 참여하는 민속놀이로 진행되었다. 제기는 엽전이나 구멍 난 동전에 한지나 비단을 싸고, 양 끝을 꿰어 여러 갈래로 찢어 만든다. 제기는 개인 또는 여럿이 함께 차며, 제기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오래 차는 쪽이 이긴다. 차는 방식은 한 발 차기와 두 발 차기로 나뉘며, 한 발 차기는 다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차는 ‘헐랭이’와 차는 발이 땅을 딛고 올라와 계속 차는 ‘맨제기’로 구분된다.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 무렵에 마을 주민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줄을 잡아당기며 겨루는 공동체 놀이다. 한자어로 ‘삭전(索戰)’, ‘조리지희(照里之戲)’, ‘갈전(葛戰)’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겨루기도 하여 ‘발하(拔河)’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 의식으로 의미가 크며, 줄은 외줄과 쌍줄이 있다. 쌍줄은 암줄과 숫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양동 수촌마을과 호계동에서는 쌍줄로 줄다리를 했다고 전해진다. 줄은 용에 비유되며, 암줄과 숫줄의 결합은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한다. 안양 단오제에서는 노끈으로 만든 외줄을 사용하며, 양편에 선 주민들이 줄을 당겨 승부를 가렸다. 줄 가운데에서는 팽과리를 든 사람이 서서 박자를 맞추며 흥을 돋우었다.

이 밖에도 안양 단오제에서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수리취떡 빚기와 먹기, 새끼꼬기 같은 전통 체험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운동장 한편에 차양을 치고,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단오 축제를 함께 즐겼다. 놀이 중간에는 풍물패나 동아리 댄스팀이 나와 장기자랑 공연을 펼쳐 축제 분위기를 더하기도 하였다.

### 3) 호계2동 방죽말의 줄다리기와 활쏘기

호계2동 방죽말에서는 줄다리기와 활쏘기가 세시 및 일상 놀이로 전승되었다. 줄다리는 정월 대보름에 윗말과 아랫말 주민들이 편을 나누어 힘을 겨루는 세시놀이로, 집집마다 짚을 추렴하여 공동으로 줄을 꼬았다. 방죽말의 줄다리기용 줄은 본줄 이외에도 여러 가닥의 결줄을 달아, 잡아당기기 편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주민들은 줄을 당겨



1970년대 호계동 마을 지도(이영휘 제공)  
호계동 토박이 이영휘가 직접 그린 것으로, 원으로 표시한 곳이 활터와 과녁이다.

이기는 쪽이 풍년이 든다는 속신을 믿으며,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줄다리기는 1930년대 초반까지 전승되었다.

활쏘기는 활과 화살을 이용해 표적을 맞히는 민속놀이이자 전통 무술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초기에는 사냥이나 전쟁의 수단이었던 활쏘기가 화약의 등장 이후 점차 놀이와 무예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방죽말은 오래전부터 활쏘기로 유명한 마을이었다. 이영휘가 작성한 1970년대 호계동 지도에는 활터와 과녁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활쏘기가 지역 주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했음을 보여준다. 방죽말 사람들은 마을 뒤 야산에 올라 맞은편 안산을 향해 활을 쏘며 일상적인 놀이로 즐겼다. 현재 호계2동 방죽말 경로당은 ‘소호경로당’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이곳에 정자를 짓기 위해 선비들이 모였을 때 호랑이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 정자의 이름을 ‘소호정(召虎亭)’으로 하였다는 설화에서 유래한다.<sup>7</sup> 정자가 있었던 1900년대 초반까지 방죽말 주민들은 이곳에서 활을 쏘며 풍류를 즐

기고, 시회를 열며 공동체 문화를 나누었다. 이처럼 활쏘기는 평상시에는 놀이로 즐기다가, 활쏘기 대회를 통해 마을 간 교류와 축제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활쏘기 대회는 당시 시흥군의 서이면(현 안양시) 호계리·비산리는 물론 지금의 안산 지역과도 교류하였다고 한다. 대회가 열리면 각 동네에서 상호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년에 여러 차례 대회가 열렸다. 대회 당일에는 활을 잘 쏘는 이가 ‘종띠’를 메고 출전하였으며, 과녁을 맞히면 기생들이 노래로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활쏘기 결과는 과녁 뒤 신호수가 깃발로 표시하였다. 화살이 위로 향하면 붉은 깃발을 위로 들었고, 화살이 좌우로 향하면 좌우로 펼쳤으며, 화살이 아래로 떨어지면 깃발을 아래로 내렸다. 이를 통해 활쏘기 실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sup>8</sup>

방죽말 활쏘기 전통은 광복 이후 다시 계승되는 듯했으나, 6·25전쟁을 겪으면서 명맥이 끊겼다. 오늘날에는 활쏘기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지만, 이영휘의 그림과 호계2동 소호경로당의 명칭이 방죽말의 활쏘기 역사를 전하고 있다.

## 참고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경기도편』, 1995.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안양문화원, 『안양의 옛사진』, 2006.  
『안양저널』, 1992년 6월 17일.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안양문화원(<https://anyanglsd.tistory.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註

1.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481~482쪽, 511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182~184쪽.
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경기도편』, 1995, 245쪽.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안양문화원(<https://anyanglsd.tistory.com>).
3.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244쪽.
4. 양시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501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200쪽.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5.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503~504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203쪽.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6. 안양문화원, 『안양문화원50년사』, 2020.
7. 『안양저널』, 1992년 4월 22일, 34쪽.
8.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540~541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203쪽, 261쪽.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제3장

# 호계동에 등장한 도시 중산층의 주거, 경향맨션아파트

이진희 작가



## 1. 호계동 최초의 맨션아파트

1978년 9월, 당시 주소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00-1 외 27필지에 착공된 경향아파트는 1985년 11월에 최종 준공까지 총 5차에 걸쳐 분양되었다. 이후 경향아파트는 2000년에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11월 호계현대홈타운2차아파트로 재탄생하였다.

맨션아파트. 말 그대로 맨션과 아파트가 합쳐진 용어이다. 그런데 이 용어에서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는가? 무언가 상충하는 것이 한 데 묶여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대한민국에서 맨션과 아파트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애써 내세우지 않더라도 층수나 바닥 면적,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둘은 정반대의 건축 형태를 보인다. 대체로 맨션이라고 하면 층수가 낮은, 그러니까 5층 미만에 소규모 단지로 지어진 고급 다세대 주택을, 아파트라고 하면 고층의, 즉 5층 이상의 층수에 대단지로 들어선 공동주택을 떠올리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평균 20~30층을 넘어 50층 이상의 아찔한 초고층으로도 세워지고 있으며 단지의 규모 역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형화하고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하면 고층과 대단지라는 이미지부터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층에 소규모 주택단지를 연상시키는 맨션이라는 용어가 아파트라는 용어와 한 데 묶여 쓰였다.

‘굴이 회수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는 옛말이 있다. 옛말처럼, 맨션이나 아파트 모두 서양에서 유래한 건축 용어인데, 한국에서는 본래의 뜻과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맨션(mansion)의 본래 뜻은 한 가구가 사는 대저택이고, 빌라(villa)의 본래 뜻은 시



아파트 건설을 공지하는 신문 기사  
 (『매일경제』 1978년 8월 21일)

끝 별장이다. 본래와 다르게 쓰이는 건축 용어는 이뿐이 아니다. 한국에서 스튜디오(studio)라고 하면 무언가를 촬영하여 작업하는 공간으로 여기지만 서양에서 스튜디오는 벽이 없는 내부 공간, 즉 침실과 주방이 한 공간에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가 원룸(one room)이라고 부르고 있는 공간이 스튜디오인 것이다. 서양에서 원룸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인다. 사실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아파트먼트(studio apartment)의 줄임말이다.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APT)라는 말도 본래는 아파트먼트(apartment)였다. 한국에 들어와 음절이 줄고 뜻도 변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아파트는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뜻하며, 공동주택이란 뜻은 대지(垓地)와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 2. ‘맨션아파트’라는 용어가 불러일으킨 열망

그렇다면 한국에서 맨션아파트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 1969년 10월 대한주택공사는 “전례 없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개인의 소득 증대에 따라 아름답고 아담한 중산층용 아파트를 국가의 재정적 부담 없이” 건립했다는 말과 함께 신문에 광고를 하나 냈다. 이때 광고에 실린 아파트가 한강맨션아파트였다. 그 평수는 무려 55평. 당시 지어진 마포아파트가 9평, 대한주택공사가 짓던 단독주택의 평수가 12~16평이던 때에 실로 엄청난 평수를 자랑하는 아파트가 등장한 것이다.<sup>1</sup> 그리고 이때부터 맨션아파트는 고급 아파트를 뜻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로 국제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폐허에서 놀랍도록 신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일명 압축적 성장이라 일컫는다. 그런



한강맨션아파트(1970년, 한국정책방송원 제공)

데 이 성장의 빛 뒤에 국민적 희생 및 농촌의 퇴락과 더불어 물질만능 혹은 배금주의 팽배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잘 살아보세’는 새마을운동<sup>2</sup>의 대표적인 구호이다. 이때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평가 기준은 물질이었다. 정신적 만족이나 내면의 충족을 논하기에는 당장의 배고픔 해결이 우선일 수밖에 없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체적 욕구가 만족되면 반드시 정신적 욕구 충족을 원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 내가 흘린 피땀에 대한 정신적 인정의 토대는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의 소유 여부, 나아가 소유한 물질의 많고 적음이었지 않았을까 한다. 즉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인정욕구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뜻이다. 현대적 의미의 중산층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 용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때는 1980년대였다. 맨션아파트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지어졌고, 이 용어는 사람들에게 남보다 잘 살고 싶은 욕망과 잘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 즉 ‘중산층’에 대한 욕망을 한껏 자극하지 않았나 싶다.

2024년 1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위소득 75~200%인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준으로라면 우리나라는 2021년을 기준으로 상층 14.4%, 중산층 50.6%,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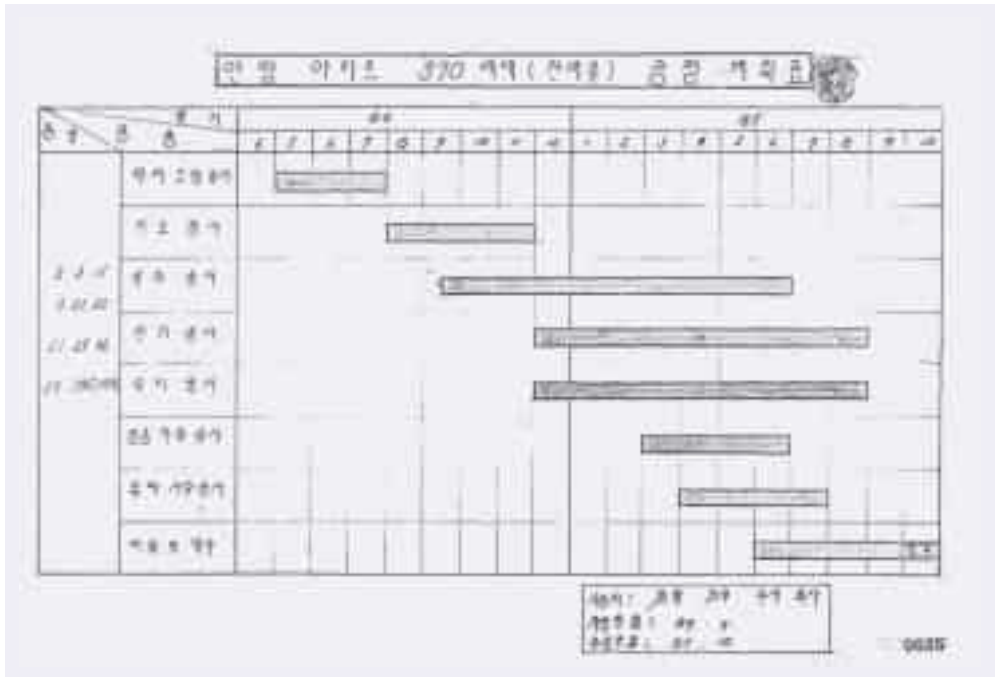
층 35% 정도가 된다.<sup>3</sup>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산층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는 없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며 “OECD도 중위소득 150%를 적용해 중산층을 구분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보다 적어 200%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sup>4</sup> 항간에 떠도는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sup>5</sup> 그 기준을 보고 나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묻게 된다. 중산층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중산층을 구분할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고 논란의 여지도 많을 것이다. 다만 삶의 가치 기준을 오로지 경제 지표에 의존하고 평가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을 외면하고 그 기준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총 세대수가 920세대였던 경향아파트는 같은 시기 바로 옆에 1500세대 규모로 나란히 들어섰던 호계주공아파트(2024년 현재 대림e편한세상)를 비롯하여 인근에 지어진 소규모 단지 아파트에 비해 세대별 평수가 넓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맨션아파트에 산다는 것 때문에 경향아파트 입주민들은 은근한 자부심을 가졌던 듯하다. 그 자부심은 앞서 언급한, 중산층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을 것이다. 그랬던 경향아파트는 그러나 1995년 8월 재건축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간의 저편 과거 속으로 영영 모습을 감추었다.<sup>6</sup>

### 3. 최종 준공 완료까지 난항을 거듭한 경향아파트

1978년 6월 12일, 총무로 소재 경향건설의 대표 유충근은 안양시 호계동 800-1 외 27필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영주택 건설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신청은 「도시계획상 토지구획정리 사업 구역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 1978년 9월 6일 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애초 안양시에 사업비 148억 6천만 원을 들여 28개 동 816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던 경향아파트의 건축 계획은 1978년 12월 8일 사업비 축소, 1979년 1월 20일 설계 변경 승인 등을 시작으로 1979년 11월 제1공구에 7개 동 230세대 건축하고 1981년 6월 제2공구 3개 동 120세대를 건축한 이후로 여러 차례 준공일이 연기되며 사업 완료 시까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짐작된다. 준공 연기 요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는 도매 물가 상승, 주택 경기 침체, 분양 실적 저조, 흑한기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 등이 그 이유로 적혀 있고, 그리하여 1978년에 9월에 착공한 경향아파트는 1985년 11월에야 최종 24개 동 920세대를 끝으로 건축을 완료하였다.



경향아파트 잔여분 370세대 공정 계획표(1984년, 안양시청 제공)

최종 건설된 동은 총 24개 동이었지만 경향아파트의 마지막 동 번호는 27동이다. 16·17·24동은 없다. 그 이유는 1978년 9월 6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신청서를 보면 1978년 6월 12일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16·17·24동은 없고, 가스처리장·노인정·공중변소가 표기되어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에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어떤 이유로 최초의 계획에서 간과되었던 시설이 추가되었고, 제한된 면적 내에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서 세 개 동이 빠진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도 빠진 동 번호를 그대로 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문이다. 동 번호를 변경할 경우 기 분양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서류상으로 어떤 문제가 되었기 때문일까?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 길이 없다. 1979년 1월 20일 승인된 설계 변경서를 보면 애초 28개 동 816세대를 계획했던 건축 계획이 25개 동 760세대로 변경되어 있다. 이 계획은 1980년 7월 16일에는 900세대 건축으로 다시 변경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변경을 거치면서 경향아파트 건축은 최종 24개 동 920세대로 마무리되었다.

첫 착공 후 1년 3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경향건설은 1979년 11월 제1공구에 7개 동(1, 4, 5, 6, 7, 8, 9동) 230세대를 준공하여 23평 200세대, 28평 30세대를 분양하였



1981년 경향아파트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다. 경향아파트 건설은 제2공구 건축 때부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듯하다. 총 320세대 준공을 목표로 했던 제2공구의 건축은 1981년 6월 3개 동(10, 11, 12동)에 그쳐 120세대만 분양되었고 200세대가 미착공분으로 남았다. 여기에 3공구 350세대의 공사도 시작해야 했으나, 주택 경기 침체로 분양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자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 때문에 경향건설은 약 2년이 지난 1983년 8월 무렵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경향건설은 1984년 6월 200세대, 1985년 6월 140세대, 마지막으로 1985년 11월에 230세대를 건축하여 총 570세대를 1년 반 동안 분양하였다.

난항 끝에 건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경향아파트는 그리 오래지 않아 재건축이 논의된 듯하다. 1995년 11월 2일 자 『매일경제』 신문은 현대산업개발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경향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록에 따르면 경향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된 원인은 “콘크리트 부식으로 건물 곳곳이 갈라지고 상수도관이 부식되어 수선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했으며, 중앙집중식 난방에 사용되던 병커-C유가 심각한 공해를 일으켰기”<sup>7</sup> 때문이라고 되어있다.



1985년 경향아파트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경향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999년 9월 18일 안양시의회가 제3차 본회의에서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용적률을 310%에서 380% 미만으로 의결 처리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경기도가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확정) 안’을 승인함으로써 가시화되었다. 경기도로부터의 승인 확정은 호계주공아파트와 비산주공아파트가 하나의 지구로 묶여 받았지만, 해당 공사는 각각 이루어졌다. 현대건설에서 재건축 사업을 맡았던 경향아파트는 2000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호계현대홈타운 2차아파트로 탈바꿈하였다.

그렇다면 첫 준공부터 대략 20년, 마지막 준공부터 15년 정도 안양에 존재했었던 경향아파트 주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오래전 경향아파트 주민이었던 강연희, 장옥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경향아파트 주변의 모습과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 4. 꿈의 주택 경향아파트와 아파트 주변의 모습


1952년 평택에서 태어난 강연희는 안양5동 충훈탑(현충탑) 아래 냉천동으로 1960년에 이사를 와서 안양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70년대 석수역 근처에 있던 동아제약에서 근무했던 강연희는 1978년 11월에 결혼하였고, 비산동 주공아파트에 입주하여 두명의 딸을 출산하였다.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기에 15평 주공아파트는 너무 비좁았고, 무엇보다 연탄을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강연희가 기억하기로 1970년대까지는 아파트라고 해도 대부분 연탄으로 난방했는데, 경향아파트는 중앙난방시스템을 갖춘 아파트였다. 1960년대 말 대한주택공사는 한강맨션아파트를 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파트의 특징을 열거하였다.<sup>8</sup>

- ① (시청에서) 5km, 자동차로 10분 거리의 교통
- ② 자녀 교육 시설 완비
- ③ 한국 최초 중앙 공급 보일러 설치
- ④ 알루미늄 창
- ⑤ 어린이놀이터, 정원, 주차장
- ⑥ 쇼핑센터
- ⑦ 온수 상시 공급
- ⑧ 침대 생활양식
- ⑨ 단지 주위 울타리 설치와 경비원 배치

이러한 특징을 두고 박철수<sup>9</sup>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전에는 주택이 위와 같이 않았음을 뜻하며 (중략) 이는 구별 짓기 장치로 작동하면서 맨션아파트가 ‘꿈의 주택’이 되었다.” 위에 열거된 한강맨션아파트의 특징은 현재 우리가 떠올리는 아파트의 건축 형태 및 입지 조건과 대부분 일치한다. “연탄 가는 게 힘들어서 중앙난방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로의 이사를 결심했다는 강연희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향맨션아파트는 한강맨션아파트와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 면에서 당시 안양 주민들에게 꿈의 주택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강연희는 중앙공급식 난방에 조용하고 쾌적한 아파트 단지, 효율적인 공간 등을 갖춘 경향아파트의 장점에 매료되어 1981년에 경향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이곳에서 3~4년을

81. 6월 입주



# 경향 2차 아파트

19평형 30세대  
 24평형 18세대

## 잔여분 선착순 분양

**※ 동일평수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용 면적이 넓습니다.**

(이는 33년의 건축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설계한 경향만이 자랑합니다.)

14층 고층, 강북 현관

구분	분양면적	전용면적	분양가	건평면적	실감비용	계약금	잔도금
19평형	19.7㎡	15.2㎡	14,300	3,380	11,920	2,180	
24평형	23.9㎡	19.9㎡	15,700	3,880	14,720	2,980	4천만원

### 특징


1. 호원적인 공간 계획으로 보다 넓은 전용 면적 확보.
2. 동일평수에서 납부 및 매스 집행이 쉽.
3. 호원적이고 쾌적한 아파트 단지.

**분양신청 및 문의**


본사 (776) 1835, 3042  
 안양모빌하우스  
 (345 (3) 3808, 3807)

### 분양신청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인적, 재야  
 ※ 분담금기부금 거당하는 주택 입주



교통편 : 57번→경향APT지차, 전철→명파역 지차 1번버스로  
 군포 4거리지차, 시외버스→수원행 군포 4거리 지차.



## 경향건설주식회사



경향아파트 2차 분양 광고(『조선일보』, 1981년 3월 10일)  
 당시 경향아파트의 주요 특징과 약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살고, 1984년에 호계3동 구군포의 삼신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이후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1992년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평촌으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 재건축된 경향아파트인 호계현대홈타운2차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와서, 2004년부터 부녀회장을 맡아 다년간 활동하였다.

강연희는 경향아파트 거주 당시의 호계동을 신사거리와 구사거리로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다. 신사거리는 현재의 호계1동으로 들어가고, 구사거리는 현재의 호계3동으로 들어가는데, 1980년대 초 구사거리 골목에는 술집과 유흥업소가 많아서 경향아파트 입주



1980년대 초반 경향아파트 일대(안양상공회의소 제공)  
오른쪽 아래가 경향아파트이다.

민은 물론이고, 인근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아이가 어릴 때라 아이를 업고 불일을 보러 그곳을 지날 때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그야말로 손바닥만 한 천으로 위아래를 겨우 가린 유흥업소 여성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한국관이라는, 당시 안양에서 제일 크다고 알려졌던 나이트클럽도 있었다. 구사거리는 한마디로 밤의 거리였다. 낮에는 쥐 죽은 듯 텅 비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서부터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마치 중국이나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처럼 그곳은 밤이면 불야성을 이뤘고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호계동 인근에는 공장이 많았다. 강연희가 이름을 기억하는 공장으로는 농심, 유한양행, 금성통신, 동양레미콘 등이 있는데 ‘○○○○ 안양공장’이라 불리던 이들 공장의 주소는 알고 보면 군포시에 속한 경우도 많았다. 군포시와 의왕시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과 맞닿아 있어, 그 일대 공장을 ‘안양공장’이라 일컬었다. 이들 중 동양레미콘 공장은 현재도 호계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출입구에서 볼 수 있다. 구사거리 쪽에 유흥가가 형성된 것은 이 지역에 밀집한 공장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몇 교대로 이루어지는 고된 노

동의 스트레스를 유흥으로써 즉각 해소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1970년대 말 또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재 호계3동으로 지칭되는 지역은 구군포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가가 거의 없었지 하였다.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다.

경향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당시 호계3동은 대체로 논밭이어서 경향아파트 아이들은 겨울만 되면 스케이트를 타러 그곳으로 달려갔다. 경향아파트 옆 호계주공아파트 뒤쪽은 포도원마을 입구였다. 포도밭이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 무색하게 현재는 가구단지로 바뀌었다. 포도원마을을 경계로 안양시와 의왕시가 나뉜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의왕시, 왼쪽은 안양시이다. 경계가 되는 그 길을 따라 쪽 올라가면 의왕시에 속해 있는 한센병 환자촌 나자로마을이 나오는데, 03번 버스가 그곳을 다닌다. 그 시절만 해도 사람들은 나자로마을을 ‘문둥이촌’이라 불렀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곳을 지날 때면 아이들은 무섭다며 강연희에게 매달렸다고 한다. 꿈의 주택이었던 경향아파트였지만, 경향아파트 주변으로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 5. 경향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의 생활

경향아파트는 1973년에 개통된 경수산업도로 변에 있었으나, 분양 당시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곳에 있었다. 지금은 마을버스가 생기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많지만, 예전에는 몇 안 되는 버스만 이곳을 지나다녔다. 영등포까지 가는 5번 버스 노선이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이 구사거리, 즉 구군포사거리 쪽에 있어서 대중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당시 경향아파트 아이들은 모두 호성초등학교를 다녔다. 아이들은 아파트 뒤쪽 산길을 지나서 학교에 가야 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고 유일한 길이였다. 그러나 이 길은 겨울에 눈이 오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험난하였다. 구 사거리 쪽에 있는 연립주택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봉고차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길로는 교도소 옆길이 있었는데, 이 길은 무서워서 아이들은 봉고차로 함께 통학하였다. 이처럼 부족한 대중교통 편이 없었던 때라 구사거리 쪽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차량을 마련하여 학교를 다녔다.

경향아파트에 막 이사 왔을 무렵 주변에 있던 아파트는 대체로 방 하나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용인 구조였다. 이름만 아파트였을 뿐, 3층짜리 연립주택이었다. 아마도 잠



경향아파트 아이들이 다녔던 호성초등학교의 현재 모습



1980년대 경향아파트 옆 국도변에 조성된 꽃동산(1986년, 안양시청 제공)



1980년대 경향아파트 주변의 노점 단속(1986년, 안양시청 제공)

만 자고 나가는 공장 노동자들이 주 수요층이었던, 이를테면 지금의 원룸과 같은 개념의 주거 공간이지 않았을까 싶다. 경향아파트 착공 당시 인근에는 주택보다는 공장이나 상가가 더 많았다. 경향아파트의 평수는 각각 19평, 23평, 24평, 28평, 30평이었다. 1동이 28평, 2동과 3동이 30평, 나머지는 23평이나 24평이었고, 19평은 5차에 많이 지어졌다. 큰 평수는 1차와 2차에 주로 지어졌다. 1984년 인근에 잇따라 준공된 양수아파트(1984년 1월), 태하아파트(1984년 3월), 삼천리아파트(1984년 12월)는 차례로 100세대 15평 단일평형, 102세대 22평 단일평형, 190세대 18평과 150세대 20평으로 세대수와 평수 모든 면에서 경향아파트가 앞섰다. 13평 단일 평수였던 주공아파트에는 주로 서민층이 입주하였고, 경향아파트에는 당시 안양에서 ‘좀 산다는’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그 때문이었는지 경향아파트 아이들이 많이 다니던 호성초등학교는 치맛바람이 센 학교로도 유명했다고 한다. 강연희는 그런 선입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



으나 경향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부유해 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당시 경향아파트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는 안양중앙시장 쪽에 있는 김성수이비인후과나 안양교도소 건너편에 위치한 한성병원, 또는 대동병원, 서울병원, 안양병원(현 안양샘병원)을 다녔다. 장을 볼 때는 아파트 상가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주로 아파트 앞에 열리는 노점상에서 식재료를 장만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호계1동에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하였다. 이후 1999년 호계동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마트를 찾았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호계동 홈플러스는 처음에는 까르푸(1999년 2월 개점)였다. 까르푸는 곧 홈에버로 바뀌었고, 홈에버는 다시 홈플러스로 바뀌었다가, 2024년 9월에 폐업하였다. 부녀회에서는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웃끼리 필요한 것을 나누기도 하였다. 입주민들은 바자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수시로 아파트 벤치에 앉아 일상 대화를 즐겼다. 이처럼 경향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은 정다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갔다.

## 6. 경향아파트 시절과 거의 동일하게 재건축된 상가

5차 분양 때 경향아파트에 입주한 장옥희는 1955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출생으로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안양으로 입성했다. 남편 직장이 군포에 있어서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경향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이후 경향아파트 주민이 되었다. 4차 분양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나 5차 분양을 하고 있던 때였다고 장옥희는 기억한다. 안양 본 백화점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곳에 왔는데 근방이 허허벌판이라 택시에서 내렸을 때 바람이 엄청나게 썰던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 장옥희가 경향아파트에 입주한 것은 1985년 11월 20일. 5차에는 가장 작은 평수인 19평이 분양되었는데, 28평, 30평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았고, 작은 평수에는 신혼부부와 젊은 층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5차에 입주한 사람 중에는 젊은 엄마들이 많았다. 아파트 앞 상가 안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젊은 엄마들이 입주한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경향아파트가 호계현대홈타운2차아파트로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상가가 다시 지어졌다. 상가 소유주들은 이전과 동일하다. 위치나 구조도 재건축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상가를 재건축할 때 현대건설과 조합에서는 상가 층수



호계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상가

를 높이고, 운동 시설 등 다른 상점을 추가로 입점할 계획이었다. 이 방법이 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계획은 무산되었고, 건물 구조에 큰 변화 없이 상가 건물은 재건축되었다. 대신 상가 소유주들은 대지 지분을 아파트 쪽에 조금 내주면서, 상가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섰다.

당시 아파트 상가는 지하에 생선 가게 따로, 닭 파는 가게 따로, 쌀집 따로, 마치 재래 시장처럼 따로따로 있었다. 지금의 아파트 상가 건물과는 다른 형태였다. 멀지 않은 곳에 호계시장이 있었지만, 장옥희는 그곳에 가본 적이 별로 없다. 지금은 간단한 물건만 아파트 상가에서 사고, 다른 것들은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지만, 옛날에는 아파트 상가가 시장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구사거리 쪽에 홈플러스가 생겼고, 내손동에 롯데마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마트, 차를 몰고 5분만 나가면 갈 수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겼다. 1980년대만 해도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입주민들은 아파트 앞 상가를 많이 이용하였다. 장옥희가 처음 경향아파트에 왔을 때 상가에 있는 병원은 소아과 한 곳뿐이었다. 그때 그 소아과는 이화의원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도

문을 열고 있다.

19평에 살던 장옥희는 1995년, 28평으로 이사하였다. 28평은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하였는데, 1차에 지어진 세대라 거실에 라디에이터가 있었다. 그 라디에이터가 중앙난방의 흔적이었다. 옆에 있던 주공아파트는 연탄난로를 사용하였고, 경향아파트만 병커-C유를 사용하는 중앙난방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5차 분양 때 이르러서는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집들이 많아졌다. 1차와 2차에 지어진 세대는 오래돼서 열 손실이 커 겨울에 추웠는지 모르지만, 5차에 입주해서 살 때는 겨울에 러닝셔츠만 입고 살 정도로 따뜻해졌다. 그리고 경향아파트에서는 부녀회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다만 세대 수가 많다 보니 주민 단합 활동은 어려운 면이 있어 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장옥희가 입주했을 당시에는 경향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문제는 개선된 상태였다.

## 7. 재건축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여전한 난제들

경향아파트 옆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총 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이었다. 2,0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뒤쪽에 바로 호성초등학교가 있어서 새로운 초등학교를 유치하는 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성초등학교가 증축되었다. 이후로도 계속 학생 수가 추가되면서, 호성초등학교는 한 번 더 증축되었다. 재건축된 호계현대홈타운2차아파트에 실제 입주가 시작된 것은 1999년부터이다. 오늘날은 지어진 지 약 40년이 지나면, 재건축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20년만 지나도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었다. 경향아파트의 경우 1~2차 준공으로 따지면, 20년이 지나기도 하였고, 인근 지역을 묶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결정되었다.

호계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재건축은 1996년 말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실제 이주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척시키려는 조합 측과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려는 세대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2000년 6월에는 용역원들이 대거 들어와 아파트 주 출입구를 봉쇄하여 주민들의 진입을 막고 철거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300여 세대의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저지하던 주민이 상해를 입기



태권도 학원 이름으로 남은 '경향'

도 하였다. 사업이 최초 결의 당시의 조건과 상이하게 전개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여 대거 조합에서 탈퇴하는 일도 있었다.<sup>10</sup>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경향아파트에서도 여지없이 일어난 것이다. 다툼이나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진정 없었던 것일까.

장옥희는 경향아파트 재건축 당시 이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는 최종적으로 26세대였는데, 이들은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간 뒤에야 재판에서 승소하여 갈등을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 이후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 요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재건축은 완료되었다.

1,977세대의 호계현대홈타운2차아파트가 자리한 곳은 3종 주거지이다. 3종 주거지는 용적률을 가장 많이 넣어 지을 수 있는 주거지이다. 당시 상한 용적률이 400%로, 호계현대홈타운2차아파트는 351%의 용적률로 건립되었다. 높은 용적률로 세대 수는 많이 늘어났고,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은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는 조밀해졌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인덕원 삼성아파트의 용적률은 399%이고, 인근의 비산동 롯데아파트와 래미안은 용적률이 비슷했다. 대림아파트의 용적률도 359%으로 높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재건축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된 호계현대홈타운2차아파트는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고, 엘리베이터가 가동된다.



경향아파트를 재건축한 현대홈타운아파트



현재 현대홈타운 건너편 아파트형 공장 한솔테크노타운은 1998년에 생겼는데, 주소는 군포시 당정동이다. 최근 구사거리 쪽에는 신일IT유토, 아크로 베스티뉴 등이 생겼다.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가 자리했던 곳에는 원룸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주택가가 되었다. 문제는 안양교도소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이다. 안양교도소가 호계동에 들어선 게 1963년. 그때만 해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라 문제가 없었으나 세월이 지나 주거 단지가 형성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년 호계동에 지어진 평촌센텀퍼스트아파트의 경우 길 건너편에 교도소가 있어 더욱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안양교도소가 처음에 이곳으로 들어올 때는 시설을 약 30년만 유지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호계동의 안양교도소를 합쳐서 '법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의왕시민들의 반대로 계획은 무산되었다. 의왕시의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를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으로 통합 이전하면 인센티브로 안양시에서 500억, 의왕시에서 500억을 내겠다는 이야기까지 오고 갔다고 한다. 교도소라고 해도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양교도소에는 미결수와 기결수가 섞여 있다. 그것이 문제이다. 미결수들은 형이 확정 안 돼서 법원을 오가야 하니 법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미결수만 안양에 남기고 기결수들은 옮겨 가는 방식으로, 대신에 땅을 어느 정도 기부 채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안양교도소를 현대식으로 다시 짓겠다고 했는데, 정치인들이 "그것은 재건축이지 이전이 아니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안양교도소 이전은 난제 중의 난제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들고나오지만 실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도소가 이전된다면 호계3동 일대의 풍경은 무척 달라질 것이다. 알 만한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사실인데 교도소 옆 벚꽃 길이 특히 유명하다. 오랜 세월 호계3동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끼쳤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기대된다. 발전 문제를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만 다루지 않고 지역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내면적 충족감을 위한 여러 시설과 환경이 조성된다면 호계3동은 더욱 살기 좋게 발전하지 않을까.

## 참고자료

- 「한국 최초의 한강맨션아파트 제2차 분양」, 『조선일보』, 1969년 10월 6일.  
「安養에 아파트 건설」, 『매일경제』, 1978년 8월 21일.  
「安養호계동 경향아파트 現代산업서 재건축수주」, 『매일경제』, 1995년 11월 29일.  
「안양시 호계동 경향2차아파트 잔여분 선착순 분양」, 『조선일보』, 1981년 3월 10일.  
군포시사편찬위원회, 『군포시사-별책 2권』, 2010.  
안양문화원, 『안양의 옛사진』, 200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008.

## 註

1. 「“연탄불 갈 일 전혀 없는 곳”…중산층, 맨션의 삶을 욕망하다」, 『경향신문』, 2016년 7월 5일.
2.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지방 장관회의를 통해서 ‘새마을 가꾸기’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농촌 부흥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시작되었다.
3. KDI, 2024, 「당신은 정말 중산층입니까?」, 『매거진 KDlans』 vol. 61. (<https://www.kdi.re.kr/>).
4. 「연봉 7,800만 원…‘기재부 피셜’ 중산층-고소득층 가르는 기준?」, 『한겨레』, 2023년 10월 1일.
5.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자가 소유하고, 부채가 없으며, 현금 및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에 자녀는 두 명, 매년 해외여행 1회 이상…”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았다.
6. 「안양시 호계동 경향아파트 재건축… 2,536가구 96년 말 착공」,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1일.
7. 「안양 경향아파트 재건축 소식」, 『주거 환경신문』, 2000년 1월 21일.
8. 「“연탄불 갈 일 전혀 없는 곳”…중산층, 맨션의 삶을 욕망하다」, 『경향신문』, 2016년 7월 5일.
9. 박철수(1959~2023),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건축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역임.
10.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안양 호계동 경향아파트」, 『오마이뉴스』, 2000년 6월 27일.

## 제4장

# 금성마을에서 어바인퍼스트까지, 호계1동 주거의 변화

조항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주거지를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한다. 첫 번째 사전적 의미에서의 주거지(住居地)는 ‘사람이 사는 지역’을 뜻하고, 두 번째 의미로서의 주거지(住居址)는 집이 있거나 있었거나 ‘집을 지을 자리’를 뜻한다. 호계1동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부지는 두 가지 의미 모두를 포함한다. 농경지나 목장으로 활용되었던 평촌 등지와 달리 이곳은 야산이 깎여 주택단지가 된 뒤 빌라와 아파트까지, 오롯이 ‘주거지’로 존재하였다. 산업 격동기에는 일자리 옆 주거 지역이었고, 세기말에는 일자리에 가기 좋은 주거 지역이 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주거하기 더없이 좋은 지역이 되었다. 이 넓고 평탄한 땅에는 집이 있었고, 집이 있으며, 집이 있을 예정이다. 또 이 평탄한 땅에는 사람이 살았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예정이다. 오랜 과거는 켜켜이 쌓여 산을 보금자리로 만들었다. 이른 아침 주거지를 떠나 고된 하루를 끝내고 지친 몸을 누이는, 주거지라는 안락한 쉼터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한다.

## 1. 내가 만난 호계동

1947년,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난 조효연은 생계를 위해 1968년 2월 호계리를 찾았다. 당시의 안양 또한 먹고 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조효연은 지인을 통해 안양에 정착할 수 있었다. 평생 문경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 싫다는 생각 또한 그의 발걸음을 안양으로 이끈 이유였다. 조효연은 현재의 호계3동에 터를 잡고 소위 불량 청소년을 계도하는 일을 맡았으며, 이후에는 중앙일보 관리직으로 근무했다. 작은 시골 동네인 호계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다.



호계1동에 건설 중인 금성통신(1969년, 경기도청 제공)  
주변의 공터로 보이는 곳은 농경지이다.

현재의 안양 지역에서 변화가라 할만한 곳은 안양역 앞의 안양일번가뿐이었다. 조효연은 안양에 그나마 유명한 것이 포도였으며, 절대 농지였던 평촌동은 비옥한 평야 농농사 지대였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산 아랫마을인 호계1동의 토지는 그리 비옥하지 않았다.

조효연 내 왔을 때만 해도 이쪽에 8동에 9동짜리 거는 포도밭이 있었고. 그래서 안양 포도, 안양 포도 한 게 옛날에 (중략) 구사거리만 몇 채 집이 있었지. 여기(호계1동)는 논도 많지 않았고. 여기 흙플러스 있고 그 앞에 동네들 지금 공장 있는 데, 거기가 전부 농지였지, 주로. 여기가 별로 농경지가 좋지 않았어. 여기 옆에 또 산이고. 여기서 금성전선이 오면서 이제 그거하고 통신이 오면서 여기에 공장 그 후에 앞에 공장들이 들어섰지. 거기는 논으로 저쪽에 안양천 물을 저 구사거리에서 퍼 올렸어. 다리 있는 데서 그 물을 퍼 올려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옛날에 내가 왔을 때도 바로 다리 옆에 저기 물을 파면 양수기 넣고 물 퍼가지고 여기 농사를 짓고 그래.

평범한 시골 동네 같아 보였지만 1번 국도가 동네를 가로지른다는 점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음을 시사하였다. 1번 국도는 한국의 세로축을 길게 연결하고 있어 서울로 가기에 용이하였고, 부산까지 이어져 있어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환경이었다. 일제



1993년 호계1동 금성통신, 금성전선 일대(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강점기에 심었던 포플러와 플라타너스는 지금까지 1번 국도와 함께 호계동을 가로지르며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일찍이 금성 일가는 안양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1960년대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결과적으로 호계1동에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초효연** : 여기는 유통단지가 됐지. 나중에, 통신이 유통단지로 변했지. 통신이 여기 팔고서 저기 청주로 내려갔는데, 금성통신이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전선은 그전에 올라왔고, 그것도 전선 옆에 럭키 하이타이라고 있었고, 럭키 하이타이 비누공장.

대단지 아파트가 줄지어 늘어선 호계1동의 경수대로 서쪽 지역은 1960년대까지도 민가가 거의 없는 지역이었다. 마을은 현재의 호계3동 구군포를 중심으로 번성했는데, 무엇보다도 1960년대 중반 이후 들어선 금성전선<sup>1</sup>과 금성통신<sup>2</sup>의 덕이 컸다. 금성통신은 금성사가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양에 통신기기 전용 공장으로 설립하면서 안양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69년 호계1동에 터를 잡고 사세를 확장한 뒤 1992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들 금성 계열사는 회사 근처의 야트막한 산자락을 매입하여 택지로 조성한 후 직원

들에게 분양하였다. 택지를 분양받은 직원들은 각자 자기 집을 지었고, 마을이 형성되었다. 금성에 다니는 직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 하여 이 마을은 ‘금성마을’이라고 명명되었다. 금성은 이후 LG 기업과 LS 기업 등으로 사명을 바꾸었는데 호계동과 그 일대에는 럭키아파트와 같은 역사의 산물이 남아있다.

**조효연** : 천주교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이제 그다음에 금성마을이 들어오고 (중략) 여기 마을이 없었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마을에 정착한 게 금성마을이라고, 금성통신이 오면서 그 사원 주택을 짓기 위해서 거기서 50명 분할을 해가지고 금성통신에서 그렇게 해줬죠. 어디쯤 되느냐 하면은 여기 그 단지. 어바인 그단지. 이제 그 옆에가 LG아파트도 나중에 이제 개발되면서 차츰 돼서. 거기가 개굴창 그냥 이렇게 밭, 논, 요기 이렇게 도랑 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산뿌리가 쪽 내려온 거야. (중략) 그래가지고 사원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사 가지고 집을 지었지. 그 후에는 이제 서로 매매가 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 주택을 개발해 준 거지. 금성마을이라고.

**조효연** : 여기 통신이 오면서 저 옆으로 해서 성당 있는 데로 해서 길이 조그마하게 있어. 저쪽 지금 버스 다니는 금성연구단지 그 앞에 길은 금성통신이 올라오면서 부산에서 자기네들 땅을 내놓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버스를 다니게 하겠다 하고 자기들이 그 땅을 내놨어. (중략) 여기 금성통신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이 그 사원들 이동을 돕기 위해서 저 사원 주택을 지면서 거기로 버스를 다니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다고.

호계1동에 들어온 금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입지 조건에 있어서 교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마을을 세운 이후 주민의 교통 또한 매우 중요하였다. 금성통신은 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통근길을 냈다. 금성통신에서 깔아놓은 도로는 현재까지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옆에 자리하고 있다. 길이 트이니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온갖 공장이 들어섰으며 일자리를 따라 인구도 늘어났다. 호계1동의 서쪽과 북쪽에는 공장이 즐비했고 우측에는 금성마을에서부터 민가가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대기업을 따라 유관 기업이 들어서고 중소기업이 속속들이 생겨났다.

조효연이 지금의 호계1동으로 이사하게 된 데에는 1977년 7월 7일 폭우로 인한 수해 영향이 컸다. 당시 폭우로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때 도로와 교량이 끊기기도 하였다. 호계동의 중심가라 할 수 있는 구사거리 또한 재난을 피해 갈 수 없었다. 구사거리는 현재의 구군포교와 직선으로 연결되어



금성통신과 금성마을(1974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있었는데, 안양천이 범람하면서 뿌리뽑힌 나무가 구군포교를 막아 구사거리 또한 피해를 입었다. 이때 구사거리에 거주하던 조효연의 집도 일부 침수되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안양을 직접 방문하여 수재민을 격려하였고, 전국에서는 구호의 물결이 일었다. 생활 터전은 점진적으로 복구되었고, 이와 동시에 금성마을은 뒷산을 깎고 새로운 주택 단지를 형성하였다. 조효연은 이때 이사를 결심하였다.

**조효연** : 저쪽 구사거리 살다가 그때 이제 77 수해가 났어. 여기 해가지고 군포로 가는 다리가 있었어. 여기서 지금 구사거리라고 있어. 이쪽에 가면 구사거리로 해서 옛날 도로가 있어 지금도. 새로 다리를 놔지만, 저 위에 의왕 있는 데서 포푸리 나무 이런 게 뽕혀서 다리를 막아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사거리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나도 구사거리 그때 살 때인데 우리 집에, 부엌에까지 물이 꽉 차고 그랬지. 77년도. 그래서 여기 사람도 많이 죽고. 그 다리가 주저앉았어. 그래서 다리를 새로 놓고 전부 그런



1977년 홍수로 무너진 호계3동 구군포교(안양시청 제공)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주택 허가가 나가지고 그 당시 미니 2층 다세대들도 돈 있는 사람들운 자가. 개인 세대 개인 집을 이렇게 단독으로 하지만. 나는 돈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미니 2층으로 지은 거 다세대. 6가구가 살았지. 1층에 세 가구, 2층에 세 가구.

1980년대 초 호계1동으로 이사한 조효연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안양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대거 형성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그 자신도 먼 문경 땅에서 일자리를 찾아 안양에 온 타지인이었다. 타지인들은 호계1동 주택가에 거주하면서 찬란한 미래를 그리며 열심히 일했다. 산업 호황기인 1980년대의 구사거리의 일을 마친 직원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유흥가로 존재하였다. 조효연 또한 구사거리를 자주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중앙일보 개발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안전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조효연** : 세 들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이제 여기 공장이 많이 들어서니까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원주민은 몇 명 없어. 오래 안 됐지, 여기는. 80년대 후에 생겼지. (중략) 이제 공장이 자꾸 생기니까. 사기업체들이 요소요소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앞에도 이 앞에 이제 홈플러스 앞에서 경



1980년대에 유흥업이 호황이었던 호계3동 구사거리의 현재 모습

남제지 뭐 또 이래 있고 거기 공장이 영창가공 조그만 소규모 중소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지. 그럼으로써 구사거리가 유명해진 것이 그 종업원들이 저녁으로 퇴근하고서 갈 데가 없으니까, 술도 한잔, 좋아하는 사람들 먹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가 변화한 유흥가가 됐지.

구사거리가 번영한 데에는 한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역시 교통의 이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호계동을 가로지르는 1번 국도는 먼 곳까지 사람을 실어 날랐다. 안양의 교통 요지는 크게 두 군데 있었는데 첫 번째로 알려진 곳이 안양역이며 두 번째가 바로 호계동의 버스정류장이었다. 큰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둘 중 어딘가를 통해야 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이동을 위해 호계동에 몰려들었다. 80년대의 호계동은 그렇게 번영하였다.

**조효연** : 수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여기 구사거리에 정류소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 안양 이제 그 역 앞에 정류장이 있고. 명등포, 명등포로 가고 용산으로 가고 그랬어. 도로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국도. 저기 충청도 저쪽, 경상도, 목포까지 내려가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이쪽으로 조그만 길로 해가지고 골프 중 도로에서 서신 남양 가는 도로가 또 1차선으로 이렇게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수원에서 출발하면 이것밖에 없었고 안양에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기 차 타려면 여기 나와서 타야 돼. 청계나 이런 데 번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사거리가 유명한 것이 그때 또 유명해진 거야.

## 2. 호계동 아파트 시대의 시작

여전히 많은 공장이 호계동에 남아있지만, 1990년대 전후로 대부분의 큰 기업이 안양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 지방임에도 교통이 탁월하다는 이점을 가졌던 안양은 더 이상 ‘지방’으로 역할 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 1970년대부터 안양은 ‘수도권 위성도시’로 불리었다. 1973년 7월 15일, 안양시 승격 당시 장용순 시장은 안양을 수도 서울에 인접한 위성도시로 소개하였다<sup>3</sup>. 그래서 그런지 안양, 그중에서도 동안구는 일찍이 신도시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다. 호계동 바로 위에 있는 평촌 신도시가 그 시작이었다. 1960~70년대에 호계동에 이사 온 사람과 1980~90년대에 호계동을 찾은 사람들은 목적이 달랐다. 조효연이 전자에 해당하고, 신전호가 후자에 해당한다. 조효연과 신전호는 38년을 한동네에서 살았다. 둘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조효연은 일을 하기 위해, 신전호는 출퇴근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안양을 찾게 되었다는 점이다.

호계동에서 가장 젊은 주거지로 기상하고 있는 호계1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기획된 신도시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도시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의 역할을 하는 신도시와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신도시가 그것이다.<sup>4</sup> 광주주택단지(현 성남시)는 1968년 후자 역할을 한 최초의 신도시로,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 정리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하였다<sup>5</sup>.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진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서울 중심의 대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 해결 방안 모색을 기조로 삼았다. 정부는 1980년 12월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택지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주택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였다.<sup>6</sup> 산업 기반 조성과 정주 환경 개선이라는 방향성 아래 1983년 목동 신시가지 개발을 시작으로 1986년 상계동 신시가지와 같은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고 이와 같은 계획이 서울 인근의 도시로 확대되었다.

**조효연** : 평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평촌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때는 박 대통령이 절대 농지<sup>7</sup>라고 원래 농지를 자연 그냥 생기 대로 갖다가 전부 쪽 해서 갈라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공장 같은 거 못 짓는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그때 우리가 원체 배고프게 살기 때문에 쌀 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논 따라기가 개인 집에 이렇게 그냥 꼬불꼬불하게 경계가 돼 있고. 그런 거지. 평촌이. 그래서 그 물을 나중에 청계저수지를 막은 거야. 청계저수지를 막아가 지고 팔당 물을 그걸로 뽑아 올렸어. 그 물을 빼서 여기 평촌하고 인덕원 그걸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거

기(평촌)가 평야거든. 그 집 한 채가 두 채가 있고 없고 전부 이 도로, 이쪽으로는 하나도 없었지.

**신전호** : 여기(호계/동)는 아주 허름한 집들이 있었고, 농지는 평촌이 농지였지. 그러니까 그것은 신도시 하면서 그것은 수용하기가 좋잖아. (중략) 평촌으로 다 저기 있어 집이 몇 채 없었지. 다. 그리고 저기 목장. 우리 때 다 목장 쪽 있고. 학원가가 목장이예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논이었지. 평야였잖아 요. 평촌리는. 그러니까 신도시 하나까 좋았지.

1980년대 후반이 되자 경제 호황은 정점을 찍었고, 아파트가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높아져 갔다. 이러한 배경 아래 6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주택 공급 부족 해소와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건설 계획에 돌입하였다. 이는 선거공약으로도 내건바, 1988년 하반기에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게 되었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에 대규모 개발 가능성을 설정하고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였다<sup>8</sup>. 이 계획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 117만 5천 평의 군포 산본지구와 함께 155만 평의 안양 평촌지구가 포함되었다.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의 선호 변화와 함께 주택 대량 공급 방안으로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 주택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평촌신도시는 박정희 정권 당시 쌀 증산을 위한 농사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비옥한 땅이었으며 개발 직전까지 논농사가 성행한 지역이었다. 안양의 첫 신도시는 안정적으로 수용되며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를 열었다.

1980년대 말, 평촌은 이미 경수대로<sup>9</sup>의 교통혼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바, 새로운 건설망 구축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안양 전철 건설은 6공화국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도 올라 있었다.<sup>10</sup> 이에 따라 안양의 전철 건설과 평촌 신도시 건설은 함께 이루어졌다. 전철 건설에 드는 비용은 택지개발 이익금 투자를 통해 해결하였다.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고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호 간 필요충분조건이 되었다. 확충된 교통망은 바로 아래의 호계동에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나 점진적으로 지금의 호계동을 만들었다.

**신전호** : 여기가 가장 허름했던 데지. 여기는 거의 이제 이렇게 야산이 조금 있었고. 이쪽에 주로 그런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오래된 빌라들 단독 그런 주거 지역이었어요. (중략) 여기가 제일 서민들이 다 살던 동네예요. 조금 나이 먹고 그래도 크게 뭐 이런 없이 슬럼화돼 있었어요. 진짜 그냥 빌라 이런 거

30~40년씩 돼 있던 거. 단독주택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이 단독에서 1층에 가게 한 두세 개 있  
어가지고, 세 주고. 나머지는 빌라 오래된 아파트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던 데인데 (중략) 동네가 이상  
하게 이사도 잘 안 가고 오래 산 사람들이 바로 혼자 오래 이렇게 산 사람들 제일 조금 못사는 사람  
들이 몰려 살던 동네인데, 그 사람들이 뭐 어디 이사를 가면 될 해. 이렇게 조금 우리 또래들이 많지.

평촌이 새롭게 거듭나는 동안 경계지인 호계동, 그중에서도 호계1동에는 여전히 다  
세대 주택과 빌라가 뽀뽀하게 존재하였다. 금성마을에서 작게 시작한 산 뿌리 옆 호계1  
동은 조효연이 살기 시작한 때에도, 신전호가 살기 시작한 때에도 여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허름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호계1동은 정말 살만한 동네였다. 1986년 이사  
온 젊은 신전호는 교통의 이점 때문에 안양을 선택하였다.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  
내와 서울의 회사에 다니는 자신이 통근하기 적절한 위치였으며 적절한 가격대의 집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많은 주민은 서울로 직장을 다닌다. 안양과 인근 공장을 다니던 조  
효연의 세대가 지나고 이제는 서울과 수원 등지로 일을 다닌 신전호의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 일하기 위해 호계1동에 정착한 주민의 대다수는 일하러 가기 위해 정착한 주민으  
로 대체되었다. 호계1동에 사는 이유 중 하나에 일자리가 연관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일자리와의 실질적 거리는 다소 멀어졌다. 그러나 발달한 대중교통은 이곳 주민을 복잡  
한 서울 도심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있다.

**신전호** : 내가 볼 때 한 50%는 서울로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직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서울 다  
니는 사람들 많지. 완전 위성도시. 옛날부터 베드타운이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 옛날부터 평촌도 그  
렇고. 평촌은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90%가 대부분 차로 다니거나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 나  
도 전철 타고 다녔지. 회사 다닐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차 구입했을 때, 이제 그때도 전철이 편해  
요. 다 여기 있었는데 중구 쪽으로 출근인 거죠. 꽤 멀리 가. 들어가려면 복잡해. 나올 때도 그렇고. (차  
가 있으면)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소주 한 잔씩 하자니까 이거 못하는 거죠. 그 재미를.

언뜻 생각할 때 어린 자녀가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있을 것 같지만, 1990년대의 호계  
동은 학생이 공부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다. 가까운 서울로 학교 다니기에 좋았고 바로  
옆에 평촌 학원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평촌 학원가의 유명세는 인근 지역까지 널리 퍼  
져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찾는 사교육의 메카가 되었다. 신전호의 두 딸은 학원가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 결과 둘째 딸이 이름난 대학에 4년 장

학생으로 입학하였고, 이후에는 전문직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신전호** : 거기 신도시에 들어있으면 거기는 학원이 아주 그냥 저기 센터가 학원으로 그냥 거의 건물이 한 쪽이고 한 50개 되는데 빌딩이 다 7층이야. 보통 거기는 이 규제가 딱 돼 있었거든. 7층, 8층. .... 거의 다 학원이었으니까. 한 70~80%는 학원이야.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 학원에 갔던 거예요. 인근에서 다 여기 군포, 의왕, 과천에서도 온다고 그래요. 과천도 학원이 활성화 안 되어 있잖아. 과천 애들도 평촌 학원이고. 저기다 버스가 다니면서 실어 가는 거예요. 군포, 의왕, 과천, 안양. 그러니까 거기 그냥 저녁때 되면 차가, 통학 통근 버스가 돌아가. 대단해. 그래서 거기는 다 학생들이고.

국내 1기 신도시의 영향력은 인근 지역으로 퍼지기 충분했고,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오랜 기간이 지났으나 평촌은 어떤 부분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과 쇠퇴가 반복되는 도시의 시간 속 호계1동은 먼 과거로부터 영향받아 탄생한 새로운 도시가 되었다. 뛰어난 입지 조건은 도시가 커지는 2000년대에 빛을 발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말이 돌기 시작했던 ‘호원초등학교 주변 지구’ 재개발 사업은 2006년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이 고시되며 본격적인 변화에 돌입했다. 호계1동 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가 지어지는 동안 뿔뿔이 흩어져 새 집을 기다렸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4년 동안 조효연과 신전호 또한 다른 집을 찾아 잠시 호계1동을 떠났다. 2006년 시작된 사업은 2021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15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다. 새로 지어진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는 총 3,85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단지로 탈바꿈하였다. 2024년 10월에는 평촌어바인 퍼스트더샵아파트 준공이 완료되며 304세대가 더 늘어 4,000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신전호는 호원초등학교 주변 지구 재개발 사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기억한다. 그 이유는 재개발 이전 호계1동의 특성과 관련 있다. 호계1동은 1977년 수해 이후 지은 저층 주택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같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으니 의견 합치가 어렵지 않았고 개개인에게 배당되는 면적이 넓어 다른 재개발 사업지의 주민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예컨대 100평에 10명이 사는 아파트 거주민은 한 사람당 가져가는 면적이 10평이지만, 100평에 1명이 사는 주택 거주민은 해당 평수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아파트가 지어진 시기는 부동산 호황기였으므로 지지부진한 분양으로 골머리 썩힐 일도 없었다.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호계1동 주택가(2007년, 이정범 제공)



호원초등학교 주변 지구의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건설 공사(2019년, 이정범 제공)

**신전호** : 빌라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조금 사업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분이 조금이니까 조합원 1명당 지분이 조금인데 여기는 단독 건물이 많았어요. 단독주택 조합원 한 명당 땅 지분이 평균 한 25평은 됐을 거야. 그러니까 큰 거지.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조합원 한 명당 땅은 조그마한데 어쨌든 아파트는 하나씩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좀 덜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좋았지. 시기적으로도 좋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하니까 분양도 그게 원만하게 다 끝났고.

**신전호** : 내가 볼 때 3분의 2는 이제 못 버티고 나간 거고. 그 3분의 2까지는 못해도 한 50%는 이상은 나갔지. 50% 더 될 거야. 더 됐지. 아무래도. 입주 못 한 사람들,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은 다 이제 나가고. ....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감정이 1억 받았다고 치면 나머지 3억을 더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3억을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건물) 올리기도 전에 그냥 팔고 딴 데로 가는 거야. 조금 싼 데로. 그 사람들이 버티고 끝까지 있었으면 비싸게 팔고 나갈 텐데 버티지 못하니까 그냥 팔고 나가는 거지. 전부. 그러니까 다 바뀌었지.

많은 세대가 살지 않아 보상받기 좋았다고는 하나, 오래 살아온 마을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6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거주했다는 조효연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계1동에는 가난한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주택을 가진 집주인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세를 들어 사는 주민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호황이라는 눈부신 미래가 저 멀리 그려지기도 했지만 막대한 빚이라는 눈앞의 미래는 무시 못 할 것이었다.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입주권을 팔고 뿔뿔이 흩어졌다. 여러 이유로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온 호계1동의 주민들은 다시 어딘가의 타지인이 되었다. 그리고 건설된 호계1동의 빈자리는 새로운 타지인의 삶터로 꾸러지게 되었다.

### 3. 소소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신전호** : 멤버가 젊은 사람들로 많이 바뀐 거지.

**조효연** : 여기 사시던 사람들이 내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한 20~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80%는 전부 젊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좋은 입지의 금성마을 터는 좋은 시설을 갖춘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가 되어 새로운 주민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다. 자녀 교육과 출퇴근의 이점을 누렸던 신전호 세대는 지나가고 교육과 출퇴근의 이점, 그리고 깔끔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젊은 사람들이 입주하였다. 삼삼오오 모여 이웃과 교류했던 조효연, 신전호와 달리 소위 ‘젊은 세대’는 조용하면서도 활기차게 교류한다.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주민은 입주 전, 2017년부터 진짜 이웃이 아닌 ‘이웃이 될’ 사람들과 소통하였다. 공식 카페<sup>11</sup>와 단체 카오투크 채널<sup>12</sup>은 주된 소통 창구가 되었다.

특히 공식 카페는 새로운 방식의 이웃 교류를 만들고 있다. 한 가구에 최대 2명이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카페에 8,0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한다는 점은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가 단순 이웃을 넘어 마을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라인 카페 규칙에 따라 입주민은 회원 아이디어 거주동과 닉네임을 표기한다. 4,000세대에 육박하는 거대 아파트 주민의 교류는 자신의 주거지를 밝힘으로써 시작된다. 동은 밝히지만, 실명은 밝히지 않는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되,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소속감은 카페 활동에 활발함을 더한다.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1단지 전경



**신전호** : 공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쪽을 아주 선호하는데 아파트값이 거기는 좀 비싸. 아주 오래 된 것도 20년 된 게 최고 비싼 게 학원가 옆에 있는 아파트, 현대홈타운아파트가,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안 나와요. 꽉 잡고 있어. 여기가 되게 명문고 중학교고. 여기서 스카이를 계속 간다고 그래. 우리는 모르지만, 많이 가는 모양이야. 평촌고 범계초고 이쪽도요. 여기는 제일 좋다고 그래.

온라인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의 대부분은 아이와 관련된다.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는 한국이지만,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에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타 지역 사람이 용기종기 모여 만든 마을에는 새롭고 젊은 타지역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원주민들이 태어났다. 평촌은 신전호가 자녀를 양육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다. 한창 인기 있었던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수준의 명성은 아니나 학원가 인근의 인기는 여전하다. 특히 평촌은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하고 단일 과목 전문학원이 이를 보완하는 집적된 형태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sup>13</sup>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원차량은 아파트 앞까지 자녀를 안전하게 데려온다.

어린이 보육 기관 또한 부모 사이에서 인기 있는 주제이다. 온라인 카페에는 맞벌이 하는 부부의 자녀교육 고민 등이 올라오기도 한다. 2024년 8월 14일 한 부부가 13개월 쌍둥이의 어린이집 문제로 고민 글을 올렸다. 복직을 앞둔 상황에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번이 남아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좋을지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선배 부모는 앞서 안양을 경험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직접 상담받기 등의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한 이용자는 따로 연락하겠다고 쪽지를 남긴 뒤에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였다. 서로 모르는 이웃이지만 같은 곳에 산다는 결속과 어린아이를 둔 부모라는 공통점이 따뜻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카페 활동은 오프라인까지로 이어진다. 이웃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는다.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탓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용품은 공급이 많은데, 그만큼 수요도 많다. 어린이를 위한 책과 장난감은 빠르게 새 주인을 찾아간다. 아파트의 어린이는 서로의 물건을 물려받고 물려주며 성장한다. 부모는 나눔을 받은 만큼 제 것을 나누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단지 내 길과 놀이터는 어린이를 향한 관심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단지 내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다. 작은 아이에게 더욱 위험한 대형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다. 차가 없어지니 길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위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온라인 카페 메인 화면



평촌어바인퍼스트 온라인 카페 무료 나눔 게시판에 올라온 글(2024년 8월 10일)

힘하지 않은 길에서 자전거와 키보드를 탈 수 있고 공을 가지고 뛰어놀 수 있다. 다양한 주제의 놀이터는 골라 가는 재미를 더한다.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아이들의 놀이터 인근에는 어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어른들은 탁 트인 테라스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눈다.

**신전호** : 지상에 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그걸 조경으로 깎단 말이야. 쾌적한 분위기랄까. 이런 거는 여기가 그래도 제일 조경을 잘해냈어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애들 키우기 좋고 위험하지 않으니깐. 지상에 주차가 없으니깐 놀기 좋고 여기도 어린이 이렇게 수영장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조효연** : 여기 보면 자랑할 만한 게 많아요. 여기가 지상으로 차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애들이 뭐야 롤러스케이트 이런 거라든지 마음대로 타고. 또 어린이 놀이터가 요소요소여 여러 군데 있잖아요. 또 물놀이하는 데도 있고 시설이 근대 시설로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아. 마음 놓고 뛰놀으니까 애들이 건강할 수밖에. 또 애들끼리도 대화도 많이 하고. 다른 데는 보면 차 사고 날까 봐 애들을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하잖아요. 여기는 애들을 그냥 무조건 풀어놔. 그러가지고 저기 부모들은 그냥 벤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말이야.

아이가 많은 아파트는 노년을 보내는 사람과 잘 어우러졌다. 경로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규 활동 후 담소를 나눌 테라스와 아름다운 조경이 사방에 있다. 선선한 날에는 운동 기구로 스트레칭하는 재미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의 텃밭 가꾸기 책임자는 교사이지만 어르신들은 경로당 앞을 오가며 잡초 하나라도 더 뽑아놓는다. 경로당의 주인은 아이들을 위한 텃밭에 신경을 쓴다. 뻥뻥한 도시 숲에서 진짜 자연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을 생각해 소싯적의 농사 실력을 발휘한다. 어른의 숙련된 지혜가 입혀진 텃밭은 자라나는 새싹에게 좋은 교육적 퇴비가 된다.

**신전호** : 여기 어른들, 노인분들도 운동 시설 사방이 쪽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시설들을 많이 해놔서 생활하는 데는 아주.....

**조효연** : 면은 또 우리는 여기 뒤에 텃밭이라고 있어. 그거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고추도 심고 뭐 이런 거 심어가지고 먹거리를 해요. 그런 게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요. 거기서 그 뒤에 한 블록은 또 어린이집이 있어, 시립. 어린이집에서 교육장으로 여기 어린애들은 호박, 가지, 고추 이런 거 다 알아요. 여기 와서 교육장이 있어서 좋아. 거기서는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텃밭을. .... 다른 애들은 고추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줄도 모를 거야. 여기 어린이집 애들은 교육장이 되니까 고추, 상추, 마늘 이런 거 여기에 기르니까 그걸 다 알아. 나도 참 흐뭇하게 생각하고 산 교육장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경로당 회원)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다른 경로당은 없을 거야. 나도 그런 것이 보람되고 자랑스러워. 다른 동네는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하거든.

나눔에 아이와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감자나 쿠키 같은 식품부터 가방이나 옷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가치 없으나 남에게 유용한 것을 나눈다. 나누는 것은 물

질적인 것을 넘어 경험한 바가 되기도 한다. 농사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이 아이들의 텃밭을 가꿔주는 것과 같이 다른 경험은 서로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 예컨대 같은 평형의 집 구조가 같으므로 오직 같은 아파트 주민만이 이해할 수 있는 팁이 오가기도 한다. 환풍기 후드 교체부터 벽지에 대한 고민, 보일러 작동까지 소소하면서도 중요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통근길 공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또한 업로드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와 그 대상자의 거주지가 이웃하고 비슷한 통근길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맛있는 빵집이나 과일 가게, 심지어는 부동산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입주민은 자신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카페에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편의를 도모한다.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단지 내 조경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1단지 경로당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단지 안의 어린이집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단지 산책길과 놀이터

**신전호** : 칭찬받은 데는 세 군데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나쁘게 평가한 데는 세 군데 또 이렇게 평가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카페에서 보고 오는 사람들도 꽤 있죠. 공유가 다 되는 걸로.

물론 카페에 올라오는 글이 항상 칭찬하는 내용인 것은 아니다. 특정 가게에 대한 비판이 떠돌기도 하고 어떤 주민은 이를 기준으로 삼아 곧이곧대로 수용하기도 한다. 도를 넘어서는 비판이 누군가의 일상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주민과 인근 상가 상인들은 거대한 공론장의 문젯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친절과 배려를 잊지 않는다. 이웃을 의식한 말투와 행동의 자정작용은 문제를 방지한다. 고성이나 오가거나 큰 다툼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신전호** : 새로 입주한 분들은 잘 모르니까. 크게 저거(교류)는 없지. 그래도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라 그래 도 교양도 있고 이렇게 만나면 또 인사도 잘하고 좋더라고. 다른 데보다 분위기가. 별문제 없이 잘. 그리고 전에 거기(재개발되는 동안 살았던 곳)는 옆집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줌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는 만나면 그 아래 위층 뭐 이런 사람들도 서로 인사들 잘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어요. 교양들이 있고.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관계를 쌓아 간다. 새로운 주민은 거창한 행사나 모임을 만들지 않고 나름의 소소한 만남을 이어간다. 꼭 대면해야지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카페에서 활발한 나눔을 실천한다. 대면으로만 이웃을 만날 수 있었던 시절에는 몇몇 사람만의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었지만 8,000명이 넘는 이웃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수많은 경험을 들을 수 있다. 경험은 유용한 정보가 되어 마을 곳곳에 공유된다. 반드시 사적인 교류를 나눠야지만 진실한 관계인 것은 아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유대감은 작고 소소한 배려가 되고 따뜻한 인사가 된다. 아파트는 안락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적인 공간이다. 주민들은 그 경계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이용한다. 지나친 사적 침범을 경계하면서도 나눔에 기꺼이 참여하는 적당한 온도가 알맞다.



## 참고자료

「평촌신도시 개발사」, 한국토지공사, 1997.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6권 자료로 보는 안양」, 안양시, 2008.

안양문화원, 『안양의 옛사진』, 2006.

한영은, 「안양시 평촌 학원가의 교육 서비스 실태 및 공간 범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과 석사 논문, 2013.

「이정범의 추억 속의 安養 : 금성마을(金星村)」, 『안양광역신문』, 2020년 5월 27일.

## 註

1. '금성전선'은 'LS전선'의 전신이다.
2. '금성통신'은 'LG전자, 에릭슨-LG, 한국하니텔'의 전신이다.
3. 안양시, 「제6권 자료로 보는 안양: 역사 속의 흔적으로 찾아가는 안양의 발자취」,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361~362쪽.
4. 이호계, 「평촌신도시 개발사」, 한국토지공사, 1997, 45쪽.
5. 앞의 책.
6. 앞의 책, 46쪽.
7. 현재의 농업진흥지역을 가리킨다.
8. 앞의 책, 47쪽.
9. 서울, 수원, 인천을 수도권 공업지대 삼각 벨트로 지정하며 뚫게 된 도로이다. 도로 중 일부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구간을 통과하는데, 여기에 안양이 있다.
10. 앞의 책, 48~49쪽.
11.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입주자 모임 공식 카페(<https://cafe.naver.com>).
12. 외부인도 가입할 수 있는 공식 카페와 달리 카카오톡 채널은 입주 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자료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3. 한영은, 「안양시 평촌 학원가의 교육 서비스 실태 및 공간 범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과 석사 논문, 2013, 725~726쪽.





# 제1장

## 굴뚝산업에서 IT까지, 호계동 공업지역의 변천

송중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 한적한 논밭이었던 호계동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동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안양천과 1번 국도를 따라 한일나이론(후 동양나이론, 현 효성), 금성전선(현 LS전선), 락희화학(현 LG화학), 금성통신(현 LG전자) 등 대기업의 공장들이 잇따라 이곳에 들어서면서 호계동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들 기업은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회사 인근에는 ‘금성마을’이나 ‘희성촌’과 같은 사원 주택단지가 조성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상권 형성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LG그룹(당시 럭키금성그룹)의 연구단지까지 들어서면서 호계동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기지이자 첨단 연구단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구조 재편과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 하나둘 공장을 이전하면서 호계동 산업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현재는 과거 공장이 있던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국제유통단지, 복합산업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이는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 재생의 흐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주요 기업의 역사와 그들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호계동 공업단지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업화 시대 기업도시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효성 안양공장 일대 호계2동 공업지역



## 1. 호계동 별판에 우뚝 솟은 한일나이론 공장 굴뚝

호계동 공업단지의 시작은 196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호계2동 공업 지역의 터줏대감인 효성 안양공장은 1964년 한일나이론으로 설립되었다. 국내 최초 재벌로 불린 태창방직이 1957년 설립한 한국양모공업을 모태로 하는 이 회사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매에 부쳐져 삼성물산·한국모방·대한모방 등에 인수되며 한일나이론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964년 2월, 자본금을 4,000만 원으로 증자함과 동시에 이들 3사가 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스위스 인벤탐타(Inventa)사와 기술 계약을 체결하여 당시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였다. 1963년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64년 기계 설치를 완료하며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였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던 허허 별판에 들어선 이 공장은 호계동 공업단지의 효시가 되었다.

한일나이론은 '하이론(Hilon)' 상표로 나일론 원사를 생산하며 초기에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나일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했기에 회사는 높은 수익을 올리며 1964년부터 196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생산시설을 증설하였다. 그러나 경

1969년 한일나이론 전경(경기도청 제공)





한일나이론과 호계동 농민들의 물을 둘러싼 갈등(『조선일보』, 1966년 4월 26일)

영권이 여러 대주주에게 분산되어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기술 개발도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사들과의 원가 경쟁에 밀리며 1970년 도산 위기에 처하였다. 결국, 그해 9월 동양나이론에 인수되었는데, 당시 부실기업으로 평가받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모험적인 결정이었다. 조흥제 회장의 결단과 전 직원의 단합된 노력으로 1972년 생산실적이 많이 늘어나며 성공적인 정상화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산업화 과정의 진통도 있었다. 1965년경 공장이 처음 들어설 당시만 해도 주변은 온통 논과 밭이었다. 당시 근무했던 직원의 회고에 따르면, “허허벌판에 우리 공장만 덩그러니 있었다”고 할 정도로 호계동은 한적한 농촌이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부터 기업과 농민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매각을 거부한 농민들이 공장 한가운데에 있는 운동장 부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1966년 4월에는 농민 60여 명이 공장으로 몰려와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공장 건립 당시 약



동양나이론 진달래 축제(1980년대, 최승원 제공)

속했던 ‘수리 및 도로 시설’ 설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였다. 이날 농민들과 종업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양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sup>1</sup>

그러나 동양나이론으로 인수된 이후, 회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직원들을 위해 27가구 규모의 단독주택형 사택을 운영하였고, 이곳에서는 새마을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0년대 들어서는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안양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자, 동양나이론은 천 번의 15개 회사와 함께 안양천 변 환경 보호 캠페인을 주도하여 환경 정화 활동과 상호 감시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캠페인에서 회장을 맡아 수질정화 운동을 수행했던 당시 동양나이론 직원 이왕구(남, 1941년생)에 따르면, ‘환경운동의 효시’라고 표현할 만큼 선도적이며 효과적인 캠페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왕구** : 그때 환경에 눈뜨기 때 아닙니까? 그러가지고 공장들이 우후죽순 정말 글자 그대로예요. 우후죽순같이 막 들어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양천이 오염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가지고 안양시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안양천 변 하천 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했었는데, 동양나이론이 선도 기업이고 또 제가 안양 토박이라서 그런지 제가 그 회장이 돼가지고 15개 회사를 천변에 나란히 있는데 이



효성 안양공장의 진달래 축제(2013년, 이정범 제공)

걸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해서 효과 많이 봤죠. 그때 환경운동의 효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가지고 이제 조직을 만들어놓고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정화 운동·상호 감시 이런 걸로 했었죠. 예를 들면 폐수 버리지 말라 같은. 그다음에 이제 안전 관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참 안전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 원천적인 지름같이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 교육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런 게 합해가지고 그때 산업 훈장을 제가 안양 최초로 받았다고요.

또한 동양나이론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를 만들기도 하였다. 공장 뒷동산의 약 1만㎡ 넓이의 진달래 군락은 매년 봄 분홍빛 장관을 이루었는데, 1970년대 공장 근로자들의 기숙사 개방 행사가 시초가 되어 점차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대규모 축제로 발전하였다. 매년 많은 시민이 찾는 안양의 대표적인 봄철 행사가 된 진달래 축제는 2024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온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996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동양나이론은 제2의 창업을 준비하며 사명 변경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동양나이론’이라는 사명은 다각화된 사업 내용을 포괄하지 못했고, ‘동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들과의 혼동도 잦았다. 특히 효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업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인지도가 낮아 인재 영입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회사는 효성그룹의 주력 회사임을 강조하고 종합 메이커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효성티앤씨’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담은 결정이었다. 이후 2013년, 효성티앤씨는 전북 전주 친환경 복합단지에 탄소섬유 공장을 준공하고 고성능 탄소섬유 양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안양공장은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인테리어 공장·연구소·연수원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였다.

한일나이론에서 시작하여 동양나이론을 거쳐 효성에 이르기까지 안양시에서 공장의 변화는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호계동 허허벌판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이 회사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한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호계동에 남아 있는 대기업 공장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호계동 산업화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산업 유산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 2. 호계동 555번지 일대의 변화 : 럭키금성그룹 회사촌 형성

호계동의 공업화는 1960년대 중반 이후 호계동 555번지 일대에 락희화학·금성전선·금성통신 등 당시 한국 대표 기업들의 공장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이들 기업은 모두 1947년 설립된 락희화학공업사를 모태로 하는 기업들이었다는 점에서, 호계동 공업단지의 상당 부분이 현재의 LG그룹<sup>2</sup>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락희화학 금성통신 등은 모두 부산에서 시작하여 안양으로 사업장을 확장하였다.

### 1) 한국케이블공업에서 금성전선으로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 기간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전력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시 락희화학은 화학 섬유와 전기기기 공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전선산업을 먼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락희화학의 계획에 개입하여 전선산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1962년 5월 설립된 한국케이블공업은



1962년 한국케이블공업 안양공장 건설 현장(LG전선 제공)

사세 확장을 위해 서울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하던 직원들이 당시 시흥군 서면에 속해 있던 박달리를 대상지로 정하였다. 그러나 박달리에는 군부대 탄약고가 있어서 고온의 불을 사용하는 케이블공장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구인회 사장의 지시로 다시 부지를 물색한 것이 호계리였다. 물 사용이 편리한 호계리의 안양천 주변은 케이블공장 입지로는 최적이었다.

공장부지 매입은 1962년 농번기에 시작되었다. 36명의 지주와의 협상 끝에 2만 8,966평을 353만 6,280원에 매입하였고, 이후 호계천 하천부지 1,103평의 점유권과 국유지 임야 1만 1,640평도 추가로 확보하였다. 이는 미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투자였다. 넓은 부지 덕분에 공장 건물들을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었고, 지붕 공사만으로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공장을 설계하였다.

부지 선정 때에는 용수 문제와 장모 이전 문제가 말썽이 많았다. 근처에 있던 농약공장들이 안양천 물을 끌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 한국케이블은 집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와야 할 형편이었다. 결국 건설부 수자원국에까지 가서 논란 끝에 어렵사리 타결되었다. 은행에 다니던 지주 한 사람은 끝까지 말썽을 부려 결국 가장 비싼 값을 주고 마지막으로 땅을 넘겨받았다.

(LG전선, 『LG전선 50년사-선으로 만든 세상』, 2012년, 23쪽.)



금성전선 앞 농경지에서 밭갈이하는 모습(1973년, 경기도청 제공)

1962년 10월, 한국케이블공업은 호계동에 전선공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장 건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기존 전선업계의 반발과 정책적 혼란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자금난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한국케이블공업 안양공장은 1966년 4월에 완공되었다. 그러나 그해 9월 금성사에 흡수 합병되어 금성사 전선공장으로 재편되었다. 1969년 독립 법인 금성전선으로 새출발한 회사는 1972년 일본 히타치(HITACHI) 전선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1975년까지 12개 동의 건물이 들어서며 안양을 대표하는 대규모 공장으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 중반 들어 금성전선 안양공장은 포항제철 설비 확장,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전국 전화망 확충 등 국가 기간시설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생활 속에 전기가 구석구석 들어가고, 전화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금성전선 안양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전국을 연결하였다.



금성통신 옆 농경지(1975년, 경기도청 제공)

1975년에는 안양공장에 연구개발실을 설치하였고, 1979년에는 국내 최초의 전선·케이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는 회사 최초의 독립적인 연구개발 조직이었다. 처음에는 식당 44평의 작은 공간으로 시작하였지만, 1985년 호계동에 금성통신·금성전기·금성정밀 등 7개 사가 입주한 대지 2만 평의 럭키금성 연구단지를 조성하며 명실상부한 연구개발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당시 국내 민간기업의 단일 연구단지 중 가장 큰 규모였다.<sup>3</sup>

금성전선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1973년 설립된 사내 자원봉사단체 ‘오미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곳곳으로 공장 분위기를 개선하였고, 안양 시내에서 일일 찻집을 열어 수익금으로 양로원을 돕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또한 1970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QC 분임조 활동과 이후의 새마을운동 참여는 산업 현장의 혁신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모범이 되었다. 특히 1977년부터 시작된 기능직 사원들의 종합기능경진대회는 산업 인력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였다.

회사의 정체성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진화하였다. 1962년 5월 ‘한국케이블공업주식

회사'로 출발한 회사는 1966년 9월 '금성사' 합병 이후, 1969년 10월 독립 법인 '금성전선주식회사'로 새출발하였다. 그리고 1995년 2월 그룹의 브랜드 통합 전략에 따라 'LG전선'으로, 2005년에는 LG그룹에서 분리되며 현재의 'LS전선'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2006년 착공하여 2008년 완공된 LS타워는 호계동 산업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재계 20위권 기업 중 최초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 본사를 둔 사례로, 그룹의 모태가 된 전선공장 맞은편을 새로운 도약의 거점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산업화의 심장부였던 이곳이 이제는 기업의 핵심 기능이 모인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한국케이블공업에서 시작하여 금성전선을 거쳐 LS전선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가 호계동에서 이룩한 성과는 한국 산업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생산시설이 이전된 후에도 본사와 연구시설을 통해 지역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호계동 산업단지의 새로운 변화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하이타이' 제조사, 락희화학

락희화학<sup>4</sup>은 1947년 화장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한 락희화학공업사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1959년에 럭키유지공업사를 설립하였고, 1962년에 락희비니루공업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66년 1월에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을 하고, 그해 3월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에 국내 최초의 합성세제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전까지는 부산공장에서 미국 치약과 같은 품질이라고 홍보하는 '럭키치약'을 생산하였는데, 안양공장 준공 이후 세탁세제와 튜브 타입의 치약, 크림 샴푸 등 품목을 다양화하였다. 특히 '하이타이'는 1990년대까지도 가루세제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락희화학을 합성세제 대표 브랜드로 이끌었다. 이렇듯 한국 화학공업의 기술력 향상을 선도했던 락희화학 안양공장은 1980년에 매각되었고, 1982년 4월 폐쇄하였다.

## 3) 금성통신과 금성마을<sup>5</sup>

1968년, 금성통신은 호계동에 통신기기 전용 공장을 건설하였다. 당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공장에서 EMD식 자동교환기를 생산하던 금성사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양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마련한 것이다. 이듬해인 1969년 10월에는 금성사의 통신사업부를 주축으로 금성통신주식회사가 독립 출범하였다. 락희그룹 회장 구인회가



1969년 호계동 555번지 일대 락희화학과 금성통신(경기도청 제공)

대표이사 회장을, 금성사 사장 구정회가 대표이사 사장을 겸임하며 출발한 금성통신은 이후 한국 통신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금성통신 안양공장은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곳이었다. 1960~1970 년대에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이 안양 경제를 이끌었다면, 1980년대에는 금성통신의 여성 노동자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 회사는 1978년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교환기용 MFC식 전화기를 개발하는 등 통신 기술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안양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금성통신도 변화를 맞이하였다. 1983년경부터 공장을 오산·구미·청주 등으로 분산·이전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에는 3만 7,000평 규모의 안양공장을 서울산업중기계부품상협동조합에 1,240 억 원에 매각하였다.

금성통신은 1994년 8월 금성사와 합병된 후 1995년 LG전자가 되었다. 한편, 안양 공장이 있던 자리에는 공구상가와 홈플러스 등이 입주한 안양국제유통단지가 들어섰다. 이는 호계동이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에서 현대적 상업지구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



1973년 금성통신 전경(상)과 전화기를 생산 중인 직원(하)(경기도청 제공)



락키금성 연구단지

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옛 국도 1호선을 따라 금성전선·락희화학 공장 등과 함께 형성되었던 이 일대의 산업 벨트는 현재 최첨단 IT산업단지와 유통단지로 탈바꿈하며 호계동 산업구조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입주는 단순한 공장 설립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금성통신은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성마을’이라는 사원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 현재 호계동 성당 근처, 유통단지 및 공구상가 인근 지역에 위치했던 금성마을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50평씩의 부지를 제공하고 각자 원하는 형태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초였다. 당시 부산 공장에서 온 직원들이 많았는데, 호계동의 주거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주택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금성마을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사이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성통신이 호계동에 자리 잡은 1969년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당시, 이 지역은 민둥산이었는데, 금성통신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단지를 조성하였다. 금성마을은 1970~1980년대, 호계동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 중 하나로 발전하였으며, 주변 상권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호계사거리 인근의 상권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호계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LS타워

금성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금성통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었으며, 이들은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서 생활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직주근접형 주거단지의 모델이었다. 또한 주민들은 강한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호계동의 공업화는 호계동 555번지 일대의 락희화학·금성전선·금성통신 등 럭키금성그룹 계열사의 공장 설립을 통해 본격화하였으며, 이들은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 주거단지 조성과 연구시설 설립 등을 통해 호계동의 도시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 공장 시설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되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섰지만, 이 기업들이 호계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금성마을도 재개발이 진행되어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지만, 이 지역이 한때 안양 산업화의 중심지였으며, 근로자들의 보금자리였다는 역사적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다.

### 3. 공장을 삼켜버린 1977년 여름의 대홍수

1977년 7월 8일, 호계동 공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급성장 하던 중 전례 없는 대홍수를 겪었다. 서해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장마전선이 결합하며 12시간 동안 44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하였다. 이는 기존 최다강우량 공식기록을 뛰어넘는 역대급 수준으로, 안양천이 범람하며 천변에 세워진 공업시설들이 초토화되었다. 안양 지역 전체로는 200여 개의 공장이 침수되어 총 150억 원의 산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망 206명, 실종 85명, 부상 476명 등 총 7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호계동의 여러 공장 중 금성전선 안양공장의 사례는 당시의 위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 공장에서는 1,140℃의 고온에서 60t의 용동액이 담긴 용동반사로가 가동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물의 유입으로 폭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작업자들은 코크스 포대 150여 개로 급히 제방을 쌓고 내화벽돌로 장비를 보강하며 폭발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러나 공장 안양천의 범람으로 제지공장의 종이 롤이 떠내려와 교량을 막으면서 물길이가 확대되는 바람에, 안양천 바로 옆의 금성전선은 공장의 담장이 무너지며 위기가 닥쳤다.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한 명의 작업자가 용동실 2층에 남아 용동로의 상태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물은 사람 키 높이까지 차올랐고,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순간 다행히 빗줄기가 약해지며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금성전선은 공장의 90%가 침수되어 20억 1,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양나이론의 상황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1977년 7월 8일 당직 근무자의 증언에 따르면, 저녁부터 시작된 폭우에 대비해 600개 분량의 모래자루를 미리 준비해 발전실 등 주요 설비를 보호하려 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로 공장은 결국 가동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직원들은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속에서도 여성 직원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을 펼쳤다. 단전 단수 상황에서도 빵과 랜턴을 구해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일부 직원들은 홍수가 끝난 뒤에도 3일 동안 집에 가지 못한 채 사택에서 머물며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 다음은 7월 8일 동양나이론 숙직 담당이었던 직원의 생생한 증언이다.

**이왕구** : 내가 그날 숙직을 했어요. 그때 시간당 400mm가 양동으로 퍼붓듯이 그렇게 왔다고요. 앞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이제 간부들이 다 퇴근했잖아요. (중략) 비가 쏟아지니까 이제 내가 비상을 건 거예요

요. 그러니까 다 간부들 연락해가지고 나와라 그러가지고 3일을, 그때 이제 사태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태에 있을 때 집도 못 가고 그냥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 입지가 진달래 동산이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거기가 뱀이 참 많아요. 그러가지고 저 6시쯤 넘었는데 이제 6시쯤 오는데 이제 현장에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과장님 여기 뱀이 들어와요. 물이 넘쳐요.” 그랬는데 그전에 내가 선견지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샌드백 아시죠? 내가 그 사전에 샌드백을 그때 600매를 사가지고 모래를 다 담아가지고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이제 거기 갖다가 물들어 오는 거, 발전실 특히 이렇게 물 들어오는 데를 막았죠.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속수무책이에요. 공장이 전부 가동됐었잖아요. 근데 아주 공장이 몰스톱했어요. 우리뿐 아니고 우리 인근 천변에 있는 회사들이. 그러면 저녁때 됐는데 종업원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시내로 다니면서 빵을 다 사는 거야. 그리고 랜턴 있죠. 랜턴? 그것도 있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내가 가니까는 각 회사에서 전부 와가지고 그냥 빵 사 가려고. 저기에 로마 제과점이라고 있었어요. 다 없어졌지만. 거기에 하여튼 빵집에 다 와가지고 서로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둘째고, 랜턴.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상회를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아유 거기도 난리 아니에요. 서로 달라고. 근데 거기서 나 그냥 싸움하다시피 그 토박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강제로 그냥 35개 인가 사 온 기억이 나요. 그리고 빵도 갖다가 노나주고. 아유 말 마십시오. 그때, 대단했습니다.

대강의 급한 수해 복구를 마친 후, 살신성인의 대응으로 홍수 피해를 줄인 사람들에게 대한 상공부장관의 표창이 있었다. 당시 동양나이론 경비로 근무하던 조영돈은 폭우와 낙뢰로 절단된 6만 6,000볼트의 고압선을 제거하여 50여 명을 감전 사고에서 구해낸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sup>6</sup>

정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박정희 대통령은 7월 10일과 21일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점검하였다. 금성전선은 제일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의 수해 복구자금을 긴급 지원받았고, 즉시 수해복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복구 작업에 착수하였다. 하루 평균 1,600명, 연인원 3만 5,000명의 인력이 투입된 결과, 수해 발생 15일 만에 공장 가동을 재개하였고, 수해 발생 31일 만에 전체 시설의 95%를 회복하였다.

공장 복구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빛을 발하였다. 직원들은 빵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 무릎까지 차오른 진흙과 쓰레기를 치우고, 침수된 설비를 일일이 분해하여 세척하는 고된 작업이 이어졌다. 이웃 공장의 직원들도 돕기를 자청하였고, 지역 주민들도 복구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 덕분에 금성전선 안양공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구될 수 있었다.

호계동 공업단지가 겪은 1977년 대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위기를 통해 호계동의 지역 네트워크는 더욱 단단한 결속력을 보여주었고, 재난 상황에서 기업·지역사회·정부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다. 1978년 10월에는 이 경험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 금성전선 안양공장 사무동 앞 화단에 수해복구기념비를 세웠다.



금성전선 안양공장 수해 복구 작업(1977년, LG전선 제공)

#### 4. 변신하는 호계동 공업지역

2000년대 이후 호계동의 산업 지형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과거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하나둘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섰다. 대표적으로 LS전선 공장부지는 410가구 규모의 ‘안양호계푸르지오아파트’로 탈바꿈하여 2015년 입주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호계동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이어졌다. 1960~1970년대 성행했던 굴뚝 산업이 떠난 자리에는,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연구개발(R&D) 등 첨단산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특히 호계동 일대에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며 IT밸리가 조성되었고, 안양시 전체적으로는 4,000여 개의 벤처기업이 새롭게 입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역 경제를 책임지던 대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호계동이 자족 기능을 잃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밀집해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주거 수요가 풍부해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일자리 없이 아파트만 들어선 베드타운은 가격 상승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



호계동 안양IT단지

이에 안양시는 과거 산업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박달·명학·호계·관양·평촌 등 총 5개 권역 3.29㎢ 부지에 각각의 주력 산업을 유치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의 4~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문가들은 안양시가 서울시와 가까운 입지적 장점이 있어 IT 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하지만, 지역 경제를 대표할 만한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서는 세금 혜택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호계동 공업지역은 한때 쇠퇴를 겪었지만, 도시재생·산업전환 정책과 기술 융합 흐름에 힘입어 새로운 산업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위에 복합적 기능을 가진 미래지향 도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지역과 기업, 시민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성장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력키金星(금성) 安養(안양)연구단지 준공」, 『조선일보』, 1985년 1월 17일.
- 「공장 굴뚝 사라진 '안양시' 첨단산업 도시로 환골탈태」, 『매일경제』, 2012년 8월 23일.
- 「한국 경제의 개척자들(20) 조흥제 효성그룹 창업주」, 『월간중앙』, 2024년 7월 18일.
- 동양나이론주식회사, 「동양나이론 30년사」, 1996.
- LS전선, 「LS전선 50년사: 1962-2012 도전과 열정」, 2012.
- LG화학, 「LG화학 2001년 반기보고서 자료」, (<https://www.lgchem.com>).
- LG전자(<https://www.lge.co.kr/>).
- LS전선(<https://www.lscns.co.kr/>).

## 註

- 1 「“水路(수로)내나라.” 投石戰(투석전)」, 『조선일보』, 1966년 4월 26일.
- 2 LG그룹은 20005년 창업자 간의 동업관계가 청산되면서 LG·GS·LS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 3 30년 넘게 안양을 대표하는 연구소 중 하나였던 LG안양연구단지(구 력키금성 연구단지)는 2019년 부지를 매각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전하였다. LG안양연구단지가 있던 자리에는 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 4 락희화학은 1974년 주식회사 력키로, 1995년에는 LG화학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 5 금성마을 이외에도, 금성전선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무주택 사원 70여 명이 비산동의 아산을 매입하여 주택을 짓고 이주한 '희성촌'이 존재한다. '희성촌'이란 이름은 금성전선이 락희(樂喜) 그룹이라 락희의 '희'자와 금성(金星)의 '성'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희성촌은 재개발되었고, 현재 비산e-편한세상아파트가 건축되었다.
- 6 「탁류를 헤치며 살신성인-표창받은 미담의 주인공들」, 『매일경제신문』, 1977년 7월 21일.

## 제2장

# 산업용품 유통의 허브, 안양국제유통단지

---

윤정인 아주대학교 응용사회학과 박사수료



## 1. 산업 공간의 재탄생 : 생산공장에서 유통단지로

안양국제유통단지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번지 일대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다. 이 부지는 본래 1969년부터 금성통신(현 LG전자) 공장이 있던 곳으로, 약 37,000평 규모의 산업부지였다. 이 일대는 당시 럭키금성그룹 계열사들의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다. 금성통신은 1992년 말 공장부지를 서울·경기중기부품상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매각하였다. 연합회는 이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공구상가 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김용관** : 그게 이제 처음에는 ‘서울·경기중기부품상연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을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양국제유통단지가 시작은 됐는데, ‘서울·경기중기부품상협동조합’인가 하여튼 그런 명칭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거예요.

당시 수도권에는 서울의 구로·시흥·청계천 공구상가 등이 있었으나,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산업체들은 이들 공구상가와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안양은 많은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업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구상가가 없었고, 안양역 인근 구도심에 소규모 공구상가가 산재해 있을 뿐이었다.

**김용관** : 안양에는 이런 큰 공구상가, 유통상가 단지는 없었고 안양 역전 인근에 구도로 변으로 공구상가가 몇 개 산재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흥 유통상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로 공구상가, 청계천 이런 식으로 있었



인양국제유통단지 전경





안양국제유통단지 설립 이전 호계1동 공업지역 전경(199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지. 그래서 안양·군포·의왕·과천에 있는 많은 공장, 안양도 공장이 많았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양 역전이나 구도로 변에 남부시장 이쪽으로 공구상가 좀 산재해 있었는데, 나머지는 이제 시흥이나 청계천에서 거래 많이 했었죠.

연합회가 이 부지를 선택한 것은 안양의 지리적 이점 때문이다. 수도권 남부 중심에 해당하는 안양은 서울·인천·수원 등 주요 도시와 접근성이 좋았고, 경부선 철도와 주요 도로망이 잘 발달해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전국적으로 공구 유통단지 건립이 성공을 거두던 시기였기 때문에, 안양에서도 대규모 공구 유통단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용근** : 그때 당시만 해도 공구상가가 전국에 막 붐이 일어나서, 산업 발전에 따라서 공구상가단지만 지으면 거의 100% 분양이 됐고, 공구상가가 사업이 잘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구상가 대단지만 지으면, 이렇게 건립을 하면 굉장히 호황이었어. 호황. 그래서 그때 공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성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추세를 봤을 때 대단지 공구상가로서는 아마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기공식(1995년, 이정범 제공)

정도가 마지막쯤 이제 탄 거야.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구로중앙유통상가, 안산공구상가. 전국에서 보면 천안, 호남, 광주, 구미, 부산 많아요. 공구상가. 대단히 단지가 다 성황을 이루어. 그전에는 다. 안양도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안양국제유통단지의 조성은 조합원 모집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 용지 매입 이후 연합회는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들의 분담금으로 건설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김용곤** : 그때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안양에다가도 이런 큰 공구유통상가를 한번 지으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한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금성통신 그 부지를 매입을 한 거지. 매입을 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안양 호계동의 금성통신 자리에 공구상가를 짓는다, 개발한다라고 이제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조합원을 모집한 거예요.

연합회는 당해 공구상가 조합원 모집을 마치고, 호계동 555-9번지 부지에 유통단지 건립을 발표하였다. 초기 공구단지의 공식적인 이름은 ‘안양 산업기자재 유통단지’였다.

이 당시 산업기자재 34개 동(공구상가), 지하의 대형 할인매장 ‘까르푸’, 아파트형공장 ‘디오밸리’로 구성되는 안양국제유통단지의 주요 시설물 구상이 완료되었다.

1999년부터 산업기자재동과 지원동의 입점이 시작되었으나, 정식 사용 허가는 2003년 3월 12일에 이루어졌다. 한편, 대형 할인매장 까르푸는 다른 구역보다 앞선 1999년 2월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아파트형 공장인 디오밸리는 가장 늦은 2005년 9월에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안양국제유통단지는 약 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갔다. 이러한 단계적 입주 과정은 단지의 운영과 상권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까르푸의 조기 입점은 단지의 초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디오밸리의 완공은 안양국제유통단지가 종합 상업·산업 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기자재동 공구상가 분양은, 소위 ‘목’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특급지·A급지·B급지·C급지·D급지로 구분하여 차등 분양하였다. 특히 코너나 중앙 통로 등 상업적 가치가 높은 특급지는 분양가가 약 6천만 원 정도 더 높았다. 동호수 배정은 입지 등급에 따른 추첨을 통해 이루어졌다. 초기에 정해졌던 입지 등급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유경애<sup>2</sup>** : 저기 보면 색깔이 틀리잖아요. 특급지, A급지, B급지 해가지고. 조합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분류를 시켜놓고, 특급지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고, 특급지 한해서 뽕뽕이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색깔마다 등급마다 1,2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특급지가 6,000만 원을 더 낸 거예요.

## 2. 안양국제유통단지의 공간구조와 그 쓰임새

완공된 안양국제유통단지는 대지면적 116,917.50㎡에 건축 연면적 278,443㎡ 규모를 갖추었다. 2024년 현재는 3,930여 업체가 입점하여 60,000여 품목의 공구와 산업용품을 유통하고 있다. 단지는 크게 산업기자재동과 디오밸리 구역으로 구분된다. 단지 내 가장 시설 비중이 높은 산업기자재동과 지원동이 위치한 구역은 약 70,000㎡ 규모의 정사각형 형태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오밸리는 이 공구상가의 남동쪽에 이등변 삼각형 형태의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 1층은 까르푸가 철수한 후 홈플러스가 입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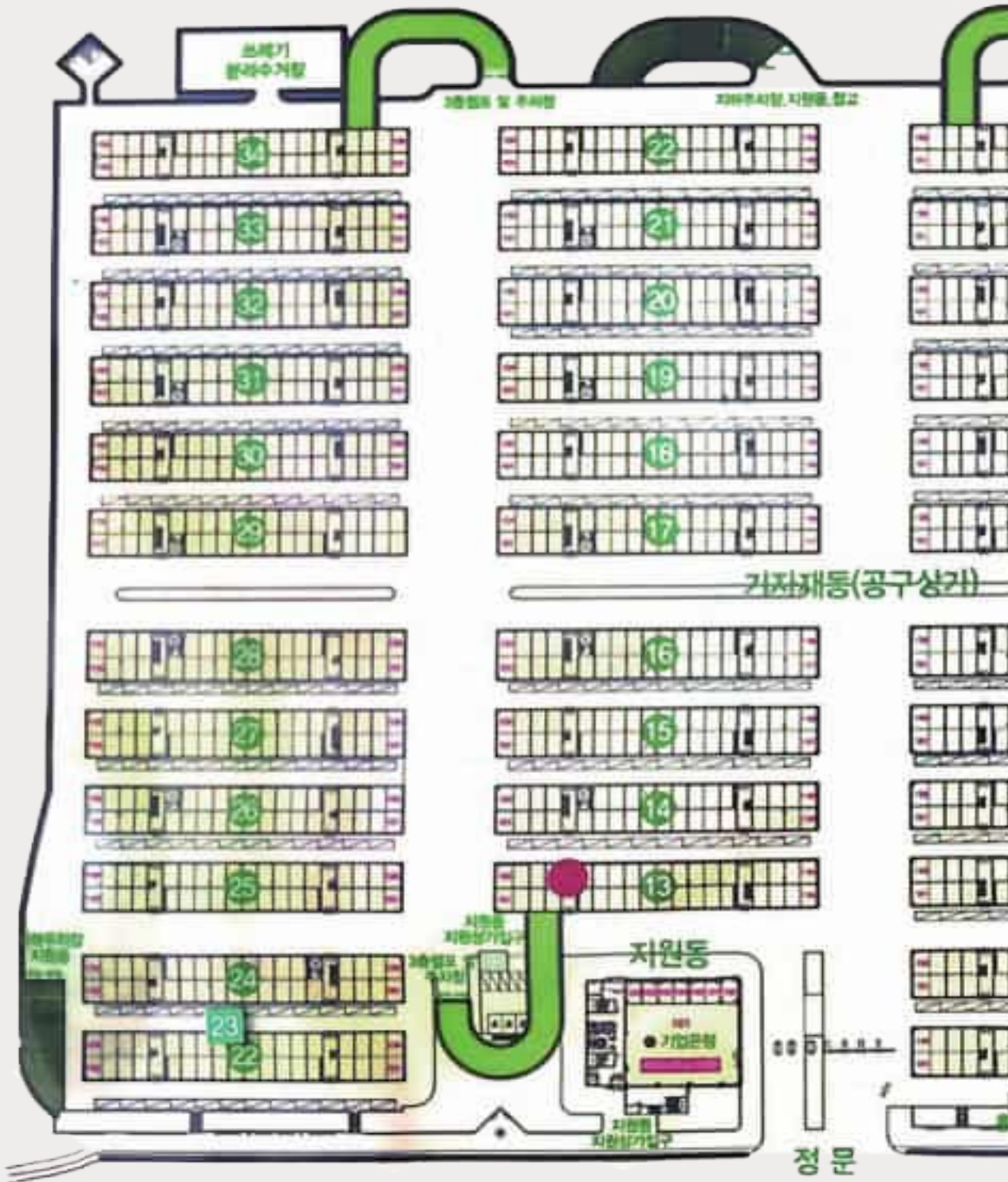


안양국제유통단지 조감도(안양국제유통단지 제공)

안양국제유통단지의 업종 구성을 살펴보면, 건물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인다. 산업기  
 자재동은 총 3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자재동과 동력동으로 구분된다. 기자재동  
 에는 일반·산업용 공구, 건설 공구, 안전용품, 전기자재, 산업용 자동제어 용품, 배관자  
 재, 천막, 계측기, 고무 제품, 작업복, 전문건설업 엔지니어링 등 각종 자재 관련 업체들  
 이 입점해 있다. 동력동에는 공작기계, 기계 부품 가공, 아크릴, 선반 밀링 가공, 철 구조  
 물, 기계 제작 등 제조 관련업체들이 주로 위치한다.

각 동은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되었다. 건물 외벽은 콘크리트에 베이지색  
 페인트로 마감하였다. 그 때문에 알루미늄 패널로 외벽을 마감한 디오벨리나 지원동에  
 비해 오래된 느낌을 준다.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창고로 사용된다.  
 지상 1층 점포는 주로 공구상이 입점해 있으며, 2층 점포는 사무실이나 창고로 활용된  
 다. 지상 3층은 공구상과 창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상점 규모는 대부  
 분 6~7평 정도로,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설계되어 있다.

지상 3층 점포는 옥탑 형태로 건물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이며, 계단을 통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차량을 통해서 옥상 주차장으로 올라가야 접근할 수 있다.





수원 →



1. 산업기자재동 옥상 주차장
2. 산업기자재동 1층
3. 산업기자재동 1층
4. 사무실과 창고로 활용되는 산업기자재동 2층
5. 산업기자재동 3층
6. 산업기자재동 1층 점포





안양국제유통단지 지원동

일부 공구상이 입점해 있으나 상당수는 창고로 사용되거나 공실인 상태로 보이는데, 이는 1층 점포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차 공간은 지하 1층·2층·옥상에 마련되어 있으며, 약 6,0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특히 34개 동의 모든 건물 간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옥상 주차장 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안양국제유통단지 정문 좌측의 지원동은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이다. 외장도 공구상가 건물과는 다르게 알루미늄 패널로 장식되어 있어 다른 공구상가 건물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1층에는 은행과 공인중개사무소가 입점해 있으며, 2층 이상은



안양국제유통단지 디오벨리

주로 세무사·회계사·법무사·노무사 등의 전문가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봉사관도 이곳에 입주해 있다. 단지의 관리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관리사무소는 지원동 5층에 있다.

디오벨리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지식산업센터로 변모하였다.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로 알루미늄 패널로 외벽이 마감되어 있다. 이 건물은 주로 30~40평 규모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 규모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적합하다. 디오벨리에는 제어·계측, 반도체, 자동화 기계설비 제작, 금형 제작 설계, 시험 유해물질 검사 SSG 등 첨단 기술 관련 업종들이 입주해 있다. 1층에는 공구업체, 음식점, 호계동 현대우편취급국 등이 입점해 있는데, 음식점은 주로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2층에는 지원동과 마찬가지로 세무사·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사무실이 다수 위치하는데, 이는 유통단지 입점 업체들의 세무 및 재무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1동에 매장 입구가 있어, 도보 이용객들은 정문을 거치지 않고, 도로변에서 직접 매장 진입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안양점은 1999년 ‘까르푸 안양점’으로 개점하였으나 까르푸 철수 후 2006년 ‘홈에버 안양점’으로 개점하였다. 2008년 다시 ‘홈플러스



안양국제유통단지 정문에서 시작되는 일방통행 주도로

스 안양점'으로 바뀌어 운영되다가 2024년 9월 1일 폐점하였다. 홈플러스 전용 주차장은 단지 후문에서 10m 거리에 있었다. 인터넷상의 이용객 평가를 종합해 보면, 넓은 주차장과 안양시 최대 규모의 매장 면적이 장점으로 꼽혔으나, 시설의 노후화가 단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안양국제유통단지 가로망은 효율적인 물류 이동과 상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단지의 주요 출입구는 남서쪽의 정문과 남동쪽의 후문이다. 후문으로 진입하면 오른쪽으로 지하 1층 매장과 주차장을 출입하는 진입로가 있다.

단지의 주도로는 크게 두 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정문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일방통행 도로이다. 이 도로는 폭 18~19m의 3차선으로, 정문에서 시작하여 약 210m 직선으로 이어진 후, 좌측으로 100m 구간을 지나 다시 210m의 직선 구간으로 연결된다. 이후 다시 100m의 좌회전 구간을 거쳐 정문으로 돌아오는 순환형 구조이다. 일방통행 순환형 구조의 통행로는 진입 지점의 위치에 따라, 상점 가치를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일방통행의 시작 지점인, 정문에서 가까운 위치는 특급지 중에서도 더 좋은 자리로 평가받는다.



안양국제유통단지 후문에서 시작되는 주도로

**유경애** : 이게 일방통행이니까, 일방통행에서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입점들이 빨랐고, 1동에서 34동까지 있잖아요. 34동에서 주로 이렇게 첫 번째 교차 자리는 입점이 빨랐죠.

두 번째 주도로는 후문에서 시작되어 단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370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이다. 이 도로는 폭이 15m이고, 도로 중앙에 화단형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각 산업기자재동의 건물 사이마다 차량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 6~7m 정도의 폭이 좁은 도로가 있는데, 도로마다 1층 상점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이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정문의 일방통행 주도로에만 3~4m 폭의 안전지대가 노면 표시로 구획되어, 보행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품의 하역 작업이 빈번한 공구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옥상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1층 점포의 물류 하역 편의성으로 인해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 주차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문에서 시작되는 주도로의 경



산업기자재동 건물 사이 도로

우 점포 입구 방향으로 차량 전면을 향하게 하여 사선 주차를 하지만, 후문에서 이어지는 중앙 관통 도로는 안전지대 없이 평행주차를 하고 있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를 통해 2010년 4월 모습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주차 방식은 관례처럼 10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문 순환도로는 3차선 중 중앙 1개 차선이, 후문에서 시작되는 중앙 관통 도로는 4차선 중 양방향 각 1개 차선이 실질적인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차량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로망 구조와 운영 방식은 공구상가라는 특수한 상업시설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운영 여건이 절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상인들의 영업 편의성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된 교통문화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내 배치된 교통 관리 인력들은 상거래 활동과 차량 통행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적인 규정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현장에서 조율하며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다.

### 3. 공구판매상의 일상과 점포 운영

#### 1) 공구판매상의 일상

안양국제유통단지 조성 초기에 입점한 상인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들었다. 청계천·영등포 공구상가 등 서울 지역의 기존 공구상가와, 시흥·안양 지역의 상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유경애** :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청계천에서 분양을 많이 받았고요. 영등포에서 분양 많이 받았고, 서울에서 오시거나, 그쪽에서 여기서 오려고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중략) 시흥에서 온 사람도 많았고, 이 주변에서 온 사람도 많았고.

입점 상인들의 특징은 대부분 이미 공구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완전히 새롭게 창업하는 경우보다는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공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전해 온 경우가 많았다. 유태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호계동에서 같은 업종으로 약 10년간 영업을 하다가 이 단지가 조성되면서 입점을 결정하였다.

**유태근<sup>3</sup>** : 저 같은 경우는, 요 옆에 여기 신사거리 쪽에, 거기서 매장 전에 하다가. 같은 업종으로 있었어요. (중략) 옛날에 여기 들어오는 입구 저쪽에 있었어요. 아파트 지금 새로 생긴 데에 그 코너 옆에 국민은행이 있었는데요. 그 옆에서 한 10년 정도. (장사를 했었어요.)

입점 초기에는 여러 어려움도 있었다. 단지 전체의 입점률이 저조하였고, 완전한 입점까지는 4~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기존에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던 상인들은 이전 후에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였으며, 오히려 새로운 고객층이 형성되면서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안양국제유통단지 업체들은 단순한 판매업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자동펌프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특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한일자동펌프는 각종 산업용 펌프를 주로 취급한다. 주요 고객층은 건설사와 설비업체로, 도매와 소매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에 지하수 배출이나 고층 건물의 급수 시스템 등에 필요한 대형 펌프를 납품하고 있다. 단순 판매와 더불어 수리·설치·출장 등 종합



안양국제유통단지에서 25년째 영업 중인 한일자동펌프

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태근** : 저희는 산업용 쪽이니까는 현장에서 쓰는 그런 물건이 많죠. 가서 현장에서 일하고 그러는 거. (중략) 건물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거든. (중략) 건물 지으면 이제, 지금은 높이 짓잖아요. 파는 것도 지하 3, 4층씩 파니까 지하에 나오는 물을 퍼내야 되고, 사용하는 물도 퍼서 외부로 이제 보내야 되고, 또 일반 상수도는 위에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탱크에 지하 저수지에 물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건물 끝까지 올려 공급해 주고.

대부분의 공구판매업은 단순한 판매직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 제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하는 공구의 사용법이나 장단점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구를 사용하는 고객의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

요하다. 다양한 공구와 자재의 종류·사용법·규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은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찾아주고 판매할 수 있다. 특히 펌프처럼 설치와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는 더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유태근** : 일단은 뭐 업무 파악, 그래도 이 제품이 어디에서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고, 그 거를 선정을 좀 해야 되니까 판단이. (중략) 어떤 제품의 견적이 들어오면은 내용을 알아야지 견적을 낼 거 아닙니까.

이런 지식은 학원이나 교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점포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 이런 점 때문에 업무 파악과 제품 선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한다. 유태근도 동종 업종에서 직원으로 3년 정도의 근무 경험 후에 개업할 수 있었다.

**유태근** : 아무래도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배워서 나가서 뭐 차린 다든가 (중략) 그런 데 좀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다른 데 같은 업종에 좀 있었어.

한일자동펌프는 사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수리와 현장 출장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영업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최근에는 토요일은 오전만 영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상권의 변화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전문성이 2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유태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안양국제유통단지 내 업체 중 약 30% 정도는 부모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이다. 유태근은 자녀에게 물려주지는 않지만, 자녀가 원한다면 물려줄 의향이 있다고 한다.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거래처의 가치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태근** : 주위에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 30%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한일자동펌프 직원들

**유경애** : 연령대가 지금 많은 변화, 세대교체가 되고 있어요. (중략) 그게 지금 부모님들이 운영하다가 자식들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 2) 공구판매상의 점포 운영

안양국제유통단지 점포의 가장 큰 특징은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각 점포는 보통 6~7평 정도이다. 이 공간은 상인들의 공간 활용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뷰를 위해 방문했던 한일자동펌프의 경우 좁은 공간 안에 판매용 펌프, 수리 대상 펌프, 각종 공구와 서류들이 철제 서랍과 선반에 뽁뽁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이였다. 이러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상인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점포는 도로 쪽으로 진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점포 앞에 선반을 두어 물건을 진열하고, 차양을 설치하여 개폐식 방수 천막으로 이를 보호하며, 영업 시작과 종료 시에 이 천막을 여닫는다. 조합에서는 도로 쪽 진열

에 대해 1~2m 이상 못 나오게 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점포가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유래근** : 그런 규제가 좀 있어서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 규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것도 일정하게 하고, 앞에 나오는 것도 1~2m 이상 못 나오게 하고.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또 질서가 잡히니까. (조사자 : 여기 영업을 끝나면 저런 걸 다 안에 들여놓으시는 건가요?) 그냥 두고 또 필요한 거는 이제 집어넣어 놓고, 다른 데는 이렇게 그냥 천막같이 각각 이렇게 씌워서 두고.

둘째, 많은 사업체가 복수의 점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일자동펌프의 사례를 보면, 두 개의 인접 점포 사이 벽을 터서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맞은편 점포까지 포함해 총 3개의 1층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 추가로 2층과 지하의 창고 공

간 5개를 더해 총 8개의 점포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점포를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은 단지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 되었다.

셋째, 점포 대부분이 다락을 설치하여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점포의 층고가 높게 설계된 덕분에 가능한 방식으로, 주로 물품 보관용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이 다락 설치를 둘러싸고 안양시와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다.



한일자동펌프 점포 내부의 물품 보관 모습

**유경애** : 입점자들이 그 다락을 만들 때 그것 때문에 시하고 그런 마찰들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다락은 규정상 그게 다락이 아니라,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고, 그 이후로는 큰 문제 없었어요.

**유태근** : (점포 내 1층 천장을) 조금 낮추고 위(다락)에서 좀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구조상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더 내리려면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잡아갖고선 어느 선까지 못 내리게 하고, 조합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서요.

이러한 공간 활용 방식은 단지가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는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구상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 안양국제유통단지의 성공과 지속가능성

안양국제유통단지는 본격적인 입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지상에 대형 공구상가와 아파트형공장이 위치하고 지하에는 대형 할인점 까르푸가 위치하는 최첨단 복합 유통단지로서 언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개장 초기부터 단지가 바로 활성화된 것은 아니었다. 지원동에서 초창기부터 부동산을 운영해 온 유경애의 말에 따르면, 2003년 당시 단지의 입점률은 약 40% 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승인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조합 내의 갈등, 공사비용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경애** : 처음에는 입점이 안 됐었어요. 1999년도에는 입점이 안 되고 있다가 그다음에 조금 조금씩 되다가, 우리가 그때까지는 한 4년 5년까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빈 사무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거의 찼었어요. (중략) 여기 오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게 많았었던거요. 여기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게 많았고, 건설사업 문제도 많았고. 또 이게 분양이다 보니까, 조합이다 보니까 이게 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공사업 문제도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들로 초기 입점률은 높지 않았지만, 입점한 업체들은 초기부터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유태근의 경우, 1999년에 입점한 후 50% 정도의 매출 상승이 있었다고

한다. 유탈근만이 아니라 초기에 입점한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높은 이익을 거두었다.

단지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종합’ 공구상가라는 특성이다. 고객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공구와 기자재를 구매할 필요 없이, 한 단지 내에서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즉, 고객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다. 유탈근의 표현처럼, 단지에는 다양한 품목이 “알뜰하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그냥 한 번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남부 권역의 다른 공구단지와 비교했을 때, 안양국제유통단지는 규모나 업종의 다양성 면에서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 또한 중요한 장점이다. 안양국제유통단지는 경부선·국도 1호선·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 잘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안양 지역 외의 고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접근성과 업종의 다양성은, 안양국제유통단지가 안양을 넘어서 수원·화성·용인·서울 강남권 고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의 주요 공구상가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안양국제유통단지 주차장





영업 중인 홈플러스 안양점 매장 입구



폐점한 홈플러스 안양점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 상인들은 주차 시설을 꼽는다. 단지 내 주차 공간은 약 6,000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하 주차장과 옥상 주차장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입점 업체의 경우, 주차비가 월 1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방문객 주차요금은 30분 무료이며, 입점 업체를 통해 2시간 무료 주차도 가능하다. “나갔다가 오신 분들이 주차 때문에 다시 들어와요.”라고 말할 만큼, 편리한 주차 여건 역시 안양국제유통단지의 이점이다.

안양국제유통단지는 이러한 장점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넓은 주차 공간과 뛰어난 접근성은 대량 구매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업체의 집적은 이들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단지의 성공은 부동산 가격에도 반영되었다. 유경애의 말에 따르면, 공구상가 코너 자리의 분양가는 1억 8,000만 원 정도였는데, 최고 거래가가 8억 원까지 올랐다. 2024년 9월 현재는 6억 5,000만 원~7억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2024년 안양국제유통단지의 가장 큰 변화는 단지 내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 안양점의 폐점이다. 2020년부터 비효율 점포를 줄여나가던 홈플러스는, 2024년 9월에 영업 부진으로 인한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홈플러스 안양점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홈플러스 폐점은 안양국제유통단지를 방문하는 고객 수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홈플러스 폐점이 산업기자재동 공구상가의 매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일자동펌프 사장 유태근은 건설 경기의 침체나 온라인 거래의 확대가 오히려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이게 건설 쪽에서도 안 좋고 일이 많이 없다.”는 인터뷰 내용처럼, 2024년 들어 건설 현장의 감소

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그 때문에 신규 창업도 감소 추세이다.

온라인 거래의 증가는 안양국제유통단지 상인들에게 새로운 도전 요인이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제품의 특성상, 여전히 대면 거래의 중요성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지 내 상점의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경애** :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전에는 코너가 나오면 바로바로 입점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코너 자리가 조금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일단 임대료가 비싸니까.

안양국제유통단지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홈페이지 폐점으로 발생한 대형 공실의 활용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이 공간의 새로운 활용은 단지의 미래 모습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곤** : 폐업하고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 근데 말로는 레무가 들어온다, 알리가 들어온다, 뭐 이런 무성하게 그런 말만 지금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온라인 거래의 증가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많은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추세지만, 공구상가가 가진 전문성과 현장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온라인 거래의 편의성을 수용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젊은 층의 상인 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2세대 경영으로의 전환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건설 경기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인해 새로운 창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공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세대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조합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년의 역사를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안양국제유통단지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참고자료

「안양공장 부지 매각 268억 원 '통신사업 특화' 투자」, 『매일경제』, 1993년 4월 1일.

「안양에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매일경제』, 1996년 12월 16일.

「안양에 초대형 쇼핑몰」, 『매일경제』, 1997년 9월 23일.

(주)정보아이엔에스, 「안양국제유통단지명감」, 안양국제유통단지명감(<https://jbins.co.kr/>).

안양국제유통단지(<https://www.ay2022.co.kr/>).

## 註

---

1 남, 안양국제유통단지 전 관리단장.

2 여, 1999년부터 안양국제유통단지 내 수림부동산 근무.

3 남, 1999년부터 안양국제유통단지 내 한일자동편프 운영.

## 제3장

# 제조의 시대에서 유통의 시대로, 안양가구단지의 변화

---

김형아 설남 대표



## 1. 한센인 마을과 가구공장의 만남

1970년대는 고도성장의 시대였다. 서울에는 사람이 밀려들었고 공간은 점점 더 비대해졌다. 사람들은 물고기 비늘처럼 촘촘히 집을 지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열악한 집들조차 부족하였다. 영세한 공장들도 집들과 함께 무질서하게 어울렸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강북에 있는 사람들을 강남으로 옮기고 강북에 있는 공장들은 서울 바깥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의 개발 혹은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시내의 공장들은 대거 서울 외곽의 경기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서울의 달동네라고 불린 금호동·옥수동·독섬 일대에 많았던 가구공장들도 외곽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동<sup>1</sup>은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공장에서 사장을 따라 지금의 안양가구단지<sup>2</sup>로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지금의 가구단지 일대는 성라자로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던 축사가 많았다.

**이동용** : 공장들이 7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서울서 북가좌동에서 장릉공장에서 직장 생활했는데, 공장이 요리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나보고 따라가자고 하니깐 일로 와서, 여기서 3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독립을 했지. 우리가 그때 80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주변이 다 나자로마을이었는데, 축사들이 돼지 양돈장들이 많았어요. 여기가 짙적짙적 했었거든. 길이, 황톳길이지. 왜냐하면 돼지 키우고, 닭 키웠으니까. 돼지 막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임대료도 싸고 공장들이 별로 없으니까 일로 몰린 거예요.

1951년, 광명에 있던 천주교 한센인 요양원이 의왕의 모락산 기슭으로 이전하며 이



1960년대 성라자로 요양원 아래 한센인 정착마을(성라자로마을 제공)

지역에 한센인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양성 한센인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며 치료받았지만, 음성 한센인은 환자들과 분리되어 자립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 그러나 음성 판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과의 접촉은 쉽지 않았다. 사회적 편견 속에서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은 주로 양계나 양돈 같은 축산업에 종사하며 자활 기반을 마련해 갔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축산업은 혼한 생계 수단이 되었고, 자립 척도의 지표가 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농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체노동이 덜하고, 정착마을이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약취나 폐수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았던 점이 그 배경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와 물가상승의 여파로 축산업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한센인들은 다시 한번 생계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던 축산업은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대규모 축사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에서 밀려났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의왕의 한센인 정착마을이 자리잡은 곳이 축산업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1976년 준공된 한국나병연구원(성라자로마을 제공)  
사진 위쪽이 한센인 자립마을이다.

생계 수단을 잃게 된 한센인 정착마을과,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가구공장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이로 만나게 되었다. 가구공장은 가구를 제작하는 공간 외에 자재를 쌓아두고 중간 골조 및 완제품을 보관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면 땅값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을 찾아야 했다. 한센인 정착마을은 대개 외진 곳에 있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축사가 많았으므로 가구공장 입지로 적합하였다. 축사를 공장으로 임대하고 받는 월세는 한센인 정착마을 사람들의 생활비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왕 성라자로마을을 비롯한 서울 외곽의 한센인 정착마을이 가구단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용인의 어정가구단지(동진원)·염광가구단지(염광농장), 남양주의 마석가구단지(성생농장), 고양의 일산가구단지(고운농장) 등이 하나둘씩 형성되었다. 축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허름하지만 튼튼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시멘트 벽돌로 간단히 보수하면 곧바로 가구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가구제조업은, 기술을 익히고 숙련이 되면 초기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독립할 수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이들 가구단지는 숙련공이 독립하면서 점차 가구단지가 확장되었다.

가구공장을 운영하거나 공장 일을 하던 사람들은 한센인 정착마을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았다. 길에서 자주 마주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건물주였으므로 그들이 전염력



1974년 안양가구단지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현재 호계3동 호계현대아파트, 삼천리아파트, 태하아파트, 평촌신원의아침도시아파트 일대이다.

을 가진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동은은 1980년대 초에 다니던 가구공장에서 독립해 자신의 공장을 세웠다. 그는 45만 원에 120평가량의 공간을 임대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동은** : 일산, 마석, 저쪽에 용인에 영광원 그런 데가 전부 다 나자로마을이에요. 경기도의 나자로마을은 전체가 다 가구단지예요. 임대료가 싸고 원주민들이 돼지나 닭을 키워갖고 판매를 하고 그러면은 별로 이익이 안 남으니까 가구공장을 올리고 세를 주면은 월세가 착착 나오니까 임대료가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여기가 원래 원조예요. 경기도에서. 가구단지로는 원조예요.

**이동은** : 가구공장 하던 사람들은 라자로원 찾아다녔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목수들이 다 인맥이 있잖아요.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아 어디 가면 공장 세가 싸고 넓더라 하고 다니는 거지. 완전히 라자로들이 단지 집합소가 돼버린 거지.

## 2. 1980년대 전국에 알려진 안양가구단지

가구산업의 최전성기는 1980년대였다. 197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주택건설 수요와 함께 가구공장이 확산하는 시기였다면, 1980년대는 일부 가구업체의 대형화가 이루어

졌다. 1982년 국내 가구시장의 규모는 4천억 원으로, 70%는 수공업 형태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양산체제를 갖춘 대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었다.<sup>3</sup>

원자재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가구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었다. 가구공장은 유통에 유리한 도심 근교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동율은 직원들과 사업주 모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이동율** : 전체가 다 공장이었어요. 안양에서 1호였어요. 이 포도원 골목에 돈 못 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목수들이 월급이 셋저든. 여기가 그때에는 가구단지라 별로 없었어요. 다른 데는 없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오면은 가구공장이 많으니까 의왕가구단지라고 소문이 나갔고, 시내에서 가구 파는 사람들이 여기를 와요. 공장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물건이 맘에 들면은 “야, 우리 갖구 와. 가격을 얼마에 얼마 해서 갖고 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처음에 명업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었어요. 여기가 가구단지라고 소문이 나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왔으니까. 소문을 듣고.

안양에 가구공장이 몰려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시내 가구 소매점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광주·전주·강릉까지 전국에서 가구 주문이 들어왔다. 가구공장이 모여있는 효과 덕분에 별도의 영업을 하지 않아도 상인들이 찾아왔다. 1980년대 전성기 시절 안양가구단지의 가구공장 수는 160~180개 정도 있었다고 한다. 모락산 아래 아파트 자리가 예전에는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동율** : 현대아파트도 자개공장. 삼천리아파트는 가구공장이 아니었고. 저쪽 경기중앙교회, 보시골이라고. 신안아파트 위쪽으로 성원아파트까지 공장이었지. 천주교 뒤에. 거기까지 전체가 다 공장이었어요. 여기까지. 성당 앞으로 다 공장이었어요. 엄청 커요. 공장이 산 밑으로 많이 올라가있었지. 여기는 도로가고.

단품으로 구매하는 일반 고객들도 가구공장에서 가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공장을 방문하였다. 소매상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까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장 옆에 별도의 조그마한 가게를 열기도 하였다. 일반 고객이 가구공장에서 가구를 구입할 경우 공장주는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었다. 대량으로 구매하는 상인들보다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가게가 더 늘어났다. 가게에는 가구공장에서 만든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든 물건도 갖다 놓기 시작하였다.



태 하

입구



안양가구단지 일대.  
1980년대 중반에 입주한 저층 아파트, 가구매장, 옛 가구공장 건물이 혼재되어 있다.

1990년대에는 일반 고객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때 이동율은 공장 운영과 함께 사무실 겸 가게로 약 50평가량을 별도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산층 사이에서 아파트 선호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주방과 거실의 공간 구성이 변화하면서 식탁, 소파, 거실장, 장식장 등의 가구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파 전문 회사들의 창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sup>4</sup>. 안양가구단지에도 식탁과 소파를 제작하는 공장들이 생겨났지만, 당시에는 아직 식탁과 소파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던 시기는 아니었다.

1980년대 도시민의 주요 거주 형태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이었으며, 이들 주택은 아파트 평면을 지향하면서도 침실 수 확보를 우선시하였다. 부엌과 식사 공간이 하나로 합쳐진 구조는 매우 협소하였고, 거실 대신 침실이 주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식탁이나 소파를 두기에는 여유 공간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당시 가장 많이 팔린 가구는 장롱, 텔레비전을 올려놓는 문갑, 찬장이나 장식장 정도였다. 집 규모가 작다 보니 가구의 종류도 단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동율** : 그때 처음 했을 때는 무늬목 장롱이었어요. 나무를 얇게 깎잖아요. 종이같이. 그리고 전부 붙였어요. 그것도 있었고 딸까닥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원목으로 돼서 딸까닥하는 거고 비싼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거시기가 나왔지. 아미노라고 종이로 된 거 필름 붙이는 거. 쉽게 말해서 필름장이지. 종이장이지. 싸게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그걸 썼었고. 아미노. 아미노라는 장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필름. 종이.

1980년대 초반에는 공장에서 직접 디자인한 가구를 많이 만들었는데, 합판에 무늬목을 붙인 형태였다. 1980년 4월 20일 조선일보에 광고한 가구업체 보루네오는 ‘종이로 만든 가구와는 비교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통해, 보루네오의 제품은 진짜 무늬목을 사용했음을 강조하였다. 이보다 고급 제품은 ‘딸까닥장’이라고 불리던 것으로, 문짝 표면에 네모난 원목을 조각한 후 부분을 넣어서 꾸밈하는 것이다. 조각한 부분만 따로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여서 ‘딸까닥’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980년대에 주로 판매된 가구는 원목장과 자개장이었다. 원목장은 나무의 변형을 방지하고 반짝반짝하게 윤을 내기 위해 니스·우레탄·락카 등으로 마무리하였고, 자개장은 기본적으로 붓으로 칠하였다. ‘호마이카장’이라고 불리는 자개장은 옷칠장보다 저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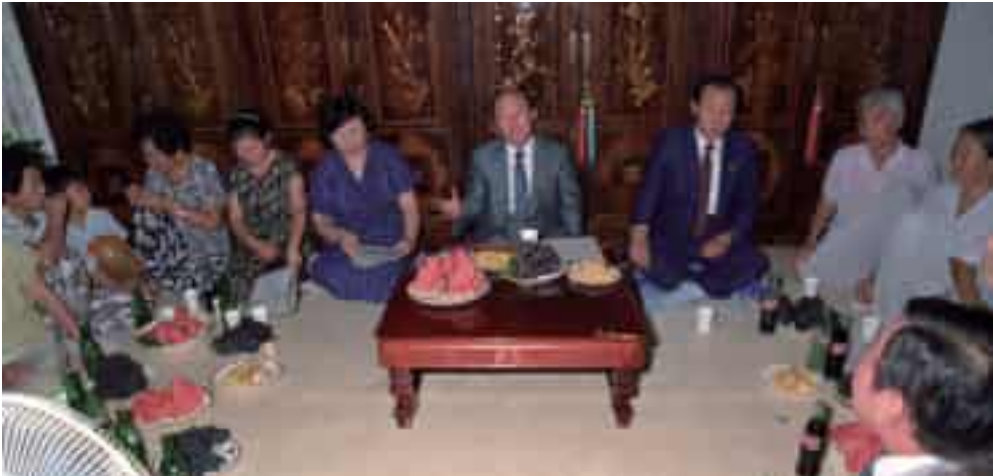


보루네오가구 신문 광고(조선일보, 1980년 4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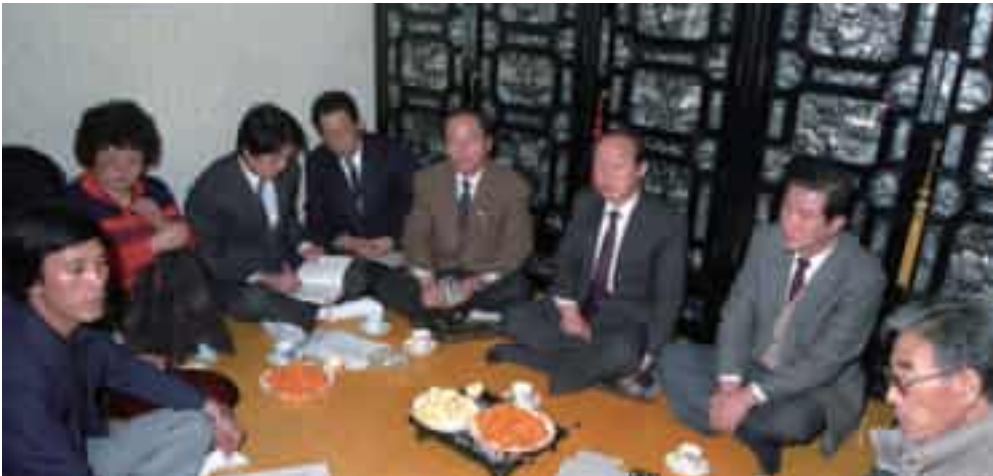
자개장으로, 표면에 펠라민수지를 덧입혀 표면을 반들반들하게 덮은 일종의 플라스틱판으로 굳혀서 만든 것이다. 1980년대 가구 제작 공정은 분업화된 수공업에 가까웠다. 나무 합판 준비부터 대패질, 사포질 도장, 조각 등 모든 과정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자개장과 원목장이 고가인 것은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자개장은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시 통영에서 전통 나전칠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전칠기의 선풍적인 인기에 자개 전문 공장들이 서울·경기 지역에도 생겨나면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통영 나전칠기 공장 일대가 극심한 인력난으로 파산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나전칠기의 수요는 엄청났다. 나전칠기 같은 고가의 장롱을 사기 위해 주부들은 계를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국가에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안양가구단지에도 자개공장이 많았다. 그 위치는 지금의 아르디앙 가구점 앞이다. 이곳에는 저가의 호마이카장부터 고가의 옷칠장까지 자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롱을 판매하였다. 하지만 저가 호마이카장은 몇 년이 지나면 칠한 부분이 탈색되면서 자개가 노랗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해 주는 자개장은 카쇼장이다. 카쇼장이라고 불리는 자개장은 칠을 한 후 자개 위의 칠을 다시 끌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만든 장이다. 호마이카장은 ‘칠을 부어서 범벅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제작 방식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카쇼장이 호마이카장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장롱으로 평가받았다. 카쇼장은 동남아에서 수입한 캐슈나무 수액으로 만든 칠액을 덧바른 것으로, 옷나무 수액이 워낙 비싸서 보다 저렴한 칠액으로 대체한 장이었다. 가장 고가의 나전칠기는 옷나무 수액



1989년 안양시 반상회 모습(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방의 원목장과 자개장이 눈에 띈다.



으로 작업한 옷칠장이다.

이동율이 운영했던 가구공장은 원목장이 주요 생산품이었다. 가구 짜임새는 직접 디자인하였다. 디자인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기존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변형하는 식으로 디자인하였다. 대기업에서 만든 디자인이 괜찮을 때는 기업 디자인을 본떠서 만들었다. 장식 조각은 전문적 기술자에게 의뢰하였다.

1990년대에 안양가구단지<sup>5</sup>로 들어온 민공기<sup>5</sup>는 서울의 자개공장에서 기술을 배웠다. 선임 기술자 밑에서 몇 년 동안 잡일을 하며 일을 배우는 도제식이었다.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는 인간문화재가 된 동료도 있었다. 숙련공이 된 민공기는 자재가구의 호황에 힘입어, 1983년에 인천에서 자재공장을 시작하였다. 나무 수입의 80~90%가 인천항으로 들어왔고 나무를 가공하는 합판공장 등의 목재단지도 인천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이 50명이었는데, 자재가구의 디자인은 직접 할 수 없어서 도안을 사서 썼다. 서울 신당동에 가면 재료로 쓰는 자재와 가구 장식들이 큰 규모로 유통됐을 뿐만 아니라 도안만 전문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재용 도안은 50~100만 원에 가격이 형성되었다. 구입한 도안을 자재 조합하는 기술자들에게 주면, 색깔을 알맞게 배합해서 붙였다.

### 3. 가구를 만들던 곳에서 파는 곳으로

1990년대로 접어들자, 소규모 가구공장들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유지가 힘들어졌다. 가구는 여전히 판매하였지만, 고가의 자재장과 원목장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았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고가의 가구시장은 수입 가구 중심으로 대체되었다. 유럽에서 들어온 가구 수입량은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 대기업의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 기술자들은 자연스럽게 대기업으로 들어갔다. 민공기는 1990년대에는 가구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중국 시장의 개방은 가구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저가의 중국산 가구가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 가구공장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국내 공장에서 제작되는 제품 중 마음에 드는 가구를 중국에서 생산하자며 협업을 제안하였다. 중국 진출을 새로운 기회로 여긴 이들 중 일부는 직접 중국에 가구공장을 차리거나, 기존보다 몇 배 높은 임금을 제시받고 스카우트되어 중국으로 갔다.

민공기가 안양가구단지에 들어온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이다. 그는 중국에 가는 모험을 택하기보다는, 가구공장을 접고 가구점을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나무로 만드는 가구 특성상 기후가 다른 장소에서 만든 가구는 다른 지역으로 완제품이 도착했을 때 비틀림 등의 하자가 발생하기 쉽다. 민공기는 미국에 가구를 수출할 때 오랜 기간 배에 있던 가구가 극심한 온도와 습도의 차이 때문에 하자가 났던 경험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를 벗어난 가구 사업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이유에서 중국에서



의왕 가구공장단지 신문 광고(조선일보, 1995년 3월 11일)

잘 만들어진 제품이 배를 타고 오는 와중에 하자가 생겨서 망하는 공장도 생겼다.

대기업들은 높아진 인건비와 원자재 수급 불안, 관세 등으로 줄어든 수출을 만회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포화 상태의 내수시장 안에서도 체질 개선을 통해 살아남아야 했다. 소규모 공장들 또한 수공예 중심의 디자인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소비자의 선호에 맞춰 변화해야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밀려오는 저렴한 가구와 다양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고가의 수입 가구 틈바구니에서 기존의 기술자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한 가구공장은 서서히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가구산업의 성장률은 둔화하였다. 수출 부진과 국내시장이 성장 불가능한 최대점에 도달하면서 한 회사의 매출이 신장한 만큼 다른 회사의 매출이 하락하는 치킨게임에 들어갔다. 1995년부터 침체기에 들어섰으며 대기업 가구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안양가구단지는 1995년과 1996년 두 번에 걸쳐 동아일보에 크게 광고를 내고, 안양가구단지는 생산자 직거래 방식이므로 대형 브랜드 가구 할인보다 더 저렴하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가구산업은 어려움에 부딪쳤지만, 큰 틀에서의 산업 전반은 수출이 줄어든 만큼 내수시장이 활발하게 메꿔주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다면 치열한 가구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안양가구단지도 생산만 하는 가구 공장에서 소매로 전환한 것이었다.

1992년부터 수도권 1기 신도시 평촌·산본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다. 8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였는데, 당시만 해도 안양가구단지는 가구공장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일반 소비자는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찾아오는 정도였고, 고객은 주로 판매상이었다.

**이동용 :** 이 단지는 신도시들이 생길 때는 매장들이 별로 없었어요. 30년 전이잖아요. 신도시 생길 때는 가게가 별로 없었다고. 생산만 했지. 그러니까 신도시 생기니까, 안양에 가게들이 노난 거지. 안양 평촌이나 산본에 이사하려면 시내 가게 있잖아요. 공장이 아니고. 그런 데서 사지. 사람들이. 여긴 오긴 오는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줄 모르잖아요. 몰라서도 안 오고. 거기 가면은 물건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장롱만 한쪽에다가 꼬꼬맴게 엉성하게 진열만 해놓는 거예요. 가게는 아니고 우리 집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아는 사람이 이거 얼마에 사고 말면 말아라. 그건 가게가 아니지. 그리고 또 가게에서 공장을 거래를 할라고 물건을 보러 오잖아요. 그거를, 물건을 진열해 놔야 볼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가구공장 내에 나오는 중요한 물건을 진열을 해 놔었어요.

가구단지를 대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린 1995년, 민공기는 자개장을 찾는 수요가 떨어지면서 인천에서 했던 가구공장을 정리하고 안양가구단지에 가구 소매점을 새로 열었다. 처음 1~2년은 조그맣게 가게를 차리고 자개장을 팔았다.

**민공기 :** 여기는 나하고 같이 거래하는 친구들이 있었지. 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여기 동네에서 일하던 친구들 많이 있었어. 공장 생활 같이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편찮더라고. 길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도 가구점 많이 없었어. 요기도 별로 없었고. 라인으로만 있었는데 거의 다 공장이었어. 80년대 중반, 90년대까지도 공장이 많이 있었지. 파는 데는 몇 군데 없었어.

다양한 가구 브랜드가 입점한 안양가구단지 모습(이정범 제공)



1990년대에 닥친 고비용 고효율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서서히 시장이 변화하고 있었지만, 안양가구단지에 있었던 공장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이동율은 그때까지도 전성기라고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조그만 소매점을 겸비한 공장들은 바쁘게 돌아갔다.

IMF 외환위기로 가구공장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전까지, 안양가구단지는 유명세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대기업 소매점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180여 개 중소 가구공장이 푹푹 뭉쳐 자체 생산한 가구만 팔기로 한 것이다. 라자가구, 동서가구, 바로크가구 등 대기업 가구점이 들어온 것은 1990년대 말쯤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몰고 온 영향은 가계수표와 어음의 빈번한 사용으로 더 큰 화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안양가구공장들 또한 비껴갈 수 없었다. 서로 물리고 물린 돈의 흐름은 막히자마자 고사해 버린 것이다. 이동율은 1996년에 가구공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서 큰 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다.

민공기는 1997년에 라자가구 간판을 달고 매장을 크게 확장하였다. 이후에 바로크가구와 시몬스까지 차례대로 상표를 들여왔다. 안양가구단지가 공장에서 소매점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가구공장 운영자가 판매점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다른 상권에서 온 가구 판매점들도 많아졌다. 가구공장이 정리되거나 공장에서 소매점으로 바뀌거나 도산하는 뒤숭숭한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만이 안양가구단지의 위협은 아니었다. 그 안에서 살아남은 공장들은 1970년대 서울 외곽으로 이전할 때와 같은 이유로 공장 이전을 통보받았다. 수도권에 근접한 입지 조건이 도시화 진행 이후에는 공장 입지로서 불리한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도시의 공장부지는 오히려 최적의 아파트 건설지가 되었다.

성원아파트와 현대아파트 건설 발표는, 가구공장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가구업종 특성상 임대료가 계속 인상되자, 차라리 땅을 사서 내 땅에 공장을 짓자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다. 이때 50명의 사람이 500만 원씩 돈을 모아서 화성시 양감면에 3만 평의 땅을 매입하였다. 원래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까다로운 허가제도로 인해 10년이나 늦어져서 2010년도에 이전하였다. 이동율도 이 계획에 동참하였으나, 이전 시기가 늦어지면서 안양가구단지에 소매점으로 남게 되었다.

**민공기** : 한 번 위에 없어질 때 거기서 몇 명이서, 인자 구름쳐 지을 무렵에, 2002년 2003년도에 지었을 거야. 그때 간 사람덜이 만들던 사람들이니까, 장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30

명이 친목계 해서 수영가구단지 땅을 사가지고 지어서 갔지. 공장은 더 못허게 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판매 시설로 간 거지. 여기 있던 사람덜이 공장 하는 사람덜이 있고 판매하는 사람덜이 있는데 20~30명 모여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현대아파트, 성원아파트, 대명아파트가 차례차례 들어서면서 안양가구단지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이주를 계획하였다. 남은 사람들 가운데 30~40명이 모여 상가를 마련하기 위해 의왕시 부곡에 땅을 매입해 두었는데, 민공기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그런데 양감면 이주 팀이 사과밭을 사서 제조업 시설 마련에 고생했다면, 부곡 이주 팀은 그린벨트 땅을 사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한다. 민공기는 몇 년 전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근래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제조시설과 판매시설 모두를 충족하는 지식센터를 세웠다고 하는데, 현재 입점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분양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나니 상가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은 퇴색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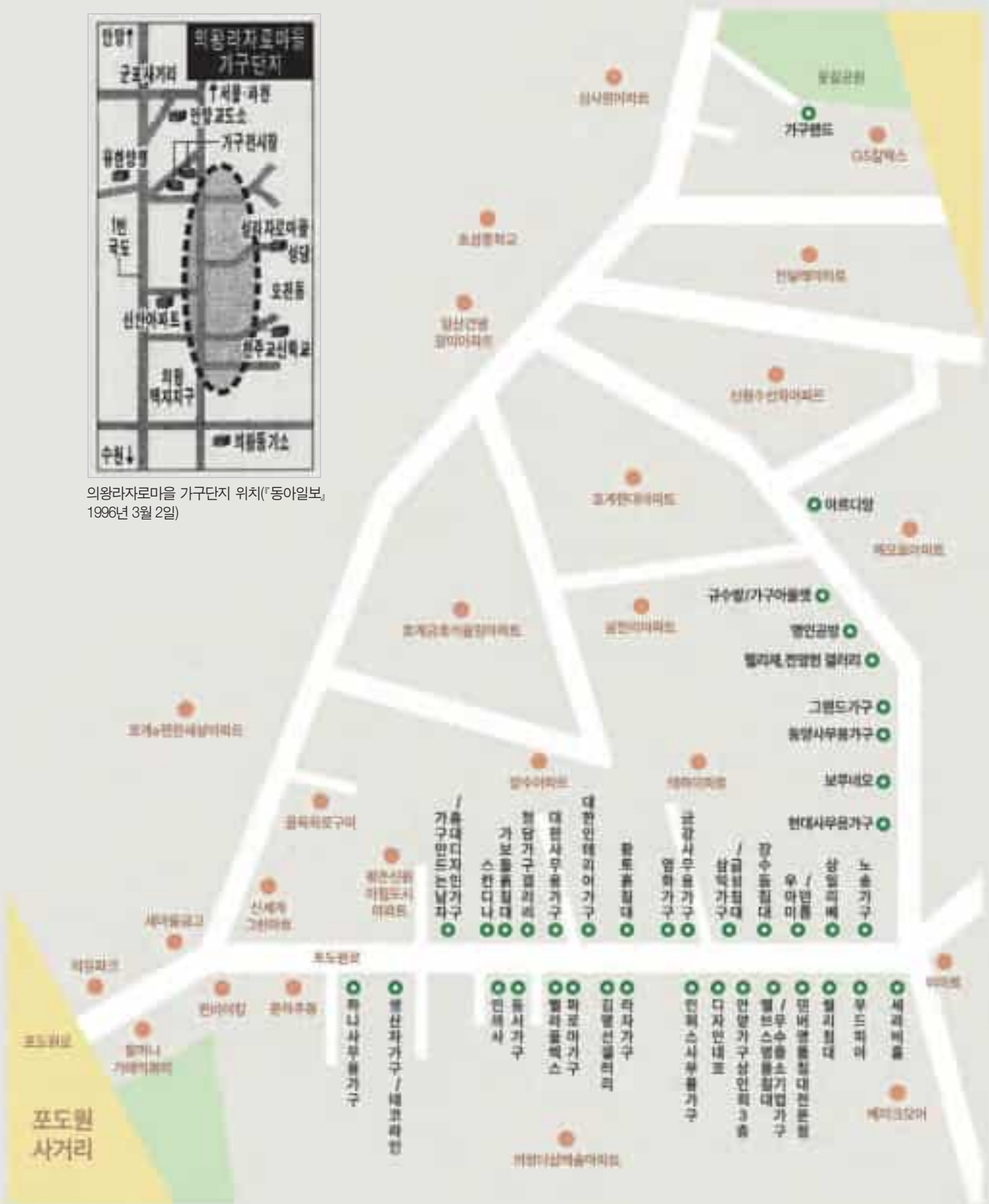
## 안양가구단지 매장

안양가구단지 매장(안양가구단지 제공)





의왕라자로미를 가구단지 위치(『동아일보』 1996년 3월 2일)



안양가구단지 배치도(안양가구단지 제공)



#### 4. 가구거리로 남은 안양가구단지

1996년 동아일보에 ‘의왕가구단지’가 가볼 만한 곳으로 게재되었다. 경기도에서 경수 산업도로 유한양행에서 성라자로마을까지 500m 구간을 가구거리로 지정하면서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는 내용이었다. 120여 개의 공장과 소매점이 밀집해 있다는 기사에는 안양시와 의왕시에 걸친 가구거리 약도 하나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1998년 3월 경향신문에 ‘녹색 전원의 꿈, 제2의 평촌 손짓’이라는 제목으로 모락산자락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을 알렸다. 무려 4,000여 가구가 입주한다는 소식이었다. 아파트 분양을 촉구하는 대단지 건설 기사와 같은 시기에 한겨레신문에서는 의왕가구단지 안의 30개 제조업체와 70개 가구판매업체의 ‘98 의왕가구대축제’를 홍보하였다. 관광 명소로 떠올랐던 가구단지는 2년 만에 다수의 가구공장에서 가구 판매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1996년 약도에 나왔던 가구거리에는 안양에 있는 전시장을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대명아파트, 한진아파트, 현대아파트, 성원아파트가 속속 지어졌다. 1998년 의왕가구대축제는 가구단지가 온전했던 무렵의 축제였다. 그 후 2000년대 초반 아파트들이 준공되면서 의왕 및 안양 쪽에 있던 많은 가구 판매점은 사라졌다.

가구단지는 현재 안양시 호계동과 의왕시 오전동에 걸쳐져 있다. 의왕시 오전동에 있던 가게들은 얼마 남지 않았을뿐더러 대기업 브랜드 가구점들은 경수대로 변에 따로 떨어져 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 가구단지는 의왕시에서도 중요한 산업단지였다고 이동율은 말한다.

**이동율** : 의왕가구단지가 잘될 때는 시청에 의왕가구협회 회장 자리가 있었어요. 시에서 큰 행사 회의를 할 거 같으면 의왕가구회장을 부른 거예요. 자리가 있었다니까. 그만큼 컸던 거지. 그때는 의왕가구단지가 의왕시에서 최고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시에서 3천만 원 지원받고 자비로 6천만 원 들여서 텔레비전 광고까지 냈잖아요. 광고사진을 제주도 가서 찍었어. 중앙교회 앞에 행사도 있었고. 그때는 축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 거지.

의왕시에서 그 존재감은 여전히 경수대로를 나타내는 지도에 ‘의왕가구단지’라는 이름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현재는 가구단지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속하는 구역이 많아 ‘안양가구단지’와 ‘의왕가구단지’ 모두 통용된다. 이곳에는 50여 개의 가구 판매점

이 남아서 의왕가구단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의왕가구단지’ 상표권을 보유한 상인회는 ‘안양가구상인회’라는 이름으로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상인회 회장인 장선규는 10년 전 안양가구단지에서 가구 소매점을 열었다. 당시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정도였다. 그는 주택 경기와 가구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주택담보대출이 풀리면 그만큼 이사를 많이 하고, 가구시장도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주택 보급량의 증가와 전입가구 수와의 상관관계는 많이 떨어진다. 오히려 장선규가 안양가구단지로 이전한 후 급격히 올라간 매출은 2014년 이케아 효과로 인한 반사 현상으로 여겨진다.

민공기는 시몬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안양가구단지에 본점과 창고를 두고 있다. 그는 아울렛에도 판매점을 여는 등 꾸준히 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달라지는 생활 방식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침대 매출과 그 궤를 같이하며 변창하고 있다.

2012년에는 가구단지에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협동조합의 지원을 잘 활용하여, 정부 지원 홈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도 개설하였다. 또한 침대 매트리스의 방수 덮개, 베개, 화장대 의자, 옷걸이 등 가구 소매점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자체적으로 주문해서 가게마다 재량껏 서비스로 주거나 싼 가격에 팔 수 있게 하였다. 협동조합에서 얻은 소득은 가구가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안양가구단지는 2019년 코로나 시국에 다시 한번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가구단지에도 소비자들이 찾아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구 판매점에는 영업 전무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상인회 회장인 장선규는 영업 전무들의 월급이 400~500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계속해서 매출이 곤두박질치면서 더 이상 영업 인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졌고, 가구 판매점의 영업 전무는 사라졌다.



2024년 안양가구단지 협동조합에서 진행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안양가구단지 제공)

**장선규** : 반에, 반의반. 10분의 1정도 떨어졌어. 옛날에는 하루에 주말에 1,000만 원씩도 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최하 1,000만 원씩은 찍었었어. 지금은 한 달 매출이 하루 매출일 때도 있어. 그 정도로 확 줄었어. 그러니까 문 닫는 데도 많아.

상인회 회장 장선규는 급격히 나빠진 시장 상황을 다들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민공기는 2019년 시몬스에서 대리점을 모두 거둬들이면서 가게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말한다. 그는 가장 나빠진 이유가 현재 섬처럼 가두어진 가구단지의 위치 때문이라고 하였다. 도로에서 보이지 않으니 유명 가구 브랜드에서 영업점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는 시몬스 상표를 떼고 우아미가구로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 브랜드만으로는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광고를 많이 하는 유명 브랜드가 골목에 있어야 높은 가격을 보고 중소 브랜드로 유입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가구단지는 2021년 가구 골목 앞으로 의왕더샵캐슬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완벽하게 섬처럼 가두어졌다. 내비게이션에 정확히 찍어야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이다. 안양가구단지 상인회는 점점 밀려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하였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의왕시 구역 가구점 두 곳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두 곳을 제외한 35개 가구점은 골목형 상점가 등록이 돼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추석에는 온누리상품권이 10~15% 할인이 되고, 자체적으로 가구단지 15% 할인 행사를 하면서 가문의 단비처럼 많은 손님이 매장을 찾았다. 상인회장 장선규는 그동안 아무리 광고해도 반응이 없다가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됐다며 뿌듯해하였다. 상점가 등록이 되기까지 10년을 도전해서 얻어낸 것이었다.

안양가구단지 홍보물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안양기구단지의 현재 모습

안양가구단지 사람들은 1970년대에는 저렴한 땅을 찾아서 공장을 세웠고, 1980년대에는 가구단지를 이루며 가구산업의 호황기를 경험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제시장에 편입됨과 동시에 산업구조 재편과 IMF로 가구산업의 붕괴가 공존했던 힘든 시기를 거쳐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그 모습을 바꿨으나, 아파트 건설로 인해 터전을 내놓게 되었다. 그래도 2000년대와 2010년대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며 변화한 시대에 맞추어 가구단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구시장을 헤쳐나가고 있다.

현재 가구시장은 대기업까지도 OEM과 ODM의 비율이 높다. 특히 이름만 알려진 중소기업은 제조공장에 설계와 디자인까지 맡기는 ODM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홍보와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는 유통업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민공기의 “대기업은 홍보비용만큼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채널 역할을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어쩌면 물류비용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긴 하지만, 알려진 상표 가치를 활용한 채널은 버리고 새롭게 떠오른 온라인 채널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방법 또한 있지 않을까.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가 빨라지는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음을 골똘히 생각한다. “가구단지가 아파트로 모두 덮이고 나면, 한때 있었던 역사가 사라진다고 하니 눈물이 난다.”는 상인회장 장선규의 말처럼, 가구공장이 밀집했었던 그 장소성을 잃는다는 건 마음 한구석을 허전하게 만든다. 한때 많은 사람이 한 시대를 이끌며 가구를 만들었고 지금까지의 궤적을 만들어왔다. 열심히 살았던 그 흔적을 안고 있는 가구단지 사람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가치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 참고자료

- 경기연구원, 「경기도 가구산업 구조변화와 정책 방안」, 2015.
- 김아람, 「1960~70년대 한센인 정착마을의 형성과 ‘자활’의 한계」, 『동방학지』, 2021.
- 박철수, 『한국 주택 유전자』, 마티, 2021.
- 이상록, 「1970년대 소비 억제정책과 소비문화의 일상 정치학」, 『역사문제 연구』, 2021.
- 인미애, 「한국 가정용 가구디자인의 시대적 경향 분석에 관한 연구(80년대 이후 중심으로)」, 『한국가구 학회지』, 2005.
- 조숙경, 『한국 현대 가구사』, 기문당, 2015.
- 홍제한, 『경제관료의 시대』, 너머북스, 2023.
- 정무용, 『박정희 정권기 저축 동원의 전개 과정과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 「100여 개 공장에서 장인의 혼을 담은 가구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1995년 6월 17일.
- 「대한민국의 가구 그때를 아십니까」, 『행복이 가득한 집』, 2009년 9월호.
- 「의왕가구단지 후수 세트 150만 원~300만 원 다양」, 『동아일보』, 1996년 3월 2일.
- 「의왕가구대축제 14~17일 40% 할인」, 『한겨레』, 1998년 3월 7일.
- 「종이로 만든 가구와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조선일보』, 1980년 4월 20일.

## 註

- 1 남, 안양가구단지 내 가구점 운영.
- 2 안양가구단지는 '의왕가구단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가구단지의 위치가 안양시와 의왕시의 경계 지역인 데다가, 가구공장들이 들어선 한센인 정착마을이 의왕시 오전동 성라자로마을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단지 일대가 아파트로 개발되면서 구역이 계속 축소되어 현재 가구단지의 매장은 대부분 안양시 구역에 속한다.
- 3 조숙경, 『한국 현대 가구사』, 기문당, 2015, 98쪽.
- 4 위의 책, 101쪽.
- 5 남, 안양가구단지 내 가구점 운영.

## 04

# 변화하는 호계동 주거환경

제1장 군포장의 역사를 이어받은 구군포 이야기

제2장 호랭이가 맞이하는 안양호계종합시장

제3장 외곽의 교도소에서 도심의 쟁점으로 : 안양교도소의 변화와 이전 운동



## 제1장

# 군포장의 역사를 이어받은 구군포 이야기

전은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원



## 1. ‘군포’라는 지명의 유래

구군포 지역은 안양시의 최남단으로, 의왕시 오전동과 군포시 당정동 및 금정동에 접하고 있다. 조선 말기 이 지역에 군포장이 개시하면서 민가가 들어서 자연부락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군포(軍浦)’라는 지명이 생겨났다는 설이 전해진다. ‘군포’라는 지명의 유래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설이 존재할 뿐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관군이 왜군에 패하여 후퇴하던 중, 지금의 군포 지역에 이르러 승려와 의병이 함께 전열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배불리 먹고 사기가 오른 관군과 의병이 합세하여 왜군을 무찔렀는데, 이 일을 기려 이 지역을 ‘군포(軍飽)’로 하였다는 설이 있다. 이후에 한자가 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 군대가 한강을 건너 이 지역에 머물렀기에 ‘군포(軍浦)’로 불렸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이 지역 하천에는 큰 배가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을 가진 곳이 없어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sup>1</sup> 토박이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우기에 물이 불어나면 군포천(안양천 군포 구간)에 배가 다닐 수 있었다고 하는데, 군인들을 태울 수 있는 규모의 배는 아니었을 것으로 유추한다. 다만, 안양천이 한강으로 합류하여 서해에 연결되기 때문에 고대에는 군포 지역에 포구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군포(軍布)’가 변하여 군포(軍浦)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정조 재위기에 수원 원행(園幸)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원행정례(園幸定例)』 「도로교량조(道路橋梁條)」에 ‘군포(軍布)’라고 기재되어 있다. 군포(軍布)는 조선시대 군역을 지는 대신 내던 삼베나 무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군포(軍布)가 오늘날의 군포(軍浦)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군포천’이 표기된 『과천군읍지』(1899) 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공)

호계3동에 있던 군웅산(軍雄山)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도 있다. 군웅산은 구군포 주민들이 매년 음력 10월 2일에 군웅제를 지내던 당집이 있던 곳인데, 군웅산 아래의 하천변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군웅산의 ‘군’과 물가를 뜻하는 ‘포’가 합쳐져 군포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명유래가 어떻든 간에, 구군포 지역은 군포장이 설치된 후로 마을이 커졌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5일과 10일에 열리는 군포장에서는 담배·소금·농산물이 거래되었는데, 안양과 인근의 군포·의왕·과천은 물론이고 용인·화성·남양·판교의 상인들도 드나드는 큰 장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성행하던 군포장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큰 수해가 나서 폐쇄되었다. 군포장은 1926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안양1동)에 개설된 안양시장과, 남면 당리에 개설된 군포시장으로 그 기능이 이전되었다. 이로써 ‘군포’라는 지명 역시 현재 군포시 지역이 승계하면서 본래 군포장이 서던 곳은 ‘구장터’나 ‘구군포’로 불리게 되었다. 시장이 없어진 구군포 지역은 광복 직전에 이르러서는 10여 호의 가구만이 농사를 지으며 사는 한촌으로 남게 되었다.



1:25,000 「군포」 지형도에 보이는 안양천 주변 농경지(1969년)  
 '구장터' 위치 표기가 잘못되었다. '별금정'으로 표기된 곳이 구장터(구군포)이다.

## 2. 농사짓기 좋았던 천변의 장터 마을

큰 시장이 있어 상업의 중심지였던 구군포는 1930년대 이후 기능이 축소되었지만, 오래된 자연마을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었다. 상업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지만, 농촌으로도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군포 일대는 흥안농지개발조합의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안양천의 물을 끌어서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안양천이 논보다 낮아서 양수 시설을 이용해야만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었다.

**노춘삼<sup>2</sup>** : 안양천 거기 물 대다 보면 물이 좋았어요. 거기 물이 좋아가지고 물을 푸는 물막이 있었어요. 그 러니까 모다(모려)로 해가지고 빨아 올려서 수로로 해가지고 농사 물을 공급을 했어요. 그냥 개천에서 흐르는 물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빨아내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물을 공급하는 거지.



1969년 구군포 일대(경기도청 제공)  
구군포 마을과 아래의 군포천(현재 안양천) 사이에서 군포장이 열렸다고 한다. 사진 왼쪽 위의 건물은 금성통신 안양공장이다.

모터를 이용한 양수 시설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안양천에 보를 만들어서 농사에 이용했다고 한다.

**노춘삼** : 뚝을 쌓았죠. 뚝을 쌓아야 물이 고이니까. 그래가지고 물이 많으면 뚝 너머로 흘러내리고 그럴 게끔 해가지고 물을 쓴 거예요. (군포 가는) 다리 옆으로 뚝을 쌓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물 양수기 장치에서 물을 퍼 올리는 물막이 있었어요.

현재 구군포 지역을 흐르는 안양천은 수량이 많지 않아서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과거에는 수량이 풍부하고 오염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춘삼** : 이 안양천이 엄청 컸어요. 현재 그 넓이가, 복개해서 자전거도로 나서 그렇지만, 그 폭이 다 물이었어요. (중략) 그렇게 좁아진 거지. 옛날에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하천에 피라미, 불거지, 모래무지, 가재, 새우 이런 게 많이 낚던 자리에 모래가 반짝반짝해. 오염 하나 안 되고 아주



안양천 변 중앙제지 옆의 신탁영농단지 밭갈이 모습(1975년, 경기도청 제공)

깨끗하고 그래서 모래에 종달새들이 다 알을 낳어요.

한편 자진골(자진구리)이라고 불리는 현 안양교도소 인근에도 모락산에서 흘러 내려 오는 호계천이 있었다. 하지만 호계천은 농사를 짓는 데 끌어다 쓸 정도로 물이 많지 않았다. 이 지역에는 양계장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1963년에 서울에서 교도소가 이전해 왔다. 안양교도소의 시작이다. 교도소가 들어선 후 구군포 지역에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교도소 배후지로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군포는 농촌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원래 교도소부지에도 논밭이 있어서, 재소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농번기에는 주변 마을로 파견을 나가 농사를 돕기도 하였다.

**노춘삼** : 교도소에서, 여기 농촌이잖아요. 농촌이니까 파견 나왔어요. 파견 나와서 농사도 지어주고.

안양교도소가 건립되면서 교도관들이 근처에 거주하게 되었다. 덕고개 쪽에 교도소



군포시와 경계가 되는 안양천 변의 호계동 구군포 지역(1970년대, 이정범 제공)  
엘에스로45번길로 추정된다.

관사가 설치되었지만, 모든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교도소 직원들은 대부분 교도소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였다. 안양 외곽의 농촌 지역이었던 구군포는 그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새롭게 거주하게 된 교도관들을 위한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노춘삼** : 교도관들이 여기에 많이 살았었어요. 개인 방을 얻어가지고, 관사 외에 교도관들이 여기 많이 살았어. 그러니까 방을 계속 지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방 만들고 그랬더니까.

교도관들만의 상업시설은 아니었다. 재소자들 역시 구군포 지역의 상업시설을 이용하였다. 경수대호가 개통되고 버스 노선이 생기기 전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사람들은 구군포 쪽 1번 국도까지 내려와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다. 구군포에는 이들을 상대로 하는 상업시설 역시 하나둘 생겨났다.

**노춘삼** : 여기 출소하고 나오면 이 사람들 밥 먹으러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호계 구사거리에 있는 데가 술집이 있고 그러니까 출소하면 여기로 들어왔어요. (중략) 교도소 나오면, 가석방이고 다들 나오잖아요.

옷가지 싸가지고 나오고 했을 때 여기 와서 식사도 하고 술 먹고. 그런 사람이 나오면 재범할까 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고.

이 시기부터 구군포 지역은 농촌으로서 정체성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도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폐수로부터 기인한 문제였다.

**노춘삼** : 여기 교도소 들어오면서 교도소 폐수 어디다 버리겠어요? 호계천에 여기 뚝이 있었어. 호계천에 연결해서 논두렁 뚝 있죠? 그 수로 거기다 다 버렸다고 폐수들. 그게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거지. (중략) 냄새도 엄청 나. 그래가지고 일단 항의해도 들어요? 안 듣지.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구군포 지역에서 농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기에, 점차 상업지역으로 변모해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안양교도소 때문만은 아니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안양천 주변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한 공장이 1970년대 들어서는 하천 변을 따라 크고 작은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섰기 때문이다. 논밭으로 경작되던 땅은 공장부지로 바뀌었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안양천은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농업지역으로서 최적지였던 구군



구군포를 지나는 1번 국도(1970년대, 이정범 제공)  
현재는 기업체 이름을 따서 '엘에스'가 되었다.

포 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 최적지로 변하였다. 물론 이런 변화는 구장터라는 상업적인 공간으로서 성격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는 점과 인근 지역을 연결해 주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 3. 농경지에 공장이, 농업용수가 공업용수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안양 지역의 기업체는 거의 모두 안양읍 안양리에 소재해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자리하고 있던 기업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공업도시’라고 불리기는 했으나 안양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여전히 농업을 주로 하는 농촌이었다.

이러한 안양이 본격적인 공업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당시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은 바이기도 했지만, 서울에 공장 입지 억제 정책을 펼쳤던 정부 정책 때문이었다. 안양은 교통이나 공업용수 등 공장 입지로 좋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었기에 많은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고 구군포 인근에도 1962년 이후 한국케이블공업(현 LG전자)을 비롯해 다수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었던 조건 중의 하나인 물은 공장들이 이용함에 따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점차 힘들어졌다.

**노춘삼** :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안양천) 물을 올리고 해서 물이 내려오지 않고 메말랐던 거예요. 거기다 공장 들어오면서 폐수를 여기로 버렸어요. 폐수 여기로 버렸잖아요. 그래 폐수 버려가지고 고기도 폐죽음 당해가지고, 그렇게 죽어간 거지. 옛날에 굉장히 넓은 거예요.

안양천은 탄천, 중랑천과 함께 한강 지류 가운데 3대 오염 하천으로 불렸다. 그중에서도 안양천이 주변에 공장이 많고, 폐수 배출량이 많아 오염도가 가장 높은 하천이었다. 안양천 물이 공업용수로 사용되면서 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동시에 폐수가 그대로 하천에 흘러들어와 오염이 되면서 농업을 이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농업이 어려워지면서, 마을을 떠나거나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동시에 그 공장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그뿐만 아니라 구군포 인근의 대형 공장 근로자들은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구군포 근처 안양천과 당정천의 합류 지점에 자리 잡은 제지공장(1969년, 경기도청 제공)

**천막 사장<sup>3</sup>** : 옛날에는 5번 버스가, 영등포에서 오산 다니는 거 이거 하나니까. 아무래도 버스 오고 많이 다니면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깐 좀 낫겠지. 옛날이야 시골인데 뭐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생긴 거지. 그때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하나씩 하나씩 생겼으니까.

구군포 일대에는 1,000명 단위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대기업 공장이 여러 곳 있어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이들을 위한 상권이 형성되었고, 이와 함께 구군포 인근 거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구군포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상권으로 변화하였다.

**노춘삼** : 그게 많았어. 왜냐하면 방이 모자랐어요.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농촌에 농사짓던 집들이, 초가집들이 그 방 하나, 둘, 세 개요. 많아야 세 개야. 세 개인데 그런 애들이 막 공장 들어오니깐, 방이 수요가 모자라니까, 외양간도 뜯어고쳐서 방을 만들고, 또 브로크로 공사하다가 방을 만들고, 옛날에는 이 집을, 방을 꾸미는 거는 허가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물 다 짓고 그냥 신고만 하면 돼. 그런 식의

로 해서 외양간도 다시 고쳐서 방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방을 만들어도 계속해서 유입되는 노동자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성통신은 부산에서 올라온 직원들을 위해 공장 근처에 택지를 조성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것이 ‘금성마을’이다. 1973년부터 시작된 제6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호계동 일원에 택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외부인의 유입이 생겨났다.

**노춘삼** : 예를 들면 동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동네가 막 있었으면 모를까. 동네가 별로 없어서 여기 구역이 사업을 하니까 도시계획 준비가 됐잖아요. 그 후로 자꾸만 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따라서 구군포는 새로운 거주민들의 공간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전파사와 같은 새로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다. 1961년 12월 31일 국영방송인 KBS가 탄생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텔레비전 방송 시대가 열렸고, 이에 맞춰 텔레비전을 사거나, 수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원활한 수신을 위해 안테나를 설치하고 조정해 주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구군포에도 전파사가 생겼는데, 이곳은 신사업의 입지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다.

과거 구군포에서 전파사를 했었다는 주민의 말에 따르면, 구군포에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종로 YMCA 옆에 있었던 한국 TV 학원에 다니며, 전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였고, 텔레비전이나 안테나 부품 등을 구하기 위해 구군포에서 버스를 이용해 청계천의 전자상가에 들러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구군포는 농촌마을에서 공장 근로자들의 베드타운으로 변모해 나갔다.

#### 4. 공업단지와 교통망을 발판으로 성장한 구군포 상권

1960년대 이후로 안양시 상권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각종 소매상점이 대폭 늘어난 곳은 도심인 안양역 주변이 아니었다. 오히려 외곽 지역인, 인덕원이 포함된 관양동과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호계동 일대였다. 구군포 지역은 공장단지와 그 배후지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역적 특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정조의 능행로인 서울-과



사통팔달이었던 1번 국도 군포사거리(1970년대, 이정범 제공)

천-인덕원-수원을 잇는 과천행로와 서울-시흥-안양-수원을 잇는 시흥행로가 교차하는 지역이 바로 구군포 지역이다. 특히 안양교도소와 호성초등학교 부근의 자진골은 고전 소설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던 길로도 전해질만큼 과거부터 인근의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로 기능했던 곳이다.

**노춘삼** : 옛날에는 여기 도로가 별로 없었어요. 이 도로(구 1번 국도) 하나인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외도로예요. 여기는 수원서 오고, 안양에서 오는 사거리 길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거칠 데가 없어요. 여기도 거쳐서 밀로 가야 되고, 갈미도 가야 되고, 저기 인덕원도 가야 되고, 그런 형편이 있었고, 과천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를 또 거쳐서 군포역 가고. 그렇게 가서 비봉, 안산, 남양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요충지였어요.

**정사강** : 길이 저쪽에 없어서. 평촌 그 먹자골목 있는 데로 해서 인덕원 쪽으로 시내버스 다니는 길, 옛날에 포장 안 된 그 도로가 하나 있었고. 인덕원에서 안양 가려면 여기 찍고 갔다고. 근데 이제 이 도로(관악대로)가 나는 바람에.



1960년대까지 안양 지역을 관통하는 교통으로는 경부선 철도와 1번 국도(현재의 엘에스로), 그리고 흥안로가 유일하였다. 대중교통으로는 1번 국도를 지나는 시외버스 몇 대와 흥안로를 통해 과천과 안양을 왕복하는 버스 정도만 존재하였다. 인덕원, 관양동, 평촌, 청계, 군포, 안산 등의 지역에서 안양 중앙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구군포를 지나야만 했고, 군포·의왕·과천·안산 상인들은 구군포에 모여 작게나마 시장을 형성하기도 했다고 한다.

1960년대 이후, 대기업 공장들이 안양에 들어서면서 대기업 하청업체가 구군포 일대에 몰려들었다. 많은 기업과 공장이 구군포 일대에 자리잡은 이유는 구군포의 교통 때문이었다.

**정사장** : 난 서울 신촌에 있다가 여기로 내려왔지. 안양 냉천마을에 왔다가 70년도에 여기로 왔지. 냉천동. 거기 찬물이 나서 냉천동이라. 거기서 한 1년 살다가. 공장 같은 게 많으니깐. 옛날에는 여기가 작은 공장이 굉장히 많았어. 여기 다리 건너(현 군포시) 이런 공장들이 많고. 여기서 하면서 가까운 거리는 오산, 안산, 저기 그 옛날에 청계 쪽에도 국가에서 하는 거 몇 개 있어가지고. 나는 저기 공조 계통 일을 했지. 공조, 닥트 이런 거. 여기 청주로 내려간 LG 거 내가 공사를 많이 했지. 금성 거 일을 많이 하고 한 50년 하고 작년에 퇴역했어.

큰 공장들이 있어 하청 일을 따기 위해 구군포에 들어서는 작은 회사들도 많았지만, 그와 별개로 구군포 일대의 교통 환경이 작은 사업체들에게는 좋은 입지 조건이 되었다. 빠르게 공업화와 산업화를 하는 시점에 서울과 영남 지역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부선 철도, 서울 서남권의 영등포 일대는 물론이고 안산·수원·인천 등으로의 접근성은 수많은 사업체에 큰 장점이었다.

구군포의 특징은 공장단지의 배후지로 기능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구군포의 상권이 커지면서 구군포는 거주지역이라기보다는 상업지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상권이 커지면서 구군포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도 사업체는 구군포에서 경영하지만, 인근 포도원이나 군포시 당정동과 산본동 쪽으로 많이 이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조성된 구군포 상권에는, 금성통신과 같은 큰 공장뿐만 아니라 안양천 주변에 분포한 공장의 구성원들이 식사와 접대 등을 위해 찾아왔다.



구군포 생활권이었던 군포 지역 공업단지(1988년, 이정범 제공)

유흥상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구군포 상업지역(이정범 제공)  
편의점과 약국 사이 도로는 성매매업소가 모여 있던 일명 '동집골목'이었다.



**천막사장** : 주마등 아줌마, 옛날에 주마등 한 건 아주 알아줬죠. 그게 다방이지. 차 파는 다방인데, 여기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대화하고.

구군포의 상권은 단순히 식사나 미팅만을 위한 상권은 아니었다. 1970년대부터 유흥 관련 업종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금성통신·금성전선·국제전선·대림산업 등 구군포 일대에 있던 공장에는 수많은 노동자가 존재했고, 그들을 위한 놀거리가 들어선 것이다. 상권이 커지면서 외부인들이 하나둘 들어와 유흥업소를 차리기 시작했고,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술집을 개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군포 원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1970년 전후로 외지인이 들어와서 군포사거리에서 '홍성옥'이라는 술집을 열었는데 이후에 홍성옥 주변으로 술집들이 들어섰다고 한다. 술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도 문을 열었고, 성매매업소도 생겼다. 군포사거리에서 경수대로로 올라가는 구도로(현 경수대로519번길)는 유흥업소 밀집 골목이 되었다. 이 골목은 원래 과천에서 군포를 거쳐 반월로 가는 도로였으나, 1970년대 초 경수대로 개통 이후 반월로 가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구도로가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두 곳의 사거리를 구분하기 위해 '구군포사거리'와 '신군포사거리'로 불렀다. 구군포사거리는 1980년대까지 유흥업소가 성업하던 곳이었다.

**정사장** : 여기가 흥 뭐 하지 않다가, 요새 아파트 짓고 한 거지. 여기 옛날에는 술집도 많고 뭐 아가 씨집도 많고 그랬어. 장사도 여기가 최고 잘 됐었어. 인덕원이나 고천도 여기 와서 술 먹었는데 뭐. (중략) 다리 건너 그 사람들 다 여기 와서 술 먹었어. 옛날 현대양행 있을 때는 여기 길에 사람이, 퇴근 시간에 걸려가지고 걸지를 못했어. 거기 몇천 명 됐는데.

1970~1980년대 안양 지역에서 안양일번가 못지않게 유흥가로 번성했던 곳이 바로 구군포 지역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유흥가를 넘어, 다수의 사업체가 입주한 산업 공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유통되었다. 공장과 주거지에 인접한 구군포 상권은 공장들의 월급날이면 특히 활기를 띠었고, 시중에 현금이 대거 풀려나왔다. 장부 외상이나 후불 결제가 흔했던 시절이라, 술값을 받아야 하는 업주들이 월급날이면 공장 입구에서 외상 손님을 기다려서 결제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안양 지역에서 5층 건물은 드물었는데, 군포사거리에는 7층 건물이 들어섰고, 그 건물에는 당시로서는 신문물이던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었다.

**정사장** : 주마등 아줌마, 그 주인이 일수들이하고 그랬지?

**천막사장** : 그전에 돈들이하고 그랬지.

**정사장** : 그래서 이 건물 지었는데 옛날에는 이 동네에서 엘리베이터를 그 집이 제일 먼저 했을걸? 여기 건물 옆에 건물. 그 건물이 옛날에는 이 동네에서 제일 높았어. 안양에서도 엘리베이터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군부대에서도 많이 왔어. 중령 소령이라는 애들 저 7층 스카이라운지 거기서 술 팔고 그래서.

**천막사장** : 안양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정사장** : 어. 그 전에 그랬다는 것 같아. 그래서 그전에 인덕원 그 뭐야 군부대에서도 많이 왔어. 중령, 소령이라는 애들 저 7층에 스카이라운지 거기서 술 팔고 그랬어.

**천막사장** : 전두환이도 여기서 밥(술) 먹고 갔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기는 내 못 봤으니까 모르지.

많은 소기업과 구군포 지역에서 유흥업을 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부업이 성행했으며, 소위 돈이 도는 지역이기에 조직폭력집단이 결성되어 구군포 지역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sup>5</sup>

## 5. 다시 변화하는 구군포

잘 나가던 구군포 상권이 쇠락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지금의 엘에스로 주변에 있던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공업지역으로서 성격이 점차 퇴색되기 시작했다. 안양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성격도 퇴색되었다. 특히, 지하철 안산선이 개통되면서 도로 교통의 중심지였던 구군포의 입지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구군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꼽는 구군포 상권 쇠락의 가장 큰 이유는 경수대로의 개통이다.

**천막사장** : 옛날에는 많았지. 이제 다 번두리로 이사 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것도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안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1960년대 안양역 인근에 차고지가 있던 서울행 버스는, 당시 1번 국도였던 엘에스로가 포장되고 정비됨에 따라 구군포 인근 지역으로 차고지를 옮겨왔다. 이후 1번 국도와

홍안대로가 확대 정비됨에 따라 호계사거리·고천·군포 등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 버스 노선들의 상당수가 구 1번 국도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경수대로와 연결되는 신설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신군포사거리(현 호계사거리)로 이전되었다. 서울을 오가며 구군포 인근 노동자들의 통근을 책임지던 버스 노선이 구도로가 아닌 신작로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오가는 강남 방면 버스 회사(구 삼원여객, 현 우신버스)의 차고지도 신군포사거리로 옮겨오면서 교통의 중심지는 구군포사거리에서 신군포사거리로 변경되었다.

게다가 1990년대 초반 평촌신도시가 건설되고, 1996년에는 안양시청마저 이전하며 안양의 주요 유흥 상권이 평촌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었던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소위 ‘똥집골목’이라고 불리던 구군포의 성매매업소들도 2010년대 들어서는 모두 사라졌다.



구군포 지역은 한촌으로, 원주민의 수가 원래부터 적었다. 본디 농촌이었던 지역이 공단의 배후지이자 유흥지역으로 변모하면서 많은 원주민이 고향인 구군포를 떠났다. 그러나 구군포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필지 규모가 작아졌고, 이로 인해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다. 이러한 여건 덕분에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구군포에서 삶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사장** : 이 건물(신원당약국 위치한 건물) 지은 사람도 망했고, 이 건물(신원당 건물 바로 옆 건물) 지은 사람도 망했고, 요 옆에 건물 지은 사람도 짓다가 망했고, 그러니까 땅만 가지고 있으면 땅은 남는데 집(건물) 지어서 뭐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다 안 되니까, 없는 돈 가지고 이제 짓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안양 다른 데에 비해서 옛날 구장려라고 그래서 동네가 주거지역이라 땅이 이렇게 조그막 조그막해. 단독 집들 있던 데라 개발하기가 조금 힘들지.



경수대교가 지나는 신군포사거리(2008년, 안양시청 제공)



2024년 구군포 지역

하지만 실제로 대를 이어 계속해서 구군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원주민의 자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나갔고, 외부인들만 계속해서 유입되었다. 오늘날에는 대규모 재개발이 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구군포 지역에도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다. 상업지역으로서 구군포 상권도 점차 아파트 거주민들의 상권으로 변하고 있다.

**천막사장** 여기 본토배기들은 다 돌아가시고, 여기 본토배기는 없어요. 이사 가고. 장사 안되니까 그냥 가는 거지. (중략) 여기 사람 나이 든 양반은 거의 다 죽었지. 이 동네엔 또 뜨내기들이 많아. 외부에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개발하느라고 다 나갔어. 여기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 지은 뒤로 토종 사람들이 나간 뒤로는 이 동네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대. 사람은 많이 늘어도 다 요새 시켜 먹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 된대.

구군포 지역은 아직까지는 인근 공장단지의 배후지로 기능하고 있지만, 공장들이 하나둘씩 이전해 가면서 공장단지로서 기능이 많이 약화하고 있으며, 구군포뿐만 아니라 온천지구와 용창지구 등 인근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거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상권의 성격 변화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註

---

- 1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51쪽.
- 2 남, 1950년생, 구군포 원주민, 2023년 3월 2일 인터뷰.
- 3 남, 군포사거리에서 대흥천막 운영, 인터뷰는 허락했으나 이름 밝히기를 거절하여 가명 사용. 2024년 12월 24일 인터뷰.
- 4 남, 1947년생, 1970년대부터 50년간 구군포에서 닥트업체를 운영하고 은퇴한 후 타지역에 거주하며 가끔 구군포에 놀러옴. 2024년 12월 24일 인터뷰.
- 5 「유홍가 暴力 22명 兇狀」, 『경인일보』, 1990년 5월 4일.

## 제2장

# 호랭이가 맞이하는 안양호계종합시장

---

백민정 전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1. 호계 생활권 상거래 중심으로 개설한 시장

안양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계획적인 도시구조를 조성하였으며, 토지 소유 형태를 재정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양호계종합시장(이하 호계종합시장)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된 제6차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시장용지에 개설한 시장이다. 시장이 자리한 호계동 997번지 일대는 1970년대부터 공장이 급격히 증가하던 호계동 공업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서울행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었다. 호계동은 과천, 군포, 의왕 등 주변 읍면 지역을 흡수하여 호계동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sup>1</sup>

호계종합시장 개설 허가 신청서류를 보면, 이 지역을 ‘전철역 중심에 위치하여 서울특별시의 인구 팽창에 따른 정부 인구 분산책의 획기적인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호계동 주민들은 약 6km나 떨어져 있는 중앙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 호계동과 주변 지역이 급속히 도시화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가까운 시장의 개설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sup>2</sup>

이러한 시장 개설의 필요성에 따라 호계동에 시장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시장 설립 주체였던 호계종합시장(주)의 사업계획서는 시장 설립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타 시장의 재래식 상거래 방식을 지양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균등한 상품을 마련하며, 소비자의 유통 질서에 호응할 수 있는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여 현대적



1980년 호계종합시장 건물 입면도(안양시청 제공)

시장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sup>3</sup> 이러한 계획에 따라 호계종합시장(주)는 호계동 997번지에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시장을 개설하였다. 호계종합시장은 1980년 10월 30일 개설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였다.

호계종합시장은 988평 대지에 건평 1,678평의 콘크리트 상가 건물로 건축되었다. 지하~지상 2층으로 구성된 상가 건물은 A동과 B동으로 나뉘었는데, A동은 바닥면적이 484.15평, B동은 75.32평이었다. 전체 점포 수는 225개였으며, 건물 내에는 소방시설·위생시설·수도시설·환기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다.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도 있어, 1980년 당시에는 상권의 중심지로 최적화된 곳이었다.<sup>4</sup>

호계종합시장은 법인이 설립한 상설시장으로서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20개 조항에 달하는 「업무규정」의 내용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sup>

**〈표 1〉 1980년 호계종합시장 「업무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시장법 제4조에 의하여 정관 및 사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계종합시장주식회사에서 경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5조** 이 시장의 점포 임대기한은 만 1년간으로 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호계종합시장 주식회사의 승인하에 갱신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점포 임대차는 임대받은 점포의 사용자 임대차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이 호계종합시장 주식회사의 점포를 하등의 이유없이 매진(상행위 중지)하고 만 7일의 경과시에는 자동적으로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략)

**제11조** 본 호계종합시장주식회사에서 거래될 주요 물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각종 전자제품 / 청과 및 채소류 / 해산물·정육·생선·반찬·곡류 /

주단 포목 및 의류 제품 / 주류 및 음료 식품 /

각종 자재 및 가구류 / 일용 잡화 및 생활 필수품 일체

(중략)

**제13조** 본 호계시장의 개시일, 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시일 : 매일

휴업일 : 매월 첫째 일요일과 셋째 일요일

**제14조** 본 호계종합시장의 건물 및 소방시설 등은 수시 보완유지하여 당국의 지시 감독을 받아 공익 시장으로서 본분을 다한다. 호계종합시장에서는 상거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찰제를 이행하고 부정거래를 엄금한다.

(중략)

**제17조** 점포 사용료 징수 (총 225개 점포)

크기	점포 수(개)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4평형	180	1,000,000~1,500,000	50,000
8평형	27	1,500,000~2,000,000	60,000
12평형	18	4,000,000~6,000,000	150,000

**제18조** 본 호계종합시장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소정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규정의 개정은 호계종합시장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견을 거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본 시장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현대종합시장상가(안양시청 제공)  
1980년에 호계종합시장으로 개장한 건물이다.

아파트

# 호계 종합시장 점포 분양

분양 및 대

호계종합시장은 대단위 공단지 아파트단지 및, 파편·배출물처리시설, 반질공단을 집결한 최고층지로 지형받은 곳이며, 다목적시설조례에 생활의 편리와 상업적 고소득분포장이 바로 호계종합시장입니다. 역시 뛰어난 대·시장으로 서울가주객이 밀집된 곳이라하여 주변조건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시장주변에 각 세이커 주택단리가 밀집을 이루고 있고, 각종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상에 위치하고 있는 군포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종합시장입니다.

**■ 평당분임가**

지층: 150만원부터  
1층: 240만원부터  
2층: 120만원부터

**■ 평당임대가**

지층: 90만원부터  
1층: 120만원부터  
2층: 70만원부터

**■ 교통안내도**

말 반: 광화문-군포(90번)  
신계개-과천(97번)  
화 석: 광화문-군포(90번)  
스카라-군포(797번)  
사회적별: 강남-동천동-수원  
반포동-과천-수원  
명동로-연남-수원  
연철사내: 8번, 12번, 19번, 1-1번, 1번  
버스-군포사거리, 화석  
전철-연남역로 명화역 위치 안내한 내지



**판촉사원모집**

남자사원: 고졸이상 ○명  
여자사원: 고졸이상 ○명

**호계종합시장**

호계동 100번지 호계동 300번지

☎ 52-2083 52-3260  
52-3236

호계종합시장 점포 분양 광고("동아일보", 1985년 4월 29일)

2층 상가 형태의 호계종합시장은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시장은 상가 건물 밖에도 형성되었으므로, '호계종합시장'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 '호계종합상가'라 불리기도 하였다. 호계종합시장은 1988년에 법인의 임원진 개편 및 운영 지침의 변경에 따라, 명칭을 '(주)현대종합시장상가'로 변경되었다.

이 무렵 호계동의 시장은 현대종합시장상가와 상가 주변의 노점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당시 노점은 리어카를 활용한 형태였다. 시장 개설과 함께 등장한 이들은 리어카에 물건을 가득 싣고, 현대종합시장상가 건물 주변 노상에서 장사를 하였다. 이들은 현대종합시장상가 소속이 아니었으므로 업무규정에 구애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가격 정찰제인 상가 내 상점과 달리 흥정이 가능하였다. 리어카 노점은 상가 건물 밖에 위



경수대로 변 호계종합시장 입구(200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지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현대종합시장상가에 비해서 접근성도 좋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객들은 리어카 노점을 더 선호하기도 하였다. 자연스럽게 호계동의 시장은 현대종합시장상가 주변으로 넓게 조성되었다.<sup>6</sup> 현대종합시장상가는 현대화된 시장의 모습을 조성하려 했지만, 상가 건물 밖으로는 리어카 노점과 질퍽한 시장 거리가 펼쳐졌고,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눈과 발이 펼쳐진 호계동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 2. 호계종합시장의 자리매김

**임영자<sup>7</sup>** :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황토 땅인데, 거기가 다 리어카 노점이었어. 생선, 해물, 야채, 과일 없는 게 없었어. 그래서 이 시장이 장사가 잘됐어. 그런데 여기 지하(현대종합시장상가)가 또 시장이잖아. 거기도 코너마다 생선이랑 야채랑 뭐 다 있었어.

1980년대의 호계종합시장은 리어카 노점들에 의해 더욱 활기가 넘쳤다. 시장 거리에 다양한 품목의 리어카 노점이 있었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리어카 노점을 애용하였다.



1992년 5월에 개점한 호계종합시장 내 '옥산하이퍼마켓'(『안양저널』, 1993년 4월 21일)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시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상행위하는 노점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공중위생·안전·보행·미관 등의 문제로 노점 단속은 점점 더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점 상인들은 하나둘씩 호계종합시장을 떠났다. 리어카 노점이 떠남과 동시에 호계종합시장은 활기가 약해졌지만, 시장 거리는 눈에 띄게 쾌적해졌다. 이후 시장의 기반 시설 일부를 개선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본격 도입하면서 시장 방문객들의 편의성은 더욱 향상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호계종합시장 일부 상인들은 현재 '호계반찬' 맞은편의 덕현상가 1층에 입점하기 시작하였다. 덕현상가 1층은 약 60평 크기의 넓은 공실로 여러 상점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때 제일 처음 입점한 곳은 청과물 가게였다. 이른 아침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청과물 가게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다. 상품이 신선했으며, 가격은 저렴했고, 종류가 다양했다. 호계종합시장을 찾은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청과물 가게에 모여들었다.

**김은숙<sup>8</sup>** : 처음에 거기 생겼을 때, 도떼기시장처럼 막 펼쳐져 있었어. 그냥 엄청 싼 값에 막 이것저것 다 파는 야채 가게였지. 청과물이라 하나? 도매시장에서 갖고 온 그 청과물들이 가게에 널브러져 있

는데, 거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 도매시장에서 막 가져와서 싱싱한데, 값도 싸고, 뭐 다 있으니깐 그랬었지.

청과물 가게가 입점해 있던 덕현상가는 각각의 독립 점포가 모여있는 상업 중심 건물로, 떡 가게·수산물 가게·정육점·반찬 가게·과일 가게 등이 입점해 있었다. 상인들은 이른 시간인 새벽 6시부터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준비했으며,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 자정에 문을 닫았다. 화장실도 덕현상가 안에 있어서, 시장을 찾는 고객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이곳은 ‘현대종합시장상가’와 함께 1990년대 호계종합시장을 대표하는 상가 건물 중 하나였다. 현재는 건물 내부에 오래된 국밥집만 덩그러니 남았지만, 1990년대에는 시장의 중심 상가로 생기 넘치던 곳이었다.

2000년을 전후로 호계종합시장은 평촌 일대의 개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로 조성된 평촌은, 주민 입주가 완료된 후 2000년을 전후로 상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상권과 생활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주차장을 갖춘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평촌신도시 아파트가 시장 주변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흡수하는 바람에, 시장 단골손님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시장 상권에 위협이 되었다.



1990년대 호계종합시장의 대표 상가였던 덕현상가의 현재 모습

이후 안양 시내에 대형 할인점과 쇼핑몰, 대단지 아파트가 연이어 세워지면서 호계종합시장의 입지는 점점 더 좁혀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호계종합시장은 입지를 굳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2017년부터 시장 주변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대거 떠나는 바람에 시장 고객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연이어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호계종합시장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상이 회복되고 재개발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호계종합시장 상인회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호계종합시장은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온라인과 연계한 판매 방식도 도입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3. 호계종합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

호계종합시장은 2008년 5월 13일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인정시장’이자 ‘등록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고 있다. 현재 호계종합시장은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8년도에 설립된 상인회는 시장 거리를 정비하고 시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장의 점포 수는 현재 160개로 확인되지만, 수시로 새로운 점포가 생기고, 공실이 생기기도 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호계종합시장은 11,597㎡의 면적에 노천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공간은 파라솔과 천막이 덮여있고, 원 시장인 현대종합상가가 있던 길 위로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아케이드 공사는 2005년경 설치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일부 공간에만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시장 운영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호계종합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을 1구역·2구역·3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세 구역 가운데 1구역이 전통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권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호랭이 시장 골목’이라는 별칭도 있다. 아케이드가 설치되지 않은 1구역의 천장은 ‘호계시장 특화 거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특유의 전통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3구역은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음식점이 많이 입점해 있다.

영업시간은 점포별로 상이하다. 가장 일찍 문을 여는 곳은 이곳의 터줏대감인 ‘영슈



호계종합시장 마스코트

퍼'로 오전 6시 30분에 영업을 시작한다. 문을 가장 늦게 닫는 점포는 마트인데, 늦은 시간까지 고객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인근 아파트 입주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이 활성화되던 1980년대에는 영슈퍼를 비롯한 많은 상점이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열었다. 밤잠 없는 어른들이 각각의 목적으로 이 시장을 수시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시장 매출이 예전만 못한 요즘은, 판매촉진 행사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행사', '명절 할인', '개장기념일 축제 및 이벤트' 등이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젊은 고객과 시장 내 위치한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어린이 장보기 체험' 행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호계종합시장의 마스코트는 호랑이다. '호계'라는 행정구역명에서 생각해 낸 것으로, 이곳이 예전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곳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2016년에 '골목형 시장 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한 호랑이 마스코트는 올해로 9년째 이 시장을 대표하고 있다. 현재 호계종합시장 상인들이 앞치마와 시장에서 제작한 비닐봉지, 그리고 상점 간판 등 시장을 홍보하는 내용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2024년 현재 호계종합시장에는, 축산물·수산물·반찬류·청과물·방앗간·떡집·건어물·의류·이불 등을 취급하는 16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sup>9</sup>



2016년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된 호랭이 골목시장(201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호계종합시장 호랭이 골목시장과 아케이드 구간 점포들(200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호계종합시장 안내도(2024년,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제공)



〈표 3〉 2024년 현재 호계종합시장 점포 현황

취급 품목	점포 수(개)	취급 품목	점포 수(개)
제과·피자·커피·아이스크림	8	속옷·의류	6
식당·음식점·치킨	23	약국·병원	5
정육점·닭집	11	슈퍼·마트	4
식품·반찬류	9	이불·한복·타올	4
과일·야채	7	건강원·한약재·건강보조식품	3
헤어·화장품	7	수산물	2
방앗간·떡집	6	기타	16
건어물·김	6		

비고 : 기타 품목은 간판 가게 꽃집·안경집·복권 가게·아동보호센터·노래방·귀금속 등이 포함된다.

호계종합시장에서 청과물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품목이다. 상인들이 호계종합시장과 가까이 있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새벽마다 경매를 통해 많은 양의 상품을 가져오는 덕분이다. 신선한 상품을 필요한 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축산물·청과물·수산물은 고객이 직접 신선도를 파악한 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호계종합시장의 주요 품목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리된 반찬은 젊은 고객들이 주로 찾는 품목 중 하나이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급 품목은 음식이며, 이는 최근 들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재개발 사업 이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에 따라 젊은 층의 유입이 늘고 이들이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등장함에 따라, 완제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 상인회에서는 ‘맛집’ 개발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음식점이 시장 주요 취급 품목으로 자리 잡은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축산물·청과물·수산물 등 신선한 원재료들이 시장의 주요 품목이었다. 그러나 학교 급식과 외식의 증가로 원재료 수요가 줄어들게 되자, 그 점포 수도 보조를 맞춰 줄어들었다. 음식 배달의 급증으로 인해 완제품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호계종합시장에도 완제품을 판매하는 점포 수가 많아졌다. 잡화류는 시장보다 온라인과 대형 할인점에서 구매하는 추세이지만,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을 찾는 노년층은 나온 김에 필요한 잡화류도 함께 구입해 간다.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주변 생활권과 고객층의 변화 등으로 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수시로 변화한다. 고객의 필요에 맞춰 변화하면서 호계종합시장은 생활권 시장으로, 또 종합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 4. 호계종합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 1)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호계종합시장에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다. 상인회는 호계종합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의무 가입은 아니다. 2008년 5월에 설립된 호계종합시장 상인회는, 10여 명의 임원진이 이사·총무 등의 직책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양일모 회장이 이끌고 있다.

상인회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미가입 시 상인회가 주관하는 시장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후한 상점을 대상으로 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 ‘골목시장 지원 사업’ 같은 정부 지원은 상인회에 가입한 점포만 참여할 수 있다. 호계종합시장 상인회에 가입하면, 이처럼 소상공인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호계종합시장 상인회는 상인회 소속 점포뿐만 아니라, 호계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인근 대형 할인점과 차별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호계종합시장 인근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를 겨냥한 다양한 행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상품권 지급’ 이벤트가 있으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구매자에게도 상품권을 지급하여, 이벤트 기간동안 시장을 찾은 모든 고객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건물



2016년 호계종합시장 상인회의 김장 나눔 행사

한 접근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시장 접근성이 좋아진 신규 입주민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이끌었다.

호계종합시장 상인회는 상인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을 고려한 고객 대상 행사를 기획·운영함으로써, 시장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시장 인근 지역의 재개발과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상인회의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한 다양한 정기 행사도 열렸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정월 대보름·야유회·김장 나눔 행사가 있다.

정월 대보름 행사는 일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였으며, 대보름 당일 각 상점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고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겼다. 상인들은 이날을 핑계 삼아 낮부터 가게 문을 닫고 여유를 즐기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해당 모임이 중단된 상태이다. 야유회는 매년 봄이나 가을에 한 번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날짜를 정하였다. 관광버스를 빌려서 하루 관광지를 다녀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단체 행사에 참여하였다. 야유회도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는데,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곧 재개될 예정이다.

김장 나눔 행사는 매년 11월에 개최되었다. 시장 상인회와 호계1동 부녀회가 주도한 이 행사는 인근 지역 저소득층에게 김장김치와 쌀을 전달하는 이웃돕기 행사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대표적 행사였다. 2015년 11월 5일에는 김장김치 500포기와 쌀 20포가 인근 6개 동의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되었고, 밴드 공연과 주민노래자랑이 함께 열려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매년 이어지던 김장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 2) 호계종합시장의 실력자들

### (1) 파는 것은 바꾸어도 가게 이름은 바꾸지 않아, 영슈퍼

1981년 9월 1일, 당시 ‘호계종합시장(호계종합상가)’ 맞은편 신축건물 1층에 과일가게 하나가 입점하였다. 비포장 시장길에 반듯하게 세워진 이 과일가게는 스물여섯 살의 여사장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과일가게는 개점 때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에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 시작되면서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리어카 노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서 시장 고객들이 주춤하게 된 것이다. 1992년, 과일가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업종을 변경하였



호계종합시장의 터줏대감 영슈퍼와 형제방앗간



다. 품목을 추가하여 담배·가공식품·잡화류를 판매하는 슈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때의 상호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가게 이름, '영슈퍼'이다. 영슈퍼는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시장 중심거리에 위치하여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안양에는 대형마트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장보기에 보다 나은 장소들이 생겨나면서 안양호계종합시장은 전반적으로 손님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 영향으로 많은 상점이 폐업하기도 하였다. 영슈퍼는 이 순간에도 품목을 추가하며 다양한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안양호계종합시장의 구멍가게'로 그 자리를 지켰다.

**임영자** : 처음에는 과일 장사였어. 11년하고 슈퍼를 했지. 구멍가게. 호계시장 이 자리에서 계속 내가 지키고 있는 거야. (중략) 공산품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옛날에는 구멍가게도 장사가 잘됐어. 그래서 이런 간식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큰 마트가 생기니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했지.

영슈퍼는 지난 40여 년간 다양한 간식거리와 공산품 판매로, 전 연령대의 고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였다. 특히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었는데, 종종 물건 훔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영슈퍼는 도난과 관련된 일화가 많다. 최근에는 어릴 적 영슈퍼에서 군것질거리를 훔친 경험이 있는 손님이 방문하여 사장님에게 인사를 하고 간 적도 있다고 한다.

**임영자** : 얼마 전에 어떤 남자가 와서, “어? 아중마 아직도 있네.” 이래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중마네 가게에서 어릴 때 과자 훔친 적이 있는데, 아중마가 “엄마한테 말 안 할 테니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하고 보내줬었어요.” 이래. 내가 동네 슈퍼라서 다 아는 사람이니깐 더 혼낼 수도 없게 해서 내 선에서 타이르고 많이 보냈지. 동네 사랑끼리 괜히 잘잘못 따지고 얼굴 붉히고 하면 그렇잖아. 그렇게 동네 장사하면서 이 자리 버텨. 그 애들이 다 커서 의왕시며, 이 주변에 이사 갔다가는 오랜만에 이 시장 오면 날 보고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

지금의 영슈퍼는 옥수수·군고구마·군밤 등을 판매하는 작은 구멍가게이다. 여전히 이 구멍가게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 길목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40여 년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선으로, 영슈퍼는 시장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담은 채, 안양호계종합시장과 함께 세월을 보내고 있다.

## (2)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신뢰, 형제방앗간

1980년대 초반, 영슈퍼가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은 이 시장에 몇 안 되는 신축건물 중 하나였다. 이 건물에 새로운 방앗간이 들어왔다. 1983년 10월 3일이었다. 이곳에서는 오전 6시부터 고소한 깨 볶는 냄새가 났다. 냄새는 시장가 전체에 퍼졌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서였는지 방앗간은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

현재 형제방앗간은 시장 주변은 물론이고, 의왕시와 군포시에서도 많이 찾아온다. 어찌다 보니 전국에 단골을 두게 되어, 멀리 지방에 사는 단골에게는 택배로 상품을 보내 주기도 한다. 시장 주변에 살면서 40년 동안 방앗간을 이용하는 단골,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객, 멀리 이사 가서 택배로 주문하는 단골 등 형제방앗간을 애용하는 고객들은 그 유형도 다양하다.

형제방앗간에 오랫동안 단골이 유지되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신뢰’이다. 참기름·들

기름·고춧가루 등이 이곳 주요 상품인데, 이 상품들은 활용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원산지가 명확해야 하고, 기계 관리도 청결하게 이뤄져야 한다. 방앗간의 특성상 위생 검사나 원산지 표기 단속 등을 피할 수 없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부정적인 결과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단골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이다.

**신정숙<sup>10</sup>** : 난 40년은 된 것 같아. 여기 비포장일 때부터 왔어. 논 있고 그럴 때부터. 오래됐지? 그때는 버스가 10원인가 그랬어. 방세가 500원이고. 그때 여기 살아서 걸어서 오고 가고 했지. 그때부터 단골이야. 이 집이 그렇게 오래됐어. 오래됐는데 또 잘해. 여기가 조사를 하는데, 여기만 안 걸렸어. 수 입이니 뭐니, 검사하거든? 그제 입에서 입으로 또 소문이 다 나. 눈으로도 그제 또 보이고. 그러니깐 믿고 오지. 이거 사러 온 김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래.

이처럼 형제방앗간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호계시장에 뿌리를 내렸다. 형제방앗간이 호계종합시장 터줏대감이라는 데 시장 사람들 모두가 동의한다. 방앗간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1980~1990년대에는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가게 문을 열어 아침 일찍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오후 11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다.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해와서 그런지, 현재 시장 분위기는 그때와 많이 달라졌지만, 방앗간 사장 부부의 하루는 여전히 일찍 시작된다. 새벽녘에 일어나 장만해 둔 텃밭을 가꾸고 오전 8시 무렵 방앗간 문을 연다. 요즘 다들 시장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호계종합시장 길목의 형제방앗간은 활기찬 사장 부부와 단골들의 에너지로 살아 있다. 여전히 고소한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시장을 지키고 있다.

### (3) ‘소라 김’은 호계종합시장에만 있어요, 남해씨푸드

1996년, 호계종합시장에 건어물 가게 하나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김을 주로 판매하는 가게로, 상호는 ‘남해수산’이었다. 이 가게는 시장의 여러 출입구 가운데, 논밭이 펼쳐진 곳으로 나 있던 출입구 쪽에 자리 잡았다.

남해수산은 입점한 지 불과 1년 만에 IMF 외환위기라는 고난을 직면하게 되었다. 위기는 다른 말로 기회라던가, 이때 남해수산 사장 부부는 ‘김’에 특화된 가게를 운영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현재의 ‘남해씨푸드’이다.

‘남해씨푸드’의 ‘김’이 완전한 상품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약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남해씨푸드가 입점한 호랭이 골목시장  
(202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남해씨푸드의 대표 상품 '소라 재래 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김 굽는  
기계 도입이었다. 처음에는 2m 길  
이의 김 굽는 기계를 도입하였으나,  
김의 맛과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2010년경에는 4m 길이의 고성능인 기계를 마련하였다. 이 기계는 현시가로 약 4,000  
만 원 정도 되는 고가 장비이다. 기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얻은 여러 장점 중 하나는,  
기계 내부를 청소하기가 수월해서 잔여 기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  
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구운 김의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남해씨푸드에서는 재래 김·파래김·돌김을 취급하는데, 사장의 사촌 동생이 산지에서  
직접 김을 확보하여 공급한다. 재래 김은 충남 서천, 파래김은 전남 완도, 돌김은 전남  
목포·신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한다. 김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제철로,  
이 기간에 사촌 동생이 산지를 찾아가서 김을 확보하고 산지의 창고에 보관해둔다. 1년  
내내 사용해야 하므로 김을 보관하는 데는 보험을 들 정도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

다고 한다. 남해씨푸드는 매년 각 산지에서 확보한 김을 고급 기계로 구워 판매함으로써 상품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입소문이 퍼져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곳에 가게를 내지 않아서 호계종합시장을 찾아와야만 남해씨푸드의 특별한 김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남해씨푸드의 김은 ‘소라 재래 김’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상품명은 사장 부부의 아들이 지었다고 한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진 않지만, 사장 부부에게 ‘소라 재래 김’은 마치 딸과 같다. ‘소라’라는 이름이 여성의 이름처럼 느껴지고, 그만큼 사장 부부가 애정과 정성을 담아 만든 상품이기 때문이다.

김 굽는 기계는 매일 오전 11시에 가열을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가동한다. 당일 생산량을 마감하면, 손님들이 집에서 가져온 김을 소정의 금액을 받고 구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통시장 특유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다.

1996년 개점 이후 30년 가까이 남해씨푸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호계종합시장의 작은 골목에서 김 굽는 기계 소리와 함께 자리를 지켜왔다. 사장 부부의 정성과 따뜻한 손길로 만들어진 ‘소라 재래 김’은,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즐겨 찾는 상품으로서 호계종합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3) 시장을 찾는 고객들

1980년부터 호계종합시장을 운영해 온 것은 시장 상인만이 아니다. 이곳을 찾은 고객들이 함께 시장을 운영해 온 것이다. 고객들이 호계종합시장을 찾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다양한 상품군, 시장의 접근성, 신선한 재료와 맛집,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 그리고 시장이 갖는 커뮤니티 역할 등이 이곳을 찾는 이유이다.

호계종합시장은 이름처럼 실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모두 갖춘 종합시장이다. 이 외에도 약국·병원·금융기관 등 편의시설이 시장 주변에 모여있다. 경수대로를 지나가는 버스는 대부분 시장 입구에서 정차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또한 뛰어난 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접한 의왕시와 군포시 거주자들도 장을 보러 온다.

오늘날 시장을 찾는 고객의 연령대가 다양해짐에 따라, 먹을거리가 다양해졌다. 식품의 원재료보다는 완제품의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예로 제빵점·아이스크림 판매점·카페 등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호계종합시장 상인회에서는 맛집 발굴에 주목하기도 한다.



호계종합시장 주 출입구



호계종합시장 주 골목인 아케이드 구간



호랭이 골목시장의 모습

호계종합시장은 도매시장과 인접하여 청과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형 할인점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으로 차별화하기도 한다. 시장은 가격 조율이 가능하며, 구매 상품의 양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어 고객은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시장상인회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여느 시장처럼 호계종합시장의 고객들은 단골 상점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다 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남해씨푸드는 단골이 상품 진열과 정리는 물론이고 상품 판매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상인과 고객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소통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커뮤니티의 장은 전통시장의 정겨움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호계종합시장에서 시장 거리로 특화된 ‘호랭이 골목시장’의 경우, 마주 보는 상점 간의 간격이 짧다. 좁은 골목 위로는 천막을 쳐놓아서 1990년대의 시장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상인들은 천막 아래의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수시로 짧은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물건을 팔아주는 등 정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호랭이 골목시장’을 방문한 고객은 전통시장의 정겨움을 한껏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전통시장과 현대 시장이 미묘하게 혼재된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요소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호계종합시장이 전통시장의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이다.

註

---

- 1 『호계시장개설(허가)』, 1980년 10월 8일 참조.
- 2 『호계시장개설(허가)』, 1980년 10월 8일 참조.
- 3 『호계시장개설(허가)』, 1980년 10월 8일 참조.
- 4 『호계시장개설(허가)』, 1980년 10월 8일 참조.
- 5 『호계시장개설(허가)』, 1980년 10월 8일 참조.
- 6 「안양 호계 종합시장 분양 및 임대」, 『동아일보』, 1980년 8월 23일 ; 「안양 호계 종합시장 점포 분양 및 임대」, 『동아일보』, 1985년 4월 29일.
- 7 여, 1955년생, 호계종합시장에서 영슈퍼 운영, 2024년 10월 17일 인터뷰.
- 8 여, 1959년생, 호계종합시장에서 남해씨푸드 운영, 2024년 10월 30일 인터뷰.
- 9 현재 점포 현황은 2024년 11월 기준이며, 안양호계종합시장 상인 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 10 여, 1958년생, 호계종합시장 단골손님, 경기도 의왕시 거주, 2024년 9월 27일 인터뷰.

## 제3장

# 외곽의 교도소에서 도심의 쟁점으로 : 안양교도소의 변화와 이전 운동

이승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안양포도·안양유원지·안양예고 등은 모두 일반명사 앞에 ‘안양’이라는 지명이 붙은, 유명한 특산품이고 장소이다. 이에 못지않게 유명한 곳이 있으니 ‘안양교도소’이다. 안양교도소도 전직 대통령·유명 정치인·재벌·강력범 등이 거쳐 갔기에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곳이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부터 안양시 호계동에 자리 잡고 있다. 호계동은 교도소가 건립되던 시기에는 논밭과 산으로 이루어진 외곽 지대였지만, 지금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주택 밀집 지역이 되었다. 교도소 뒤편으로는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모락산이 펼쳐져 있다. 안양교도소는 안양 시민, 특히 호계동 주민의 삶에서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교도소는 사회에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부정적인 시설이기도 하다.

안양교도소는 언제, 어떤 경로로 호계동에 들어왔으며, 지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글에서는 안양교도소의 설립과 변화, 교도소에 얽힌 기억, 교도소 이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활동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안양시청 등의 소장 자료와 신문 기사 등 각종 문헌 자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호계동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안양교도소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교도소 이전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였다.<sup>1</sup>

## 1. 모락산 아래 호계리로 이사 온 교도소

교도소는 징역형·금고형·노역장 유치·구류 등을 받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는 국가 수용시설을 가리킨다.<sup>2</sup> 법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수용자의 성

공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sup>3</sup> 안양교도소는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 사건에 대한 미결수용자도 수용·관리하고 있다.

안양교도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던 마포교도소가 이전하여 세워진 것이다. 1912년 9월 공덕동에 신설된 경성감옥은 1946년 4월 마포형무소, 1961년 12월 마포교도소로 개칭되었다가,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 모락산 아래에 건물을 신축하고 1963년 9월 안양교도소로 개소하였다.<sup>4</sup>

서울에 있던 마포교도소가 어떤 이유로, 안양으로 이전하게 되었을까? 마포교도소가 처음 들어서던 1911년 무렵 공덕동은 한적한 동네였다. 그런데 6·25전쟁 후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이곳은 도시의 중심지로 변화하였다. 교도소 주변으로 주택이 늘어나면서 교도소가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되자, 주민들은 도시의 미관, 성장하는 자녀들에 대한 정서상의 이유 등으로 교도소가 이전하기를 고대하였다. 시민들의 원성과 이전 요청 때문에 마침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sup>5</sup>

1962년 8월 10일 제64회 국무회의에서 안양읍 호계리가 마포교도소 이전 부지로 선정되었다. 호계리가 마포교도소 이전 적지로 선정된 이유는,

1. 소구릉(小丘陵), 전(田), 답(沓) 지대로서 경사가 원만한 평탄지(平坦地)이며 3면의 조망이 개활(開豁)하여 교도소 이전에 이상적인 지향이다.
2. 안양읍에서 5km 상거(相距)하고, 서울·수원 간 국도에 인접하여 있어 교통이 지편(至便)하다.
3. 지가(地價)가 저렴(低廉)하고 정지공사비가 절약된다. (약 8백만 원)
4. 수질(水質)이 양호하여 전기, 전화선이 1km 이내에 있어 가설이 용이하다.
5. 도시화할 우려가 극히 적다.

는 것이었다.<sup>6</sup>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마포교도소가 이전하며 공덕동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리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포교도소는 1962년 11월 19일 기공식을 열고, 1963년 9월 3일 각령 제1476호에 따라 호계리 458번지 일원에 신축 이전하며 안양교도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마포교도소는 폐쇄되었다.<sup>7</sup> 1963년 9월 19일 법무부 장관 민복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겸 법제사법위원장 이주일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안양교도소는 부지면적 509,081㎡에 구내 면적 74,242㎡로 건축하고 1억 4천만



1957년 마포형무소 정문(안양교도소, 『경성·마포 안양교도소 99년사』, 2011)



(좌) 안양교도소 기공식 기사(『동아일보』, 1962년 11월 19일), (우) 안양교도소 준공식 기사(『동아일보』, 1963년 9월 19일)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였다. 기공식부터 준공식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건축 기간이 짧아, 안양교도소로 이전하였을 때 주벽은 길이 1,106m 중 503m는 블록담이었고, 603m는 판자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전 후에 수용자들을 동원하여 서쪽과 북쪽 방향 주벽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안양교도소는 순수한 우리 기술에 의해 신축한 최초의 현대식 교정시설로 개칭하였다.<sup>8</sup>

---

## 「복덕방 영감님 신났네」

“한 평에 2천 원씩 경총”

“붉은 담 없어지니 동심이 피겠다.”

“정서 교육에 주부들도 기뻐.”

남자 기결수만 3천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마포교도소가 오는 10월 중순께까지는 경기도 안양읍에 있는 안양교도소로 옮겨간다.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계획(도심지에서 교외로)의 제1차 사업으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택가의 한복판이며 한 길가에 자리 잡은 이 마포교도소를 우선 도심지에서 교외로 옮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곳에 수용 중인 재소자 3천여 명과 직원 2백 20여 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지가지 가동시설 일체가 한꺼번에 안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 교도소는 1911년 10월 일제에 의해 창설된 지 꼭 52년 만에 발전적인 폐쇄를 한 셈이다. (중략) 주민들은 우선 보기 흉한 붉은 벽돌이 허물어질 것이니 미관상으로 좋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푸른 옷 수의를 입고 작업을 하는 죄수들을 보이지 않게 되어 기뻐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 교도소가 떠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 교도소 이전 계획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교도소 주변의 한 복덕방 할아버지에 의하면 지난 4월경 교도소 이전설이 나오면서부터 부근의 땅값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여 지금은 그때보다 평당 2천 원씩이나 뛰었다고 한다. (중략) 이들이 이사를 함으로써 1만 3천 8백여 평 구내 면적이나 되는 넓은 대지와 60여 동의 각종 건물(총건평=5,394평)이 허물어지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에 될 것이겠지만 정부는 이 재산을 법무부에서 재무부로 넘겨 63년도 세입예산으로 정해 놓고 있다. (『경향신문』 1963년 10월 5일)

---

교도소가 들어선 지역은 인구는 적었지만, 마을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문광섭은 안양교도소 건너편 덕고개(덕현)에서 5대째 거주한 토박이다. 그가 살던 동네는 ‘상중말’이라고 불리던 작은 마을로, 총 10여 가구가 살았다. 교도소 뒤편으로 펼쳐진 모락산 아래는 남평 문씨(南平文氏) 집안 토지가 많았다고 한다. 문광섭의 아버지와 그 형제 소유 토지였는데, 교도소가 들어선 부지의 일부도 문광섭의 큰 집 땅이었다. 원래 이 터에 초등학교가 들어올 뻔했는데, 인덕원 쪽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통

학 거리가 멀다고 반대하여 무산된 적이 있다. 마을의 유지이자 마을 대표로 활동하던 상징말 이장이 교도소 건축 허가 도장을 찍어 주는 바람에 교도소가 들어왔다고 한다.



문광섭

**문광섭** : 이 교도소가 들어오지 말았어야 해. 우리 위에 선배들, 지금 80, 90 가까이 먹은 선배들서부터 교도소 옮기라고, 지금 옮겨야 된다고, 그런 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중략) 원래 흥안국민학교(안양남초등학교)가 이 교도소 자리로 들어오려고 그랬었대요. 그게 들어왔으면 여기가 교도소가 안 들어오고, 차라리 나왔었는데. (중략) 아까 얘기했듯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근데 여거지 이제 조달 다닐 거 아니어요? 교육청에서 이게 적당하다고 했어요.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지금 인덕원 이쪽에서 반대가 온 거

예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 애들은 멀어서 못 다니다. 이렇게 반대가 되니까, 이제 글로 옮긴 거죠. 그때 서부터 이제 국가에서 이 땅을, 신경을 쓴 거죠. (중략) 그때는 여기 우리 친구 할아버지가 이장을 보셨어요. 그때 이장이고, 이 마을의 유지잖아요. 그분이 도장 찍어 주는 바람에 교도소가 들어오게 된 거고. 동네 이장이 도장 찍어 주니, 동네 주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나중에 교도소가 생기고 나니까, “이 못된 게 들어왔다!” 옛날에 동네 이름이 상중말이라고 했어. 그 동네가 있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그 동네가 폐쇄되고, 이 아랫동네로 이사 온 거죠.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어요. 한 10여 가구. (중략) 이 교도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산이 다 우리 산이었었어요. 여기 조그마한 야산이었었어요. 동네 앞에 이게 저희 산이었었어요. (중략) 법무부에서 땅값을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 월 발행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이름을 내가 모르는데, 그걸로 다 보장을 받았던 거예요. (중략) 옛날에 이거 있을 때, 기차같이 레우(레일)가 깔려 있어요. 그래갖고 그

1970년대 안양교도소 구내 전경(안양교도소, 『경성마포안양교도소99년사』, 2011)





안양교도소 준공식에서 연설하는 민복기 법무부장관(1963년, 국가기록원 제공)



안양교도소 준공식(1963년, 국가기록원 제공)

경로, 석탄 캐러 다니는 사람들 레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었어요. 우리 어려서 그거 끌고 다니고, 교도소 이 안으로 막 들어가고, 나오고, 막 그랬죠. 어려서 그렇게 놀았죠.

안양교도소는 개청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고, “흰 벽돌과 철근 콘크리트 및 블록으로 된 아담하고 말쑥한 건물에 통풍·채광 장치, 목욕탕, 식당, 병실 등에 난방 및 급수시설 등 최신 시설을 갖춘 현대식 교도소였다. 개청 직후 마포교도소 수감자 3천 명 전원이 호계리 안양교도소로 옮겨왔다. 안양교도소는 벌을 받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구금된다는 목적을 넘어서, 교정과 교화를 한다는 뜻에서 ‘백색의 인생 개조원’이라고 불렸다.

## 2. 안양교도소에 얽힌 기억과 상처

교도소 건물이 완공되고 푸른 수의를 입은 수감자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기피시설 중 하나인 교도소가 마을에 들어왔다는 걸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다. 죄수들과 가까이 있다는 불편함, 혹시라도 탈출하여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1960~1970년대는 보안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시절이라, 수감자 몇 명이 담을 뛰어넘어 탈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교도소 뒤편 모락산에 몸을 숨겼다가 도주하려고 하였다. 그때마다 온 동네에 사이렌이 울리고 비상이 걸렸다. 교도소 직원들은 주민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며 염려를 가라앉히려 노력하였다. 문광섭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1970년대 안양교도소 내부(국가기록원 제공)



**문광섭** ;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넘어왔어요. 탈출을. 죄수들이 많이 넘어오면 이 앞산에 다 숨어 있다가 다 잡혀 들어가고 그랬죠. 멀리 못 가고. (중략) 우리 어렸을 때요. 툇 하면 비상 걸렸어요. 여기서 사이렌 불면 우리 산에 와서 다 숨어 있어요. 제복 입고, 머리 빠지고 어디 멀리 못 가니까. 여기서 막 사이렌 불고, 도둑 나갔다고. 그냥 교도관들이 싹 들려요. 그럼 다 잡혀 들어가고 그랬어요. (중략) 근데 교도소가 들어오고 나니까 교도소장이 우리 동네에다가 잘한다고, 이렇게 자기는 말을 안 했어도, 밑에 부하들, 보안과 직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많이 신경을 썼죠. 이런 게 들어와 있으니까, 동네가 아무래도 반대하고 싫어하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교도소가 들어오면서 마을에 변화가 생겼다. 국가시설인 교도소가 들어오면서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 수감자를 보러 오는 면회객들이 마을을 지나다녔다. 교도소 직원용 관사가 덕고개에 생겼다. 문광섭의 초등학교 친구 중에도 교도관 자녀가 몇 명 있었다.

**문광섭** : 교도소가 들어오면서 전기가, 교도소가 생겼는데 전기가 일찍 들어왔지. (중략) 교도소 들어오고 한참 후에 이제 도로가 확정이 된 거지. 교대로 들어올 때마다 여기 그냥 마창길이 장고개, 덕고개 고개가 엄청 높았어요. 이제 과천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국가가 잘 사니까 포장이 된 거지. 그때 이 길이 좁았어요. 그냥 마창길이었어요.

1990년대까지도 안양교도소 수감자들은 교도소 안팎의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마을 주민들이 ‘지도’라고 부르던 모범수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일반 수행자 중 ‘지도 감독’을 하는 모범수를 뜻하는 듯하다. 지도는 교도소 밖에서 소를 몰며 농사를 짓기도 하여 주민들은 간혹 이들과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 ‘지도’는 가끔 치약·칫솔 등을 가지고



1970년대 안양교도소 수감자들의 운동시간(국가기록원 제공)



1970년대 안양교도소 입구(안양시청 제공)



안양교도소 경운지에 모판을 설치하는 수감자들(안양교도소, 『경성마포안양교도소99년사』, 2011)

나와서 주민들에게 담배와 물물 교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수감자들의 부탁이었던 듯하다.

**문광섭** : 교도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간수가 20~30명을 데리고 나와요. (중략) 옛날에 우리나라 농사는 다 소가 지었잖아요. 교도소도 마찬가지로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소가 몇 마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소 끌고 나오죠. 소를 끌고 나오면 죄인들이 다 일을 했어요. 그럼 교도관이 와서 총 하나 메고, 그게 빈 총이죠. 총알 없는 빈 총 하나 메고 와서. 지도라고 있죠? 지도. 또 그것도 다 도둑놈들인데, 거기서 모범수가 되면 이제 지도가 되는 거. 이 사람들이 수형자들이 치약, 칫솔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주민들을 주고, “담배 좀 달라!” 이 지도가 교도관 모르게 담배를 달라고. 그 치약, 칫솔, 옛날에 치약, 칫솔이 귀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그거 주는 게 담배를 바꿔 간 거야. 그렇게 그런 시절은 내가 보내서 알지. (중략) 죄복이라고 있어요. 죄복도 파란색이고 (중략) 죄수들이 어디 가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확보를 하고.

1964년 3월 5일에 안양교도소 뒤쪽 모락산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모락산에 있던 탄약분해소에서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화약 저장고와 공장이 전소했고, 3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안양교도소는 사고 현장과 약 500m 떨어져 있었는데, 직원 6명과 수감자 97명이 부서진 유리창 파편에 맞아 중경상을 입었다.<sup>9</sup> 당시 흥안초등학교도 교실 유리창이 깨지고,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들이 유리 파편에 맞아상처를 입었다.

안양교도소는 때어난 폭음 때문에 가장 피해가 많았다. 유리창 파편이 날면서 일하던 직원과 수감자들이 크게 다쳤다. 그 깨끗한 백악의 건물은 유혈이 낭자했고 창문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폭음에 가장 놀란 것은 수형자들이었다. 교도소가 폭발하는 줄만 알고 창살을 붙드는 수형자의 아우성은 아비규환 그대로였다. (『폭심의 기적』, 『경향신문』 1964년 3월 6일)

한국전쟁이 끝난 후 10여 년이 지난 때였는데, 당시 인근의 호계리 주민들은 큰 폭발음과 불바다를 보며 전쟁이 재발한 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피난짐을 싸서 피난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마을 토박이들은 아직도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교도소에 갇혀있던 재소자일지언정 같은 마을에 살며 간혹 접촉하던 사람들이었기에, 폭발로 엉망이 된 건물과 다친 수감자들에 대해 주민들은 동정심을 가졌다. 이 사건으로 주민



안양교도소 정문(1987년, 국가기록원 제공)

들은 안전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서로의 상처를 다독이며 위로하였다.

**문광섭** : 그전에 모락산이, 6·25가 있잖아요. 6·25에서 이제 불발탄 난 거 할 때 여기 화약고라고 있었어요. (중략) 그게 어마어마한 폭탄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덕고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교도소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많이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 교도소가 완공되고 나서 그게 터졌어. 교도소는 말할 것도 없이 폭파 다 됐고, 하다못해 여기 가면 저 기차 /호선 기차 다니고 있어. 기차가 가다가 유리가 깨졌으니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도 그 폭탄 두 개인데 하나가 터졌고, 하나가 다시 터지면 다 중단해서 피란 나가듯이 소 끌고, 마차 끌고, 나가고 그랬어요.

### 3. 안양교도소는 낡고, 호계동은 도시화 되고

안양교도소가 호계동에 건립될 때는 현대적인 콘크리트 건물의 최신 시설로 주목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점차 노후화되었다. 1963년에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전국



호계사거리 안양교도소 일대



의 교도소와 구치소 53곳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sup>10</sup>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수감자들이 머무는 감방은 과밀 수용·난방 부족·습기·해충 등의 문제가 있고, 교도소 건물 전체가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죄수들의 방은 상상했던 것보다 음침했다. 방문 맞은편에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낮 2시인데도 오후 5~6시처럼 어두워 보였다. 방 안 온도는 건물 밖과 별반 다름없이 쌀쌀한 정도였는데 한겨울엔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춥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용실은 온돌 등 개별난방이 되지 않는다. 추위도 복도에 있는 라디에이터로 방 안까지 온기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친다. 방바닥은 발을 구르면 진동이 전해져 올 정도로 얇았는데 이 때문인지 쥐나 바퀴벌레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한다. (중략) 실제로 안양교도소는 안전진단 결과 무려 전체 84동 가운데 50동(60%)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태풍이 불거나 예상치 못한 화마(火魔)가 덮치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는 지 51년 된 안양교도소 가 보니』, 『서울경제』 2014년 10월 26일)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측도 문제점을 인지하여 1998년부터 신축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안양이 도시화하면서 인구가 증가했고, 교도소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시작되었다. 안양교도소가 호계동에 들어온 지 30년을 훌쩍 넘긴, 1999년 7월부터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처음에는 안양교도소가 자리한 호계3동 주민들이 앞장섰다. 마포교도소가 호계동으로 이전할 당시, 주민들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이것이 지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수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토박이인 문광섭에 의하면 선배들인 80~90대 어르신들도 교도소를 옮겨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고 한다.

안양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무부는 시흥시·안산시·광명시 등으로 교도소 이전을 고려하였으나,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2006년에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지만, 안양 시민들의 반대로 이 역시 지지부진하였다.<sup>11</sup> 법무부는 급기야 2012년 재건축 협의를 거부하는 안양시를 상대로 건축협의를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하였다.<sup>12</sup> 법무부와 안양시는 교도소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주민들은 호계3동 면적의 1/4 가까이 차지하는 안양교도소가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주민 정서와 어린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단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석방되어 교도소를 나온 사람 중에는 갈 곳이 없어서 새벽부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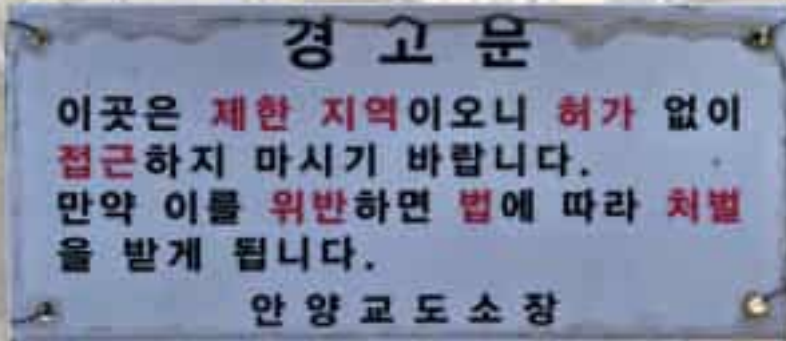


차강현

변의 공원을 배회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혹시라도 강력범죄가 석방된 후 동네에 머물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까 봐 염려하고 있다. 기피시설이 들어와 이를 감수하고 있는데, 공원이나 기타 편의시설 등의 다른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호계3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차강현은 호계3동이 안양에서도 소외당하는 지역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동네의 큰 면적을 교도소가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에 인접하다 보니,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강현** : 혐오시설이잖아요. 집값도 싸지, 안 오르지. 그다음에 발전도 특별한 게 없어요. (중략) 호계동을 위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슨 행정을 해준다든지,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문화센터를 지어준다든지, 무슨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여기는 약간 소외받은 동네죠. 그리고 또 딱 단절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요.

1990년대 초반부터 평촌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후 호계동에도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섰다. 특히, 덕고개 마을 일대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23개 동, 2,886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 일부동에서는 교도소의 내부가 보인다. 주변의 학교와 모락산 전망대에서도 교도소 내부를 볼 수 있다. 등하굣길이나 산책길에 교도소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동네는 범죄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모락산 아래 한적한 농촌이었던 안양교도소 주변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이 바뀌었다. 이곳은 이제 1번 국도와 47번 국도, 모락로 등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요충지에 해당한다. 동탄·인덕원선이 완성되면 바로 앞에 호계역이 생기며, 향후 역세권 거점 공간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주변부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발달하였다. 교도소 동쪽에서만 모락산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정도이다.

**차강현** : 1980~90년도만 해도 여기가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주공아파트하고. 개인 아파트 지으니까. 교도소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중략) 63년도에만 해도 뭐, 군부 시절이니까. 또 어디 감히 대들어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당시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반대가 없이 했지. 사람도 안 살고. 근데 여기만 해도 야산이지, 야산. 포도나 먹으러. 그러다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지금은 중심 상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그만 4천 평이고, 교도소가 11만, 실제적으로 10만 평 정도 되더라고. 호계3동이 근데 면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린벨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4분의 1이 교도소야. 11만~12만 평이니까요. 그게 또 그 교도소만 땅이 아니에요. 그 뒤에 모락산도 다 교도소 땅이에요. 그 뒤에 모락고등학교, 모락중학교, 그다음에 모락산 밑에까지가 교도소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개발하고, 팔아먹고, 지금은 11만 6천 평만 남은 거지.





2016년 6월 9일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과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범시민 쫓겨대회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안양 시민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 4. 교도소 축소·이전 방안과 주민들의 바람

안양의 정치인들은 정당에 상관없이 안양교도소 이전에 찬성한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으로 교도소 이전이 포함된다. 그러나 교도소 일부가 법무부 땅이기에, 안양 시민의 바람과 정치인들의 노력만으로는 이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법무부장관과 안양시장의 협力が 필요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무부는 4차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신청했으나 안양시는 모두 거부하였다.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3월 13일 대법원에서 안양시가 최종 패소하였다.

2022년 8월 18일, 안양시와 법무부는 「안양 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60년 된 노후 교정시설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데,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에 한 안양시와 법무부 간의 추진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범죄인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 두는 구치(拘置) 기능은 존치하여 현대화하고, 교도(矯導) 기능은 전부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현

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안양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2024년 11월 26일에는 「안양교도소 이전 및 현대화 사업 방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되었다.<sup>13</sup>

현재까지도 교도소 시설 전체 이전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구치시설을 현대화하고, 교도시설만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 중에서는 교도소 유치를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활력이 돌기를 바라는 곳도 있기에, 이러한 곳으로 교도시설을 분산 배치되는 것이다.<sup>14</sup> 2024년 기준으로 안양교도소는 호계동 458-1 일원에 약 32만㎡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관리자는 법무부 교정본부이며, 수용 인원은 약 2,000명이다.<sup>15</sup> 호계동 주민들은 기결수들이 나가고 나면 넓은 교도소 부지가 공원·대학교·주택가 등으로 개발되어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지역도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표 3〉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 경위<sup>16</sup>

연도	추진 내용
1963.09.03.	안양교도소 건립
1999.10.	안양시, 이전지(석수동) 추천, 주민 반대로 무산
2010.12.28.	현 위치 재건축 건축협의 요청 (법무부→안양시)
2011.02.11.	건축협의 불가 통보 (안양시→법무부)
2012.07.	법무부, 수원지법에 행정소송 제기 (건축협의 거부처분 취소)
2014.03.	대법원 판결 (안양시 패소, 재건축 협의 재개)
2014.12.	기획재정부, 경기 남부 법무타운 조성 사업 제안, 의왕 시민 반대로 무산 ※ 경기 남부 법무타운 조성 사업 : 안양·의왕시 소재 4개 법무시설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원)을 의왕시 왕곡동으로 통합 이전
2015.11.~	경기 남부 법무타운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및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여론 확산
2020.10.06.	법무부(복지과장) 면담 : 안양교도소 관련 협의
2021.12.07.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안양시)
2022.08.18.	안양시·법무부 업무협약 체결
2024년 현재	사업추진 관련 관계기관(기재부) 협의 중

자료 : 안양시 신성장전략과, 「안양교도소 이전 및 현대화사업 방안 주민설명회」, 2024.

**차강현** : 지금 합리적으로 되는 거는 9만 평만 돌려주는 걸로. 3만 평은 구치소를 만든다는 거죠. 땅이 다 남아도는데 레니스장이 몇 군데 있죠, 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그다음에 사택 있죠. 그럼,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중략)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 노역 같은 거, 뭘, 식



안양교도소는 2004년부터 안양교도소 입구~교정아파트에 이르는 200m 벚꽃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200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사 주방 같은 게 완전히 저기 60년대식이었다고, 그냥. (중략) 근데 재건축은 안 될 거예요. 주민들이 아주 그냥 난리,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은 안 되고 구치소는 이제 이렇게 한 3만 평 정도, 9만 평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죠. 거기다가 공원, 근데 공원이 좋지만, 공원이 돈이 안 되잖아요. 우리 희망 사항이지. 땅 주인이 땅을 줘야 되는 거지.

예전에는 수감자들과 호계동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접촉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접촉이 거의 없다. 혹시라도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교도소 내의 운동장과 공원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민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차강현** : 국화 전시회나, 재소자들이 꽃 같은 거,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화훼 같은 거 해서 1년에 한 번 전시회 해가지고, 운동장에 전시해 가지고 이렇게 꽃 같은 거 작은 거는 가져가라고 그러고. (중략) 교도관들은 보안이 최고예요. 일단 자기들은 아무리 주민하고 협조해도, 보안에 한 번 탈출, 무슨 사고가 나면 개들이 잘리니까. 말만 주민들과 상호 협조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은 이행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못 들어가요. 보안시설이니까요.

교정시설 주변 지역의 치안은 일반적으로 양호하며, 범죄율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안양교도소의 높은 담장과 철조망 같은 전통적인 교도소의 외관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최근 교정시설 설계 흐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 현대식 빌딩형 구치시설이 주류가 되고 있으며, CCTV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의 도입으로 과도한 물리적 장벽이 불필요해졌다. 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대구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 등이 이러한 빌딩형으로 건설되었는데, 외관상 일반 행정시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감자들에게는 실외 운동 공간 부족 등의 단점이 있지만,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안양교도소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담장과 철조망 제거를 요청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문광성** : 요새는 대전 여자교도소 가면 담 자체가 없어요. 학교도 담이 없고, 관공서도 담이 없잖아요, 요새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지금도 철거를 못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담벼락이 있거든요. 근데 철거를 죽어도 안 하는 거야. 법무부에서 말로만 그러고. 거기다가 펜스 쳐 놓고, 철조망 쳐 놓고,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략) 어릴 때부터 학교 가는 애들이 걸어가면서 뭘 배우겠어요? 이 동네는 범죄자(동네).

안양시가 추진하는 지역 발전 계획의 핵심은 인덕원동탄선 ‘호계사거리역’ 개발과 안양교도소 이전이다. 2030년까지 안양교도소를 이전·축소하여 호계사거리역 주변을 스마트 자족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계획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호계역을 중심으로 복합 비즈니스단지를 조성하고, 복합 상업 및 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하며, 기존 산업기반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모락산 근린 네트워크 구축과 수계를 활용한 공원 조성으로 녹지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안양교도소의 이전 및 현대화 계획에는 법무시설의 축소와 현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빌딩형 법무시설 건축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주변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여 주변 지역과의 용도를 분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편의시설을 개방하여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 상생 방안으로는, 체육시설·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법무시설 지원 인력으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과 식자재 등을 지역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무시설 직원들의 지역 봉사활동과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계획이다.



안양교도소 일대(이정범 제공)



도로변의 안양교도소 담장(202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시는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환경 개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sup>17</sup>

1963년에 호계동에 들어와 60년 넘게 본연의 임무를 다한 안양교도소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안양교도소의 미래 모습, 이전 혹은 축소가 안양, 특히 호계동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양시의 도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 참고자료

- 안양시 신성장전략과, 「안양교도소 이전 및 현대화사업 방안 주민설명회」, 2024.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경성·마포 안양교도소 99년사』, 안양교도소, 2011.
- 「백색의 '인생 개조원」, 『경향신문』, 1963년 9월 19일.
- 「복덕방 영감님 신났네」, 『경향신문』, 1963년 10월 5일.
- 「소풍 갔던 어린이 등 49명 익사」, 『동아일보』, 1963년 10월 24일.
- 「안양 탄약 분해공장 폭발. 어제 하오 안양 부근」, 『조선일보』, 1964년 3월 6일.
- 「액운 겹친 흥안국민학교 어린이 등 15명 부상」, 『조선일보』, 1964년 3월 6일.
- 「'지는 지 51년 된 안양교도소 가보니' 8인실에 13명 빼곡 …… 곳곳 갈라진 벽 붕괴 위험도」, 『서울경제』, 2014년 10월 26일.
- 「진혼가 속의 안양 흥안교생 합동위령제」, 『경향신문』, 1963년 10월 29일.
- 「초연의 몰압산」, 『동아일보』, 1964년 3월 6일.
- 「탄약분해공장 폭발」, 『조선일보』, 1964년 3월 6일.

## 註

- 1 주요 면담자는 다음과 같다.

연도	연령	성별	지역 활동
문광섭	1955년생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양교도소가 위치한 덕고개 상정말에서 6대째 거주한 토박이</li> <li>6·25 전쟁 전부터 마을에 살던 토박이들의 모임인 '덕현 분회' 회장</li> <li>전(前) 한국일보사 근무</li> </ul>
차강현	1961년생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8년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거주</li> <li>공무원 퇴직 후, 호계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으로 지역 활동 시작</li> <li>호계3동 주민자치 위원·호계3동 주민 참여 예산 위원장·안양시 주민 참여 예산 부위원장 (교통 건설분과 위원장)·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역임</li> </ul>

- 2 다음 백과사전(<https://100.daum.net/encyclopedia>).
- 3 법무부 교정본부(<https://www.corrections.go.kr/>).
- 4 안양교도소, 『경성마포안양교도소 99년사』, 2011, 203~204쪽.
- 5 앞의 책, 203~204쪽.
- 6 앞의 책, 206쪽.
- 7 앞의 책, 203~204쪽.
- 8 앞의 책, 207쪽.
- 9 「교도소 피해 247만 원」, 『경향신문』, 1964년 3월 6일.
- 10 안양시 신성장 전략과, 「안양교도소 이전 및 현대화사업 방안 주민설명회」, 2024.
- 11 앞의 자료.
- 12 앞의 자료.
- 13 앞의 자료.
- 14 앞의 자료.
- 15 경북 청송군은 이미 교정시설 4개가 있는데, 교정 직원을 위한 속소를 제공하겠다고 해택까지 내걸고 여자교도소 유치에 나선 상태이다. 지역 주민들도 교정시설 유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해당 내용으로는 “교정시설이 들어서면서 숙박이나 편의시설 등이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됐다.”, “지역 주민들은 교정시설 추가 유치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는 인터뷰가 있다. (『재소자 “인권 침해”, 주민들 “나가라” …… ‘과밀 수용’ 해법은?』, 『KBS』, 2024년 12월 1일).
- 16 안양시 신성장 전략과, 「안양교도소 이전 및 현대화사업 방안 주민설명회」, 2024.
- 17 앞의 자료.

## 05

# 배우고 실천해온 호계동의 공동체

제1장 안양 남부 지역 교육의 산실, 안양남초등학교  
제2장 호계동의 사회단체  
제3장 군포공소에서 성장한 호계동성당



## 제1장

# 안양 남부 지역 교육의 산실, 안양남초등학교

---

이영수 인하대학교 강사



## 1. 흥안국민학교 설립과 안양 초등교육의 확대

안양남초등학교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안양리 양지말(현재 안양3동)에 있던 일본인 학교 아사이(旭)공립국민학교 건물을 접수하여 1945년 9월 25일 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1946년 3월 15일 흥안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그러나 통학 거리와 시설 미정비로 인해 곧바로 동양방직 안양공장 기숙사로 교사를 옮기고, 1946년 9월 5일 이동리 귀인동에 분교실을 설치하였다. 이후 동양방직에서 기숙사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1947년 5월부터 10월까지 안양국민학교와 병합하여 수업하다가 첫 교사였던 아사이공립국민학교 건물로 다시 이전하였다.

그러나 안양중학교 신설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교사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흥안국민학교 개교와 더불어 이영섭을 회장으로 하는 흥안국민학교 신축 기성회가 조직되었는데, 마침 1948년 봄<sup>1</sup>에 이동리<sup>2</sup>에 교실 4개의 신축 교사를 완공하였다. 아사이공립국민학교 건물은 1948년 2월 개교한 안양중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1950년 5월 6일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남학생 30명, 여학생 25명으로 총 55명이 1회 졸업생이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해 학교 문을 닫게 되었다. 1951년 6월에 개교하였으나 교사와 부속 건물이 전파됨에 따라 노천 수업을 실시하였다. 1952년 3월 24일 거행된 제3회 졸업식은 남학생 16명, 여학생 13명으로 졸업생이 29명밖에 되지 않았다. 부서진 교사를 수리하고 천막 교실을 지어 수업을 이어 갔으나, 학교의 위치와 교통 등을 이유로 현재 위치인 이동리 746번지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sup>3</sup>

1960년대 흥안국민학교의 학구는 비산리의 달안, 이동리의 귀인·신촌, 호계리의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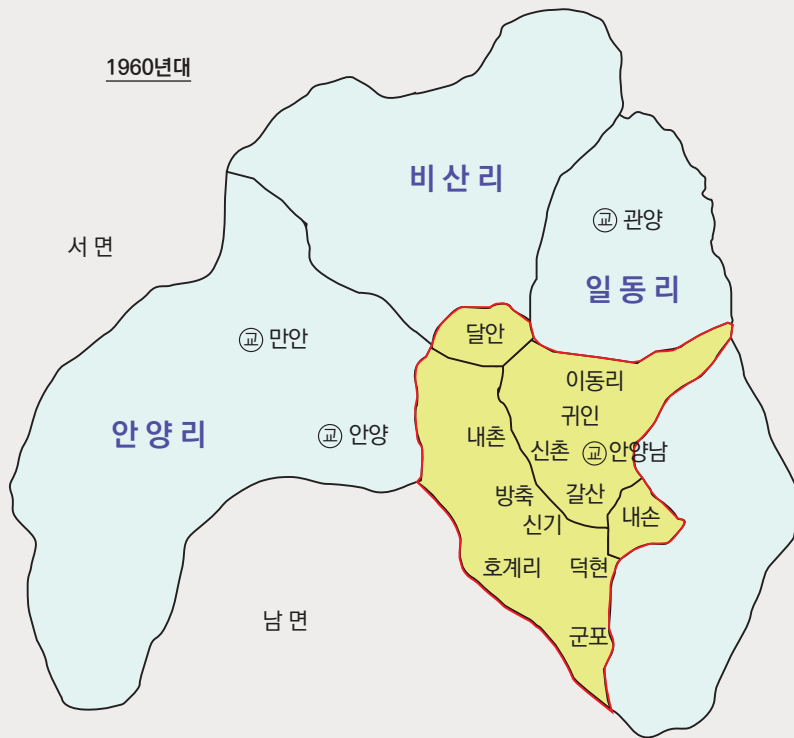
촌·방축·신기·덕현·군포 등 12개 자연부락이었다. 1962년부터 안양교도소·한일나일론·한국케이ابل공업·금성통신 등이 들어서면서 흥안초등학교 학구의 인구가 증가하여 학급 증설이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실을 증설하려면 학교 주변의 농경지를 매입해야 했는데, 농지 축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원만히 해결 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1970년 10월 28일 흥안국민학교는 안양남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71년 12월에는 1,000여 평의 교지를 매입하고 운동장을 확장하였다. 1980년대 들어 호계동에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붐이 일면서 유입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가 신설되면서 흥안국민학교는 신설 학교로 학생들을 분리하였다. 1981년 3월 1일 호계국민학교로 9학급이 분리하였고, 1983년 3월 1일 호성국민학교로 8학급이 분리하였다. 바로 다음 해인 1984년 9월 1일 의왕 백운국민학교로 12학급이 분리하였고, 1987년 9월 1일 인덕원국민학교로 9학급이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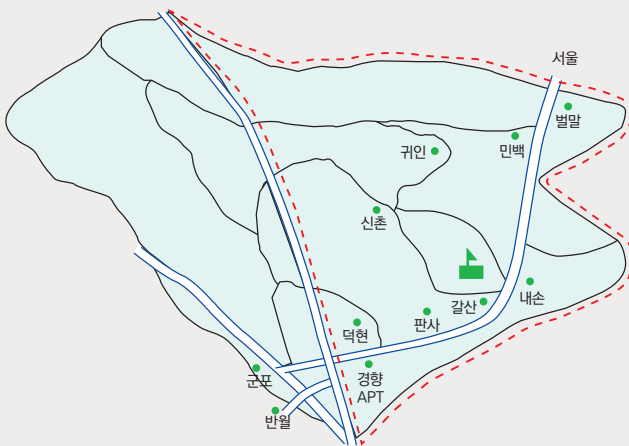
1990년대 들어서는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구 변동으로 인해 1994년 3월 1일 귀인국민학교로 56명, 민백국민학교로 24명이 전학하였다. 교육부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3월 1일 안양남국민학교에서 안양남초등학교로 개칭하였다.

안양남초등학교는 2024년 1월 5일 제75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159명이 졸업함으로써 안양남초등학교는 총 11,67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25년 기준으로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하여 총 21학급에 48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sup>4</sup>

해방 이전까지 안양의 초등교육 기관은 안양국민학교가 유일하여 지역민의 교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동네별로 사설 강습소를 세워 초등교육을 받게 하였다. 안양리의 양지동·주접동, 일동리의 중촌, 이동리의 귀인동, 호계리의 내촌 등에 강습소가 운영되었다. 이 강습소들 가운데 일동리의 중촌강습소는 안양국민학교 중촌분교장이 되었다가 관양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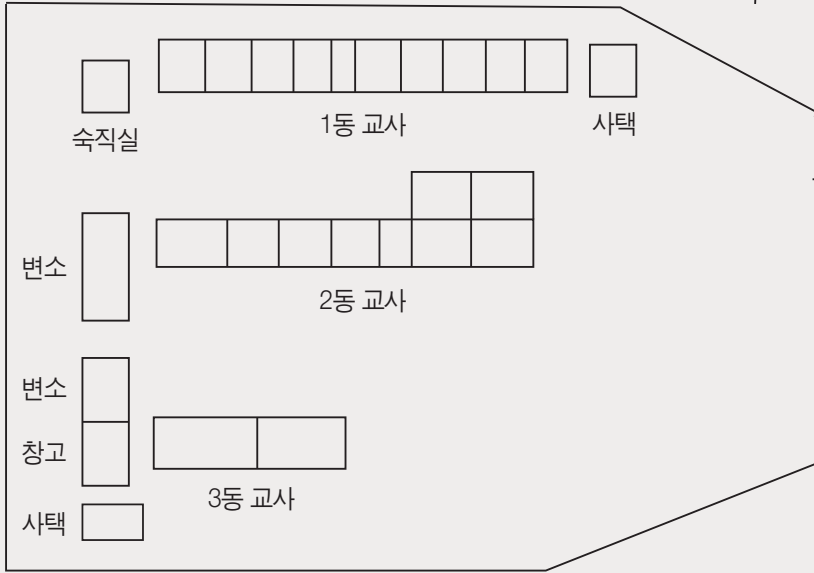


안양남초등학교 학구 변화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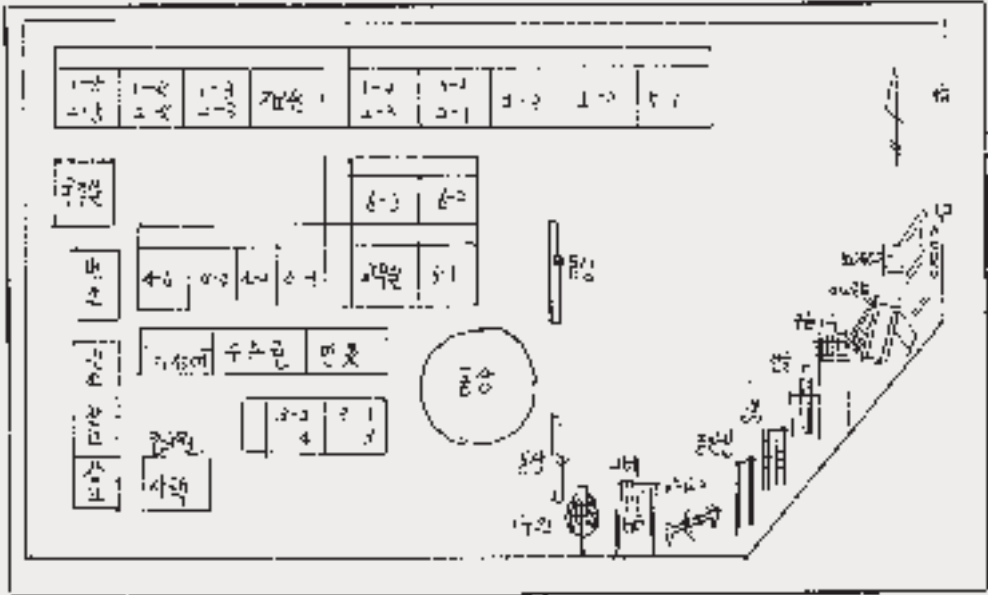
4



이동리에 신축한 흥안국민학교 교사 배치도(1960년대, 안양남초등학교 제공)



안양남국민학교 전경(1970년대, 안양남초등학교 제공)



1970년대 안양남국민학교 교사 배치도(안양남초등학교 제공)



1970년대 증축 교사(1976년, 안양남초등학교 제공)



1990년대 안양남초등학교 교사 배치도(안양남초등학교 제공)



1990년대 안양남초등학교 전경(1993년, 안양남초등학교 제공)

## 2. 비운의 역사로 남은 여주 신륵사 수학여행

1963년 10월 23일 오후 2시 45분,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남한강 조포나루에서 흥안국민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 등 150여 명을 태운 나룻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학생 38명과 인솔 교장을 포함한 학부모 11명 등 49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행히 100여 명은 긴급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 당시 안양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사고였다.

흥안국민학교 5·6학년 127명과 교사·학부모 20명은 교장의 인솔하에 전세버스를 타고 안양에서 출발하여 수학여행지인 여주 신륵사에 도착하였다. 신륵사에서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나룻배로 남한강을 건너다가 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이후 알려진 참사의 원인은 규정 위반이었다. 정원이 70명인 길이 10m·폭 2.5m 크기의 나룻배에 정원의 갑절이나 되는 사람을 태운 데다, 이 배를 뒤에서 미는 모터보트가 과속으로 달려 배가 전복된 것이다.

150여 명의 어린이를 태운 나룻배가 전복됐다는 소식에 여주읍의 경찰, 의용소방대, 보건소 등이 긴급 출동하여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어린이들을 구조하였다. 구조된 어린이들은 여주 읍내 병원에 분산·수용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한밤중에 학교에 도착하였다. 다음 날 새벽에 6대의 트럭으로 운구한 시신이 학교에 도착하였고, 임시 빈소로 마련된 교실에 안치되었다.

본래 수학여행 참가 대상 학생은 5·6학년 합쳐서 188명이었다. 그러나 60여 명의 학생은 수학여행 경비 12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함께 가지 못하였다. 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도 햄쌀을 팔아 비용을 마련한 학생이 절반이었다고 한다. 집이 가난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학생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여주로 향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가난이 목숨을 지켜준 셈이다. 나룻배 사공, 모터보트 기관사, 인솔 교사 3명 등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시흥군에서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흥안국민학교 조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였다. 그러나 유족들이 제각기 연고지로 장지를 정하는 바람에, 10월 29일 오전 10시 합동 위령제를 열고, 유족에게 장례비로 2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참혹한 사고가 발생한 조포나루는, 매일 500여 명이 나룻배를 이용하는 곳이었다. 흥안국민학교 수학여행단의 사고 3년 전에도 나룻배가 전복되어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1963년 흥안국민학교 수학여행 사고 신문 기사(『경향신문』 1963년 10월 24일)

발생한 적이 있어서,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와 여주읍 연양리를 연결하는 ‘여주교’를 건설하고 있었다. 1963년 1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1964년 3월 준공 예정이었다.<sup>5</sup>

1963년 10월 25일 흥안국민학교에 등교한 학생은 전교생 662명 중 105명이었다. 이 중에서 5학년은 12명, 6학년은 10명이었다. 학교 측은 26일부터 정상 수업하기로 하고 등교를 독려했으나, 조포나루의 악몽 때문인지 교실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였다.<sup>6</sup> 시흥군에서는 사고 수습을 하느라 돌아오지 못하는 교사들을 대신하여 교육청 장학사들과 만안국민학교 교사들을 동원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sup>7</sup> 그러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합동 위령제가 끝날 때까지 임시휴교하였다. 1963년 12월 인권주간을 맞이하여, 법원은 구속된 3명의 인솔 교사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교육국은 사표를 낸 6명의 교사를 모두 복직 발령하였다. 복직 교사 9명은 흥안국민학교 대신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1963년 흥안국민학교 수학여행단이 사고를 당한 조포나루 현장(여주군청 제공)





1963년 흥안국민학교 조포나루 희생자 합동 위령제(여주군청 제공)



1963년 흥안국민학교 조포나루 희생자 합동 위령제(여주군청 제공)



2006년 안양남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여주 조포나루 근처에 건립한 위령비

2006년 4월 15일 신륵사 입구에서 강변 쪽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 희생된 학생·교사·학부모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위령비를 건립하였다.

서기 1963년 10월 23일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흥안국민학교(현 안양남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교사, 학부모 총 158명이 여주 신륵사 수학여행을 마치고 이곳 조포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배가 기울며 침몰하여 학생, 학부모, 선생님 49인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있었다. 이에 안양남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는 2006년, 고인의 명복을 위로하는 비를 세우게 되었다.

고히 잠드소서.

서기 2006년 4월 15일

안양남초등학교 총동문회

2008년 10월 2일 조포나루 사건 45년을 맞아 제1회 위령제를 지냈다. 위령제는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안양남초교 동문, 여주군, 안양시 문화원 관계자 등이 강물 위 나룻배에 탄 가운데 당시 상황을 재현하며 이루어졌

다. 위령제는 혼령을 불러 내기 위한 주문을 외는 것으로 시작해 참가자들이 원혼을 달래기 위해 국화 송이를 강물에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sup>8</sup> 조포나루 위령제는 안양남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주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안양남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조포나루 위령제(안양남초등학교 동문회 제공)

### 3. 학교 유리창을 산산이 부순 모락산 폭발 사고

1964년 3월 5일 오후 3시 25분경, 시흥군 의왕면 오전리 안양교도소 뒤편 모락산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모락산 기슭에 있는 한국탄약분해공업사 작업장에서 포탄 화약 40톤가량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반경 1.5km 안에 있는 안양교도소와 흥안국민학교, 그리고 200여 호의 민가가 피해를 입었다. 안양교도소와 흥안국민학교의 경우 유리창만 1,500여 장이 산산조각이 났고, 4km 떨어진 안양 읍내에서는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다.<sup>9</sup>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3명이 사망하였고, 안양교도소 재소자와 직원, 흥안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안양교도소는 유리창이 깨지고 작업장의 슬레이트 천장이 내려앉는 바람에 1,500여 명의 재소자를 교도소 마당으로 대피시켰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주한미군 부대 주변에서 모은 불발탄이나 오래된 탄환을 수집하여 화약을 분리하는 곳이었는데, 인부 8명이 포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공장 일대의 화약 더미가 연쇄 폭발하였다. 당시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포탄의 분해에 필요한 염산가리와 나이트로글리세린에 인화된 불이 포탄에서 분리한 화약에 번져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sup>10</sup>

사고가 난 3월 5일은 흥안국민학교 입학식이 있었다. 오후 3시를 넘긴 시간에 폭발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고학년 학생 가운데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다친 3명을 비롯하여 92명의 학생이 사고 다음 날 학교에 오





폭발음의 충격으로 부서진 흥안국민학교  
교실 천장(1964년, 경기도청 제공)

교실 유리창이 모두 파손된 흥안국민학교(1964년, 경기도청 제공)



#### 4. ‘업어주던 우정’의 졸업장

1967년 2월 7일 『조선일보』에 흥안국민학교의 ‘영광의 졸업’이 소개되었다. 소아마비로 두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업고 2년 3개월 동안 고갯길을 걸어서 통학한 졸업생 조완석과, 친구의 등에 업혀서 통학하며 개근상을 받는 졸업생 민경호의 우정을 다룬 내용이었다.

두 학생이 처음 만난 것은 1964년 겨울이었다. 덕고개길을 목발에 의지해서 넘던 민경호가 넘어져 울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조완석은 민경호를 집까지 업어다 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럽거나 비가 와서 흠길이 질척거리는 날이면 조완석은 민경호를 업고서 통학하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졸업을 석 달가량 앞두고 담임 선생님께서 알려졌다. 이후 학교에서는 가장 착한 어린이로 조완석을 뽑았고 두 사람이 넘나들던 덕고개 10리 길은 ‘사랑의 고갯길’이라 부르게 되었다. 졸업식 날 조완석은 선행상을, 민경호는 우등상과 1년 개근상을 받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조완석은 장학금을 받아 안양중학교에 입학하였다.<sup>12</sup>



흥안국민학교 제1회 졸업생(1950년, 이은섭 제공)

# 「업어주던 友情」

安養兩安國民校 조완석군과 민경호군



순천에서 온 조완석 군은 두 친구를 데리고 '우정'을 찾아 온다. (순천출신민중학생)

登校길 10里 : 업고 업혀 2年 3個月

## 조군엔 善行賞, 민군은 皆勤賞

순천에서 온 조완석 군은 두 친구를 데리고 '우정'을 찾아 온다. 순천출신민중학생 조완석 군은 두 친구를 데리고 '우정'을 찾아 온다. 순천출신민중학생 조완석 군은 두 친구를 데리고 '우정'을 찾아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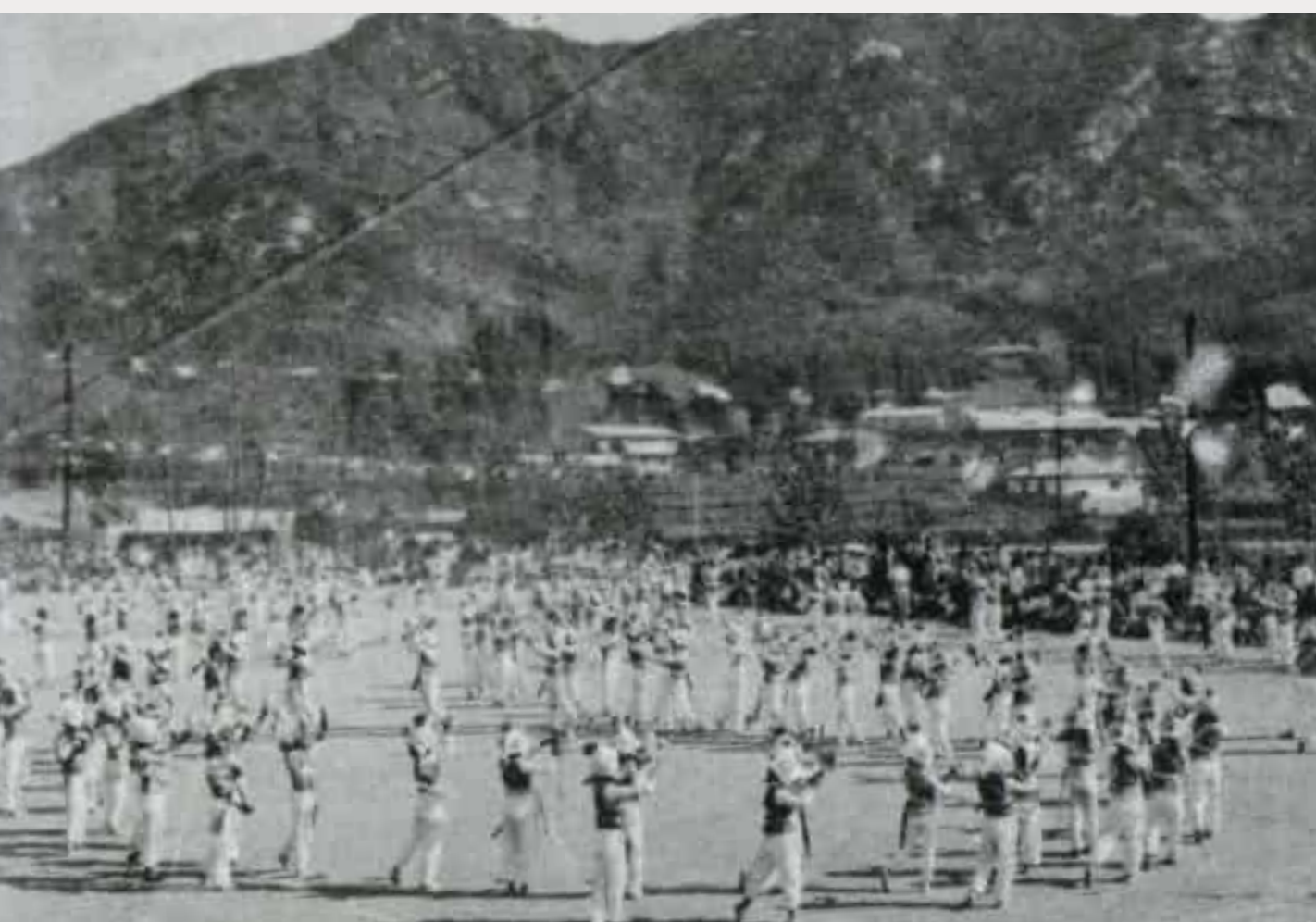
## 學父兄-학생들 떠나갈듯 박수

— 同學會로야 進學길터주고

순천에서 온 조완석 군은 두 친구를 데리고 '우정'을 찾아 온다. 순천출신민중학생 조완석 군은 두 친구를 데리고 '우정'을 찾아 온다. 순천출신민중학생 조완석 군은 두 친구를 데리고 '우정'을 찾아 온다.

순천에서 온 조완석 군은 두 친구를 데리고 '우정'을 찾아 온다. 순천출신민중학생 조완석 군은 두 친구를 데리고 '우정'을 찾아 온다. 순천출신민중학생 조완석 군은 두 친구를 데리고 '우정'을 찾아 온다.

'업어주던 우정' 신문 기사(『조선일보』 1967년 2월 7일)





1	3
2	5

1. 흥안공립초등학교 추기체육보건대회 가장행렬(1949년, 이은섭 제공)
2. 안양남국민학교 운동회 (1975년, 안양남초등학교 제공)
3. 안양남국민학교 운동회 (1975년, 안양남초등학교 제공)
4. 학교 운동회 100m 달리기 (1986년, 안양남초등학교 제공)
5. 여학생들의 부채춤 (1986년, 안양남초등학교 제공)

## 5. 1967년 흥안국민학교 우량도서 확충의 해

안양남초등학교 『연혁지』에는 「도서관 일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한다.

### 1966.12.31

1966년 말 현재 보유 어린이도서 340권 대개가 동화책이며 내용이 빈약하고 체제가 조잡하여 질적으로 좋지 못한 책.

### 1962.3.1.~10.31

1967년을 우량도서 확충 해로 정하고 전 교직원이 도서 확충 운동을 전개  
교감(유재걸)을 중심으로 한 교직원들은 주로 학구 내 학부모와 유지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였고, 학교장(정규철)은 주로 안양 일대의 각 기관 각 기업체 기타 각 유지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였던바  
학구 내 학부모 및 유지들의 협조분 : 도서 1,320권  
안양 일대의 협조분 : 도서 1,600권 도서장 6개(대형)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50여만 원임.

### 1967.11.30

기 보유 도서와 새로 협조받은 도서를 합쳐서 분류하여 보면,  
과학 부문 435권/ 지리·역사 549권/ 예술 31권/ 종교·철학 9권/ 체육·오락 16권/ 문학 2,016권/ 사진류 27권/ 그림책(1학년용) 87권/ 기타 90권/ 합계 3,260권

### 1967.12.15

대내외 인사들의 협조로 내용 면이나 체제 면으로 우수한 도서가 많이 준비되었으나 이 도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도서관의 필요성이 절감되어 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 호소하였던바, 이것이 주효되어 기성회 이사회를 열고 도서관 신축 기금으로 20만 원을 교육청에 납부하기로 결의하였음.

### 1967.12.25

도서관 신축 기금 20만 원 납부

### 1968.2.1.~2.28

도서 분류와 분류 번호 기재 작업 완료

1968.1.6

도서관용 책상 10개(80명분)와 고급 철제 의자 70개 교육청에서 인수

1968.5.10

도서관 겸 교실(50평) 신축공사 착공

1968.7.5

도서관 신축이 준공되어 도서관 개관식을 성대히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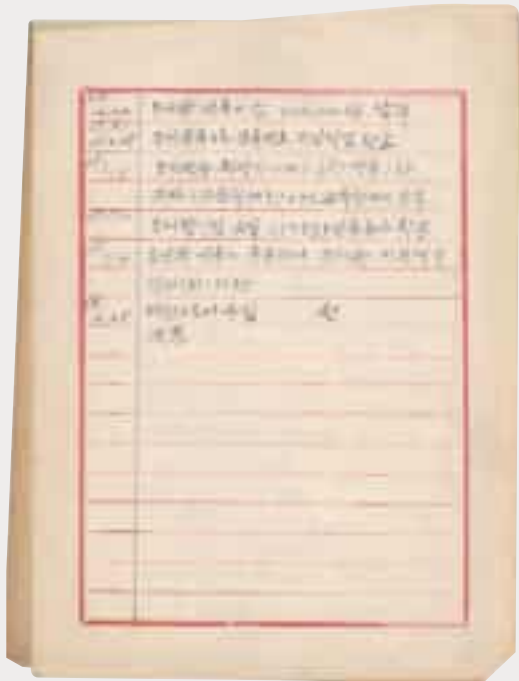
1969. 2. 28

어린이 도서 구입

일지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실려 있어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여주 수학여행 사고와 모락산 폭발 사고를 경험한 이후 학교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학교 도서관 건립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 관내 기업체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과 지역 유지가 도서관 건립에 후원한 것이 어찌면 불운을 경험한 학교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1970년대 안양남국민학교 가사 실습 시간(1973년, 안양남초등학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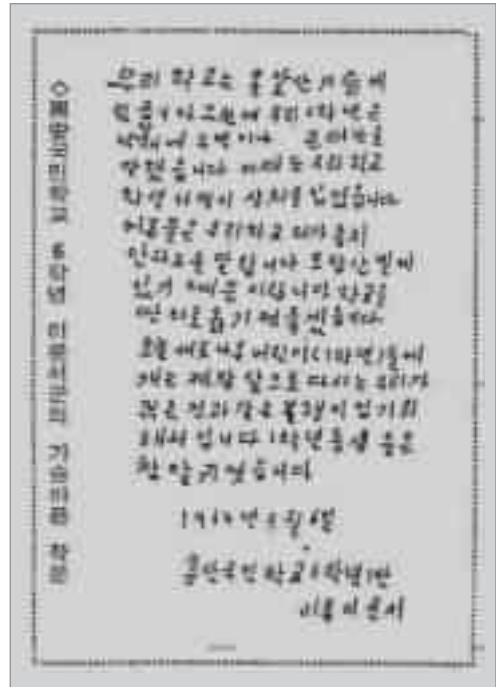
안양남초등학교 『학교 연혁지』에 기재된 1966~1969년 「도서관일지」 내용(안양남초등학교 제공)

## 6. '흥안'에서 '안양남'으로 교명 변경

흥안국민학교가 1963년 가을의 수학 여행 사고와 1964년 봄의 모락산 폭발 사고를 잇달아 겪자, 지역 주민들은 '흥안'이라는 학교 이름 때문에 학교에 불행한 일이 연달아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모락산 폭발 사고 당시 흥안국민학교 6학년 1반 이윤서 학생은 당시 취재 기자에게 “우리 학교는 모락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학년은 녀 달 새에 두 번이나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어제 또 우리 학교 학생 16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학교 터가 좋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몰압산(모락산)’ 밑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학교를 딴 터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어린이(1학년)들에게는 제발 앞으로 다시는 우리가 겪은 것과 같은 불행이 없기 위해서입니다. 1학년 동생들은 참말 귀엽습니다.”<sup>13</sup> 라는 글을 전달하였다.

학생의 글에서 흥안국민학교가 모락산 밑에 있어서 터가 좋지 않다는 어른들의 말은 모락산에 관한 구비전승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구한 말 이 산에 숨은 의병들이 일본군에게 몰살당했기 때문에 그 후로 이 산을 ‘몰압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많은 사람을 학살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 사람들은 여주 조포나루에서 배가 뒤집힌 사고도, 폭발 사고도 결국 ‘몰압산’의 액운과 관련 있다고 믿는 것이다.<sup>14</sup>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져 흥안국민학교를 다른 장소로 옮기면 좋겠다는 바람을 계 했을 것이다.

‘흥안’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명을 정한 이유에 대한 기록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흥안농지개량조합’의 경우를 고려하면 시흥군의 ‘흥’과 안양읍의 ‘안’자를 합쳐서 ‘흥안’이라고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흥안국민학교 6학년 이윤서가 취재기자에게 전달한 편지  
(『조선일보』, 1964년 3월 7일)

이윤서 학생의 바람대로 학교를 옮기지는 못하였지만, 결국 흥안국민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흥안국민학교에서 안양남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안양남국민학교로 바꾼 이유는 학교가 안양 남쪽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결국 1970년 10월, 안양남국민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었다.<sup>15</sup>

다음은 흥안국민학교를 안양남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게 해달라는 공문 내용이다.

1. 교명 변경 사항

구(현재) 흥안국민학교

신(변경 후) 안양남초등학교

2. 학교의 위치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 746번지

3. 교명 변경 사유

본교는 1945.9.25. 현 위치에서 개교한 이래 현재 16학급 1,042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는바 현 교명 흥안국민학교는 지역사회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명칭이라는 이유로 동교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 인사 등의 지배적인 여론이 안양읍 남단에 위치한 동교의 명칭을 안양남국민학교로 개칭하자는 의견인바 현재 동교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 개칭함이 적당한 조치로 사료됨.

4. 기타 참고 사항

학급 수 16학급

학생 수 1,042명

교실 수 보통 교실 16

관리실 1

교지 및 체육장 10,042㎡

교명을 바꾸고 다시 출발한 안양남초등학교의 역사는 어느새 반세기를 지나왔다. 야산을 등지고 논과 밭 사이에 조용히 문을 열었던 학교는 도시의 성장 속에서 점차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그 사이 1만 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이곳을 거쳐 지역과 사회로 나갔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가 지켜온 배움의 가치와 공동체



안양남초등학교(이정범 제공)

정신은 세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어졌고, 그 축적된 시간은 오늘의 안양남초등학교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이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와 함께 성장하며, 안양 남부 지역 교육의 중심이라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참고자료

- 「씨늘한 教室, 눈물의 靑春」, 『조선일보』, 1963년 10월 26일.  
「驪州도 울고, 安養도 울었다」, 『경향신문』, 1963년 10월 24일.  
「업어주던 우정」, 『조선일보』, 1967년 2월 7일.  
『관보』 제5680호, 1970년 10월 22일.  
안양남초등학교, 『학교력』, 해당연도.  
안양남초등학교, 『학교 연혁지』, 해당연도.  
안양남초등학교, 『학사보고서철』, 해당연도.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Ⅰ)』, 2006.  
시흥군 교육청, 「홍안국민학교 교명 변경승인 신청」, 1970년 9월 11일.  
안양남초등학교 총동문회, 「2024년도 정기총회」, 2024년 2월 28일.  
안양남초등학교(<https://aynam-e.goeay.kr/>).

註

- 1 『학교 연혁지』에는 1948년 4월 20일 이동리 546번지에 4 교실과 사택 7평을 준공하여 8월 31일에 이전하였고, 1956년 11월 20일 이동리 746번지에 4 교실을 신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학교력』에는 1948년 4월 20일에 기공하였고, 1956년 11월 20일 이동리 746번지에 4 교실 신축 낙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2 현재 법정동 평촌동.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였다.
- 3 안양남초등학교의 주소는 이전 당시 이동리 746번지였고, 지금은 호계동 1215번지이다.
- 4 안양남초등학교(<https://aynam-e.goeay.kr>) 참조.
- 5 「여주 نار루터서 대참변」, 『경향신문』, 1963년 10월 24일.
- 6 「씨늘한 敎室, 눈물의 靑春」, 『조선일보』, 1963년 10월 26일.
- 7 「오늘부터 정상수업」, 『조선일보』, 1963년 10월 25일.
- 8 「지난 2일, 남한강 용신굿 펼쳐」, 『세종신문』, 2008년 10월 10일.
- 9 「산적된 탄약 연쇄 폭발」, 『동아일보』, 1964년 3월 6일.
- 10 「땅 꺼진 대폭음 생지옥 4시간」, 『조선일보』, 1964년 3월 6일.
- 11 문광섭(1955년생, 남, 토박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거주) 제보.
- 12 「업어주던 우정 안양 흥안국민학교 조완석 군과 민경호 군 영광의 졸업」, 『조선일보』, 1967년 2월 17일.
- 13 「흥안교 어린이들 '딱한 사정' 실태 우리 학교를 떠 데로 옮겨주세요」, 『조선일보』, 1964년 3월 7일.
- 14 「여적」, 『경향신문』, 1964년 3월 6일.
- 15 안양남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교명 변경일이 12월 7일로 되어 있고, 『학교 연혁지』, 『학교력』, 『학사보고철』에는 10월 8일과 12월 7일이 혼재되어 있다. 시흥군 교육청 공고 제37호에는 흥안국민학교 교명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10월 8일자로 경기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흥안국민학교가 안양남국민학교로 변경됨을 10월 17일자로 공고하였다.

## 제2장

# 호계동의 사회단체

---

이영수 인하대학교 강사



## 1. 사회단체 개관

사회단체는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혹은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sup>1</sup>이다. 즉, 특정의 공통적인 이해나 관심, 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사회의 일차적 관계와 이념·직업·직종 등 이차적 관계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사회단체는 개별 성원 간의 비슷한 속성·이해·관심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므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 사회단체는 각 단체의 행동 방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준정부적 단체와 비정부적 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준정부적 단체는 정부를 위해 활동하거나 정부와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법적 육성 보호 지원과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다. 비정부적 단체는 지역사회에 자생하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를 모두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시민 단체 또는 비정부 기구(NGO)로 불린다.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 활동 증진과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sup>2</sup> 여기서는 호계1·2·3동의 준정부적 사회단체 현황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2. 호계동의 사회단체 현황과 활동

### 1)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문화·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면·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sup>3</sup>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 공공시설이다. 다양한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 공간 제공, 평생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자치 기능을 상실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역할만 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자,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주민자치회는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주



제4회 안양시 주민자치대회(202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한 주민 의사결정기구이다. 안양시는 현재 만안구 안양1동과 동안구 귀인동이 주민자치회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호계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2025년 1분기,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프로그램명	정원(명)	운영 요일	운영시간	월 수강료(원)	강사명	장소	
노래교실	20	월	10:00~12:00	15,000	정*다	3층 회의실	
손뜨개(기초)	15	화·목	10:00~12:00	26,000 (재료비 별도)	김*영	4층 프로그램실	
라인댄스	중급	25	화·목	10:00~11:30	15,000	김*애	3층 회의실
	초급	25	화·목	13:00~14:30	15,000	김*애	3층 회의실
바리스타	10	화·목	10:00~12:00	26,000 (재료비 별도)	정*애	*** 학원	

**호계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2025년 1분기,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프로그램명	정원(명)	운영 요일	운영시간	월 수강료(원)	강사명	장소	
통기타	초급	20	월·수	10:00~12:00	20,000	이*연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1
	중급	20	화·금	11:00~13:00	20,000		
실용영어회화	30	월·수	14:00~16:00	20,000	서*진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2	
서예(사군자)	16	금	13:30~16:30	15,000	양*영		
요가	1반	25	월·수	09:10~11:10	20,000	전*량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2
	2반	25	월·수	11:10~13:10	20,000		
	3반	25	화·목	15:00~17:00	20,000		
차밍댄스	초급	25	화·목	12:30~14:30	20,000	최*순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3
	1반	25	월·수	13:10~15:10	20,000		
	2반	25	화·목	10:30~12:30	20,000		
연필화	16	목	13:00~16:00	15,000	황*원	행정복지센터 4층 강당	
캘리그라피	16	금	13:00~16:00	15,000	전*민		
노래교실 (트로트)	40	월·수	10:30~12:30	20,000	전*아		
탁구	초급	20	화·목	13:30~15:30	15,000	원*애	호계체육관 3층
	고급	20	월·수	13:30~15:30	15,000		
라인댄스	30	월·수	09:30~11:30	15,000	김*숙	다목적복지회관 1층	
몸살림운동	20	화·목	09:30~11:30	15,000	이*자		

호계3동 주민자치 프로그램(2025년 1분기,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프로그램명	정원(명)	운영요일	운영시간	강사명	월 수강료(원)	장소	
요가	아침반	35	월·수	08:30~10:00	서*연	16,000	3층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A반	35	화·목	09:30~10:30	정*경		
	B반	35	화·목	10:40~12:10	정*경		
	C반	35	월·수	13:30~12:00	서*연		
	저녁1반	35	월·수	18:00~19:30	윤*숙		
	저녁2반	35	월·수	19:30~21:00	윤*숙		
프롬테라피	25	월·수	13:30~15:30	임*원	18,000	3층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웰빙댄스	24	화·목	14:00~16:00	이*현	18,000	3층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라인 댄스	A반	27	화·목	19:00~21:00	김*숙	18,000	3층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B반	27	수·금	15:30~17:30	김*숙		
차밍댄스	25	화·목	16:00~18:00	김*숙	18,000	3층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난타	A반	16	금	09:30~11:30	최*정	15,000	3층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B반	16	금	11:30~13:30	최*정		
노래교실	70	목	10:00~12:00	전*예	15,000	3층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탁구	초급A	22	월·수·금	09:30~10:30	백*현	16,000	3층 주민자치센터 탁구실
	초급B	22	월·수·금	10:40~11:40	백*현		
	중급	20	월·수·금	12:30~13:30	지*근		
서예교실	20	화	09:00~12:00	장*자	16,000	3층	
문인화(사군자 /캘리그래피)	20	수	13:00~17:00	양*영	18,00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실	
통 기타	레벨1 초급	20		13:30~15:00		16,000	3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실
	레벨2 중급	20	화·목	15:00~16:30	서*호		
	직장인초급	20		19:00~20:30			
중국어(초급)	20	금	10:00~12:00	윤*화	15,000	3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실	
영어(초급)	20	화	10:00~12:00	윤*경	15,000	3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실	
작은도서관		월~금	10:00~17:00			3층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월~금	09:00~18:00		무료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자유탁구 야간	오후	30	월~금	15:00~18:00		10,000	3층 주민자치센터 탁구실
	30	8:00~21:00					
헬스 오후 야간	오전	70	월~금	09:00~13:00		15,000	3층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70	3:00~17:00					
	70	7:00~21:00					

호계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제5회 안양시 주민자치대회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호계2동’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호계2동은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주민과 새로운 주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을 맞았다. 호계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동네 웰컴 안내서’란 리플렛을 제작해 호계2동을 소개하고, 호계2동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을 개최하여 신규 주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 2) 통장협의회

통장협의회는 행정 단위인 통의 사무를 맡아보는 통장들의 협의체이다.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주민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 및 시·군·구 행정 사항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행정의 보조자이며,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건의하는 소통 창구이며, 복지 사각지대나 긴급 복지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며,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매월 개최하는 통장협의회 월례 회의는 동과 그 상급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행정 사항을 전달하고 지역 현안을 협의한다.



2023년 호계2동 통장협의회 봄 आय회(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 3)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회의 하부조직으로, 여성으로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sup>4</sup> 환경 정화, 불우



2023년 호계1동 새마을부녀회 활동 모습(동안구청 제공)



2023년 호계2동 새마을부녀회 활동 모습(동안구청 제공)



2023년 호계3동 새마을부녀회 활동 모습(동안구청 제공)



이웃 돕기,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역할을 한다. 읍·면·동 단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새마을부녀회의 활동도 받을 맞추고 있다. 매년 경로잔치,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김장 나누기 등의 활동을 한다. 새마을 대청소, 재활용품 모으기, 마을 가꾸기 등을 통해 환경 정화에도 힘쓰고 있다.

#### 4)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23년 호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활동 모습(동안구청 제공)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회의 하부조직으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sup>5</sup> 방역 활동, 태극기 달기, 행락철 교통 지도 등이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주요 활동이다.

#### 5) 자율방범대



2023년 호계3동 자율방범대(동안구청 제공)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봉사 단체이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7조(자율 방범 활동)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② 청소년 선도 및 보호, ③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

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으로 명시하였다. 보통 차량이나 도보로 지역 순찰·청소·소년 선도·주취자 귀가·현행범 검거·범죄 예방 및 신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6) 자율방재단



2023년 호계3동 자율방재단 활동 모습(동안구청 제공)

자율방재단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자율방재단은 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태풍, 폭염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

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자율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 구조대나 재난 관련 NGO 근무 경력자, 안전 관련 교육 수료자,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술 보유자 등은 우대되거나 추천받을 수 있다.

## 7)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2024년 호계3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활동 모습(동안구청 제공)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독립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진실·질서·화합의 이념으로 선진 한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 의식을 함양하고 공동 운명체로서의 국민화

합을 이루며 선진국형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6</sup> 매월 1일 바르게살기운동의 날에 정부의 주요 시책이나 시대적 현안 등에 대한 전국 동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 8) 체육회

동 체육회는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체육 단체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역 체육대회 및 행사 개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이 주요 활동이다. 매년 개최하는 안양 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할 동별 선수단을 조직하고 지원한다.

## 9) 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는 대 비정규전 수행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 및 특수 지역 그리고 직장에 설치하는 협의회이다.<sup>7</sup> 지역 단위에서 국방 및 안보 강화를 위해 군·민·관이 협력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예비군 훈련 지원, 민방위 활동, 재난 대응, 군 장병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0)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훈·안보·사회봉사 단체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 각국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8</sup> 1954년 정부 지원을 받아 창립된 이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산하고, 사회봉사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 복지를 구현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 중인 민관 협력 기구



2024년 호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모습(동안구청 제공)

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호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7년 형편이 어려운 독립운동가 후손을 찾아내 치과 진료를 지원하였다. 2024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보고 대회에서 호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유공 표창을 받았다. 호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김 씨 노인 정착기 : 따뜻한 변화와 여정'은 우수사례로 공유되었다.

## 1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여하여 지역의 사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주민이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여하여 지역

안양시는 매년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지역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주민참여예산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다. 평가회는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1년간의 성과 보고, 우수사업 사례 공유, 6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한다.



2012년 호계3동 동V터전 활동 모습(동안구청 제공)

## 13) 동V터전

동V터전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거점센터 사업으로,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동 단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안양'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동

V터전은 자원봉사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함께 V」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 단위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지원을 하는 ‘함께 돌봄’,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영 메이커스(Young Makers)’, ‘함께 미래’,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봉사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함께 마을’이 프로젝트의 내용이다.<sup>9</sup>

#### 14) 공동주택협의회<sup>10</sup>

공동주택협의회는 호계3동 관내 11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호계3동 동장이었던 홍종석이 관내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현 공동주택협의회 회장인 전병숙과 만나게 되었다. 전병숙은 1984년 삼천리아파트 관리인으로 들어가서 현재까지 40여 년 동안 삼천리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관리소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홍종석 동장은 전병숙에게 호계3동에 아파트가 많으니 아파트 소장들이 모여서 이웃 주민 간에 좋은 얘기를 공유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듣고 전병숙이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관리소장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당시 관리소장들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공동주택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동주택협의회 초창기에는 ‘동양(현 금호), 리치벨리, 삼익, 삼호 우주, 서부 인터빌, 서안이노빌, 양수, 양우내안에펠리스, 영풍, 일신건영장미, 태하, 호계e편한세상, 호계금호어울림, 호계아크로리버, 호계현대, 호계현대홈타운2차’ 등 17개 아파트 관리소장이 참여하였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공동주택협의회에 참석하는 아파트 명단은 ‘금호, 삼천리, 서부인터빌, 서안이노빌, 양수, 양우내안에펠리스, 영풍, 태하, 평촌신원아침도시, 호계금호어울림, 호계아크로리버, 호계현대’ 등 12개이다. 공동주택협의회 설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참석하는 아파트는 10개(금호, 삼천리, 서부인터빌, 서안이노빌, 양수, 양우내안에펠리스, 영풍, 태하, 호계금호어울림, 호계현대)이고, 새로 유입된 아파트가 1개(평촌신원아침도시)이다.

전병숙은 아파트에 관리업체가 생기면서 관리소장의 참여율이 낮아졌다고 한다. 관리업체에서는 관리소장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아파트로 순회를 시킨다. 그러다 보니 관리소장 중에서 공동주택협의회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공동주택협의회는 매달 27~30일 사이에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오전 11시에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 순서

※ 사항명칭

순번	내역	페이지
1	의사결정 사항명칭	1
2	주거복지지원사업	2
3	고령층주민 건강관리 지원사업	3
4	안양시 장애인 가구 출산 지원	4
5	2024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5
6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6
7	평생학습 재능 기부 사업 강사·기관 모집	7
8	2024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8
9	안양시 메타버스 체험존 '메타존' 운영	9
10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10
11	종량제봉투 중고 거래 금지	11
12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	12
13	소규모 주소 정제 공공서비스 안내	13

2024년 공동주택협의회 정례회 회의자료

안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한다. 2024년 7월 공동주택협의회 정례회 안건은 “①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②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 구역 확대, ③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④ 안양시 장애인 가구 출산 지원, ⑤ 2024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⑥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⑦ 평생학습 재능 기부 사업 강사·기관 모집, ⑧ 2024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⑨ 안양시 메타버스 체험존 ‘메타존’ 운영, ⑩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⑪ 종량제봉투 중고 거래 금지, ⑫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 ⑬ 소규모 주소 정제 공공서비스 안내” 등이었다. 공동주택협의회 회의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주로 시정 홍보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주택 공동협의회 회원들이 행정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동장에게 요청한다.

초창기에는 단합대회와 호계3동 관내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 운동을 하며 회원들 상호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 전병숙 회장은 회원들 상호 간에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한다.

## 참고자료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권(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 이기봉 외,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8.
- 이종식,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운동 원리-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한국비영리학회, 2005.
- 「안양시 호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어르신들과 힐링 나들이」, 『경인뉴스』, 2023년 9월 8일.
- 「안양시 호계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어르신 위한 사랑 나눔 자장면 행사 개최」, 『스카이데일리』, 2024년 5월 15일.
-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 7월 공동주택협의회 정례회 회의자료」, 2024.

## 註

- 1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2 이석형, 「사회단체」, 『디지털달성문화대전』(<https://dalseong.grandculture.net>).
-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4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회칙」.
- 5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 회칙」.
- 6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http://www.bareuge.or.kr/>).
- 7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
- 8 한국자유총연맹(<https://www.koreaff.or.kr/>).
- 9 안양시 자원봉사센터(<https://www.anyang1365.or.kr/>).
- 10 전병숙(1949년생, 남, 現 공동주택협의회 회장), 2024년 10월 16일 제보 내용과 「2024년 7월 공동주택협의회 정례회 회의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제3장

# 군포공소에서 성장한 호계동성당

---

이영수 인하대학교 강사



## 1.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시키다

호계동성당은 경기도 시흥군 남면 금정리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군포시와 안양시의 경계가 되는 안양천 건너편의 금정리에는 천주교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은 1920년대에 신자 수가 40여 명에 달하였다. 이후 1954년 안양리 장내동에 안양 본당이 설립되면서 호계동성당의 모체가 되는 군포 공소가 금정리 교우촌에 세워졌다. 당시 군포 공소에는 강당이 따로 없어서 1971년 4월 남면 금정리·당리, 안양읍 호계리 일대 천주교 신자들이 힘을 모아 금정리 206번지에 강당을 세워 공소 강당으로 사용하였다.<sup>1</sup>

『천주교 장내동 교회사』에는 “1971년 11월 20일 금정리 교우들이 중심이 되어 그 인근 벌터·당말(당리)·산본리, 호계동 교우들의 통합 경당인 군포경당(건평 50평)이 지금의 구군포와 신군포 사이의 길 개울 옆(금정리)에 건립되어, 양병목(루가) 주임신부와 이정운(베드로) 보좌신부, 그리고 많은 신자가 참여한 가운데 윤공희(빅토리노) 주교의 집전으로 축성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경당이 호계동성당의 모체가 되었다.”라고 한다.<sup>2</sup>

앞서 언급한 『가톨릭신문』 기사와 『천주교 장내동 교회사』의 내용은 건물이 세워진 시기가 1971년 4월이냐 11월이냐, 건물의 용도가 공소 강당이냐 경당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금정리에서 호계동성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천주교 서울교구는 1931년 5월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의 땅과 논 900여 평과 시흥군 남면 금정리의 땅 1,000여 평을 매입하였다.<sup>3</sup> 이 땅이 지금의 호계동성당과 관련 있는 땅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1949년 6월 21일 제정된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서울교구에서 1937년 매입한 안양리 땅 6,000여 평이 토지 경작자 27명에게 분배되었다<sup>4</sup>는 기록으로 유추해 볼 때 호계리와 금정리의 땅이 농지였다면 분배 농지가 되었을 가능



금성통신 안양공장 조감도에 표시된 호계동성당(1970년대, 이정범 제공)

성이 있다.

1970년 중반 이후 호계동과 군포·의왕 일대에 공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자, 천주교 신자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본당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5년 12월 4일 군포 공소는 본당으로 승격하고 안양성당에서 분리되었다. 이후 1979년에 성당이 위치한 행정구역 이름을 따서 ‘천주교 호계동성당’으로 개칭하였다.

본당 승격 당시 명칭은 ‘천주교 군포교회’였다. 1984년 9월 설립된 지금의 군포성당과 다른 성당이다. 당시 ‘군포’라는 성당 명칭이 붙은 이유는 호계동성당이 세워진 지역의 이름과 관련 있다. 안양시 지명 가운데 ‘구군포’라는 지명이 있다. 이 지역은 ‘군포장’이 서는 곳이었고, 장터 앞을 지나는 지금의 안양천을 ‘군포천’이라 불렀다. 1925년 대홍수로 하천이 범람하여 피해를 본 군포장은 기존 장터가 폐쇄되면서, 1926년 군포장역(현재 군포역) 앞으로 이전하였고, 안양역 옆에 안양시장이 신설되었다. 이후로 군포장이 있던 일대를 ‘구군포’라 불렀다.

1975년 군포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하면서 그동안 안양성당이 본당으로 담당하던 구역을 나누었다. 당시 두 본당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sup>5</sup>

〈표 1〉 1975년 안양성당과 군포성당 관할 구역

본당	관할구역	
안양성당	안양시	전역(호계동 제외)
	시흥군	과천면, 수암면(단, 수암면 고잔리 제외)
군포성당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동 일부, 관양동 일부
	시흥군	남면(당리, 금정리, 당정리, 산본리), 의왕면(청계리, 학의리, 포일리, 고천리, 오전리)

## 2. 신자들의 헌신으로 세우는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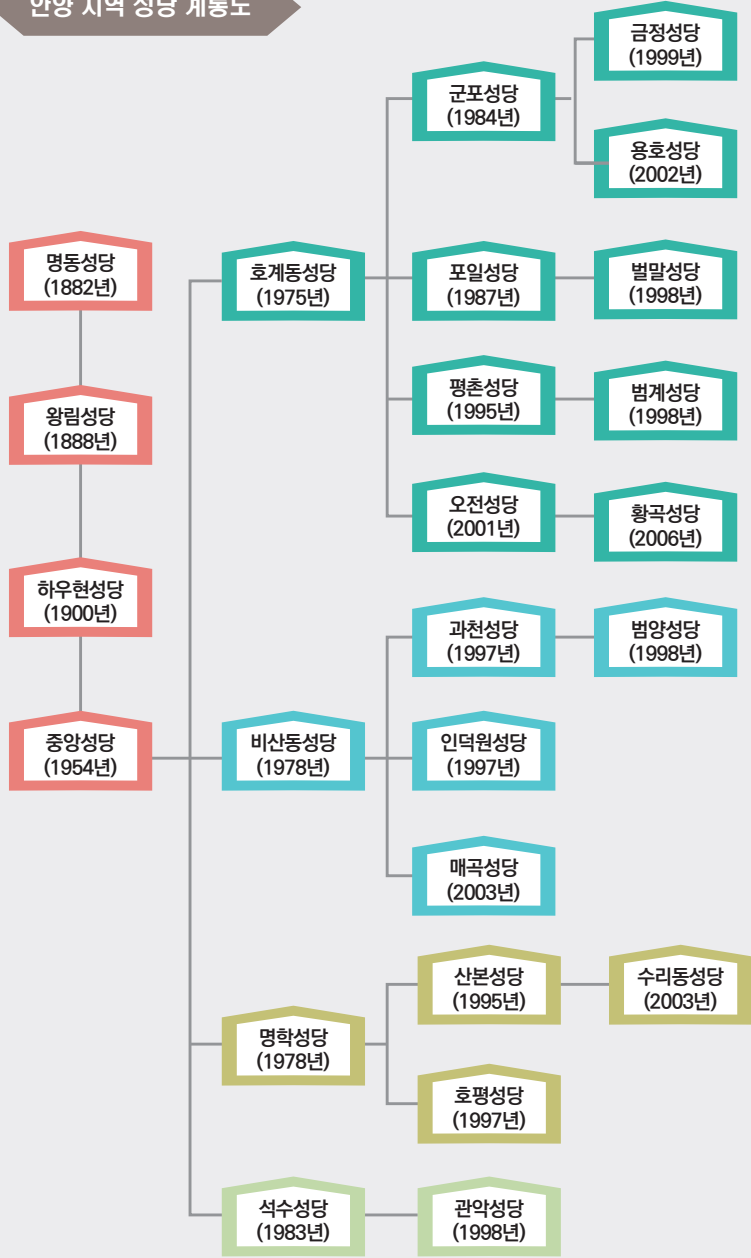
수원교구는 1974년 8월 군포 공소의 본당 승격을 대비하여 안양시 6차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 내에 640평 규모의 용지를 매입하였다. 군포 공소의 신자들은 1974년 10월 성당 신축기성회를 조직하고 금정리 안금정 출신 김정옥(베드로)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김정옥은 1970년대 초반 금정2리가 새마을운동의 성공 사례로 대통령상을 받을 당시 이장을 맡았을 정도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1, 2, 5대 호계동성당 사목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성당을 짓는 중에 군포 공소는 본당으로 승격하였고, 고건선(바오로)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되었다.

1976년 3월 15일 건축을 시작하여 1년 만에 132평 규모의 성당과 62평 규모의 사제관, 기타 부속 시설을 완공하였다. 호계동의 성당부지는 오솔길 외에는 통행로가 없던 야산이었다. 신자들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횃불을 밝혀 산 중턱을 깎고 벽돌을 직접 찍어내면서 성당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76년 5월 9일 안양성당 주보에 서강하(마태오) 주임신부가 올린 글을 보면, 군포성당의 신자들이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연말에 우리 본당에서 군포 공소가 새 본당으로 분리되어 간간 이래 그곳 교우들은 성당과 사제관을 짓기 위하여 벌써 5, 6개월 동안 계속 매일 같이 작업을 하고, 어떤 이는 빛을 얻어서까지 자기들의 성당을 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제 겨우 지하실 공사를 마친 실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여 세대가 4천만 원의 공사를 그야말로 거의 무일푼으로 그저 억척같은 투지로만 시작하였으니 그 고충은 알 만하지 않습니까?

본당 시간을 내주면서 이렇다 할 보조도 없이 내보내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는 형편이며 그들의 기

안양 지역 성당 계통도



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은 모금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타교구 본당인 서울 왕십리 본당에서도 200여만 원씩 모금을 하여 왔는데 과거에 한 본당 식구였던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sup>6</sup>

호계동성당은 신자가 계속 증가하여 군포성당을 분당하게 되었다. 수원교구에서는 1981년 10월 군포성당 분당을 위해 군포시 금정동에 850평의 성당 용지를 매입하였다. 호계동성당이 분당할 때 안양성당 신자들이 성당 건축에 힘을 보탰던 것처럼, 호계동성당에서는 군포성당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1983년 9월 10일~11일에 바자회를 열었다. 의류·가정용품·생필품·문구·완구·화장품·도자기 등을 판매하였으며, 지역별로 수집한 기증품 판매대도 마련하였다.<sup>7</sup> 1984년 9월 군포성당이 분당하였다.

신자들이 직접 산 증턱을 깎아내고 벽돌을 찍어서 쌓아 올린 호계동성당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낡았다. 신자 수는 계속 늘어서 공간이 협소해졌다. 새로운 성당을 건축할 때가 된 것이다. 1996년 3월 1일 성당 건축허가를 받아 3월 25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1997년 12월 26일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된 새 성전에서 첫 미사를 드렸다.

1998년 5월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교구 최덕기 주교 주례로 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10여 명의 교구사제와 1,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였다. 2년간 43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지하 2층, 지상 3층의 성당을 완공하였다. 연 면적 1,477평의 규모에 대성당, 소성당, 강당, 교리실, 사제관, 수녀원, 사무실 등이 갖춰져 있었다.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호계동성당의 신부와 신자들이 헌신적인 노력 봉사를 해 왔던 것으로 주변에 알려졌다.<sup>8</sup>

### 3. 호계동성당의 주보성인

호계동성당의 주보성인은 성 최경환(崔景煥, 1804~1839) 프란치스코이다.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한국 교회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아버지'와 '이성례 마리아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최경환은 충청도 홍주군(현 충청남도 홍성) 다릿골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한국 교회 초창기부터 천주교를 믿었다. 최경환은 본래 성질이 괘괄해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곧잘 다투곤 하였다. 최경환은 이러한 성질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였다. 훗날 최경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온화해진 성품을 보고 탄복하였다.

최경환이 살던 지방의 교우들은 오랫동안 성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였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대부분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최경환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서울, 강원도, 경기도 부천 등을 전전하였다. 이후 경기도 과천 수리산 뒷뜸이 마을에 정착하였다. 뒷뜸이 마을 사람들은 담배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담배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최경환은 산을 개간하여 밭을 일구고 살면서 새로 찾아오는 교우에게는 집을 마련해 주었다. 밤에는 교우들을 모아 교리를 가르치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등 마을을 교우촌으로 만들어나갔다. 훗날 최양업 신부는 아버지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부친은 자주 묵상을 하고 심신 서적을 대하였으며, 언제나 종교와 신심 이외의 것은 말하지 아니하셨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은 힘 있고 설복시키는 능력이 있어 모든 이에게 천주의 사랑을 심어주셨다.”

1863년 모방(MAUBNT) 신부가 입국하여 조선에서는 서양 신부가 전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밀리에 신학생을 선별하였다. 이때 어느 교우가 최경환의 맏아들이 총명한 아이라며 천거하였다. 모방 신부는 최경환의 아들인 최양업(토마스)을 신학생으로 선발하기 위해 부부를 찾아갔다. 그때 최경환은 “신부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뜻이 아니라 천주의 부르심이요, 소명입니다. 저희 집안에 이러한 기쁨이 찾아올 것은 참으로 몰랐습니다.”라며 흔쾌히 승낙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최경환은 의연금을 모아 옥에 갇힌 교우들과 가난한 이들을 찾아다니며 나눠주었고, 순교자들의 유해를 거두어 안장하였다. 그리고 집안사람들에게 순교할 준비를 하라고 이르고 성패와 성물을 감추었다. 7월 13일 밤, 서울에서 내려온 포졸들이 마을을 포위하여 그의 집으로 들어왔다. 최경환은 포졸들에게 “어째서 이렇게 늦었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중이니 좀 쉬면서 요기라도 하고 가지시요.”라며 극진히 대접하였다. 다음 날 아침 최경환 내외는 교우촌 신자 40여 명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다.

호계동성당 주보성인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포도청에 도착한 부부는 서로 분리되어 하옥되었다. 포도대장 앞에 일행과 함께 끌려 온 최경환은 다른 이들보다도 더 혹독한 매질과 고문을 받았다. 태장 340대, 곤장 110대를 맞았으나 결코 신앙을 잃지 않았다. “혼자만 믿을 것이지 왜 남을 꼬드겼느냐?”는 포도대장에게 “천주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이고, 천주를 섬겨 저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최경환은 자신에게 가해진 모진 형벌에 살이 뜯겨나가고 흰 뼈가 드러났다. 9월 11일 마지막 매를 맞고 옥으로 돌아온 최경환은 “목숨을 그리스도에게 바쳐 목을 잘리고자 한 것이 내 원이었으나 이대로 옥에서 죽는 것을 천주께서 바라신다면 그 뜻대로 될지이다.”라고 말하고 순교하였다. 1839년 9월 12일, 그의 나이 서른다섯 때였다.

그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다.<sup>9</sup> 호계성당처럼 주보 성인으로 최경환 프란치스코를 모시고 있는 곳은 서울 역삼동성당, 그리고 울산에 있는 성당 등 3곳이 있다.

#### 4. 호계동성당의 역대 주임신부

천주교의 성당은 성직자인 신부와 수도자인 수녀·수사, 신자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신부는 주임신부와 보좌신부로 구분한다. 주임신부는 본당 사목을 위하여 교구장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임명된 사제로, 본당신부(本堂神父)라고도 한다.<sup>10</sup> 주임신부는 본당의 사목을 맡은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본당 공동체의 구성원을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sup>11</sup> 보좌신부는 주임신부의 권위 아래 그와 더불어 협의와 연구로써 본당 사목에 동참하고 주임신부를 보좌하도록 임명된 자로서 주임신부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임무를 대행한다.<sup>12</sup> 1975년 12월 4일 설립 이후 현재까지 15명의 주임신부가 호계동성당을 이끌어 왔다.

3대 주임신부 김영배(요한)는 1981년 1월 자신의 영명축일 행사를 사양하고 그 대신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본당의 60세 이상 노인 신자 82명에게 푸짐한 선물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노인 신자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시종일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고 주임신부의 따뜻한 정에 깊이 감사했다. 호계동성당은 이 잔치를 계기로 매년 본당 사제의 영명축일 행사 대신 경로잔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up>13</sup>

〈표 2〉 호계동성당 역대 주임신부

성명	재임 기간	성명	재임 기간
1대 고건선(바오로) 신부	1975.12.01.~1977.04.15.	9대 안형노(야고보) 신부	2003.09.30.~2007.08.28.
2대 한봉주(골레또) 신부	1977.04.25.~1980.04.16.	10대 최경남(베네딕도) 신부	2007.08.28.~2009.09.01.
3대 김영배(요한) 신부	1980.04.16.~1984.09.18.	11대 박경훈(요셉) 신부	2009.09.01.~2012.08.28.
4대 이규철(요셉) 신부	1984.09.18.~1987.03.24.	12대 김종현(도미니코) 신부	2012.08.28.~2016.06.20.
5대 임언기(안드레아) 신부	1987.03.24.~1988.02.24.	13대 이윤섭(요한사도) 신부	2016.07.05.~2017.12.18.
6대 송병수(시몬) 신부	1988.02.24.~1995.02.07.	14대 최영균(시몬) 신부	2017.12.19.~2022.06.14.
7대 최경환(마티아) 신부	1995.02.08.~2001.01.30.	15대 이승준(아우구스티노) 신부	2022.06.14.~2024년 현재 <sup>14</sup>
8대 서강하(마태오) 신부	2001.01.30.~2003.09.30.		

호계동성당의 후보 성인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이름이 동일한 7대 주임신부 최경환(마티아) 신부는 호계동성당 재임 중이던 1998년 11월에 회갑을 맞이하였다. 최경환 신부는 회갑연을 여는 대신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사제서품 35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모아둔 강론 원고를 정리하여 『마르지 않는 샘』을 발간해 이날 봉정식을 가졌다.<sup>15</sup>

9대 주임신부 안형노(야고보) 신부는 매일 아침 성당 지하의 방에 모여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을 위한 위령기도를 시작하였다. 위령기도를 주관하는 호계동 본당 연령회는 본당에서 선종한 사람이나 기도를 신청한 연령의 기일을 양력과 음력으로 기록해 매일 연령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연중 기도 지향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였다. 매일 위령기도를 위해 모이는 이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본당의 다른 단체에서도 기도를 부탁하였다. 위령기도는 호계동성당 연령회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sup>16</sup>

호계동 본당은 2019년 수원교구 제2대 리구에서 주최한 ‘새 가족 찾기 운동’에서 선교 우수 본당으로 선정되었다. 14대 주임신부 최영균(시몬)이 선교 TF팀을 꾸려 체계적으로 선교 활동에 나선 결과였다. 최영균 신부가 부임한 2017년 12월은 호계동성당 일대의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당시 호계동성당의 신자들이 30% 정도 줄었다. 신자들이 단시간에 빠지다 보니 본당에 활력이 사라지게 되었고, 주임신부는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교 TF팀을 구성하였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관할 구역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홍보 게시물을 붙이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도 아파트 전면에 걸었다. 세례받은 새 신자들을



초대 주임신부 고건선 바오로  
(1975.12.01.~1977.04.15.)



3대 주임신부 김영배 요한  
(1975.12.01.~1977.04.15.)



7대 주임신부 최경환 마티아  
(1995.02.08.~2001.01.30.)

1년간 밀착 관리하는 ‘산타페(거룩한 믿음)’는 호계동성당의 특별한 선교 방법이었다.<sup>17</sup>

2024년 11월 현재 호계동성당 주임신부는 이승준(아우구스티노)이다. 이승준 신부는 2006년 9월 15일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 14일 호계동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이승준 신부는 2019년 2월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부국장 시절,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과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사연 공모전 ‘내 기억 속의 김수환 추기경’에서 「따뜻하고 겸손하신 추기경님을 기억하며」로 우수상을 받았다.<sup>18</sup>

호계동성당은 박헌배(야고보, 서품일 1987.02.06), 배명섭(안드레아, 서품일 1995.01.20), 한용희(대건안드레아, 서품일 2014.12.05), 김지수(바오로, 서품일 2015.12.04), 이재우(요셉, 서품일 2018.11.16), 이상규(프란치스코, 서품일 2018.12.07), 조창선(도미니코, 서품일 2019.01.17)의 7명의 신부를 배출하였다. 이들은 호계동성당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수원가톨릭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부가 된 사람들이다. 성당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신부들을 많이 배출한다.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서 신부가 배출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 호계동성당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이곳 출신 신부가 많은 편은 아니다.



13대 주임신부 이윤섭 요한사도 주임신부 송별 미사(2017년, 호계동성당 제공)



14대 주임신부 최영균 시몬 부임(2017년, 호계동성당 제공)

## 5.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사목

호계동성당이 건립되었을 당시, 성당 주변은 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이었다. 호계동성당 관할 구역에는 공장에 다니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다. 1978년 7월부터 1980년 4월까지 수원교구 교육원장을 역임한 후 호계동성당으로 부임한 김영배 신부는 안양 근로자회관과 호계동성당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고 혼인성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1981년 10월 15일 ‘약혼자 교실’ 강좌를 개설하였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8시 30분 호계동성당에서 진행된 ‘약혼자 교실’은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에게 젊은이들의 심리로부터 가정경제·성의학·출산에 관한 지식·혼인에 대한 사회법·교회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혼인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교회법상의 결혼, 사목 및 교회 행정상의 결혼, 민법상의 결혼 등이 강좌의 주요 내용이었다.<sup>19</sup>

약혼자 교실이 언제까지 운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983년 6월 5일 발행된 『가톨릭신문』의 안양 근로자회관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호계동 젊은이 교실’이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호계동성당에서 진행된다는 내용을 보면, 약혼자 교실이 호계동 젊은이 교실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김영배 신부가 1984년 9월에 다른 성당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 1983년 6월 12일 발행한 『가톨릭신문』 제1359호에 호계동 젊은이 교실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sup>20</sup>

「호계동 ‘젊은이의 교실’ 개설, 공동체 형성에 한몫」, 『가톨릭신문』 1983년 6월 12일

안양 시내 공장 밀집 지역 관할 본당인 수원교구 호계동 본당(주임·김영배 신부)은 최근 근로자를 비롯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젊은이 교실을 개설하여 근로 청년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4일 문을 연 호계동 본당 젊은이 교실은 젊은 근로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인격 연마와 사귀의 기회를 줌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젊은이 공동체를 뿌리내리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당 관할 구역 내에 크고 작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근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온 호계동 본당은 이번에 안양 근로자 회관(관장·한성인)의 협조를 받아 10주 과정의 근로자 교실을 시작했다.

연속성을 띤 젊은이 교실은 그룹 다이내믹스·성교육·응급 처치·생화의 지혜 등 근로 청년들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아를 완성해 나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젊은이 교실의 강사진은 안양 근로자회관 한성인 관장을 비롯한 안양 지역 내 인사들로 구성되어



호계동성당 주변 공업지역(1980년대, 이정범 제공)

젊은이들이 생활과 밀접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래서 4회를 실시한 5월 말까지 20~40명의 젊은이가 젊은이 교실에 참여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반면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호계동성당에서 열리는 젊은이 교실에는 참석자 수의 증감이 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직장 근무시간 등으로 계속된 참가가 어려운 젊은이들도 있지만, 젊은이, 특히 근로 청년들이 많은 안양 지역에서는 호계동 본당의 젊은이 교실과 같은 근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 6. 성당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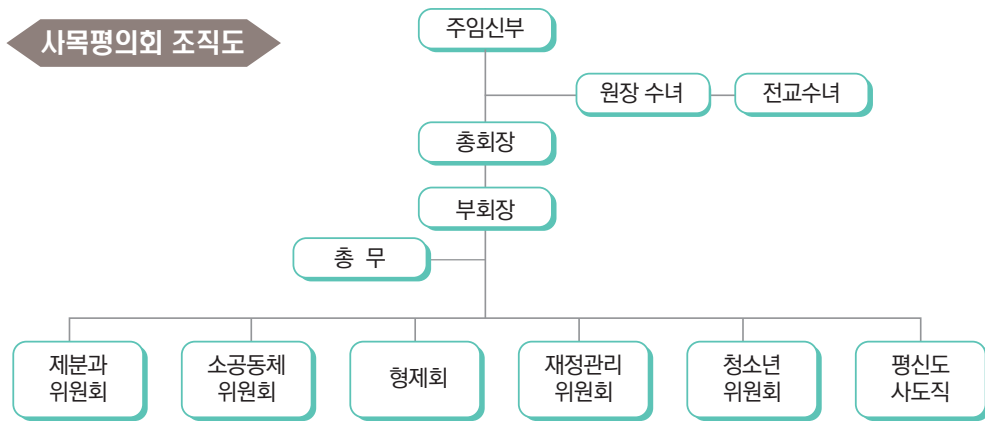
### 1) 사목평의회

호계동성당 사목평의회는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에 따라 교회의 목적인 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이다. 주임신부가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고 자문하며, 사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하는 성격을 가진다. 본회는 주임신부, 수녀님, 그리고 주임신부가 임명한 평신도로 구성된다.

사목평의회는 주임신부가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총회장은 본회의 부의장으로 주임신부의 위임을 받아 각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 및 조정을 하며,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각 위원회 회장들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총무는 회의제반 업무를 준비하고 수행한다. 이들로 구성된 본회는 제분과위원회·소공동체위원회·형제회·재정관리위원회·청소년위원회·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6개 위원회가 속해있다.<sup>21</sup>



## 2) 소공동체위원회

호계동성당 소공동체위원회는 주임신부를 도와 소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사목평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주임신부가 결정한 것의 실행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며, 성당 관할 구역 내 교우들의 소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있다. 또한 지역장과 구역장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목평의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소공동체위원회는 회장, 총무, 지역장, 구역장, 반장으로 구성되며, 그 외에도 성당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임을 둘 수 있다. 호계동성당은 지역 관할을 ‘호계 지역, 럭키 지역, 호원 지역, 덕현 지역, 삼덕 지역, 현대 지역, 대림 지역, 기타’ 등 총 8개로 구분하고



호계동성당 주변 재개발(201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있다.<sup>22</sup> 이 가운데 ‘기타’는 호계동성당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면서도, 소속 성당 대신 호계동성당에 출석하는 신자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성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호계동성당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호계동성당은 7개 지역(기타 제외)을 중심으로 구역과 반을 조직하여, 교구의 사목 방침인 ‘소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사귄, 섬김, 나눔’이라는 소공동체 정신에 기반하며, 현대 교회 안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침체 현상, 소외감,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공동체 위원회는 신부가 임명한 평신도들로 구성된다.<sup>23</sup>

한편, 성당의 신자 수는 2016년 성당 주변이 재개발되기 전까지 약 5,000명 수준이 었으나, 재개발로 인한 이주로 인해 감소하였다. 2024년 11월 기준, 호계동성당의 교적상 신자 수는 총 3,487명이다.<sup>24</sup> 교적 정리는 매년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교구청에 통지된다.

2025년 12월이면 호계동성당 설립 50년주년을 맞이한다. 본당은 지난 50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으며, 그동안 1984년 군포성당, 1987년 포일성당, 1995년 평촌성당, 2001년 오전동성당이 호계동성당에서 분당하였다.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성당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4년 10월 27일까지는 ‘엠블럼, 슬로건 및 성구’ 공모전이 진행되었으며, 희년 준비위원회는 역대 신부들



호계동성당 관할 구역

의 사목 활동을 정리하고, 『사진으로 보는 50년사』를 디지털로 제작하여 성당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음악회와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과 후원금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우물 파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sup>25</sup> 이처럼 호계동성당은 반세기의 역사 위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지역사회와 신자 공동체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고 있다.

## 참고자료

- 천주교 수원교구 장내동 교회, 『천주교 장내동 교회사』, 1989.  
『가톨릭신문』.  
『가톨릭평화신문』.  
「호계동성당 후보」.  
『가톨릭사전』(<https://maria.catholic.or.kr/>).  
『이기대성당』(<http://www.catholicbusan.or.kr/>).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성당』(<http://www.hogye.or.kr/>).

## 註

- 1 「[교구 본당의 역사를 따라] 안양대리구 호계동 본당」, 『가톨릭신문』, 2016년 7월 10일.
- 2 천주교 수원교구 장내동 교회, 『천주교 장내동 교회사』, 1989, 116쪽.
- 3 앞의 책, 79쪽.
- 4 앞의 책, 82~83쪽.
- 5 앞의 책, 116쪽.
- 6 앞의 책, 117~118쪽.
- 7 「10일, 안양 호계동 신축성당건립 바자회」, 『가톨릭신문』, 2011년 5월 27일.
- 8 「[서성당 봉헌식] 수원교구 호계동·서둔동 성당 봉헌」, 『가톨릭신문』, 1998년 5월 17일.
- 9 「함께 보는 우리 성인과 복자들(9) 성 최경환과 복자 이성례 부부」, 『가톨릭신문』, 2024년 8월 22일, 「우리 교구 이곳저곳」 (2) 수리산 성지, 『가톨릭신문』, 2015년 9월 13일.
- 10 「주임신부」, 『가톨릭사전』(<https://maria.catholic.or.kr/>).
- 11 『이기대성당』(<http://www.catholicbusan.or.kr/>).
- 12 앞 사이트.
- 13 「안양 호계동 금신부, 매년 계속키로」, 『가톨릭신문』, 2011년 5월 3일.
- 14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성당』(<http://www.hogye.or.kr/>).
- 15 「수원 최경환 신부 회갑·강론집 봉정」, 『가톨릭신문』, 2009년 6월 25일.
- 16 「매일 위령기도 바치는 수원교구 안양대리구 호계동 본당」, 『가톨릭신문』, 2012년 8월 8일.
- 17 「수원교구 호계동 본당, 지역 복음화 노력 ‘눈길」, 『가톨릭신문』, 2019년 12월 24일.
- 18 「[김수환 추기경 사연 공모전 수상작] 따뜻하고 겸손하신 추기경님을 기억하며」, 『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2월 13일.
- 19 「[문화단신] 안양 호계동서 약혼자 교실 개설」, 『가톨릭신문』, 2011년 5월 10일.
- 20 「호계동 ‘젊은이의 교실’ 개설, 공동체 형성에 한몫」, 『가톨릭신문』, 2011년 5월 27일.
- 21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성당』(<http://www.hogye.or.kr/>).
- 22 앞의 사이트.
- 23 앞의 사이트.
- 24 「호계동성당 후보」, 2024년 11월 17일.
- 25 「호계동성당 후보」, 2024년 10월 6일.



### 집필(가나다순)

김형아 설날 대표  
박홍규 수원도시재단 차장  
백민정 전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송중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윤정인 아주대학교 응용사회학과 박사수료  
이동아 그려보다 대표  
이승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수 인하대학교 강사  
이진희 작가  
조항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  
전은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원

### 기획총괄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 자료정리

설혜영, 김정서

### 편집·교정

백민정

### 어반스케치

서은주, 서향숙, 이강은, 하미경(안양어반스케치회)

## 안양시사 16 호계동

---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25-6

ISBN 979-11-94861-09-6 (세트)









THE HISTORY OF ANYANG CITY



9 787119 248612 >  
ISBN 978-7-119-24861-2 (C)  
ISBN 978-7-119-24861-3 (M)

中国书/序